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제 출 문

부산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의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1년 4월

연구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우 신 구

연구진

책임연구원	우신구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공동연구원	차철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부교수, 문학박사
공동연구원	송혜영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공학박사
공동연구원	정인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계약교수, 공학박사
보조연구원	이봉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수료
보조연구원	전부현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보조연구원	박인아	부산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목 차

01 과업의 개요	1
1. 개요	2
1.1. 과업의 개요	2
1.2. 배경 및 필요성	2
2. 과업의 범위	3
2.1. 공간적 범위	3
2.2. 시간적 범위	4
2.3. 내용적 범위	4
3. 과업의 추진체계 및 경위	4
3.1. 과업추진체계	4
3.2. 과업추진과정	6
02 아미동 비석마을의 형성과 변천	13
1.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	14
1.1. 개요	14
1.2. 조사방법	17
2. 공동묘지 시기 (1906-1950)	19
2.1. 일본인 묘지시기 (1906-1945)	19
2.2. 한국인 묘지시기 (1945-1950)	24
3.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 (1950-1975)	34
3.1. 피란민 임시 주거형성기 (1950-1954)	34
3.2. 도시주거 정착기 (1955-1959)	37
3.3. 주거지 확장기(1960-1975)	39
4.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 (1976-2020)	43
4.1. 주거지 정체기 (1976-2009)	43
4.2. 마을재생기 (2010-2020)	45
5. 형성과정 종합	47
5.1. 공간의 형성과 변천	47
5.2. 경관변화과정	52

6. 핵심유산 발굴	53
6.1. 핵심유산 개요	53
6.2. 핵심유산별 공간특성 및 가치	54
6.2.1. 비석주택터	54
6.2.2. 축대1, 축대2	59
6.2.3. 오오이케 묘지터군	61
6.2.4. 계단식 묘지터군	64
6.2.5. 아기보살집	66
6.2.6. 비석기단집	71
6.2.7. 바람구름전망대	75
6.2.8. 은천교회	79
6.2.9. 총천사 불상 및 용왕당	86
6.3. 핵심유산 발굴 종합	91

03 아미동 비석마을의 생활과 문화 ————— 93

1. 구술조사 개요	94
1.1. 구술자 인적상황	94
1.2. 구술기록 일러두기	94
2. 일본인 공동묘지의 주인공 교체	95
3. 불안정한 경계인의 정착	97
4. 마을 주민의 공동묘지 기억	99
5. 주거시설 만들기	100
6. 마을 공용시설 만들기	108
7. 생활문화	111

04 아미동 비석마을의 가치와 보존방안 ————— 117

1. 비석마을 가치발굴의 기본방향	118
1.1. “피란수도 부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본방향	118
1.2. 비석마을의 가치와 의미	119
2. 비석마을의 보존방안	121
2.1. 비석마을의 구역설정	121
2.2.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향	123
2.3. 관련 법규 및 사례검토	131
2.4. 문화재 신청 및 지원방안	135
3.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향	138
3.1. 기본방향	138
3.2. 계획수립의 방향	139
4. 비석마을의 활용방안	141
4.1.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141
4.2.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역활성화방안	144

05 아미동 비석마을의 기록 및 보존 ————— 145

1. 개요	146
2. 문헌자료	147
2.1. 공문서 및 서적	147
2.2. 근현대지도 및 사진자료	148
2.3. 신문자료	150
3. 구술기록	155
4. 비석탁본	156
4.1. 사전 작업 및 대상 선정	156
4.2. 탁본 작업	156
4.3. 작업 내역 및 해제	157
5. 현장실측	161
5.1. 실측도면자료	161
5.2. 현장기록사진	163
5.3. 현장기록영상	172

표목차

[표-1] 공간적 범위의 구역별 개요	3
[표-2] 과업추진과정	6
[표-3] 착수보고회 의견사항	8
[표-4] 1차 중간보고회 의견사항	9
[표-5] 2차 중간보고회 의견사항	10
[표-6] 전문가 자문보고회 의견사항	11
[표-7] 학술세미나 의견사항	11
[표-8] 최종보고회 의견사항	12
[표-9] 역사적 주요 사건	14
[표-10]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표	16
[표-11] 아미동 인구 통계 (1954-2015)	16
[표-12] 아미동 비석조사 관련 보고서(2014-2019)	26
[표-13] 아미동 비석조사(2020) : 구역별 비석분포 현황	27
[표-14] 아미동 인구변화	39
[표-15] 아미초등학교 주요 연혁	42
[표-16] 아미동 인구변화	43
[표-17] 아미시영아파트 동별 현황	44
[표-18] 핵심유산 개요	53
[표-19] 구술자 인적사항	94
[표-20] 세계유산의 OUV	118
[표-21] 비석마을의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등재기준	119
[표-22] 공간적 범위의 구역별 개요	121
[표-23] 관련 법규 검토	131
[표-24]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 관리계획 현황	133
[표-25] 보존관리 관련 지원사업	135
[표-26] 기록 및 보존자료 개요	146
[표-27] 공문서 및 서적 목록	147
[표-28] 근현대지도자료 목록	148
[표-29] 근현대사진자료 목록	149
[표-30] 신문자료 목록(1)	150
[표-31] 신문자료 목록(2)	151
[표-32] 신문자료 목록(3)	152
[표-33] 신문자료 목록(4)	153
[표-34] 신문자료 목록(5)	154
[표-35] 구술자료 목록	155
[표-36] 탁본 작업일정	156
[표-37] 비석탁본자료 목록	157
[표-38] 실측도면자료 목록(1)	161
[표-39] 실측도면자료 목록(2)	162
[표-40] 현장기록사진(1)	163
[표-41] 현장기록사진(2)	164
[표-42] 현장기록사진(3)	165
[표-43] 현장기록사진(4)	166
[표-44] 현장기록사진(5)	167
[표-45] 현장기록사진(6)	168
[표-46] 현장기록사진(7)	169
[표-47] 현장기록사진(8)	170
[표-48] 현장기록사진(9)	171
[표-49] 현장기록영상 목록	172

그림목차

[그림-1] 아미동 비석마을 전경	2
[그림-2] 과업의 공간적 범위	3
[그림-3] 전문분야별 과업내용 재구조화	4
[그림-4] 과업의 추진체계 및 목표	5
[그림-5] 보고회의의 진행	6
[그림-6] 학술세미나 및 시민강연회 진행	7
[그림-7]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	15
[그림-8]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1914) 중 수기로 작성된 아미동 옛 지도	17
[그림-9]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외무성 공문서 중 북병산 묘지 옛 지도	17
[그림-10] 아미동 일원 시설 상황을 보여주는 서적 내용	17
[그림-11] 공간변화추정 지도 활용방법	18
[그림-12] 아미동 근현대 지도수집자료 목록	18
[그림-13] 일본인 묘지시기의 주요시설의 형성	19
[그림-14] 북병산 공동묘지 위치와 구획 획정 관련 일본 외무성 공문서	20
[그림-15] 북병산 공동묘지 내 일본 해군 및 육군 묘지 관련 일본외무성 공문서	21
[그림-16] 아미동 공동묘지 내 일본 해군 및 육군 묘지 관련 문서	21
[그림-17] 1900년대 북병산 공동묘지 모습	21
[그림-18] 부산 육군묘지 이장에 관한 건	22
[그림-19] 북병산 모습 (위 1897년, 아래 1904년)	22
[그림-20] 북병산 일본육군 묘지 배치(1889년)	22
[그림-21] 부영화장장	23
[그림-22] 아미동 재장(齎場)	23
[그림-23] 1909년 아미동 총천사	23
[그림-24] 1936년 무렵 화장장 및 재장 인근 현황	23
[그림-25] 일본 세화회 부산 지회 모습	24
[그림-26] 1945.10.12 부산역 역사 안 귀국을 기다리는 일본인 인양자들	24
[그림-27] 한국인 묘지시기의 주요시설 형성	24
[그림-28] 1954년 부산사범병설중학교 졸업앨범 중 옛 총천사의 교과사 사용 모습	25
[그림-29] 항공사진을 통해 본 총천사 부지의 변화(국토정보플랫폼 제공)	25
[그림-30] 아미동 비석조사(2020)	26
[그림-31] 주요 비석 탁본 지점위치도	28
[그림-32] 비석 탁본 결과	28
[그림-33] 비석 탁본 작업사진(2020.10.)	28
[그림-34] 묘비 속 일본인 고국무좌위문)의 탁본과 일본외무성 공문서(1874)를 통해 본 기록	29
[그림-35]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궁도금조태랑(宮島今朝太郎)에 대한 행적	29
[그림-36]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농고의작(瀧尻儀作)에 대한 행적	30
[그림-37]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강용일(岡庸一)의 행적	30
[그림-38]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하원희평(河元喜平)의 행적	30
[그림-39]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아부평송(阿部平松) 행적	31
[그림-40]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고교충시(高橋忠市) 행적	31
[그림-41]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조대이조(助代伊助) 행적	32
[그림-42]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천정각차(川井角次) 행적	32
[그림-43]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협전실랑(脇田實郎) 행적	32
[그림-44]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중촌등칠(中村藤七) 행적	33
[그림-45]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산본매시(山本梅市) 행적	33
[그림-46]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천본영일(川本榮一) 행적	33

[그림-47] 피란민 임시 주거 형성기의 주요시설 형성	34
[그림-48] 피난민 임시주거 '아미동 비석주택'	35
[그림-49] 1950년대 그리스도 구원선 한삼복 권사	35
[그림-50] 은천교회 한명리(우), 송진천(좌) 장로 부부	35
[그림-51] 한국전쟁기 피난민의 이동과 임시수용소 및 임시주거 모습	35
[그림-52] 행복산보육원 간판	36
[그림-53] 1951년 6월 11일 행복산 보육원	36
[그림-54] 1952년 무렵 행복산보육원 귀빈 방문	36
[그림-55] 1951년 행복산보육원 내 부산무료소아과 병원 계단을 오르는 아이	36
[그림-56] 도시주거 정착기의 주요시설 형성	37
[그림-57] 부산항 물품 하역	38
[그림-58] 전후 주택 건설	38
[그림-59] 1955년경 은천교회 공사	38
[그림-60] 은천교회 현재 모습	38
[그림-61] 1950년대 태극도 마을 조성 중	38
[그림-62] 1950년대 추정 아미동 판자집	38
[그림-63] 주거지 확장기의 주요시설 형성	39
[그림-64] 화장장 굴뚝이 보이는 까치고개로 일대 판자촌	40
[그림-65] 1960년대 추정-현 송이덕이경로당 맞은편	40
[그림-66] 1970년대 은천교회가 보이는 까치고개로 (서구청)	40
[그림-67] 1973년 현 산상교회 앞 아미로 비포장도로 모습	40
[그림-68]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1972년 아미동 도로 개설	40
[그림-69] 1965.05.05.오지리 부인회 중앙본당 방문	41
[그림-70] 1960년대 아미성당의 지역 활동	41
[그림-71] 아미성당	41
[그림-72] 천주교 아미성당의 아미동 자선사업	41
[그림-73] 1968.03.05. 아미초등학교 입학식	42
[그림-74] 1976년 아미초등학교 교내 모습	42
[그림-75] 1960년대 후반 아미로 미화당 슈퍼 인근	42
[그림-76] 주거지 정체기의 주요시설 형성	43
[그림-77] 천주교 아파트	44
[그림-78] 1990년 아미로 산상교회 앞	44
[그림-79] 2008년 아미동 항공사진	44
[그림-80] 2019년 아미동 항공사진	44
[그림-81] 마을재생기 주요시설의 형성	45
[그림-82] 기차집예술체험장	46
[그림-83] 아미문화학습관	46
[그림-84] 비석마을 골목발래방	46
[그림-85] 비석주택 앞 문화해설	46
[그림-86] 아미동 '돌집' 조성 전후	46
[그림-87] 아미초등학교 개축 전 (2008)	46
[그림-88] 아미초등학교 개축 후 (2010)	46
[그림-89] 교사 전면에 위치하였던 충천사 불상	46
[그림-90] 개축 후 교사 후면의 충천사 불상	46
[그림-91] 공간형성과정 종합	47
[그림-92] 주요시설의 형성과 변천	49
[그림-93] 주거 변천 및 묘지주택 변천 추정도	50
[그림-94] '비석주택터'를 바탕으로 한 묘지 및 주택군집 변화과정 추정	51
[그림-95] 비석마을의 경관변화	52

[그림-96] 핵심유산의 위치	53
[그림-97] '비석주택터' 위치도	54
[그림-98] 상부 건축물 유구 "비석주택" 평면 및 측면도	55
[그림-99] 비석주택 현황	56
[그림-100] '비석주택터' 주변 비석 현황 (비석조사2020)	56
[그림-101] 비석주택터 필지 내 건축물 현황 상세	57
[그림-102] '비석주택터' 실측 도면 3D 모델링	57
[그림-103] '축대1, 축대2' 위치도	59
[그림-104] '축대1, 축대2'의 역사적 근거 및 현황	60
[그림-105] '오오이케 묘지터군' 위치도	61
[그림-106] '오오이케 묘지터'의 역사적 근거	62
[그림-107] '오오이케 묘지터'의 현황	62
[그림-108] '계단식 묘지터군' 위치도	64
[그림-109] '계단식 묘지터군'의 역사적 근거	65
[그림-110] '계단식 묘지터군'의 현황	65
[그림-111] 아기보살집 간판	66
[그림-112] 아기보살집 현관입구 비석	66
[그림-113] '아기보살집' 위치도	66
[그림-114] '아기보살집' 입지형상 및 3D 상세	67
[그림-115] 아기보살집 실측도면	68
[그림-116] 아기보살집 실측도면2	69
[그림-117] 아기보살집 현황사진	70
[그림-118] 비석기단집 입지 상세	71
[그림-119] '비석기단집' 위치도	71
[그림-120] '비석기단집' 입지형상 및 3D 상세	72
[그림-121] 비석기단집 실측도면	73
[그림-122] 비석기단집 현황사진	74
[그림-123] '바람구름전망대' 위치도	75
[그림-124] '바람구름전망대' 입지형상 및 3D 상세	76
[그림-125] 바람구름전망대 실측도면	77
[그림-126] 바람구름전망대 현황사진	78
[그림-127] '은천교회' 위치도	79
[그림-128] 부산의 1950년대 석조건축물 현황	80
[그림-129] 은천교회 옛 사진(은천교회 소장)	81
[그림-130] 은천교회 실측도면1	82
[그림-131] 은천교회 실측도면2	83
[그림-132] 은천교회 현황사진1	84
[그림-133] 은천교회 현황사진2	85
[그림-134] '총천사, 용왕당' 위치도	86
[그림-135] 총천사 불상 현재 입지	87
[그림-136] 총천사 부지 추정	87
[그림-137] 총천사 불상 현황	88
[그림-138] 총천사 불상관련 옛 사진	88
[그림-139] 일본 조동종 총천사 비문	89
[그림-140] 용왕당 불상	90
[그림-141] 용왕당 현황	90
[그림-142] 핵심유산의 시기적 특성 종합	91
[그림-143] 아미동 핵심유산 종합	92
[그림-144] 하자마 장례식 광경(부산일보 1942.09.20.)	95
[그림-145] 하자마 연표에 기재된 무덤 위치	95

[그림-146] 일본인 위령제(1)(『博多港引揚』, 2011, 46쪽)	96
[그림-147] 일본인 위령제(2)(『博多港引揚』, 2011, 47쪽)	96
[그림-148] 이상묵씨 자택 앞	98
[그림-149] 아미동 사랑방(우측 송필순, 좌측 박성자)	98
[그림-150] 2.8경로당 회원	98
[그림-151] 김말순씨 어린시절 자택 앞	98
[그림-152] 잉바르 스벤손이 촬영한 한국전쟁 중의 아미동 모습	103
[그림-153] 한국전쟁 중 일본인 무덤에 지어진 주택	103
[그림-154] 슬레이트 블록집의 변형	105
[그림-155] 슬레이트 블록집	105
[그림-156] 천막을 씌운 슬레이트 블록집	105
[그림-157] 슬레이트 블록집	105
[그림-158] 테라스형 주거공간	108
[그림-159] 비좁은 골목길	108
[그림-160] 아미동 사랑방 부근 공용공간	108
[그림-161] 주택 철거 후 조성된 공용공간	108
[그림-162] 용왕당	114
[그림-163] 용왕당 샘	114
[그림-164] 용왕당에서 산신에 제 올리는 모습	114
[그림-165] 용왕당 오르는 길	114
[그림-166] 등재기준 (V) 를 가진 세계유산 사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120
[그림-167] 구역별 비석 현황	122
[그림-168] 지리적 현황	123
[그림-169] 아미산에서 천마산방향으로 바라본 비석마을 항공사진	123
[그림-170] 비석마을 전경	123
[그림-171] 완충구역 내 토지현황	124
[그림-172] 완충구역 내 건축물 현황	125
[그림-173] 관련 계획 및 진행중인 사업	126
[그림-174]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사업 조성건물	126
[그림-175] 관련 사업 추진현황	127
[그림-176] 구역계 변경의 대안	128
[그림-177] [대안1] 완충구역 내 토지현황	129
[그림-178] 완충구역 내 건축물 현황	130
[그림-179]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사례 : 감천문화마을	132
[그림-180] 지구단위계획 및 문화지구관리계획 사례 : 인천	133
[그림-181]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목포	133
[그림-182]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군산	134
[그림-183]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영주	134
[그림-184]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통영	134
[그림-185]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절차	135
[그림-186] 비석주택터 문화재 신청지원 추진내역	136
[그림-187] 은천교회 문화재 신청지원 추진내역	136
[그림-188] 오오이케 묘지 터	137
[그림-189] 충천사 석조관음보살좌상	137
[그림-19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및 계획 포함 사항	138
[그림-191] 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향	139
[그림-192] 장수마을 사례	141
[그림-193] 전국 각 지역별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한 공모	142
[그림-194] 서울시 시행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와 집수리센터 안내	143
[그림-195]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144

01

과업의 개요

1. 과업개요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추진체계 및 경위

01 과업의 개요

1. 개요

1.1. 과업의 개요

- 용역명 :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 과업기간 : 2020.05.04 - 2021.04.28. (12개월)
- 수행기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2. 배경 및 필요성

■ 피란민 주거지의 역사적 자산의 보존 필요성

- 아미동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묘지로 조성되었으나, 한국전쟁 이후 피란민의 정착지, 도시노동자와 철거민 등의 주거지역으로 변모하여, 민족적 애환과 피란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주거·생활사적 가치가 큰 지역 자산임

■ 비석마을의 주거 및 생활사 조사 및 역사문화자산의 보존 필요성

- 비석마을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유희공간의 발생 등 쇠퇴현상이 심화되고있으며, 피란민 주거생활사의 유산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한 실정임
- 피란수도 부산의 피란주거지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주거생활사의 기록 및 보존,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관리가 필요

■ 비석마을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의 규명

- 비석마을 분묘시설물의 정밀 학술조사와 역사적·학술적 가치 규명과 역사문화자원을 조사하여 문화재 지정 등 장기적인 보존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
- 학술연구 및 조사를 통한 “피란수도 부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증명



[그림-1] 아미동 비석마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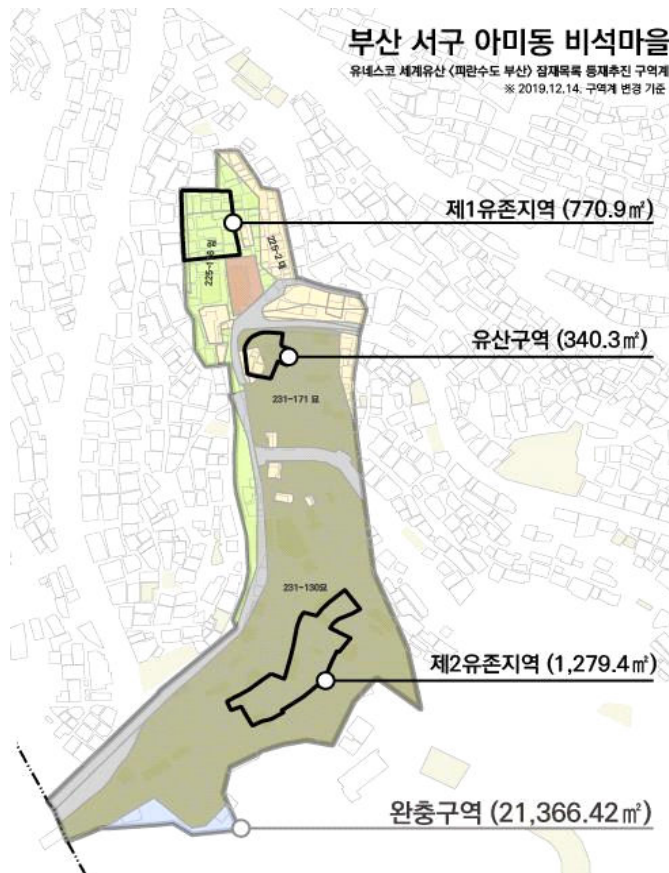
2. 과업의 범위

2.1. 공간적 범위

- 대상지명 : 아미동 비석마을 ※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의 명칭 :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
- 위 치 :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31-178번지 외 비석마을 일원
- 면 적 : 완충구역 면적기준 21,366㎡

[표-1] 공간적 범위의 구역별 개요

구역명	면적 (㎡)	비고
제1유존지역	770.9	오오이케 가문 추정 묘지군
유산구역	340.3	비석주택 문화재 구역
제2유존지역	1,279.4	1953년 사진추정 피란민 주거밀집 지역
완충구역	21,366.4	일제강점기 일본인 묘지 추정구역의 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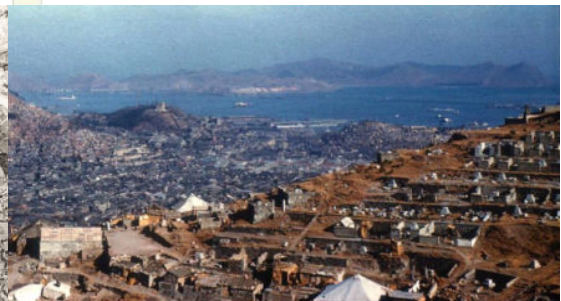
[제1유존지역] 1936년 지도



[유산구역] 아미동 비석주택



[완충구역] 1945년 해방직후 항공사진



[제2유존지역] 1953년 겨울 아미동

[그림-2] 과업의 공간적 범위

[참고]

‘공간적 범위’ 변경사항

- 위 구역계는 ‘부산광역시(2020)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플랜》의 개별 유산인 ‘아미동 비석 피란주거지’의 구역계를 근거로 함
- 본 과업은 당초 위 구역계를 근거로 과업의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나, 과업기간 중 예기치 않은 개발 상황으로 인해 완충구역의 일부를 제외하게 되었으며 공간적 범위를 재설정
- 아미동 비석마을의 조사는 위의 완충구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하되, 보존관리 및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설정에 적용되는 구역계를 재설정하였음
- 변경된 공간적 범위의 내용은 “04 비석마을의 가치와 보존방안”을 참조할 것

2.2. 시간적 범위

- 자료조사의 시간 범위 : 일제강점기 ~ 2021년 현재
- 과업수행의 시간 범위 : 2020.05.04 - 2021.04.28. (12개월)

2.3. 내용적 범위

- 학술조사를 통한 문화유산 가치 발굴
-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 문화재 신청을 위한 자료조사 및 지원
- 사업추진 분야별 자문위원 검토 및 학술세미나 개최
- 기록 및 보존

3. 과업의 추진체계 및 경위

3.1. 과업추진체계

3.1.1. 전문분야별 과업 내용 재구성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역사학’, ‘건축역사’, ‘근대건축·도시건축’의 3개의 전문분야별 과업내용으로 재구조화하여 과업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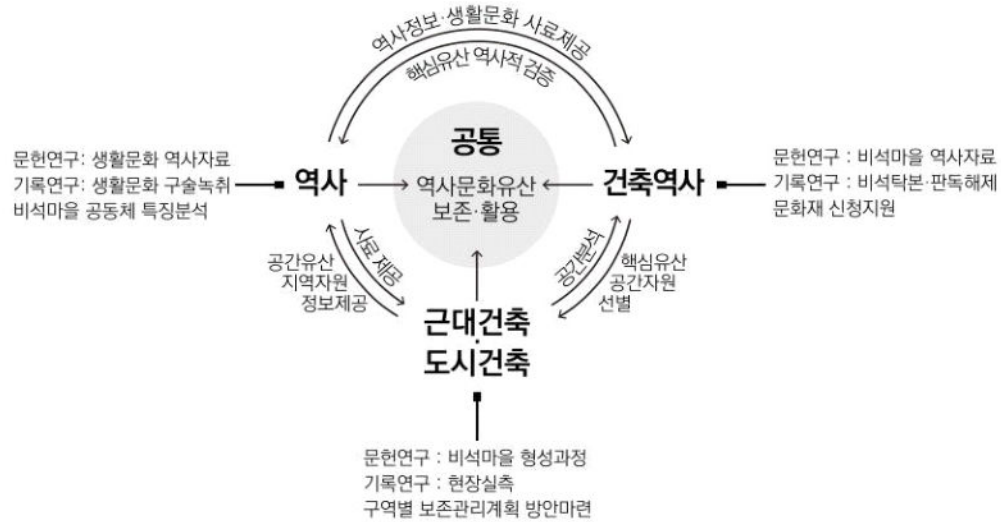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전문분야별 과업내용 재구조화
1.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및 문화유산 가치 발굴 아미동 비석마을 주제로 한 역사문화조사 · 비석조사 / · 민속·종교 조사 / · 건축현황 조사 · 문헌조사, 현지조사, 실측조사를 통한 문화유산으로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발굴	역사학 1. 문헌연구: 생활문화 역사자료 조사 · 일본인 묘지·비석마을 조성 관련 사료 · 고지도·근현대지도 등 역사지리학적 분석 · 주거생활사, 마을조성 관련 인구·주택 통계 자료, 사진 및 언론자료 수집 및 분석 2. 기록연구: 생활문화 기술노취 · 민속, 종교(불상, 위령탑), 주민생활(언어, 일상, 생애, 의례, 생활용품) 등 생활문화방식 변화조사 · 마을 출신 주요인물 조사(업적, 역할) · 비석마을의 특징 및 공동체적 성격 분석
2. 역사문화자원 보존과 활용방안 연구 · 핵심유산구역(기 조사지역 제외) 및 완충구역 설정 등 보존관리계획 수립 ·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 방안 제시 ·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자료조사 · 아미동 비석마을 활용 스토리텔링 자료수집 및 정리	건축역사 1. 문헌연구: 비석마을 역사자료 조사 · 일본인 묘지·비석마을 조성 관련 사료 2. 기록연구: 비석조사 · 분묘시설물 유형별 현황조사 · 비석 탁본·판독조사 및 판독해제 3. 문화재 신청지원·보존관리/활용방안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자료지원 · 핵심유산(주요 건축유산)의 선정 및 문화재 신청지원
3. 문화재 신청을 위한 자료조사 및 지원 · 문화재보호법 제53조./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문화재 등록에 필요한 자료 지원 · 핵심유산(주요 건축유산)의 선정 및 문화재 신청 지원	근대건축·도시건축 1. 문헌연구 및 GIS분석 · 비석마을의 공간 및 경관 형성과정 및 특징분석 등 변화상 조사 · 비석마을의 건축현황 GIS분석 2. 기록연구: 주요건축물 현장실측 · 주요 비석주택(건조물) 연혁, 공간특징 및 구조 분석 및 실측도면화 3. 보존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 핵심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의 설정 등 보존관리계획 수립방향 설정 ·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구역 범위 제안 · 문화유산 보존관리방안 및 보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검토
4. 사업추진 분야별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및 학술세미나 개최 · 현지조사, 조사결과 정리와 건축 등 분야별 자문위원(전문가) 자문 · 학술세미나 1회 개최	[공통부문] 기록 및 보존 : 고지도, 사진, 영상, 기술노취, 실측도면, 문헌자료 DB화 활용방안 연구 : 주민의견 수렴 생활문화 및 역사문화자원 활용방안 제시 자문 및 세미나 : 분야별 전문가 자문 및 학술세미나 개최
5. 기록 및 보존 · 마을경관과 건조물 현황, 주민생활 (언어, 일상모습, 생애사) 등 사진/영상 촬영 · 분묘시설물, 비석의 건축자재 활용 등 촬영 · 모든 수집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공개될 수 있도록 목록 및 내용정리	

[그림-3] 전문분야별 과업내용 재구조화

3.1.2. 전문분야별 연구조직의 체계

- 과업내용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참여연구원의 전문분야별 조직을 구성
- 역사, 건축역사, 근대건축·도시건축 3개 전문분야는 개별적으로 전문분야 연구에 집중하면서 비석마을의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이라는 공통의 과업수행을 위해 상호 협업체계의 조직을 구성

과업추진체계



과업의 목표

1 역사적 근거와 생활사를 기반으로 한 비석마을의 문화유산 가치발굴	2 현장실측·기술노취 등 현지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유무형 자산의 DB구축	3 지역 공존·지속가능한 비석마을을 위한 역사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근현대지도, 신문자료, 학술문헌, 국가 기록원 등 신뢰도 높은 역사자료를 기반으로 한 문헌연구 ▪ 언어, 생애, 인물, 일상 등 주민생활상을 반영한 비석마을의 역사문화유산 및 공동체적 가치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실측 및 도면화와 탁본, 기술노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와 기록연구 ▪ 문헌연구와 현지조사의 상호 검증체계를 통해 실증적인 역사문화유산 발굴 ▪ 유무형 자산 특성에 맞는 유형별 체계적인 DB구축 및 아카이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의견수렴을 통한 주민참여형 보존관리·활용방안 제안 ▪ 쇠퇴지역의 활성화 및 기초진 재생사업과 연계성을 고려한 보존계획 방안제시 ▪ 유산구역, 유존지역, 완충구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 관리방안 마련

[그림-4] 과업의 추진체계 및 목표

3.2. 과업추진과정

3.2.1. 개요

- 본 과업은 착수, 중간1차, 중간2차, 전문가 자문, 최종 보고회의 총 5번의 보고회의와 학술세미나 및 시민강연회 2건을 진행

[표-2] 과업추진과정

no.	일정	회의명	장소	자문위원
1	2020.06.02	착수보고회	부산시청 19층 회의실	안영천 (서구청 문화관광과장), 유재우 (부산대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전성현 (동아대 교수), 최연주 (동의대 교수)
2	2020.09.18	1차 중간보고회	부산시청 시의회 2층 중회의실	안영천 (서구청 문화관광과장), 유재우 (부산대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전성현 (동아대 교수), 최연주(동의대 교수), 김경희(부산과기대 교수), 오재환(부산연구원 연구위원)
3	2020.12.15	2차 중간보고회	(방역지침에 따른 서면보고 대체)	오재환(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우 (부산대 교수), 전성현 (동아대 교수), 최연주(동의대 교수),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하유식 (대성동고분박물관)
4	2021.02.23	전문가 자문보고회	부산연구원	김홍기 (동명대 교수),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전성현 (동아대 교수), 강동진 (경성대 교수, 서면자문)
5	2021.02.25	학술세미나	온라인 줌 비대면 회의	황순우(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 이재용 (싸이트플래닝 본부장), 오재환(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한필원(한남대학교 교수), 하병업 (부산근대역사관 관장)
6	2021.03.17	시민강연회	온라인 줌 비대면 회의	-
7	2021.03.24	최종보고회	부산시청 12층 소회의실2	강동진 (경성대 교수),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최연주 (동의대 교 수), 전성현 (동아대 교수), 장석주 (서구청 사업시설단장), 홍미화(서구청 문화예술계장)한명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서면 자문), 유재우 (부산대 교 수, 서면 자문)

	2020 5월 1개월	6월 2개월	7월 3개월	8월 4개월	9월 5개월	10월 6개월	11월 7개월	12월 8개월	2021 1월 9개월	2월 10개월	3월 11개월	4월 12개월	
주요일정	'20.05.04 과업시작	'20.06.02 착수보고회			'20.09.18 1차 중간보고회			'20.12.15 2차 중간보고회		'21.02.23 전문가 자문보고회	'21.03.17 시민강연회	'21.04.28. 과업종료 예정	
역사학	문헌연구	생활문화·역사자료 조사 : 주거생활사, 마을조성·관련 고문서 및 옛 신문					기록연구	구술조사 : 구술자 섭외/인터뷰/ 녹취 및 분석 / 비석마을 공동체적 성격 분석					
건축역사	문헌연구	근현대 지도자료 수집/일본인 묘지 관련 문헌수집											
		기록연구[2020 비석자료 업데이트]				주요 비석 탁본 및 해제 / 비석 속 인물발굴							
근대건축 도시건축	문헌연구/GIS분석	비석마을 형성과정/경관변화/GIS분석						보존관리방안		지구단위계획 수립방향 보존관리방안			
		기록연구						주요건축물 핵심유산 발굴 / 실측 및 도면화 / 공간특성분석					
공통	문화재신청지원 / 활용방안 연구							주민의견수렴/생활문화 및 역사자원 활용방안					
								기록 및 보존		DB구축 아카이브 / 보고서 작성			



[그림-5] 보고회의의 진행

2021.02.25 학술세미나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학술세미나]
“역사를 면으로 지킨다”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의 사례와 질문
 2021년 2월25일.목.14:00-16:00
 사진신청 QR

온라인 zoom의 진행 / 사진신청 접수 (네이버폼에 이메일 주소 기입~2/24)

발표1.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황순우 건축사사무소바인 대표

발표2.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 서촌, 남촌, 감천을 중심으로
 이재용 싸이트플래닝 본부장

토론
 아미동 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우신구 부산대학교 교수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하병엄 부산근대역사관 관장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발표1. 건축자산의 보존과 활용 : 인천 개항장을 중심으로
 황순우 (건축사사무소 바인 대표)

발표2.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 서촌, 남촌, 감천을 중심으로
 이재용 (싸이트플래닝 본부장)

종합토론

우신구 (부산대 교수) / 오재환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한필원 (한남대학교 교수) / 하병엄 (부산근대역사관 관장)
 한영숙 (싸이트플래닝 대표) / 황영식 (싸이트플래닝 실장)

2021.03.17. 시민강연회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시민강연회]
“아미동 비석마을의 ”
생활문화와 구술기록
 2021년 3월17일.수.14:00-16:00
 사진신청 QR

온라인 zoom의 진행 / 사진신청 접수 (네이버폼에 이메일 주소 기입 ~3/16)

강연1. 한국전쟁기 아미동 이주민의 정착과 생활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강연2. 비석 속 옛 사람들과 피란민 비석주택
 송혜영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종합 질의응답 및 토론

부산대학교
 PUSAN NATIONAL UNIVERSITY



발표1. 한국전쟁기 아미동 이주민의 정착과 생활
 차철욱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교수)

발표2. 비석 속 옛 사람들과 피란민 비석주택
 송혜영 (부산대 생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질의응답 및 토론



[그림-6] 학술세미나 및 시민강연회 진행

3.2.2. 의견반영사항

1) 착수보고회 (2020.06.02.)

[표-3] 착수보고회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수보고자료_P.18] 추가지원 필요사항 중 아카이빙 자료 전담기관 관련하여, 국회도서관 부산분관 및 근현대역사박물관(2022년) 설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아카이빙 지원기관으로 연계가 가능, 연구기간 중 전담 기구를 설립에 어려움이 있음 ·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재 보존문제에 대한 이해 상충의 문제가 있으며, (강서구 대저수리조합 건물 및 남구 소막마을 재개발 사례)와 같은 보존방안 제시 필요 	반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 부산창조문화재단 아미동 비석마을 조사를 계기로 비석 72점의 탁본을 실시하였으나 이후 일부 소 실되었음을 확인함. 비석 유실에 관한 고려 필요 · 현장 비석조사 시 구역별 주민 성향에 차이가 있으며, 현장조사 시 참고 바라며, (산성교회 주변 우호적, 고지대 주민 비우호적 성향) 주택 내부 비석 등 광범위한 조사 필요 	반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암마을 과제와 협업이 필요하며, 유네스코/문화재청/재생주관 기관과의 관점이 다르므로 문화재 보존을 위한 관련 기관의 협의 필요 · 보존방식에 따라 비석주택의 복원방식 (건축공법, 창호, 자재 등)이 달라질 것이므로 보존방식에 대한 비전 방안제시 필요 · 문화재 등재를 위한 “시점”(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피란시기 등) 설정 필요 · 판자촌의 조사 및 전시 활용을 위해 매매 등의 고려 요망 ·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혜택 고려와 토탈디자인의 방향성 제시 필요 	일부 반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암동 사례와 같이 보존관리계획의 어려움이 있으며, 보존을 위한 가치·철학의 목표 정립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건축물을 타게팅 고려 요망 · 보존 건축물의 매입에 관한 목표치를 설정하여, 가치 높은 주택 구매를 통한 보존 필요 ·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SOC와 연계 역사문화 개념의 공원화 등의 사업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주민 이주 대책 등 보존관리 및 매입 전략 필요. · 보존관리계획에 있어 부산시에서 보존관리 대상을 지정하여, 예산확보 필요 · 생활자료DB를 활용한 디지털 전시 및 스토리텔링 활용의 가능성이 있음 	일부반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 가치의 관점(창건/중건 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가치에 차이가 있음. 비석마을은 활용에 방점이 있으나, 원형에 대한 가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원형을 활용한 정체성 고민 필요 · 용역 비용에 비해, 현재 과업 내용이 과한 부분이 있으며, 피란수도의 포커스에 맞추어 내용 축소 및 집중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구술조사 중 ‘생활’부분 방대함) · 보존지구 설정과 관련하여 명확한 목표설정이 필요. 세계유산은 목표로 하는 현재의 지구 경계는 매입 또는 공공의 보존에서 하기보다 주민과의 관계 고려 및 보존계획에 대한 명확한 목표제시 요망 · 아카이빙 전담기관과 관련하여 최근 경상남도도 독립된 아카이빙 기관을 설립. 현재 부산시 내 용역조사 결과물이 관리되고 있지 않으며, 국회도서관은 분관으로써의 기능이므로, 부산의 근현대 역사자료의 대표적 기관으로는 부족함 	일부반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역별로 유산 발굴시, 발굴지점의 네트워크 고려가 필요하며, 과업의 공간 범위에 한정되지 않고 과업을 진행하길 바람 	반영

2) 1차 중간보고회 (2020.09.18.)

[표-4] 1차 중간보고회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마을은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시대의 유산이 적층되어 있어, 유산의 시기 설정과 문화재 가치에 대한 고려 필요하며, 붕괴 중인 비석주택 보존방안 시급함 · 은천교회의 경우, 부산대 박물관과 제주도, 강원도 등의 석조건축물과 유사하며, 일본 묘지와 관련된 논문 등을 참고하여, 동시대에 나타난 연관성 있는 건물 등을 참조 · 비석 속 인물 조사의 경우 개별 인물이 아닌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며, 구술기록 및 후쿠오카 자료조사 등 문헌조사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핵심유산을 문화재로 신청할 때 세부적인 돌 실측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실측 발주 필요 · 현재 개발상황과 관련하여, 사업지에 인접한 구역에는 완충시설의 고려가 필요 	일부 반영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묘지 형성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시기 설정이 방대하며, 피란'생활상'을 통해 피란유산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피란시기의 자료를 발굴하여 생활상과 연결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함 · 은천교회의 경우, 현재 설정된 완충구역 바깥에 존재하므로 유네스코 피란등재유산으로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함 · 피란시기에 관한 역사적 자료 보충이 필요하며, 피란시기 비석마을은 묘지로 사용했다는 부산일보 기사가 있으며, 당시 지역이 어떠한 용도로 이용되었는지 검증 필요 · 보존방안에 있어 생활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정립될 때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보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생활상의 연결성을 통해 설득력 있는 근거발굴 필요 	반영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마을 형성과정의 6개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 피란 수도와의 연관성에 관한 고민 필요 · 은천교회의 경우, 범일동 서광교회와 외형적으로 유사하며 연구에 참조 바람 	반영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연구팀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잘 어우러진 최적의 팀이라 판단되나, 피란유산에 관한 역사철학, 의미 등 '가치연구'가 추가 요망, 관련 외부전문가가 고려 · 각 형성 시기에 따른 공간과 구술자료, 문헌 자료의 상호 연결이 필요하며, 공간 범위를 한정 짓지 말고, 주변부에 대한 고려 필요 · 문화재 등재에 있어, 아미동의 유산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이 있을 듯하며, 마을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가 우선 정립되어야, 보존방안이 정립될 듯 함 	반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천은 마을 자체에 대한 보존계획이지만, 비석마을은 마을과 유산이 공존하며, 개발상황이 놓여있어 복잡한 상황이며, 주변 권역부까지 포함해서 보존관리계획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천마산 모노레일 주차장 부지 영향과 그 주변부가 공원일몰제 해제지역이므로 관광자원 및 민간사업자 유입이 예상되므로 유산 보존에 관한 갈등이 예상되며, 구역포함에 고려 필요 · 시기 구분의 '마을쇠퇴기(1990~2020)'는 시민 참여의 대안적 도시재생방안 모색했던 2010년을 분기점으로 보고 시기 구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마을과 유산을 함께 고려한 사례 중 경희궁 내 사적2구역과 비석마을과 유사, 참고 요망 · 본 학술용역과 별도로 선별된 핵심유산의 부지 매입과 관리방안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발주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반영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존과 개발의 공존이 구청의 방향이며, 주민과의 논의 및 이해과정 필요 · 은천교회의 경우 진입도로 조성에 따른 보존에 대해 서구청 지원에 한계가 있으며, 현재 대안에 없는 상황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사례에도 있듯이 역사적인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면, 은천교회의 도로계획에 선화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지역의 역사적 유산을 지켜야 하기 위해 부산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가치로 판단되므로, 이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고베의 사례와 같이 유산 보존을 위해 불편한 시가지를 유지하는 것처럼, 유산을 위해 불편을 감수한다면 유산의 중요성을 논하는데 강한 설득력을 얻을 것이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는 계획을 수정하는 등 보존을 고려한 개발 필요 	-

3) 2차 중간보고회 (2020.12.15.) (※ 서면보고 대체)

[표-5] 2차 중간보고회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 피란수도 용역(마스터플랜)의 보존관리 방안 참고, 그에 준하는 방안 마련	반영
2	·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참고하여 50년대 건축된 주택 확인하여 핵심유산 발굴 요망 · 장소적 가치 있으나 문화재적 가치가 적은 유산과 관련하여 창원, 영주, 등의 사례 참고요망	일부 반영
3	· 기존의 선면단위지구 계획에 핵심 유산에 총천사 불상, 용왕당 등 포함.	반영
4	· 문화재 등록(후보4_오오이케 묘지터) 확대 필요. 보존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철저.	반영
5	· 비석의 기술적/행정적 수습 및 보존 방안 제시.	반영
6	· 아미동의 주거 특성상 '유산경계구역' 혹은 '연접구역'이라는 관리개념 필요. 핵심유산과 연접부의 관리방안 제시.	반영
7	· 유산구역 내의 생활문화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건축자산'의 개념 적용 제안. (부산시의 경우 조례 개정 필요)	-
8	· 지적정리(추가 용역비 확보) 이후 보존관리 계획 필요.	-
9	· 시기별 주요 인물들을 중심, 마을의 변화 내용 및 주변과의 관계 조사 필요.	반영
10	· 천마산 모노레일, 행복주택 등 외부 사업으로 인한 경관 변화 및 주민 의견 청취 필요.	미반영
11	· 모든 신문자료 검색, 추가 문헌(잡지, 문학 자료 등) 및 구술자 확보.	일부 반영
12	· 생활문화 자료, 구술기록의 자료화 및 구체화가 도시건축 및 공간 변화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이고 풍부한 내용 확보 필요	반영
13	· 최근 10년 이내 전입한 주민 인터뷰 - 공동체적 성격변화와 이해를 위한 조사 필요.	미반영
14	· 외부로부터의 변화요인 및 주민의 인식변화 분석 필요. - 2000년 초 감천 문화마을의 변화로 인한 비석마을 주민의 인식 변화. / 2010년 산복도로 천마산로 개통 및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실시 이후 마을 주민의 인식 변화.	미반영
15	· 발굴 인물들의 부산 내 위치, 인물과 비석마을과의 연관성 분석 정리.	반영
16	· 건축역사팀의 역할 조정 필요. 역사학과 내용 중복됨 · 역사학은 피란민 마을과 생활문화에 집중 필요 · 건축역사 - 문화재 신청, 보존관리 방안에 집중	반영
17	· 사업팀 내 각 분야간 유기적 결합, 집중 미비 · 조사의 축적과 자산발굴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분산적	반영
18	· 부정적 의미로 인식되는 명칭 수정 필요. (ex : 공동묘지 시기 → 주거지 미형성기) · 세분류에서도 [묘지 형성 및 유지기 정도로 하고, 3. 피란주거지 형성기, 4.도시 강제이주기, 5. 산업화 유입기, 6. 인구감소기, 7. 마을재생사업기]로 제안	일부 반영
19	· 인구 변화(1975년)와 비석마을의 공간구조 변화의 연관성 조사	반영
20	· 공간의 변화와 확장 등이 포함된 의미 해석 필요	반영
21	· 각 시기별 변화에 핵심 유산의 사진, 상징이 되는 건축물 등을 제시.	반영

4) 전문가 자문보고회 (2021.02.23.)

[표-6] 전문가 자문보고회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피란수도유산 마스터플랜에서는 건축자산 진흥구역에 의한 지구단위관리계획을 제안, 연구진이 제시한 선, 면단위문화재 및 지구단위계획을 이용한 보존방안과 방향이 달라 논의 필요	(논의사항)
2	임시 주거 형성기의 천막 주택 형태 재현 필요. 천막 주거의 변천 과정, 공동묘지가 주거지로 활용되는 생활상의 표현 필요	반영
3	은천교회의 건축적 의미 뿐만 아니라, 주변 주거지와 가지는 연관성, 어떠한 역할을 하며 증축했는지 등을 입증해야 핵심 유산으로서 가치와 구역계의 포함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반영
4	한국전쟁기 총천사부지 활용에 관한 진위 여부, 아미공민고등학교의 설립 시기, 행복산보육원의 위치 등에 관한 추가 확인 필요	반영
5	비석마을의 가치와 의미에 있어, '무덤 위의 주거지,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라는 가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반영
6	유네스코유산 중 무덤 위 주거지의 사례 비교를 통해 모티브를 연계필요, 근대 이전에 삶과 죽음의 공간이 분리되지 않고 도시 속에 사례들을 찾아, 독보적인 가치를 표현하는 방안 모색 필요	반영
7	도심 내 주거지로 바뀐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임시주거지에서 판잣집, 슬레이트, 조적조구조의 형태로 발전하는 주택의 변화과정	일부 반영
8	지구단위계획(보존형)의 시행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며, 본 보고서에서도 도출된 방안을 정리하여, 지구단위 계획 추진에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부산시는 이 자료를 활용하여 시의원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등을 시행하여야 함	-
9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점 단위 등록문화재가 확보되어야 하기에, 비석주택(터), 은천교회를 포함한 5-7개소 정도의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확보될 수 있는 유산발굴이 필요	-
10	비석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 장치물(단위요소), 도시조직(길과 터 등), 경관 등의 유형 발굴에 주력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반영
11	비석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변 피란마을들과의 융합적 네트워킹에 대한 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반영

5) 학술세미나 (2021.02.25.)

[표-7] 학술세미나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주거지로서 외부 개발 압력이 높았기에 도시개발을 막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빠른 규제방안 설립이 필요했으며, 수립 당시 건축자산진흥구역이 지원의 의미를 내포해야 하므로 지역주민과 마찰을 줄일 것으로 예상하여 계획을 진행 비석마을은 임시주거지가 영구 정착지로 전환된 희귀한 사례 중 하나로 일반적인 관광지와 같은 맥락으로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보존계획 등 규제만을 통한 보존이 아닌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과 지역적 특성을 가미하는 등의 고려를 통해 지원과 보존을 병행한 보존방안 모색.	반영
2	비석마을을 세계문화유산의 OUV상 5번의 문화경관으로 보는 방안 모색 필요/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문화유산의 보존방안이 필요하며, 중국 운남성의 다행이논마을 사례와 아미동비석마을 사례비교 필요	일부반영
3	아미동의 지구단위계획을 설정할 경우, 비석마을의 원형 유지, 주거환경 개선 등의 고려 필요	반영
4	무덤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독특한 상황에 만들어진 비석마을이지만, 마을의 뚜렷한 미래가치를 설정해야 보존방안의 마련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5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주민협의체의 요구와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비석마을의 경우 주민 입장이 확실치 않아 지구단위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 등의 검토 필요	반영
6	관리구역 내부의 보존방안만 설립하는 것도 좋으나, 주변지역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방안이 있으며, 더 나은 관리가 될 것으로 판단됨	반영
7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은 보조 수단에 불과, 주민들은 해당 계획을 규제라 생각할 가능성 큼. 비석마을의 보존을 위해서는 건축기준완화 등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올바른 보존이 가능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의 건축행위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요	반영

6) 최종보고회

[표-8] 최종보고회 의견사항

no.	내용	반영여부
1	· 은천교회 보존을 위해 도로 우회 등 여러 방법을 즉각적인 검토요망 · 은천교회가 보존된다면 이번에 발굴한 아기보살집, 비석계단집, 축대 등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연결 가능하므로 은천교회에 대한 보존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
2	· 세계문화유산 5번 가치는 아미동 비석마을에는 적용되지만, 피란유산의 그 외 지역에는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참고자료로 정리	반영
3	· 구술내용에 텍스트가 많아, 도면, 그림 등을 통한 구술 내용의 가시화 필요	미반영
4	· 서구청장에게 직접적인 보고회를 통해, 비석마을이 가지는 강력한 스토리와 다크투어리즘의 브랜딩 가능성을 보여드리 직접 판단하도록 해야 함	반영 (추가 보고회 지원)
5	· 행복주택, 모노레일 전망대 등 아미동 지역의 개발로 인해 비석마을의 개발에 대한 외부압력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의 빠른 실행을 통해 마을을 보호필요	-
6	· 자문보고회에서 제안된 비석주택의 변천 과정이 시각화되어 있으나, 사진 자료 등을 참고해 조금 더 사실적인 재현이 필요함 · 사진 자료에 나온 천막이 주택단지로 변화하는 과정의 시각화가 필요함	반영
7	· 은천교회 철거와 관련된 내용이 전달된 적이 없어 행복주택 도로 확장공사 진행되었으나, 부산시에 서 절차에 맞춰 서구청에 건의한다면 서구청장님과 보고회 진행	반영 (추가 보고회 지원)
8	· 천마산 모노레일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는 사업 시행 이전에 발굴작업이 필요함	-
9	· 아미동 지역의 생활권계획을 부산시가 수립하여 지역관리방향성을 상위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관리방향을 함께 검토해야 함 ·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를 위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도입을 검토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의 근거 마련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비석마을과 주변지역이 지적불부합지역으로, 지적 및 지목 정비 필요	-

02

아미동 비석마을의 형성과 변천

1.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
2. 공동묘지 시기 (1906~1950)
3.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 (1950~1975)
4.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 (1976~2020)
5. 형성과정 종합
6. 핵심유산 발굴

02 아미동 비석마을의 형성과 변천

1.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

1.1. 개요

Ⅰ 시기구분의 기준

-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의 기준은 '역사적 주요 사건'의 사실을 기반으로 변모해온 아미동의 '공간특성'과 '인구 특성'에 따라 총 3개 대분류, 7개의 세분류의 시기로 구분

Ⅰ [기준1] 역사적 주요 사건

- 아미동의 지역 변화에 공간적·내용적 측면에서 큰 영향을 끼친 역사적 주요 사건으로서, 국가적 또는 지역적 주요 사건으로 5개의 주요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시기를 구분

[표-9] 역사적 주요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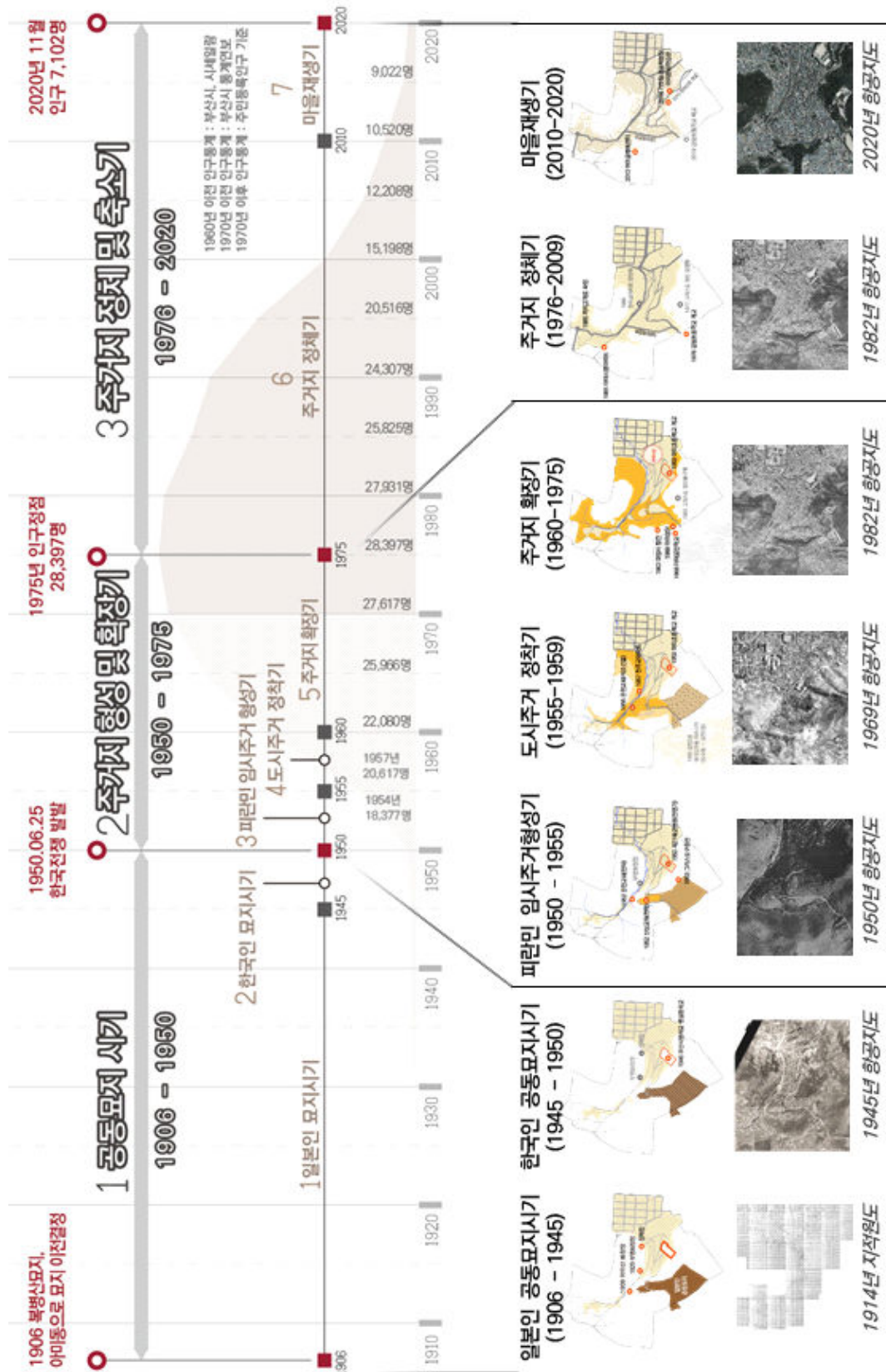
no.	시기	주요 역사적 사건명	비 고
1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 이전	국가기록원 문헌 근거
2	1945.08.15.	광복	국가적 사건
3	1950.06.25	한국전쟁 발발	국가적 사건
4	1975년	아미동 인구 최대 정점 (28,397명)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근거
5	2010년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시작	지역적 사건

Ⅰ [기준2] 공간특성

- 근대기 부산항의 개항 이후 아미동은 일제강점기 이래 '공동묘지'에서 한국전쟁 이래 '주거지'로 공간의 용도가 크게 변화하였으며, 특히 한국전쟁 이후 2020년까지 주거지의 형성과 확장, 정체 및 축소가 되는 쇠퇴시기의 공간특성을 반영하여 대분류의 3개의 시기를 구분함

Ⅰ [기준3] 인구특성

- '공동묘지로 활용된 아미동(1906~1950.06.25.)'과 '주거지로 활용된 아미동(1950 - 2020)'의 각 시기는 인구 특성에 따라 세분화될 수 있음
- 공동묘지 시기 아미동(1906~1950)은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로 출발하여 죽은 자의 안식처로서, 당시 지배층이었던 일본인 국적의 사망자라는 인구 특성을 반영하였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기점으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방치됨과 동시에 한국전쟁 전까지 한국인의 공동묘지로 활용되었음을 부산시보(옛 부산일보)의 문헌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을 반영하여 시기를 구분
- 주거지 시기의 아미동(1950~2020)은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와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로 구분하여,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는 피란민과 도시의 철거민의 유입, 인구의 최대 정점기를 고려하였으며,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는 인구 유출이 심화되는 시기와 2010년이래 마을만들기 및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마을재생과정을 고려하여 시기를 세분화하였음



[그림-7]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

[표-10] 비석마을의 시기 구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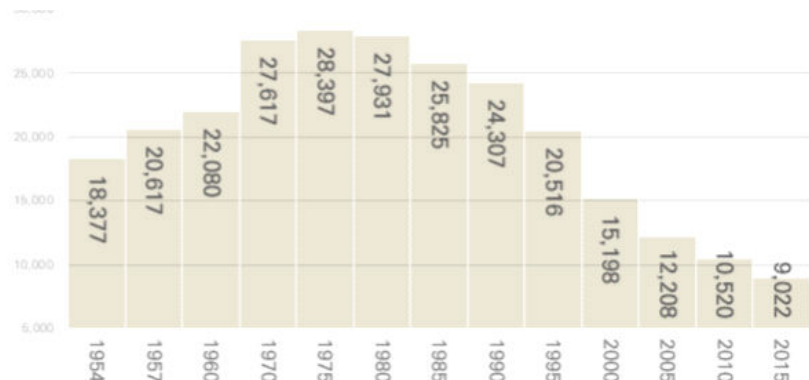
NO	대분류명	no	세분류명	기간(년)	주요 사건
1	공동묘지시기	1	일본인 묘지시기	1906 - 1945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 이전
		2	한국인 묘지시기	1945 - 1950	1945년 8월 15일 광복
2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	3	피란민 임시주거 형성기	1950 - 1954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4	도시주거 정착기	1955 - 1959	1955년 7월 감천 인구 및 철거민 유입 시기
		5	주거지 확장기	1960 - 1975	1975년 아미동 인구 최대 정점 (28,397명)
3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	6	주거지 정체기	1976 - 2009	2010년까지 인구 유출 심화 기간
		7	마을재생기	2010 - 2020	2010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시작

[표-11] 아미동 인구 통계 (1954-2015)

연도(년)	1954	1957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인구(명)	18,377	20,617	22,080	27,617	28,397	27,931	25,825	24,307	20,516	15,198	12,208	10,520	9,022

※ 인구통계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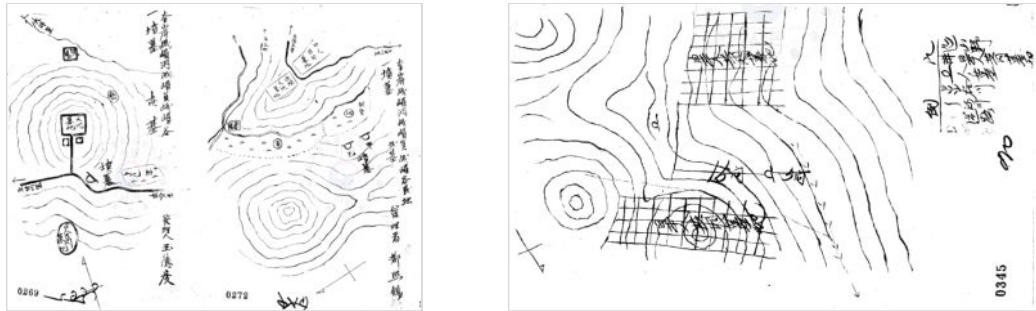
- ◆ 1954년, 1957년 : 부산시, 시세일람
- ◆ 1960년 : 부산시 통계연보
- ◆ 1970~2015년 : 통계청, 인구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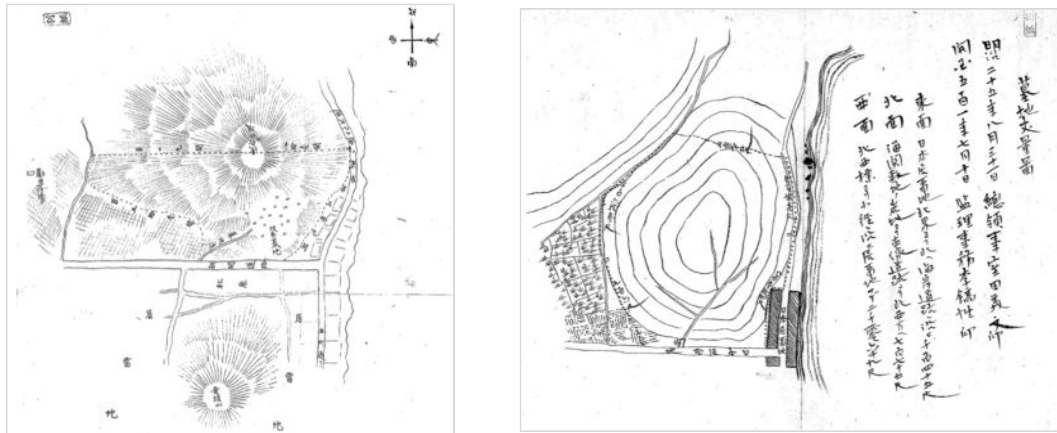
1.2. 조사방법

■ 관련 공문서 발굴

-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아미동 관련 공문서 발굴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공문서에서 아미동의 상황을 보여주는 관련 지도 발굴
- 1906년 아미동 묘지 이전에 앞서 옛 북병산(伏兵山) 일본인묘지 관련 구한말 작성된 일본국립공문서관(日本国立公文書館) 소장 사료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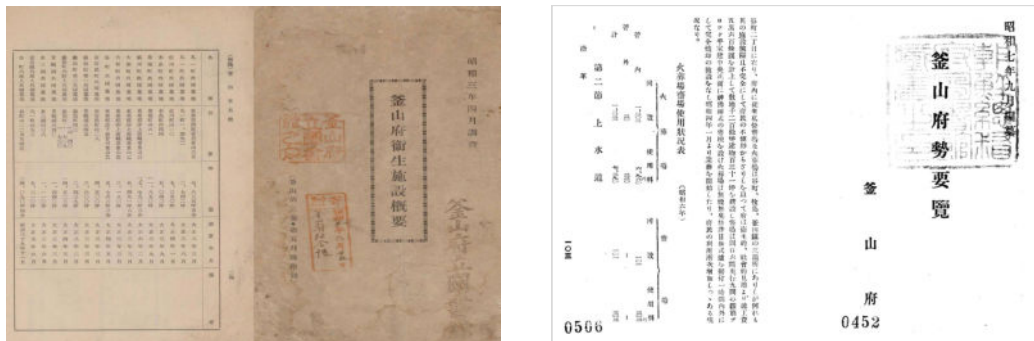
[그림-8]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1914) 중 수기로 작성된 아미동 옛 지도



[그림-9]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외무성 공문서 중 북병산 묘지 옛 지도

■ 관련 출간 서적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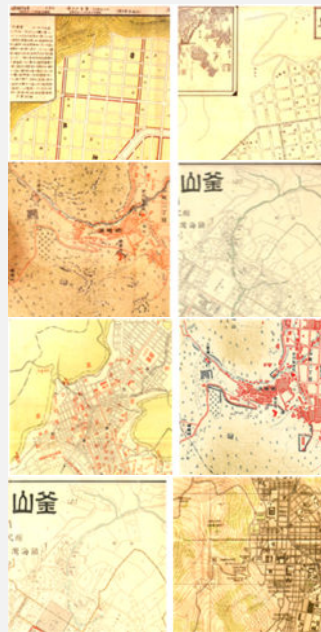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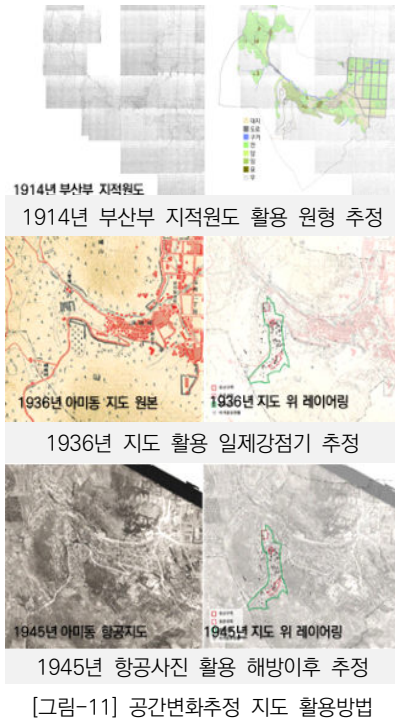
-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소장 서적 중 일제강점기 아미동의 상황을 보여주는 각종 사료 발굴
- 서적 내용을 통해 이른바 '곡정(谷町) 공동묘지'에 관한 오늘날 아미동 일대 위치 및 공간규모 파악하였으며, 서적 내용 중 아미동 일원의 화장장 및 매장 시설 관련 정보를 확인



[그림-10] 아미동 일원 시설 상황을 보여주는 서적 내용

Ⅰ 근현대지도 아카이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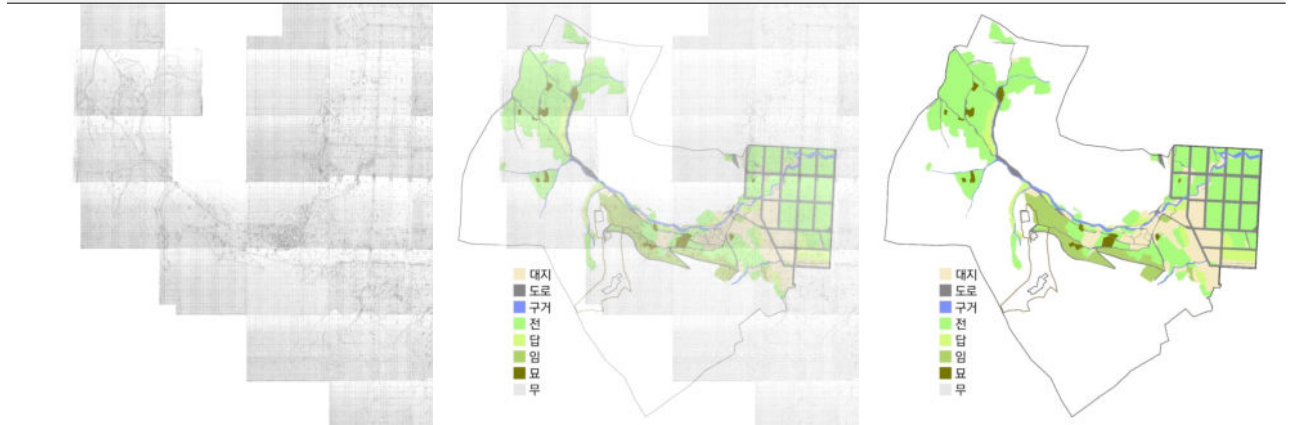
- 부산 근·현대지도 속 아미동 부분을 추출하여 총 15건의 지도 자료 수집
- 아미동 비석마을의 원형추정을 위해 부산부지적원도(1914)를 전산화하여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의 좌표기준(TM동부원점보정)으로 GIS DB를 구축
- 지도 원본과 현재의 아미동 비석마을 구역을 중첩하여 비석마을의 공간형성과정을 추정



- ①1907_한국부산항시가명세도_유전석판인쇄소
- ②1911_부산시가전도_지질조사국
- ③1914년 부산부지적원도 / 조선총독부 / 국가기록원
- ④1916_개정정명강계입부산시가전도_대판십자옥
- ⑤1924_부산지형도_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
- ⑥1929_부산부명소교통그림지도
- ⑦1933_부산부시가도_무전광문당
- ⑧1934_부산부전도_신부산대관수록
- ⑨1934_부산지도_무전광문당
- ⑩1936_부산시가도_무전광문당
- ⑪1946_부산(PUSAN/FUSAN)_미육군지도창
- ⑫1945년 해방직후 미해군 항공사진 / 제주대 소장
- ⑬1950년 항공사진 / 국토지리정보원
- ⑭1967년 항공사진 / 국토지리정보원
- ⑮1980년 항공사진 / 국토지리정보원

[그림-12] 아미동 근현대 지도수집자료 목록

[참고] 부산부 지적원도(1914) 활용 비석마을 추정과정



2. 공동묘지 시기 (1906-1950)

2.1. 일본인 묘지시기 (1906-1945)

2.1.1. 시대개관

- 1876년 부산항 개항 이래,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 거주하였던 일본인의 연간 평균 사망률은 약 2%¹⁾로 장례시설의 수요 또한 점차 증가
- 부산에 최초 일본인 묘지는 현 대청동의 북병산에 위치하였으나, 일본인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시가지 확장의 필요성, 부산 북빈 매립에 필요한 토사 채취의 이유와 더불어, 부산에서 사망하는 일본인들이 증가하면서, 1892년 묘지조성에 관한 한일양국간의 계약이 성립하며 1906년 일본인 공동묘지 조성이 시작됨



1910년대 토성동에서 바라본 아미동



1910년대 아미동 전경



일제강점기 아미동 전경



일본인 묘지시기 (1906-1945)

1906년 북병산묘지가 아미동으로 이전
 1907년 충천사 건립
 1909년 아미산 화장장 설치
 1929년 아미산화장장이 장제장으로이전될 예정이었으나 극심한 반대로 인해 부영 화장장 위치로 이전

[그림-13] 일본인 묘지시기의 주요시설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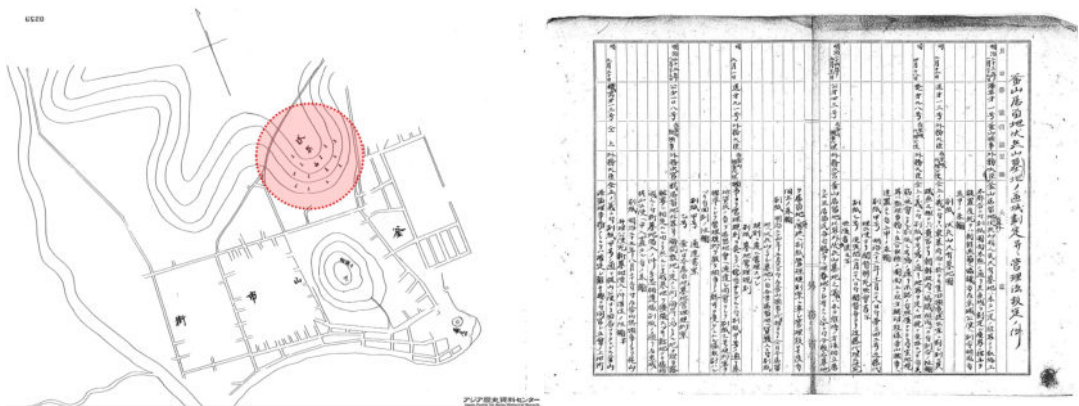
1) 류교열, 「1920년대 식민지 해방 도시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일어 일문학』39, 대한일어일문학회, 2008)
 류교열, 「1930년대 식민지 해방 도시 부산의 일본인 사회와 '죽음'의 폴리틱스」(『일어 일문학』49, 대한일어일문학회, 2011)

2.1.2. 공간형성과정

1) 복병산 공동묘지의 조성

■ 부산일본전관거류지 설정과 공동묘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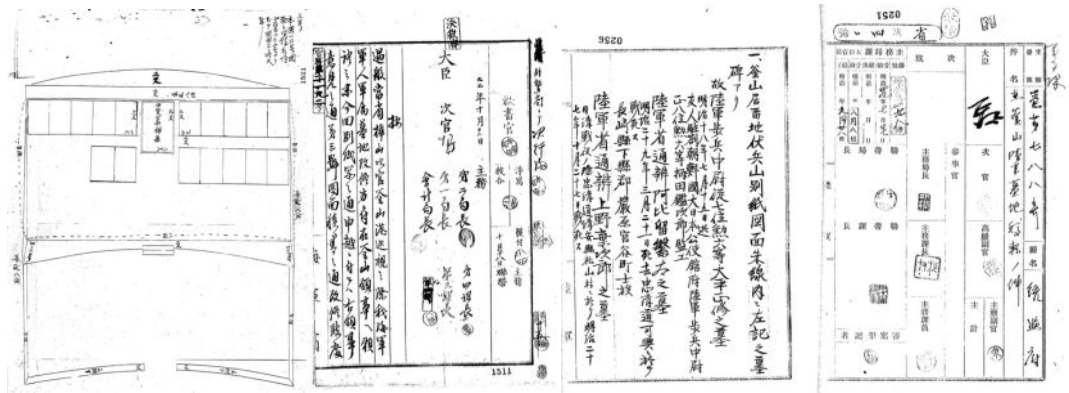
- 1876년 근대 개항과 함께 초량왜관 일대가 일본전관거류지로 설정
- 1890년대부터 거류지 인구 증가를 빌미로 부산일본영사관이 주도하여 공동묘지 확대를 요구했고 복병산 일대 측량 실시
- 1892년 <묘지조차협약>의 체결로 복병산(伏兵山) 일대 약 3만 5천 여 평이 거류지 공동묘지로 사용되었고 일본인뿐만 아니라 타 외국인도 묘지 사용
- 1940년대까지 호주 출신 장로회(長老會) 선교사 조셉 제이스를 비롯한 총 9기(基)의 서양인 묘소가 조성²⁾
- 1891-1897년까지 265평의 묘지가 조성되었고 매년 20-50여 평씩 증가하여 1905년 무렵 527평 규모의 묘지가 조성
- 당시 복병산 공동묘지 사용을 위해 일본인거류민을 대상으로 <부산일본거류지묘지관리규칙>이 제정되었고 매장을 위해서는 경찰서의 허가 필요
- 당시 1인당 5평 이내의 묘지를 조성할 수 있었고 1평당 1원의 비용이 발생
- 공동묘지 근처 수목 및 토석 채취는 금지
- 복병산 공동묘지에는 청일전쟁 때 전사한 일본 육군 및 해군 묘지도 조성되었고 아미동으로 이전 시 이들 육군 및 해군 묘지도 함께 이전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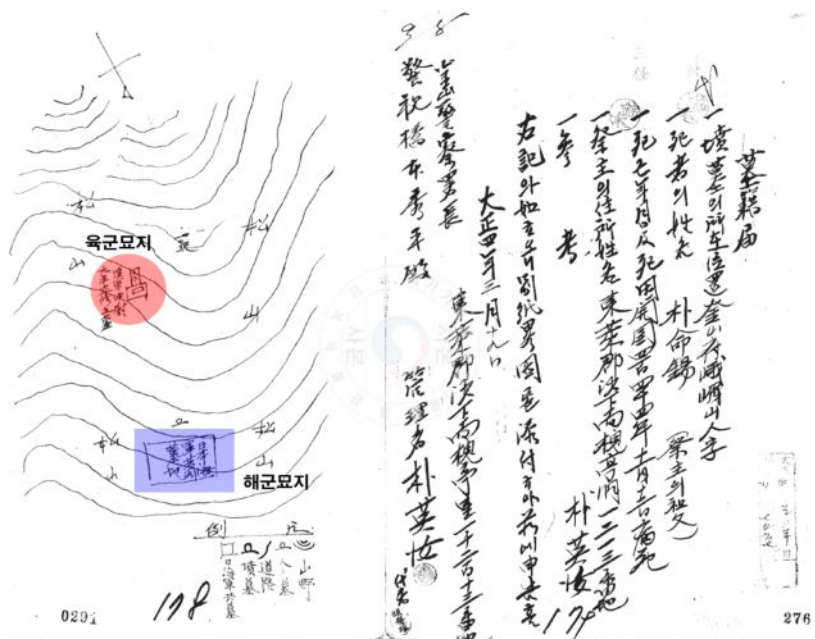
[그림-14] 복병산 공동묘지 위치와 구획 획정 관련 일본 외무성 공문서

2) 미상, 「釜山 埠頭の 洋人 墓地, 詩歌와 哀愁에 찬 異國人 무덤」(『삼천리』제12권 제4호, 1940년 04월 01일, 208~21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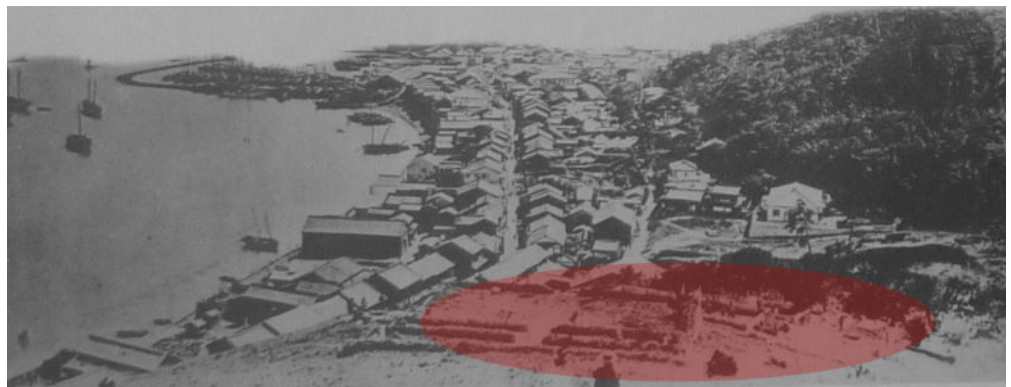
3) 국가기록원, 「朴英汝의 祖父 朴命錫 墓地」(『아미동 묘적계』, 관리번호CJA0024683, 1925년 03월 19일, 276쪽)
공문서 기록에 의하면 朴命錫 墓地 위치 도면에 육군중위 大平正修의 묘지와 일본해군공동묘지가 기재되어 있다.



[그림-15] 북병산 공동묘지 내 일본 해군 및 육군 묘지 관련 일본의무성 공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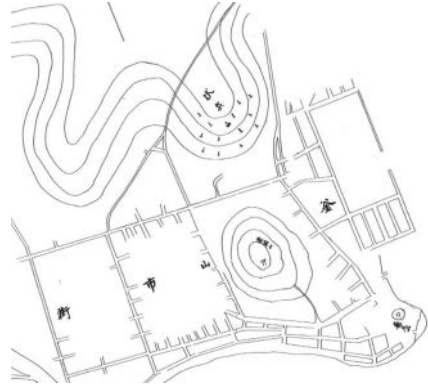


[그림-16] 아미동 공동묘지 내 일본 해군 및 육군 묘지 관련 문서 (국가기록원, 묘적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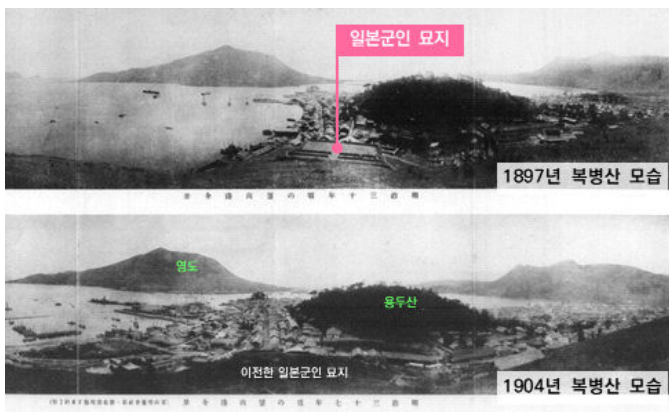


[그림-17] 1900년대 북병산 공동묘지 모습 (신부산대관, 1934)

■ 일본인 묘지 원형 추정 : 북병산 외국인공동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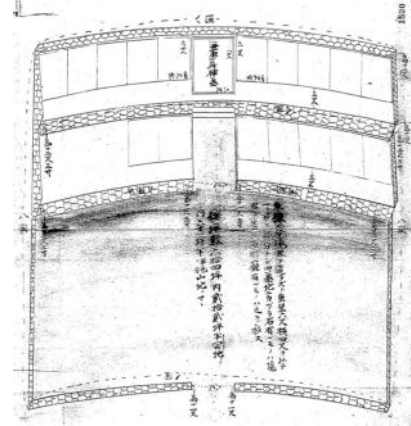


[그림-18] 부산 육군묘지 이장에 관한 건
[출처 : 在釜山陸軍墓地の移転の件(1906, 일본국립공문서관)]



[그림-19] 북병산 모습 (위 1897년, 아래 1904년)

출처: 부산요람 [釜山要覽, 森田福太郎 編, 釜山商業會議所, 1912]



[그림-20] 북병산 일본육군 묘지 배치(1889년)

출처 : 해군 군인 군속 묘지 보수 방법에 관한 건 / 軍人軍屬墓地改修方に関する件, (1889), 일본국립공문서관

■ 일본인 묘지 원형 추정 : 북병산 외국인묘지



1935년 9월 21일 부산방송국(JBAK) 설립 (국가기록원)

위치 : 대청정 1정목 7번지



1955년 남성여고 주차장의 부산방송국과 선교사 묘비



9기(基)의 서양인 묘비 존치 - 호주파 선교사 관련자들
이중 최초 선교사 조셉 헨리 제이스(-1890)의 묘가 있음

2) 아미동 공동묘지 시기 화장장과 재장 운영

Ⅰ 화장장 운영

- 근대 개항에 따라 부산 지역에 불교 전통에서 기인한 화장(火葬) 문화가 부산 거주 일본인의 장례를 통해 알려졌고 사원(寺院)이 중심
- 당시 화장 문화는 지극히 일본인 고유의 장례로 인식되었으며 다수의 일본인이 거주하는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동본원사별원(東本願寺別院)에서 화장장 운영
- 부산 시가지 확장으로 화장장 이전이 공론화될 때까지 민영 화장장



[그림-21] 부영화장장
(신부산대관, 1934)

Ⅰ 재장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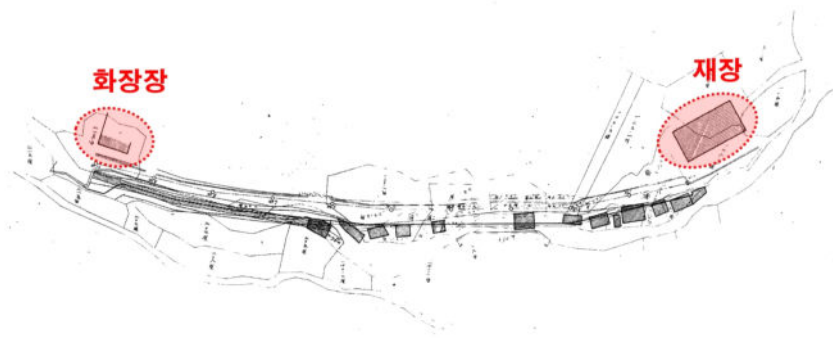
- 재장(齎場)은 제사나 불공을 드리는 장소로 신도(神道)나 불교를 주로 믿은 일본인들이 장례 절차 중 손님을 맞이하는 장소로서 화장장 인근에 배치
- 1926년 이전 재장이나 화장장은 주로 민영으로 운영
- 화장장 공영화(公營化) 방침에 따라 1926년 부산부영(釜山府營) 화장장 건립이 결정되고 1928년 신설 화장장이 운영될 때 재장도 공영화
- 1945년 광복 때까지 부영 화장장 인근에 부영 재장이 운영



[그림-22] 아미동 재장(齎場)

谷町火葬場道路擴張工事概算設計平面圖

縮尺 六百分之一



[그림-24] 1936년 무렵 화장장 및 재장 인근 현황
(국가기록원 소장 공문서에서 설계평면도)



[그림-23] 1909년 아미동 총천사
(부경근대사료연구소)

Ⅰ 총천사 창립과 곡정포교소

- 일본 조동종 총천사는 1907년 통감부 시절에 부산이사청의 허가를 받고 포교소를 처음 설치하였으며, 총천사의 첫 포교소는 초장정(草場町) 1정목 2번지였고 관리담당으로 나가타 칸센(장전관선, 長田觀禪)이 파견됨
- 총천사는 1890년대에 부산에 진출하여, 아미동에서는 일본인 묘지를 관리하는 주사찰로 판단되며, 1934년 9월 10일 현 아미동에 '조동종 총천사 곡정포교소(總泉寺谷町布教所)'를 설립하며 조선인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진행
- 1912년 작성된 지적원도(地籍原圖)에서 곡정(谷町) 89번지는 이미 종교용지였고 현존 옛 토지대장에서 1924년 이래 총천사 소유로 기재되어 있어,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까지 이 필지는 총천사 부지였음

2.2. 한국인 묘지시기 (1945-1950)

2.2.1. 시대개관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일본의 패망으로, 부산에 거류하는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하여 곡정 공동묘지 방치되던 시기로서, 묘지를 관리하는 총천사의 폐사와 함께 공동묘지에 있던 유골을 수습하는 시기임
- 일본 패전 직후 설립하여 한반도에 거류하는 일본인의 귀국을 돕던 단체인 '부산 일본인 세화회(釜山日本人世話會)'가 1946년 7월 한국 내 콜레라 발병으로 귀국지원 업무가 일시 중단되자, 부산의 사찰과 아미동 공동묘지에 남아있던 일본인 유골을 수습
-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유골은 일본으로 보내어 후쿠오카 성복사(聖福寺)에 안치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골은 아미동 공동묘지 상부에 무연분묘를 조성하고 비석을 건립
- 이후 한반도의 일본인 인양이 완료되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본인 세화회 근무자들도 귀국하였으나, 귀국 후에도 아미동 공동묘지의 유골 수습을 국내 당국에 꾸준히 요청하였음



[그림-25] 일본 세화회 부산 지회 모습



[그림-26] 1945.10.12 부산역 역사 안 귀국을 기다리는 일본인 인양자들

(©미국 국립문서관, 국사편찬위 전자자료관 사본)



한국인 공동묘지시기 (1945 - 1950)

1945년	일본 패망으로 인해 총천사 폐사
1946년	총천사를 부산사범학교 병설중학교 교사로 활용
1946년	7월 세화회(世話會)가 일본인 유골을 수습

[그림-27] 한국인 묘지시기의 주요시설 형성

2.2.2. 공간형성과정

■ 총천사 폐사 → 부산사범병설중학교 가교사

- 광복 직후인 1946년 7월 부산사범학교(釜山師範學校)가 경상남도 도립(道立) 교원양성소로 인가되었고 1949년 3월 중학교(과) 과정을 개설하였음
- 1950년 4월 1일 부산사범학교는 공립에서 국립(國立)으로 이관되고, 초급중학과가 병설중학교로 개편되면서, 이 무렵부터 부산사범병설중학교 가교사가 적산재산(敵産財産)으로 분류된 옛 총천사 부지에 설치되어 학교시설을 운영하였으며, 1959년 아미초등학교가 인가되면서 1960년 옛 총천사 부지의 소유권이 부산시로 이전되었으며 현재까지 초등학교 부지로 사용



[그림-28] 1954년 부산사범병설중학교 졸업앨범 중 옛 총천사의 가교사 사용 모습
(조말자 소장)



1950년 옛 총천사 부지 일원 항공사진

1982년 아미초등학교 일원 항공사진

[그림-29] 항공사진을 통해 본 총천사 부지의 변화 (국토정보플랫폼 제공)

[참고] 아미동 비석조사(2020)

■ 아미동 비석조사 관련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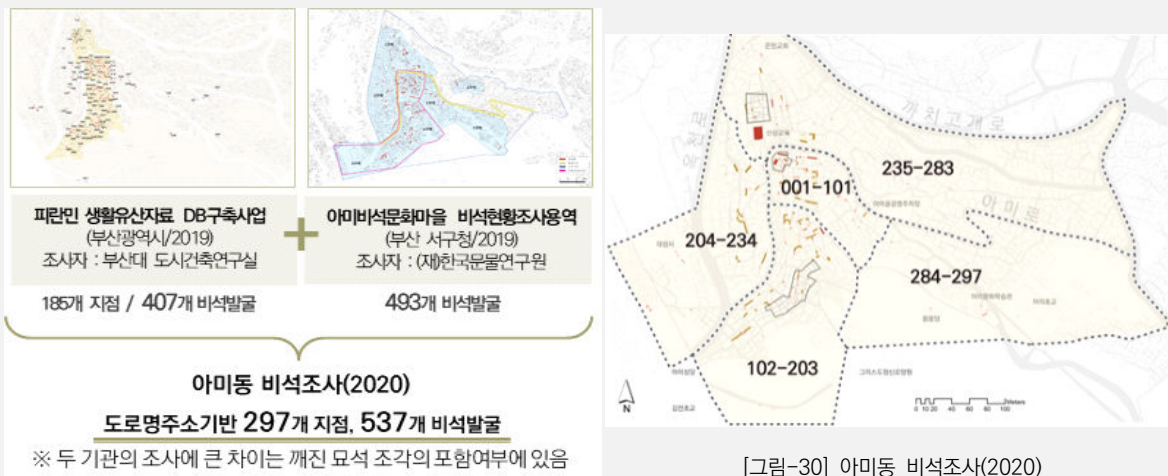
- 아미동에 분포하는 비석조사는 2014년 이래 여러 기관에서 시행되어 2020년까지 총 4차례 진행

[표-12] 아미동 비석조사 관련 보고서(2014~2019)

연도	조사기간	과업명	조사기관	조사책임자	발주청	비석 개수
1	2014 ~2014.12.31	사진으로 보는 비석마을이야기	부산 창조재단	(비석문화마을 도록작업추진협의회)	부산광역시	70개
2	2015 2015.01.04. ~2015.01.31.	부산 서구 근린재생형 사업구상(안)	부산대학교	우신구	부산 서구청	127개
3	2019 2019.09.04. ~2019.12.05.	피란민 생활유산자료 DB구축사업	부산대학교	우신구	부산광역시	407개 (185개 세부지점)
4	2019 2019.11.01. ~2019.12.20.	아미비석문화마을 비석현황조사 용역	(재)한국문화물 연구원	정의도	부산 서구청	493개

■ 아미동 비석조사(2020) : 비석 조사DB 업데이트

- 아미동비석조사(2020)는 '피란민 생활유산자료 DB구축사업 (부산광역시/2019)'과 '아미비석문화마을비석현황조사용역(부산 서구청/2019)'의 2개 조사자료를 상호 매칭하여 중복자료를 제외하여 종합
- 최종 도로명주소 기반의 297개 지점, 537개 비석 자료 업데이트



[참고] 아미동 비석조사(2020)

Ⅰ 아미동 비석조사(2020) : 구역별 비석분포 통계



[표-13] 아미동 비석조사(2020) : 구역별 비석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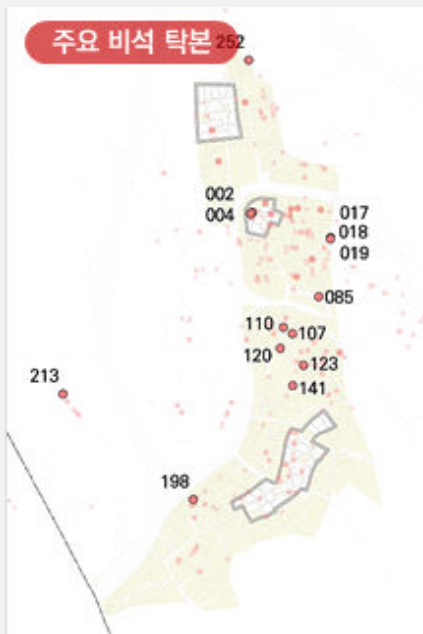
구역명	면적(㎡)	지점(개)	비석(개, %)	개/100㎡
제1유존지역	770.9	8	9 (1.7%)	1.2
유산구역	340.3	15	17 (3.2%)	5.0
제2유존지역	1,279.4	32	67 (12.5%)	5.2
완충구역	21,366.4	152	309 (57.5%)	1.6
완충구역 외	-	90	135 (25.1%)	-
계		297	537 (100.0%)	

Ⅱ 구역별 비석분포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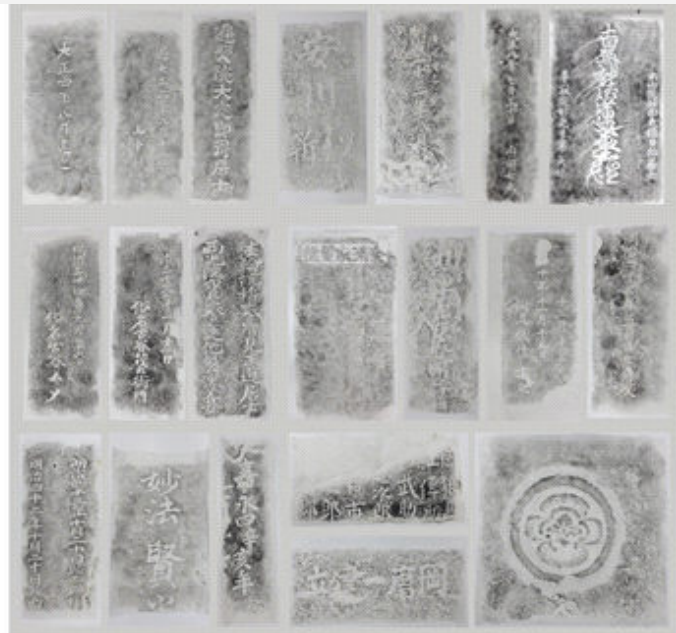
<p>제1유존지역</p>	<p>과거 묘역 (오오이케 가문 추정 묘지군)을 토대로 조성된 주택형태, 묘역구조체로 추정되는 비석이 발견되는 지역</p> <p>지점 235</p> <p>지점 239</p> <p>지점 247</p>
<p>유산구역</p>	<p>비석주택이 발견된 지역으로서, 묘역구조체(원형추정) 및 문양과 글자가 있는 비석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지역</p> <p>지점 001</p> <p>지점 002</p> <p>지점 003</p> <p>지점 008</p>
<p>제2유존지역</p>	<p>1952년 사진으로 추정되는 피란민 주거 밀집 지역으로, 문양 및 글자가 있는 비석이 빈번하게 발견되는 지역</p> <p>지점 159-163</p> <p>지점 150</p> <p>지점 147</p>
<p>완충구역</p>	<p>완충구역 1945년 항공사진 추정 일본인 묘지구역의 필지경계, 완충구역 경계 내 유산구역을 중심으로 비석 산재</p> <p>지점 012</p> <p>지점 017-020</p> <p>지점 106</p> <p>지점 251</p>

Ⅰ 주요 비석 탁본

- 주요 비석 탁본작업 시기 : 2020년 10월 11일~10월 29일
- 비석 탁본 참여조사원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연구원 및 학부생 총 4인 (정영현, 한성일, 오유진, 신지수)
-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탁본 작업이 가능한 주요 비석 총 14건에 대한 탁본진행



[그림-31] 주요 비석 탁본 지점위치도



[그림-32] 비석 탁본 결과



[그림-33] 비석 탁본 작업사진 (2020.10.)

[참고] 비석 속 인물조사

- 현존 묘비 기록을 통해 본 인물 조사로서, 현재 아미동 내 다수의 묘비가 노출되어 있으나 이중 사료의 고증을 통해 확인되는 인물은 극소수임, 특히 묘지의 주인보다는 비석을 세운 이에 대한 기록이 다수이며, 주택의 기반 및 하부석재로 활용되고 있는 비석의 완전 발굴을 통해 향후 더 많은 인물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① 고곡무좌위문(古谷茂左衛門)

- 오늘날 아미로42[지점번호2] 비석주택 앞 수집된 묘비 중 비명의 내용에 1890년 및 1891년에 각각 사망한 부부(夫婦)의 기문 확인
- 정면 기문에는 '법륜원전에지견정도거사(法輪院轉智見正道居士)'이라 하였고 향우측면에 '明治二十三年一月十一日 俗名古谷茂左衛門'이라 하여 묘지 주인에 대해 기술
- 기문에서 확인되는 '고곡무좌위문(古谷茂左衛門)'이라는 속명(俗名)을 지닌 남성의 기록이 일본측 공문서에 기재
- 1874년 작성된 일본외무성 공문서에 의하면 부산으로 드나들던 일본인이며 장기현(長崎縣) 엄원(嚴原) 출신 무역상(貿易商)임이 확인



[그림-34] 묘비 속 일본인 고곡무좌위문(古谷茂左衛門)의 탁본과 일본외무성 공문서(1874)를 통해 본 기록

② 궁도금조태랑(宮島今朝太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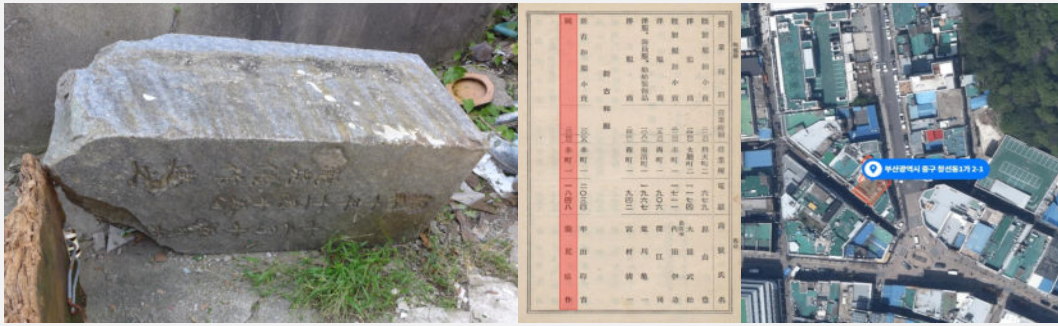
- 현재 아미로12번길 8-5[지점번호174]에서 발견되는 묘비명에는 '昭和十四年八月 宮島今朝太郎建之'라는 문구가 확인
- '1939년 8월 궁도금조태랑(宮島今朝太郎)이 건립'했다는 의미로 현재 상태에서 묘지의 주인은 알 수 없으나 비석을 세운 이의 이름은 확인
- 일제강점기 사료에 의하면 궁도금조태랑(宮島今朝太郎)은 당시 부산부(釜山府) 본정(本町) 5정목 27번지 즉 오늘날 중구 동광동5가 27번지에서 1938년 토목건축 청부업체인 합자회사(合資會社) 토정조(土井組)를 운영한 건설업 종사자



[그림-35]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궁도금조태랑(宮島今朝太郎)에 대한 행적

③ 농고의작(瀧尻儀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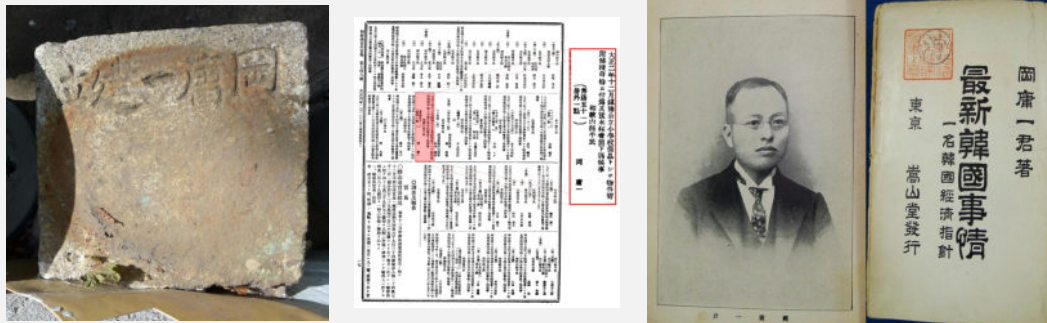
- 현재 까치고개로152번길 16-15[지점번호252]에서 발견되는 묘지명에는 '十二月十五日歿 ○○十年十一月十五日 瀧尻儀作建之'라는 문구가 확인
- 현재 묘비석 상태로는 묘지 주인을 알 수 없고 다만 함몰된 글자가 '昭和'로 추정되며 1935년 11월 15일 비석을 세운 이만 확인
- 일제강점기 사료에 따르면 농고의작(瀧尻儀作)이라는 인물은 부산부(釜山府) 행정(幸町) 1정목 2번지 즉 오늘날 중구 창선동1가 2번지에서 일본화복(日本和服) 중 고착(古着, 헌옷)을 다루던 의류소매업자



[그림-36]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농고의작(瀧尻儀作)에 대한 행적
(출처: 會員名簿-釜山商業會議所, 1928년 간행, 35쪽)

④ 강용일(岡庸一)

- 오늘날 아미로30번길 6-7[지점번호107]에서 발견되는 석물에 '岡庸一建立'이라는 문구가 확인
- 구조물에 흠이 패어 있어 비석이 아닌 묘지 내 구조물인 수발(水鉢)로서 묘지의 주인은 알 수 없으며 석물을 건립한 이만이 확인
- 일제강점기 사료에 따르면 강용일(岡庸一)은 화가산현(和歌山縣) 출신으로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 문학정치과(文學政治科)를 졸업하고 1902년 부산상업회의소(釜山商業會議所) 서무조사과(庶務調査課) 주임(主任) 자격으로 조선으로 건너온 인물로 확인
- 1903년 <최신한국사정(最新韓國事情)>을 출간하면서 재한 일본인 사이에 명성을 얻었고 1917년 남선일보(南鮮日報) 사장으로서 거주지 마산부(馬山府) 본정(本町) 2정목으로 알려진바 마산 및 진해 일대에서 활약한 지식인



[그림-37]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강용일(岡庸一)의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15년 2월2일자)

⑤ 하원희평(河元喜平)

- 오늘날 아미로49[지점번호270]에서 발견되는 석물에 '昭和三年 ○谷萬助 河元喜平 河元崎藏' 등의 이름이 적힌 문구확인
- 1928년에 세운 석물로 묘지의 주인은 확인할 수 없고 다만 석물 건립자로 세 사람의 일본인 이름이 확인
- 이중 하원희평(河元喜平)은 1941년 부산일보 부고(訃告) 기사를 통해 인물에 대한 정보 확인
-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하원희평(河元喜平)은 산구현(山口縣) 출신으로 1925년 목지도(牧之島, 현재의 영도)로 이주해 산본목재(山本木材) 점주(店主)로서 조선재료(造船材料) 목재상으로 사업하다 갑작스럽게 43세로 급사(急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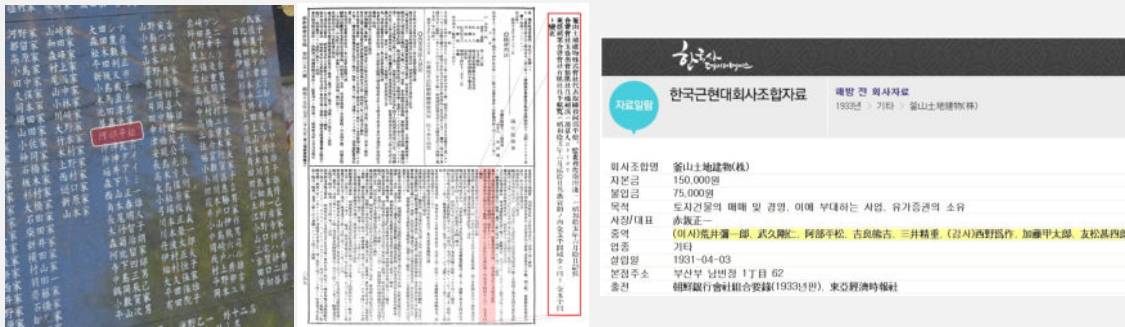
[그림-38] 묘지명에서 확인되는 하원희평(河元喜平)의 행적
(출처: 부산일보, 1941년 11월 26일자 2면)

[참고] 일본인총위령비 기록을 통해 본 인물들

- 1945년 패망으로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급거 귀환하면서 다수의 유골함도 함께 떠났으나 무연고 묘지는 그대로 방치됨에 따라 부산 세화회(釜山世話會) 주관으로 무연고 유골함을 함께 모아서 관리
- 1958년 아미동 화장장의 당감동 이전으로 1962년 5월 일본인 무연고자 유골함을 일본인총위령비(日本人塚慰靈碑) 형식으로 관리
- 1987년 당감동 화장장이 폐쇄되면서 1991년 9월 두구동 시립공원묘지 내 일본인총위령비를 이전 관리해 현재에 이름
- 일본인총위령비 내 명부는 총 1500기이며 이 중에는 무명(無名)이나 일본인이 아닌 러시아 등의 외국인도 포함

① 아부평송(阿部平松)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아부평송(阿部平松)의 경우에 동아경제시보사(東亞經濟時報社)에서 출간한 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朝鮮銀行會社組合要錄, 1939년판)과 조선총독부 관보(官報)에서 1930년대 부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및 제빙 등 투자 사업에 종사한 사업가로 확인



[그림-39]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아부평송(阿部平松)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40년 7월 29일자)

② 고교충시(高橋忠市)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고교충시(高橋忠市)는 일제강점기 사료에서 부산부(釜山府) 보수정(寶水町) 3정목 57번지 즉 현재 중구 보수동3가 57번지에서 합자회사 고교주조소(高橋酒造所)를 1931년 설립한 포도주(葡萄酒) 제조 판매업 종사자로 확인



[그림-40]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고교충시(高橋忠市) 행적

③ 조대이조(助代伊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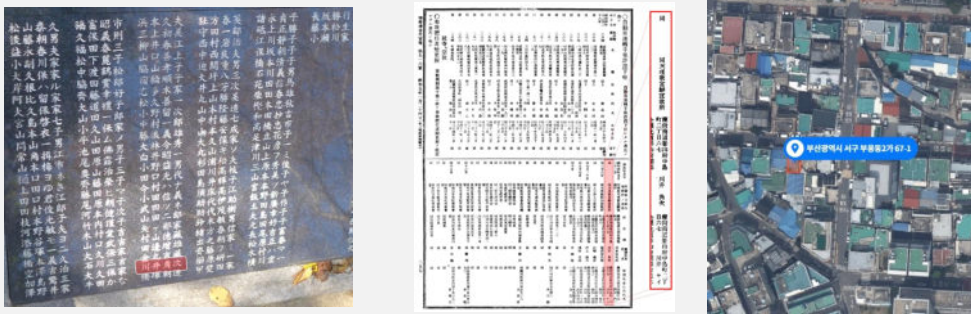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조대이조(助代伊助)는 일제강점기 사료에 따르면 부산부(釜山府) 대창정 4정목 48번지 즉 오늘날 중구 대창동4가 48번지에 합자회사 화옥(花屋) 호텔을 1935년 설립하여 여관업에 종사한 인물
- 1938년 10월 25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대판부(大阪府) 출신으로 1907년 부산에 들어와 여관업에 종사하면서 부산여관조합조합장 및 전선여관조합역원(全鮮旅館組合役員)을 역임하였고 병원 요양 중에 사망해 서본원사(西本願寺)에서 고별식을 집행하였다는 기록이 확인



[그림-41]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조대이조(助代伊助) 행적

④ 천정각차(川井角次)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천정각차(川井角次)는 일제강점기 사료에 의하면 천리교(天理教) 천리교공선선교소(天理教公鮮宣敎所) 부산부(釜山府)의 포교사(布敎師)로 활동
- 1930년 1월 24자 조선총독부관보에서 부산부 내 포교담당자(布敎擔任者)의 한 사람으로 확인되며 주거지는 부산부(釜山府) 중도정(中島町) 2정목 67번지로 오늘날 서구 부용동2가 67번지이며 이곳은 천리교 공선포교소(宣鮮布敎所) 위치로 추정



[그림-42]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천정각차(川井角次)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30년 1월 24일자)

⑤ 협전실랑(脇田實郎)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협전실랑(脇田實郎)은 일제강점기 사료에 따르면 조선총독부 세관감리(稅關監吏) 신분으로 조선에 정착
- 1918년 조선총독부 부산세관(釜山稅關) 감시과의 감리(監吏)를 시작으로 1922년 구룡포와 1926년 진해출장소에서도 근무했고 대 부분 부산세관에서 재직
- 1917년 12월 6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서 조선총독부 기사(技師) 신분으로 지방 출장을 명령받은 기록이 확인



[그림-43]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협전실랑(脇田實郎)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17년 12월 6일자)

⑥ 중촌등칠(中村藤七)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중촌등칠(中村藤七)은 일제강점기 사료인 조선총독부직원록과 관보에서 경찰부 고등경찰과 경부보 및 경부(警部)를 지내고 1920년 7등수서보장(七等授瑞寶章) 및 1936년 청색동엽장(靑色桐葉章)까지 서훈 받고 종7위 훈7등으로 퇴임한 관리(官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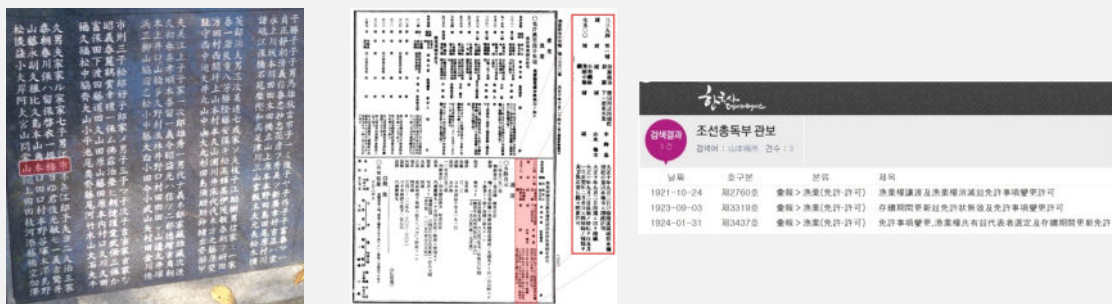
- 1927년 이후 속관(屬官) 신분으로 함경북도에서 함북무진회사(咸北無盡會社)의 중역(나진출장소장)으로 활동



[그림-44]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중촌등칠(中村藤七)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34년 7월 14일자)

⑦ 산본매시(山本梅市)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산본매시(山本梅市)는 일제강점기 사료에 의해 경상남도 고성군(固城郡)에서 어업면허(漁業免許)를 받은 어업 종사자로 확인
- 1921년 10월 24일자 조선총독부관보에 따르면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下一面) 동화리(東禾里) 소재 어장(漁場)을 인수한 고성군 동해면(東海面) 장좌리(壯左里) 거주 산본매시(山本梅市)는 방렴(防簾) 어업을 포기하고 채포물(採捕物)의 태도어(太刀魚, 갈치), 석수어(石首魚, 조기), 설(鱒, 대구), 은(鰻, 정어리) 등에 대한 어획면허로 변경을 허가 받은 것으로 기록



[그림-45]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산본매시(山本梅市) 행적
(출처: 조선총독부관보, 1921년 10월 24일자)

⑧ 천본영일(川本榮一)

- 일본인총위령비에서 찾을 수 있는 천본영일(川本榮一)은 일제강점기 사료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와 도매, 운송 및 대리 그리고 수산물 제조가공을 영업하던 상업 종사자
- 함경북도 청진부(淸津府) 보정(寶町) 6번지에 1939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산본상사(川本商事)의 중역이자 이사로 활동



[그림-46] 영락공원 일본인총위령비의 천본영일(川本榮一) 행적

3.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 (1950-1975)

3.1. 피란민 임시 주거형성기 (1950-1954)

3.1.1. 시대개관

- 한국전쟁의 발발로 남한 내 전쟁 피란민들이 후방의 대도시 부산으로 대거 이동,
- 정부 주도로 1950년 7월 20일 관보 제384호 '통첩(通牒)'사항으로, 〈피란민 분산에 대한 건〉을 공포하며 1차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로 분산
- 전황이 위급해지자 다수의 공무원, 군인 가족들이 우선적으로 부산으로 이동했다가 정부 자체가 옮기며 1950년 8월 18일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짐
- 부산의 인구는 1949년 당시 약 47만 명이었으나 1951년 84만 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도심 주변의 변두리, 공터, 산 능선 등 피란민의 임시주거가 난립
- 도심 내 인구가 폭증하자, 부산시 관계자는 피란민에게 아미동 공동묘지인 '산19번지'에 임시거주할 것을 유도함으로써, 피란민의 임시주거지 형성이 시작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란민을 돕는 종교단체와 미군의 구호 활동이 시작됨



피란민 임시 주거형성기 (1950-1954)

1952년 한국전쟁 시기 산상교회 (천막)와 은천교회 (천막) 설립
 1953년 그리스도구원선 법인사업 시작 (그리스도구원선 설립자 한삼복 권사 활동)
 1954년 정부 주도로 부산시내 판잣집이 철거될 때 철거민들 일부가 아미동 산22번지로 이주

[그림-47] 피란민 임시 주거 형성기의 주요시설 형성

3.1.2. 공간변화과정

Ⅰ 긴급 피난에 의한 임시주거 발생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량의 피란민 발생했고 다수가 임시수도 부산으로 이동하였으며, 전쟁 직전 1949년 47만 명의 부산 인구가 1954년 휴전 직후에 84만 명으로 폭증
- 갑작스러운 인구 증가로 부산 지역은 주거지 부족에 부산항을 중심으로 산비탈이나 해안가, 강가 등 곳곳에 피난민의 임시주거가 다수 발생
- 피난민 수용을 위해 정부 주도로 임시수용소가 조성되었으나 수용 인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고, 임시수용소에 수용되지 못한 피난민들은 급조한 판잣집을 조성하여 거주



[그림-48] 피난민 임시주거
'아미동 비석주택'



피난민의 이동(국가기록원)



임시수용소(국가기록원)



임시주거(부경역사연구소)

[그림-51] 한국전쟁기 피난민의 이동과 임시수용소 및 임시주거 모습



[그림-49] 1950년대 그리스도
구원선 한삼복 권사

Ⅱ 전쟁 피난민의 일본인 묘지 위 임시주택

-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전화(戰禍)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피난민이 위급상황 하에 부산으로 대거 이주하였으며,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과도한 피난민의 이주(移住)로 인해 공동묘지였던 아미동까지 임시주거지로 활용
- 현재 아미동에는 일본인 묘지 구조물 위에 긴급하게 세워진 임시주택(판잣집)이 남아 있으며 1953년 7월 무렵 조성된 것으로 추정
- 이른바 아미동 피란민 비석주택은 한국전쟁의 긴급한 상황에서 조성된 임시주택(판잣집)으로 유일하게 현존



[그림-50] 은천교회 한명리(우),
송진천(좌) 장로 부부

Ⅲ 천막형 교회와 구호활동 : 산상교회, 은천교회, 그리스도구원선

- 산상교회는 1952년 현재의 위치(아미동2가 225-150번지)에서 장로회 소속 천막 교회 형태로 출범했으며, 2008년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4층 교회 건물을 준공하여 현재에 이름
- 은천교회는 한명리·송진천 장로 부부가 한국전쟁 시기 '은천교회'란 이름의 천막으로 지어진 예배당에서 시작되었으며, 교회 설립자인 한명리·송진천 장로 부부와 아들 한창교 장로는 북한에서 부산까지 피란을 내려온 피란민으로 알려짐
- 그리스도구원선은 한삼복 권사 주도 하에 1953년 3월 15일 아미동 산19번지에서 거의 부랑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을 보살피는 그리스도구원선 활동을 시작하면서 비롯하며, 사회법인 그리스도구원선으로 성장하였고 현재 아미동 소재 그리스도요양원(아미동2가 89-155번지)으로 발전

Ⅰ 행복산 보육원

- 1950년 11월 미군 제8군 배속 UNCACK(주한유엔민간원조사령부, 8201부대)의 부산팀 장교인 클리포드 매키언(Clifford G. McKeon) 소령이 전쟁고아들을 위해 아미동2가 37번지에 행복산(Happy Mountain) 보육원을 설립
- UNCACK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물자의 통로였으며 한국 정부와 행정기관과 함께 집행하는 민사(Civil Affairs) 관련 군 조직이었고, 매키언 소령이 속한 부산팀은 항만시설을 관리하는 제2병참사령부에 있어 구호가 용이
- 1951년 8월 기준으로 당시 163명의 고아가 행복산보육원에 수용되었고 그 중 80여 명이 유아로 알려져 있으며 1952년 3월에 650명으로 증가하였고, 1952년 매키언 소령의 전역 및 귀국 이후 관리권은 한국 정부 사회부로 이관되어 국립(國立)으로 운영
- 1953년 8월 15일 환도(還都)가 이뤄짐에 따라 1955년 7월 대통령령 제1038호 <육아원직제>에 의해 행복산보육원은 '행복산육아원'이란 명칭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동 570번지로 이전



[그림-52] 행복산보육원 간판
(출처: KMDb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그림-53] 1951년 6월 11일 행복산 보육원
(강성현 제공, 한겨레21.2019.02.15.)



[그림-54] 1952년 무렵 행복산보육원 귀빈 방문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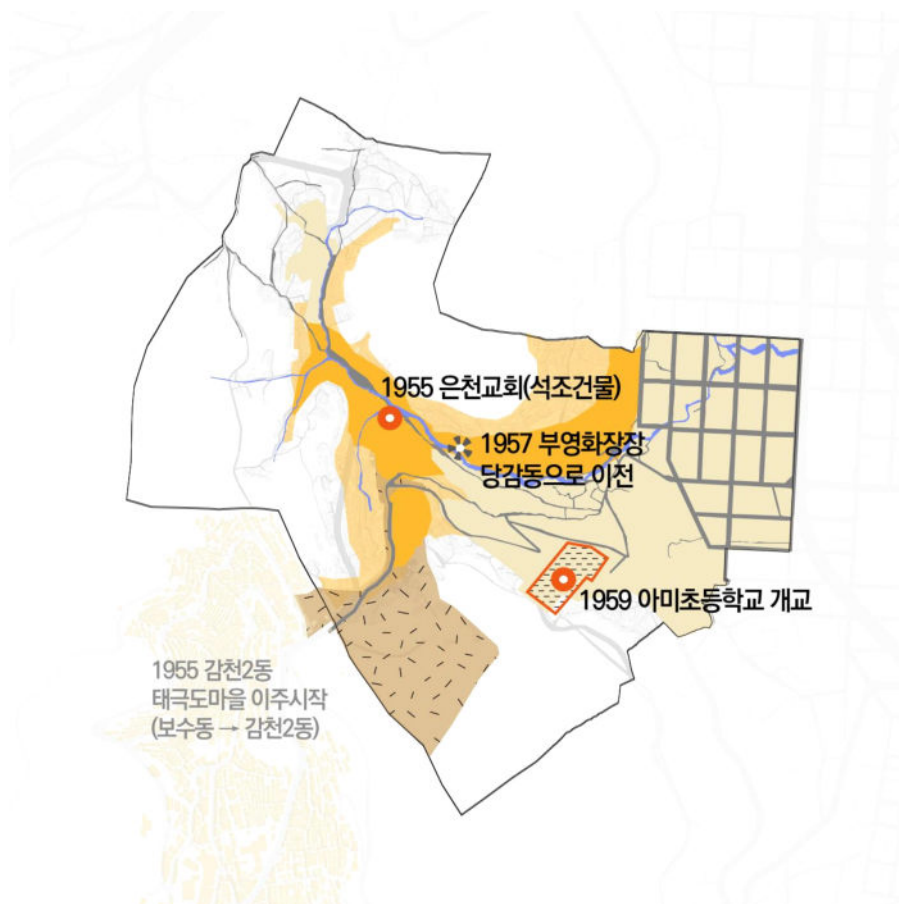


[그림-55] 1951년 행복산보육원 내 부산무료소아과 병원 계단을 오르는 아이
(부산시 시민공원추진단 제공, 국제신문 2014.04.23.)

3.2. 도시주거 정착기 (1955-1959)

3.2.1. 시대개관

- 1953년 7월 29일 한국전쟁이 휴전(休戰)으로 귀결됨에 따라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정전(停戰)이 되었고, 전후 복구와 재건을 준비하며 도시 정비가 시작
- 한국 정부는 1953년 8월 15일 피란수도 부산을 떠나 서울로 환도했으나 부산의 인구 집중이 지속되어 1954년 84만 명의 인구가 1955년에는 104만 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전후 복구시기 전반적인 사회 피폐로 인해 사회구호가 용이한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이 촉진되었음
- 아미동 공동묘지는 인근의 감천2동 태극도 마을의 형성과 함께 점차 임시 주거지에서 정착 주거지로의 전환을 맞이하였으며, 아미동 내 화장장을 당감동으로 이전시키고 초등학교를 개교하며 주거지로서의 변화가 점차 진행



도시주거 정착기 (1955-1959)

1955년 7월 감천2동에 태극도 마을 형성 시작
(보수동판자촌 철거 → 감천2동 이전)
1957년 부산 시영 화장장(현 천주교 아파트 부지)이 당감동으로 이전
1959년 부산사범병설중학교 가교사가 조성되었던 옛 총천사 위치에 아미초등학교 개교

[그림-56] 도시주거 정착기의 주요시설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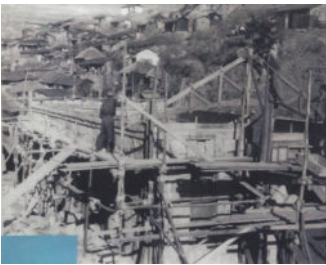
3.2.2. 공간변화과정



[그림-57] 부산항 물품 하역
(국가기록원)



[그림-58] 전후 주택 건설
(국가기록원)



[그림-59] 1955년경 은천교회 공사



[그림-60] 은천교회 현재 모습

Ⅰ 철거민의 유입과 무허가 주거지의 형성

- 1955년 보수천 일대를 판자촌을 철거하면서 이 일대에 거주하던 태극도 교인 700여 세대가 감천동으로 집단 이주하여 태극도 마을을 형성
- 태극도마을은 같은 종교를 믿는 종교공동체로서, 다른 마을과는 뚜렷이 구분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감천동 주민과 아미동 주민 사이에는 잦은 마찰이 발생하기도 함 (“百餘名이 편싸움 甘川洞民과 峨嵋洞民(釜山)” / 동아일보 1956.3.17.)



[그림-61] 1950년대 태극도 마을 조성 중



[그림-62] 1950년대 추정 아미동 판자집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송유순 제공)

Ⅰ 부영화장장의 이전

- 1957년 아미동 화장장은 ‘시내에 화장터가 있다는 것이 시민의 보건과 도시 미관상 좋지 못하다’라는 여론에 따라 변두리인 당감동으로 이전

Ⅰ (총천사 → 부산사범병설중학교 가교사 →) 아미초등학교 개교

- 1945년 광복 이후 총천사 부지는 국유화되었고 1946년 부산사범학교가 개설되고 1949년 학교 내 중학교(과)가 개설되면서 1950년 4월 1일 공립에서 국립으로 이관될 때 초급중학교가 병설중학교로 개편되면서 가교사로 사용
- 옛 총천사 부지는 1959년 3월 31일에 ‘아미국민학교’의 설립 인가에 따라 그해 4월 11일 개교하였고, 1996년 3월 1일 ‘아미초등학교’로 교명이 변경

Ⅰ 1953년 휴전과 사회 재건: 외국 원조에 의한 재건 사업

- 한국전쟁 휴전 전후로 대규모 외국 원조가 이뤄졌고 부산항을 중심으로 구호품이 하역, 원조에 의한 재건 사업은 사회 전반적으로 행해졌고 곡물과 목재 등 식품 및 원자재 중심의 원조 유입에 따라 삶의 구호와 주택 재건에 집중
- 전후(戰後) 부산항이 외국 원조 물품 유입의 중심이 되었고 부산 지역의 재건 사업에 영향

Ⅰ 재건시기 은천교회: 천막형 교회에서 정식 종교시설의 조성

- 1952년 천막형 예배당이 있는 임시교회로 시작하였던 은천교회는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설립자인 한명리·송진천 장로 부부가 미국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부탁해 미화 100달러로 화강암을 사용해 예배당을 짓기 시작하여, 1955년 11월 20일에 석조 교회건물을 준공

3.3. 주거지 확장기(1960-1975)

3.3.1. 시대개관

- 1962년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따라 제조업 중심의 경·중공업 개발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었고, 일자리가 풍부한 도시로 농촌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인 이촌향도(離村向都)가 발생
- 1960년대 부산은 도시노동자와 철거민이 원도심에 집중하여 증폭하였고, 원도심 배후 주거지인 아미동 또한 과밀한 인구로 인해 불법 및 불량주거지를 형성
- 1975년 아미동은 총 28,397명으로 인구 최대 정점에 달하며 1966년 행정동을 아미1·2동으로 분동하였고, 1970년대 들어 산복도로를 조성하는 주거지로서의 변화가 정부 주도로 나타나는 한편, 종교시설(천주교 아미성당)을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시기임

[표-14] 아미동 인구변화

년	인구(명)	증감율	비고
1954	18,377	-	-
1957	20,617	10.9%	증
1960	22,080	6.6%	증
1970	27,617	20.0%	증
1975	28,397	2.7%	증
1980	27,931	-1.7%	감
1985	25,825	-8.2%	감
1990	24,307	-6.2%	감
1995	20,516	-18.5%	감
2000	15,198	-35.0%	감
2005	12,208	-24.5%	감
2010	10,520	-16.0%	감
2015	9,022	-16.6%	감

※ 인구통계 출처

1954년, 1957년 : 부산시, 시세일람

1960년 : 부산시 통계연보

1970-2015년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거지 확장기(1960-1975)

- 1963년 대성사 창건
- 1964년 10월 천주교아파트 완공 (당시 '아미동난민주택')
- 1966년 아미1·2동으로 행정동 분동
- 1968년 아미고등공민학교설립
- 1969년 아미성당 본당 설립(초대신부 골라신스키 야고보)
- 1960년대 아미시장 형성

[그림-63] 주거지 확장기의 주요시설 형성

3.3.2. 공간변화과정

Ⅰ 아미동의 판자촌 형성과 확장

- 1960년대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주요 도시의 인구 집중이 심화
- 원도심 배후에 자리한 아미동 일대에 도시노동자와 철거민이 유입되어 판자촌을 형성하였으며, 도로 및 교통시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부재한 상태에서 과밀한 불량주거지가 열악한 경사지에 조성
- 정부는 지속적인 불량주거지 철거 및 정비와 공공주택의 공급 등을 진행하였으나, 이촌향도 이주민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심각한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



[그림-64] 화장장 굴뚝이 보이는 까치고개로 일대 판자촌 (은천교회 소장)



[그림-65] 1960년대 추정-현 송이덕이경로당 맞은편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조묘이 제공)



[그림-66] 1970년대 은천교회가 보이는 까치고개로 (서구청)



[그림-67] 1973년 현 산상교회 앞 아미로 비포장도로 모습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윤지선 제공)

Ⅱ 1970년대 새마을 운동과 아미동 신설 도로 개설

- 1960년대 중후반부터 부산시는 불량주거지의 개선을 위해 산복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을 진행
- 아미동은 도시 영세민의 대표적인 거주지이자, 불법무단점유로 묘지에 조성된 주거지로서 불량주거지의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1960년대 후반 초량과 수정산 일대 도로가 조성된 것과 달리 아미동의 도로 개설은 1970년대 들어 다소 늦게 시작됨
- 1972년 천마산 기슭의 마을로 진입하는 기존의 아미동 3m 도로를 뚫어 7m로 확장하면서 800m 도로 신설로 주변 개발의 여건 조성 (현 까치고개로)



[그림-68] 1970년대 새마을운동 과정에서 1972년 아미동 도로 개설 (출처: 새마을 제2호, 1972년 발행, 22-23쪽)



[그림-69] 1965.05.05.오지리 부인회 중앙본당 방문



1964.05.10. 난민주택 완공 현 천주교 아파트



아미고등공민학교
(1968년 이후 추정)



1969.08.06. 아미성당 본당 설립

[그림-70] 1960년대
아미성당의 지역 활동
(부산교회사 연구소 교구
사진자료집2 1957-1971)



아미성당 2015.08



아미성당 2017.03
[그림-71] 아미성당

■ 천주교 아미성당 주도의 주거환경 정비와 무료 교육활동

- 알로이시오 신부는 부산교구 송도 본당의 주임신부로 재직(1962~1966)하면서 마리아 수녀회를 창설하였고(1964) 부산 서구 아미동, 암남동 일대에 자선 및 구호활동을 진행
- 1960년대 천주교의 종교단체 '아미성당'을 중심으로 아미동 내 자선 및 구호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1966년에는 아미동 빈민지역에 첫 번째 진료소를 개설, 1964년 10월 천주교아파트 조성, 1968년 무료 아미고등공민학교 설립하는 등 종교시설이 주관하여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진행
- 1964년 10월 옛 부영화장장 위치에 천주교 아파트이 조성되었으며, 당시 '아미동 난민주택' 으로 불리었으며, 오지리 부인회(오스트리아 가톨릭 부인회)로 불리는 국제 민간단체가 아미동, 해운대 등지 난민주택을 위한 자금을 원조

알로이시오 슈왈츠 (Aloysius Schwartz, 1930~1992) / 소재건(蘇再建)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사회사업을 벌였는데, 이는 고아원, 무료 의료 시설, 무료 교육 시설의 설립 및 운영이었다. 우선 1964년 마리아수녀회를 창설하여 고아원을 만들었으며, 1969년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보호 시설인 '소년의 집'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무료 의료 시설로 1970년에 120개 병상 규모의 구호병원을 설립하였다. 또 무료 교육 시설로는 아미고등공민학교[1968년], 부산 소년의 집 초등학교[1973년], 부산 소년의 집 중학교[1974년], 부산 소년의 집 기계공업고등학교[1976년]를 차례로 세웠다. (부산역사문화대전)

1963~1969 부산 서부 빈민 지역에서 모금용 손수건 자수 자조 사업을 전개.

2,000명의 가정 주부에게 수놓는 일감을 공급

1964.08.15 가족 단위 고아원 설립

1966.09.01 부산 서구 아미동 빈민 지역에 첫 번째 진료소 개설

1967.01.18 부산 서구 암남동과 중구 보수동의 빈민 지역에 각 1개소의 진료소 개설

1968.12.10 부산 서구 아미동에 아미고등공민학교 설립

1969.07.01 부산시로부터 서구 장림동 소재 행려 환자 구호소의 관리 운영

1970.04.10 부산 서구 암남동에 첫 소년의 집 사업 시작

1970.10.25 부산 서구 암남동 120병상이 무료 구호 병원 개원

1973.01.01 부산 서구 암남동에 공식 부산 소년의 집과 소녀의 집 개원

1973.03.01 부산 소년의 집 초등학교 개교(1976년 서울 소년의 집 초등학교에 병합)

1974.03.01 부산 소년의 집 중학교 개교(1999년 알로이시오 중학교로 명칭변경)



부산 고 신부, 도로공사에 시멘트 전달 [카톨릭신문 1972-07-02 [제822호, 3면]

아미고등공민학교장 고 야고보 신부는 19일 시내 아미2동과 감천2동 도로 확장 공사에 써 달라고 시멘트 5백 포대와 현금 5천4백 원을 전달했다. 고 신부는 아미동산꼭대기에 불우 청소년을 위한 자선사업으로 공민학교를 경영하고 있다.

https://www.catholictimes.org/article/article_view.php?aid=344042

[그림-72] 천주교 아미성당의 아미동 자선사업

Ⅰ 아미초등학교의 증축

- 아미동 내 급속한 인구증가와 주거지 확장과 더불어, 1959년 아미초등학교 개교 이래,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962년부터 1970년대까지 아미초교 내 교사 조성 및 증축이 지속적으로 진행
- 1960년대 아미초등학교 교사 조성 시 총천사의 옛 사찰 건물이 철거된 것으로 추정됨

[표-15] 아미초등학교 주요 연혁

연혁일	연혁내용
1959.03.31	'아미국민학교'로 설립 인가
1959.04.11.	'아미초등학교' 개교
1962년	제1관 12개 교실 증축
1971년	13개 교실, 화장실, 숙직실, 창고1동 증축

※ 아미초등학교 홈페이지



[그림-73] 1968.03.05. 아미초등학교 입학식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김무선 제공)



[그림-74] 1976년 아미초등학교 교내 모습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윤지선 제공)



[그림-75] 1960년대 후반 아미로 미화당 슈퍼 인근
(2016 아미동 옛사진 공모전, 김미진 제공)

4. 주거지 정체 및 축소기 (1976-2020)

4.1. 주거지 정체기 (1976-2009)

4.1.1. 시대개관

- 1975년 인구 정점을 달성한 이래, 아미동의 인구 감소가 진행되는 시기로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인구 감소가 비교적 적었으나, 1990년대 후반 탈산업화와 IMF, 원도심 쇠퇴의 영향으로 지역 정체와 쇠퇴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1998년 아미1·2동에서 아미동으로 행정동이 통폐합되었음
- 아미동의 인구 감소는 1990년까지는 -10% 미만의 비교적 적은 수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0년에는 1995년 대비 -35%의 인구 감소가 나타남
- 그에 따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아미동에 인접하는 감천동에 1978년 감정초등학교 교가 개교하고, 1985년 아미시영아파트 조성권 천주교 아파트 양성화 진행, 까치고개로의 도로 확장 등 비교적 안정적인 주거지의 환경 조성이 나타난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큰 변화 없이 정체되는 시기

[표-16] 아미동 인구변화

년	인구(명)	증감율	비고
1954	18,377	-	-
1957	20,617	10.9%	증
1960	22,080	6.6%	증
1970	27,617	20.0%	증
1975	28,397	2.7%	증
1980	27,931	-1.7%	감
1985	25,825	-8.2%	감
1990	24,307	-6.2%	감
1995	20,516	-18.5%	감
2000	15,198	-35.0%	감
2005	12,208	-24.5%	감
2010	10,520	-16.0%	감
2015	9,022	-16.6%	감

※ 인구통계 출처

1954년, 1957년 : 부산시, 시세일람

1960년 : 부산시 통계연보

1970-2015년 :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거지 정체기 (1976-2009)

1977년 그리스도정신요양원에서 '그리스도정신요양원'으로 시설 명칭 변경
 1978년 감정초등학교 개교(2019년 폐교)
 1985년 아미시영아파트 건설
 1985년 천주교 아파트 사용 승인 받음 (특정건물 양성화 정책)
 1985년 까치고개로 2차선으로 확장
 1993년 까치고개로 과점동 방향 및 육천로의 확장
 1998년 아미1·2동에서 아미동으로 행정동 통폐합

[그림-76] 주거지 정체기의 주요시설 형성

4.1.2. 공간변화과정

Ⅰ 아미동 시영아파트와 천주교 아파트의 양성화

- 정부는 1963~1989년 대대적인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저소득층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영아파트'를 조성하여 공공분양을 진행하였으며, 아미동은 1985년 '아미동2가 257-2(1,705.5㎡)'일원에 3개 동 총 40세대의 아미시영아파트가 조성됨
- 천주교 아파트는 일제강점기 화장장이 있던 곳으로서 1964년 아미동 난민주택으로 지어졌으며, 1985년 특별건축물 양성화를 통해 법적 지위를 가지게 됨

[표-17] 아미시영아파트 동별 현황

동	건축면적	연면적	세대수
1호	191.18㎡	470.22㎡	13
2호	162.86㎡	488.57㎡	15
3호	151.68㎡	455.04㎡	12
계			40



[그림-77] 천주교 아파트



[그림-78] 1990년 아미로 산상교회 앞

Ⅰ 마을안정기의 아미동

- 1990년대까지는 마을의 안정기로서, 아미로를 따라 신축 상가건물이 조성되었으며, 1981년 제정된 <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허가 주택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정책이 진행
- 주민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판잣집을 슬레이트 주택 또는 슬래브 주택으로 개량하며, 좁은 실내 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주택에서 수평 또는 수직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Ⅰ 아미동 주거지의 정체

- 주거지 정체기(1976~2009) 아미동은 토성동 및 부산대학교병원이 위치하는 저지대 아미동1가의 상업화의 영향은 빈번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나, 고지대인 아미동2가 비석마을 주변으로는 인구 특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아미동은 1990년대 후반 부산시청의 이전과 원도심 쇠퇴의 영향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었으며, 주민 중 자녀 세대의 인구 유출로 지역 고령화율이 증가하여 취약계층과 고령자의 거주율이 증가하고 있음
- 주거지 정체기에 아미동은 옥천로 조성 및 까치고개로의 도로 폭 확장 외에 물리적 변화가 거의 없으며, 2010년 조성된 천마산로 이외에 주거지 정체기에 조성된 도시구조의 골격이 현재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



[그림-79] 2008년 아미동 항공사진



[그림-80] 2019년 아미동 항공사진

4.2. 마을재생기 (2010-2020)

4.2.1. 시대개관

- 2000년대 탈산업화와 원도심 쇠퇴로 인해 배후주거지의 연쇄적 쇠퇴가 가속화됨에 따라, 2010년 부산 시에서는 부산의 중구, 동구, 서구의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 아미동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아미·감천 구역에 포함되어 2014년 기찻집 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을 조성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일반지역 도시재생사업인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추진



마을재생기 (2010-2020)

2010년 산복도로 천마산로 개통
2012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진행 : 아미·감천 구역
2014년 기찻집 예술체험장, 아미문화학습관 조성
2015년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16-20)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그림-81] 마을재생기 주요시설의 형성

Ⅰ 도시재생 사업과 공동체 거점공간의 조성

- 부산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으로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시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년(2011년~2020년)동안 권역별 사업을 진행
- 아미동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의 아미·감천 구역에 포함되어 2011년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아미맘스’와 ‘비석마을주민협의체’, ‘아미골협동조합’의 주민공동체 조직을 형성
-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기찻집예술체험장과 아미문화학습관이 2014년에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천마산로를 따라 조성된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가 진행
- 아미동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사업의 근린재생형 일반지역에 선정되어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2016~2020)’를 진행하였으며, 2017년 비석마을 내 ‘골목빨래방’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지역성이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리모델링한 아미동 ‘돌집’과 ‘근린상점’ 2개소의 개소를 준비중에 있음



[그림-82] 기찻집예술체험장



[그림-83] 아미문화학습관



[그림-84] 비석마을 골목빨래방



[그림-85] 비석주택 앞 문화해설

Ⅰ 아미초등학교 개축과 옛 총천사 불상의 이동

- 아미초등학교는 2008년 교사를 개축하고 2010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교사 전면에 위치하였던 옛 총천사 불상을 교사의 뒤편으로 이동시킴
- 2013년 7월 26일 일본 조동종 사찰은 초량 서중학교 후문 앞에 참회 비문을 설치하고, 2014년 7월 15일에는 아미초교 뒤편의 불상이 보이는 철조망에 참회 비문을 설치 (2017.07.20. 다시 세움)



[그림-87] 아미초등학교 개축 전 (2008)



[그림-88] 아미초등학교 개축 후 (2010)



[그림-89] 교사 전면에 위치하였던 총천사 불상



[그림-90] 개축 후 교사 후면의 총천사 불상










[그림-86] 아미동 ‘돌집’ 조성 전후

5. 형성과정 종합

5.1. 공간의 형성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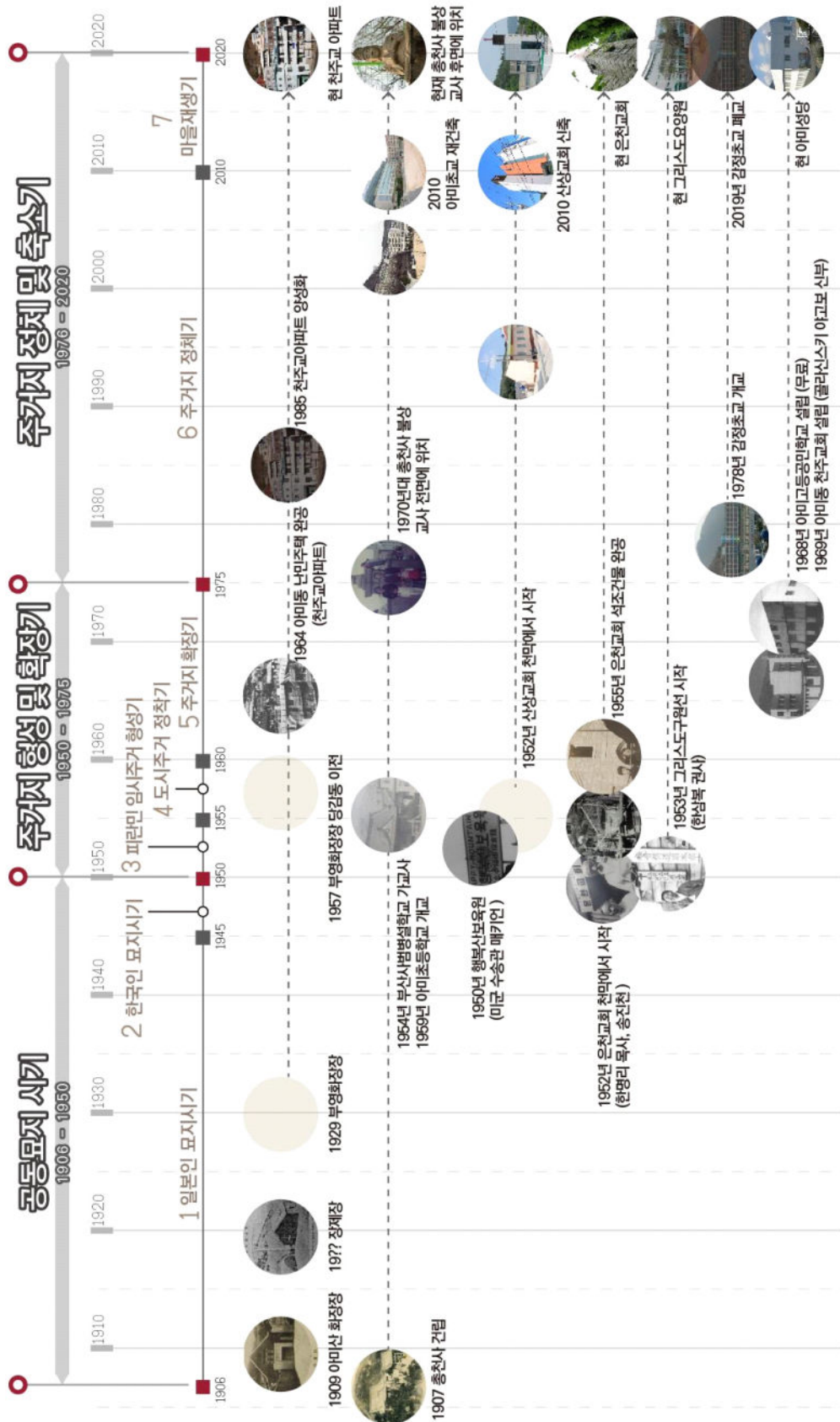
5.1.1. 시기별 형성과정 종합

구분	세분류 시기별 형성과정	주요 부지 및 시설
공공개발시기 (1906-1950)	 <p>일본인 묘지시기(1906-45)</p>  <p>한국인 묘지시기(1945-1950)</p>	<p>아미동 산19번지 화장장 및 장제장 총천사</p>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 (1945-1975)	 <p>피란민 임시주거형성기(1950-1954)</p>  <p>도시주거 정착기 (1955-1959)</p>  <p>주거지 확장기(1960-1975)</p>	<p>아미동 산19번지 천막주거 천막교회 (산상교회, 은천교회) 그리스도구원선</p> <p>아미초등학교 아미성당, 아미공민학교 감천2동 태극도마을 이주</p>
주거지 정제 및 축소기 (1976-2020)	 <p>주거지 정제기 (1976-2009)</p>  <p>마을재생기 (2010-2020)</p>	<p>감정초교 아미시영아파트 까치고개로 아미골행복센터, 아미문화학습관, 기차집예술체험장</p>

[그림-91] 공간형성과정 종합

5.1.2. 주요시설의 형성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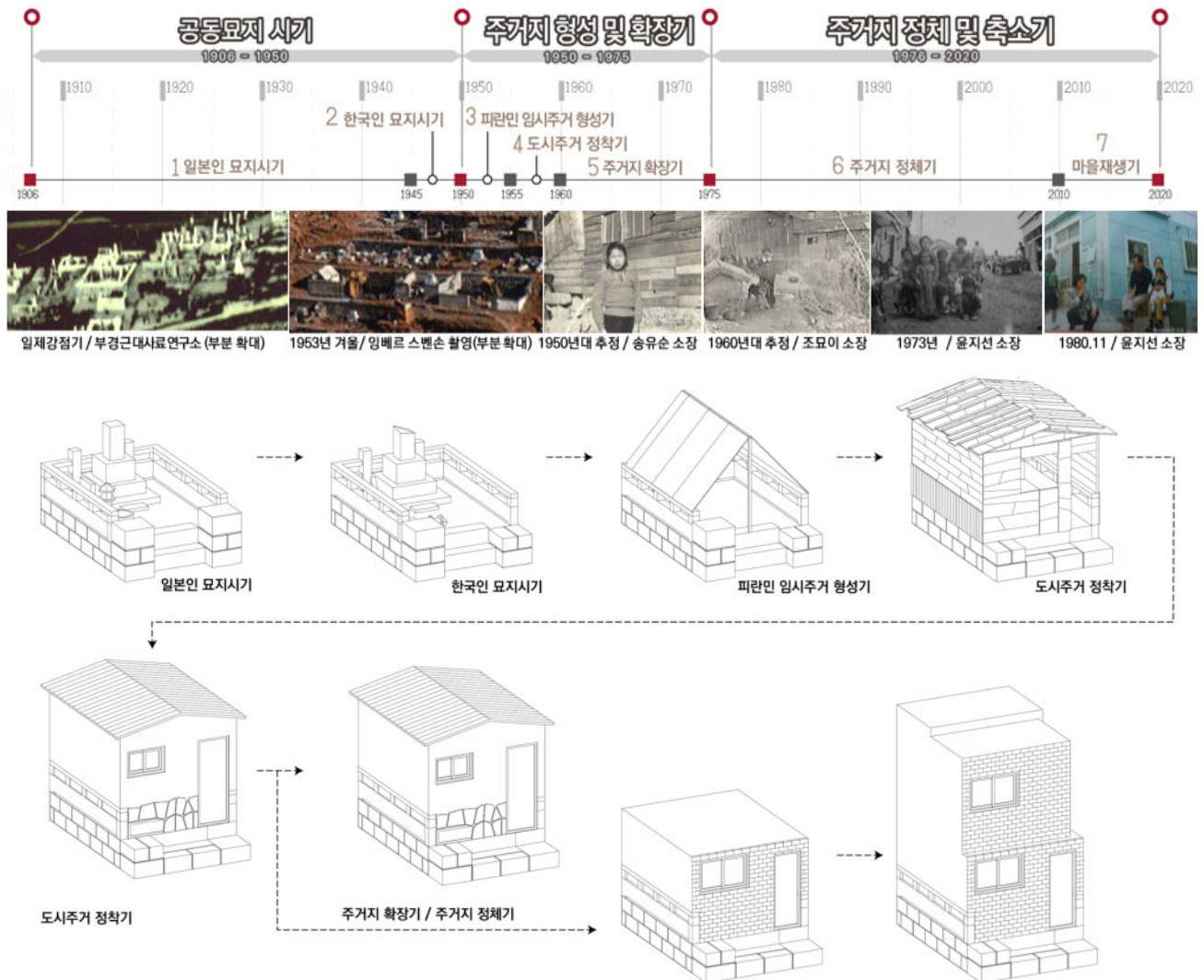
- 구한말 통감부의 설치 이후 부산일본인거류지의 활성화에 따라 복병산 공동묘지의 이전이 추진되어, 1906년 곡정(현재 아미동) 공동묘지가 조성되면서 오늘날 아미동 비석마을 공간이 형성
- 1907년 일본 조동종 총천사(總泉寺)가 공동묘지 인근에 사찰을 개설
- 장례에 있어서 화장(火葬)의 전통에 따라 화장장과 재장이 공동묘지 부근에 조성되었고 1929년 부산부영(釜山府營) 화장장이 건립
- 1945년 광복 이후 총천사는 적산재산으로 국가로 수용되었다가 1946년 설립된 부산사범학교의 초급 중학과가 1950년 병설중학교로 개편될 때 옛 총천사 부지에 가교사(假校舍)가 설치
- 1959년 옛 총천사 부지에 아미국민학교 개교(1996년 아미초등학교로 개칭)
- 1950년 11월 미군 장교 매키언 소령이 전쟁고아를 위해 행복산 보육원을 설립하여 1952년 전역 후 사회부가 맡아 국립으로 전환
- 1950년 한국전쟁 시기 종교단체에 의한 피란민 구호가 빈번히 이뤄졌고 아미동 일원에서 산상교회, 은천교회, 그리스도구원선 등이 대표적으로 활동
- 은천교회의 경우 1955년 재미교포의 후원으로 어려운 시기에 석조 교회를 건립하였고 현재까지 존치
- 1957년 아미동의 주거화로 인해 화장장의 존립이 여론화됨에 따라 이전 문제가 거론되면서 시 주도로 당감동으로 이전하고 그 부지에 천주교 아파트 건립



[그림-92] 주요시설의 형성과 변천

5.1.3. 주거시설의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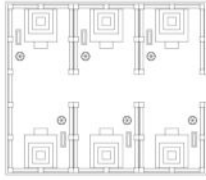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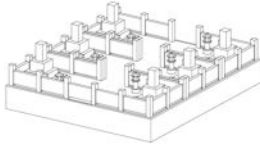
- 공동묘지 시기에는 별다른 주거시설은 존치하지 않았고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피란민의 임시주거지로 자리 잡으면서 천막 시설과 판잣집 조성
- 휴전 이후 피란민의 거주보다는 빈민들의 거주가 본격화되었고 특히 1960년대 이후 도시주거의 정착이 활발해 집에 따라 주거지의 확장도 함께 이뤄짐
- 1960~70년대 산업개발시기를 거치면서 도시의 팽창과 함께 아미동 일원에는 외부로부터 급격한 인구의 유입과 함께 주거지의 확장 그리고 새마을사업을 통한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해 1975년 무렵 인구수가 최대치에 이름
- 1980년대 이후 산업화의 진전 결과로 사회 전반에 생활 개선이라는 근대화 영향으로 아미동 일원에도 상·하수도 개설, 불력조 주택 조성 등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졌지만,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수도 급증하면서 주거지의 정체 및 축소 발생
- 정주민구의 감소로 도시의 생애주기에서 정체기를 맞이했으나 2010년 무렵부터 쇠퇴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도시사업의 시기와 맞물려 커뮤니티 운동과 함께 활성화사업이 진행



[그림-93] 주거 변천 및 묘지주택 변천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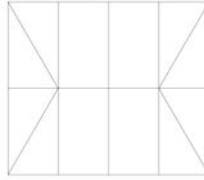
비석주택

진입 및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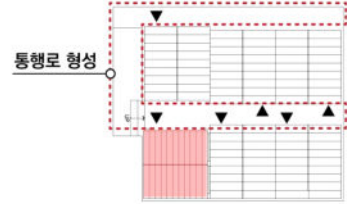


진입

1. 일본인 모치시기 (모치 배치 추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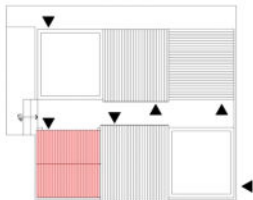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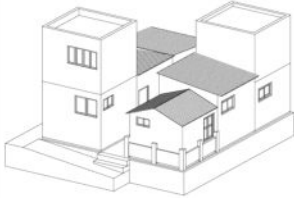


2. 피난민 임시주거 형성기 (미군 천막형 모치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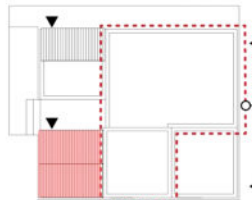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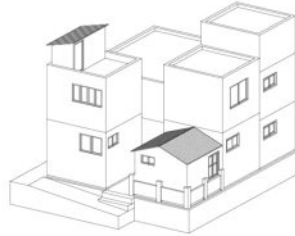


통행로 형성

3. 피란민 임시주거 형성기 (판자촌 추정도)
- 거주민 통행을 위한 골목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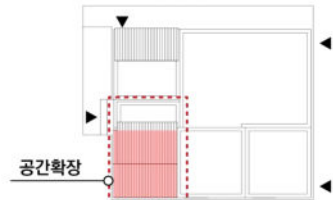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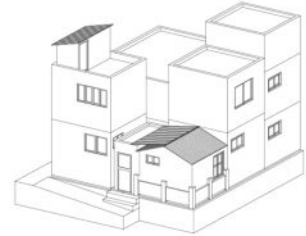


4. 도시주거 정착기
- 슬레이트 지붕, 벽체 미장 방식 등장
- 일부 블록구조 주택 등장



공간확장

5. 주거지 확장기
- 사용하지 않는 골목까지 주택 확장



공간확장

6. 주거지 정체기
- 주거지 구조의 큰 변화는 없으나 일부 유휴공간으로 주택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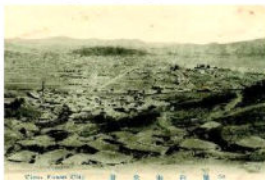
[그림-94] '비석주택'을 바탕으로 한 모치 및 주택군집 변화과정 추정

5.2. 경관변화과정

- 1907년 북병산에서 이전해 온 공동묘지는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묘지 공간으로 활용되었고 광복 이후 방치되었다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급박한 상황에서 피란민의 임시주거지로 활용되었고,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 이주민들의 주거지화

공동묘지에서 임시주거지로 변화

1910년경 초기집 전경



1910년경 아미동 전경
_한국저작권위원회

1911년경 자연상태의 전경



1911년경 아미동에서 바라본 서구
_한국저작권위원회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의 전경



일제강점기 아미동
_부경군대사료연구소

1953년 시가지와 묘역 위지붕 또는 천막이 있는 임시주거 전경



1953년 겨울 아미동 전경
_임바르 스벤손 촬영

피란시기 임시주거지에서 정착주거지로 변화

1950년대 판자촌과 화장장 굴뚝 흔적



1950년대 까치고개로 일원
_은천교회 제공

1960년대 블록조 건물 등장, 65년 이후 중북도로 조성 시작



1960년대 (1965년 이후) 초장동 해돋이로에서 본 아미동
_부산시 기록물

1970년 도로조성이 되지 않은 아미동 산북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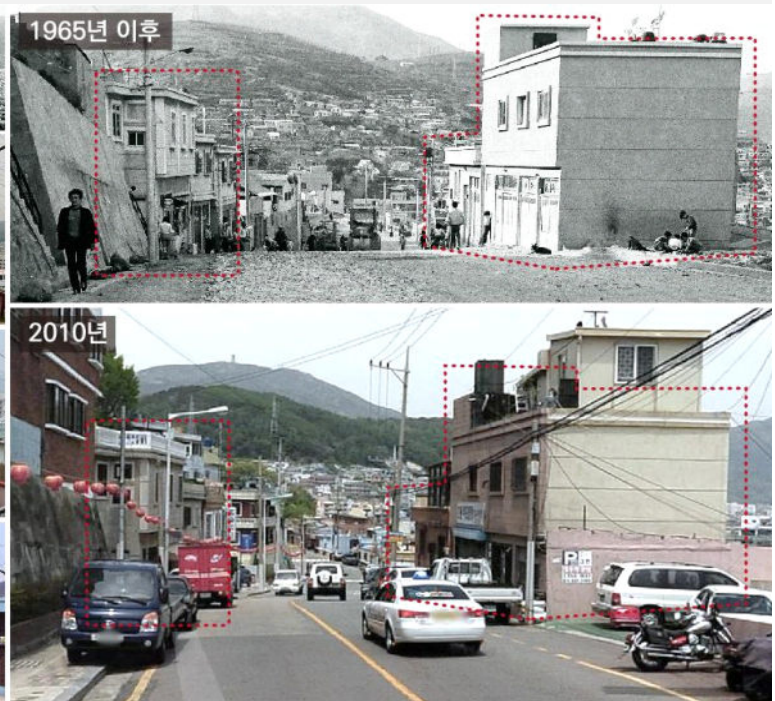
1970년 아미동 산북도로 일원
_부산일보, 1970.9.9.

1972년 도로의 확장 (육천로 : 아미-감천)



1972년 육천로 일원
_부산일보, 1972.11.20.

옛 사진을 통한 경관변화 추정



1개 지점의 경관변화 추정 (해돋이로-아미동방향, 부산시 기록물 사진 기준)

[그림-95] 비석마을의 경관변화

6. 핵심유산 발굴

6.1. 핵심유산 개요

- 핵심유산은 피란주거지인 비석마을의 형성과정을 반영하여, 일제강점기 묘지에서 정착주거지로 변화하며 성장한 지역 특성을 나타내는 유산을 선별하여 발굴
- 핵심유산은 '터(점 또는 선), 터 군집(면), 건축물, 기타'의 4개 유형의 총 11개소로서, 완충구역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비석마을의 특수성을 지닌 인접 구역의 유산을 포함하여 발굴

[표-18] 핵심유산 개요

유형	no.	유산명	중요도	주요 특징	조성년도	토지소유
터 (점·선)	1	비석주택터	상	석조의 묘지구조물 위 판잣집 유구	묘지부 - 일제강점기 주택부 - 1953년	군유지
	2	축대1	상	호박돌쌓기식 축대 및 정방형 축대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도)	군유지
	3	축대2	상	숨겨진축대 위 묘책 난간부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도)	군유지
터 군집 (면)	4	오오아케묘지터군	상	각형 묘지터 밀집추정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도)	국유지 및 시/도유지
	5	계단식 묘지터군	상	계단식 묘지터밀집추정	일제강점기 묘지조성 (주거지 조성 1953년 사진 근거)	군유지
건축물	6	아기보살집	중상	주택 내부에 단차 형성, 하부 비석 발굴가능성 추정	주택 조성 - 한국전쟁기 추정	군유지
	7	비석기단집	중상	건물 전면에 비석, 내부 비석발굴 추정	주택 조성 - 한국전쟁기 추정	군유지
	8	바람구름전망대	하	1960년대 이후 4~5차례 증축 추정	1960년대 추정	군유지
	9	은천교회	상	한국전쟁기 석구조교회건축물	1955.11.20	법인
기타	10	옛 총천사불상	상	남아있는 총천사의 유일한 흔적	일제강점기 추정	시도유지
	11	용왕당	상	총천사불상으로 추정되는 조각상	일제강점기 추정	군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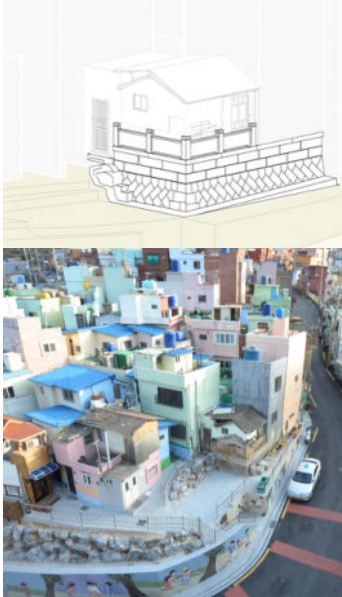


[그림-96] 핵심유산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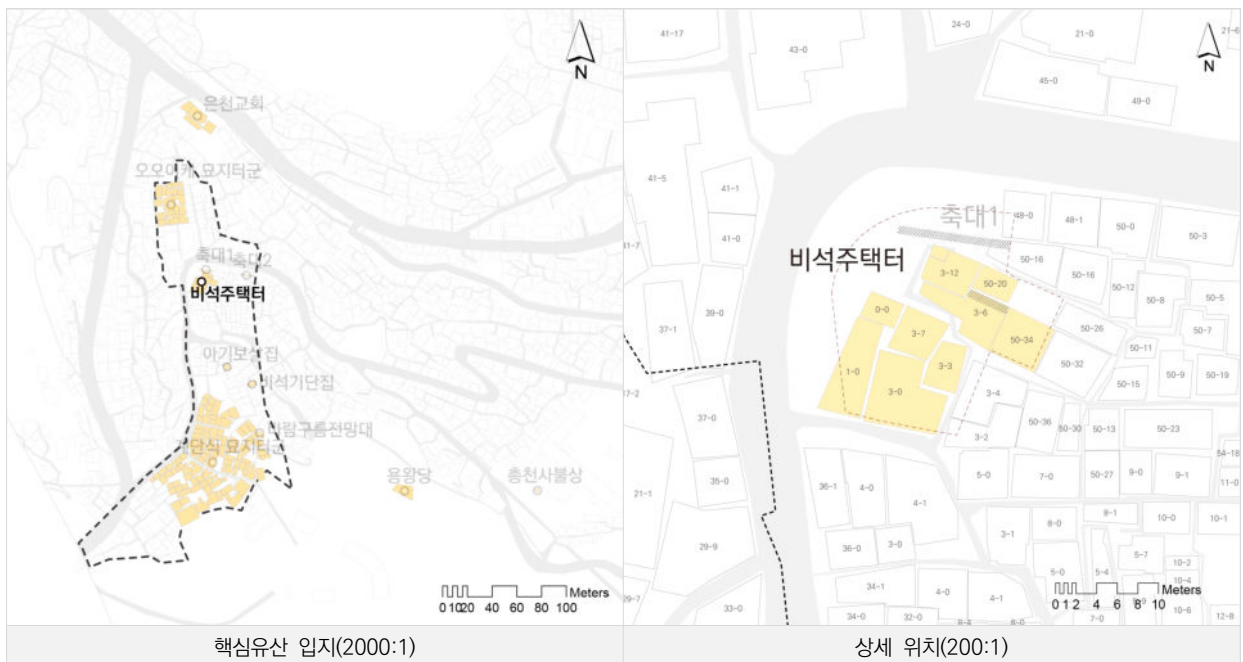
6.2. 핵심유산별 공간특성 및 가치

6.2.1. 비석주택터

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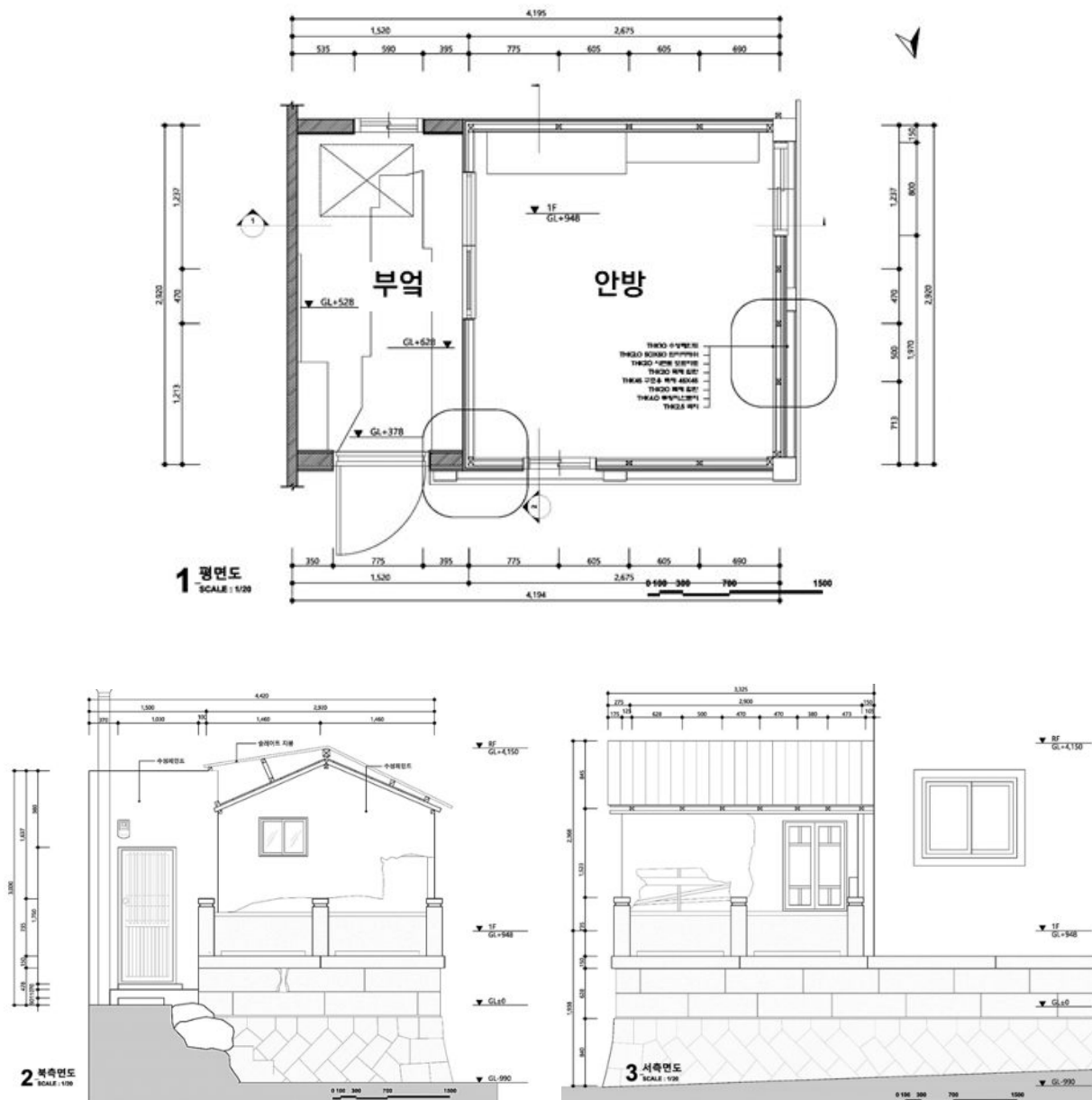
유산명	비석주택터
구역명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29-2, 231-178
도로명주소	아미로38번길1
주요특징	석조의 묘지구조물 위 판잣집 유구
토지소유	군유지
구조	하부 석조, 상부 유구 목조
규모	<p>총 대지면적 340.3㎡, 건축면적 12.4㎡, 석축 총 길이 9.4m (필지 2개, 건축물 1동, 지상1층)</p> <p>— 필지1. 아미동2가 229-2대 87.3 ㎡</p> <p>— 필지2. 아미동2가 231-178 묘 253㎡</p> <p>— 상부 유구 : 지상 1층, 건축면적 12.4㎡</p> <p>하부 석조 : 석축 총 연장길이 9.4m (북측면 3.2m , 서측면 6.2m), 석축 높이 1.6m, 묘지 외책 난간높이 0.7m</p>
조성시기	<p>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기</p> <p>— 하부 석축: 축대 및 묘책으로서, 일제강점기 조성 추정</p> <p>— 상부 유구: 석축위 조성된 목조 건축물, 1953년 추정</p>
역사적 근거	<p>1912년 '아미동2가 229'의 토지대장</p> <p>1914년 부산부 지적원도 중 '아미동2가229번지' 필지의 현황도면</p> <p>2019년 실측 중 발굴된 상부 유구 벽면에서 발굴된 '1953년 7월 18일자 국제신보', '아사노 시멘트사'의 포장지, 미국국제개발처 (USAID)의 한국 원조물품 포장지 등</p>



[그림-97] '비석주택터' 위치도

Ⅰ 핵심유산의 현황 및 공간적 특성

- 일제강점기 조성된 일본인 공동묘지의 석축과 석조묘책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이 긴급하게 임시 거주시설 조성
- 1912년 작성된 토지대장을 통해 당해 필지(229번지)가 묘지 조성 이전부터 부산 일본인 거류민단이 소유한 공공용지로 확인하였으며, 일제강점기 아미동 주변 토지가 모두 지목 묘지(墓)인 반면에 유일하게 지목 대지이며 관리소부지로 추정
-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온 피란민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의 석축과 묘지 석조 묘책 구조물 위에 긴급히 지은 판잣집(일명 비석주택)의 유구를 포함하는 유적이며, 피란시기 시기 당시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당시의 생활사적 증거이자, 역사적·건축적·기술사적 가치가 있음



[그림-98] 상부 건축물 유구 “비석주택” 평면 및 측면도

(부산광역시, 2019, 피란민 생활유산 자료DB 구축사업 :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마을)



비석주택 정면 (2019)



비석주택 측면 (2019)



서측면 주택부분 확대(2019)



2014년 8월 공사 중 발견 당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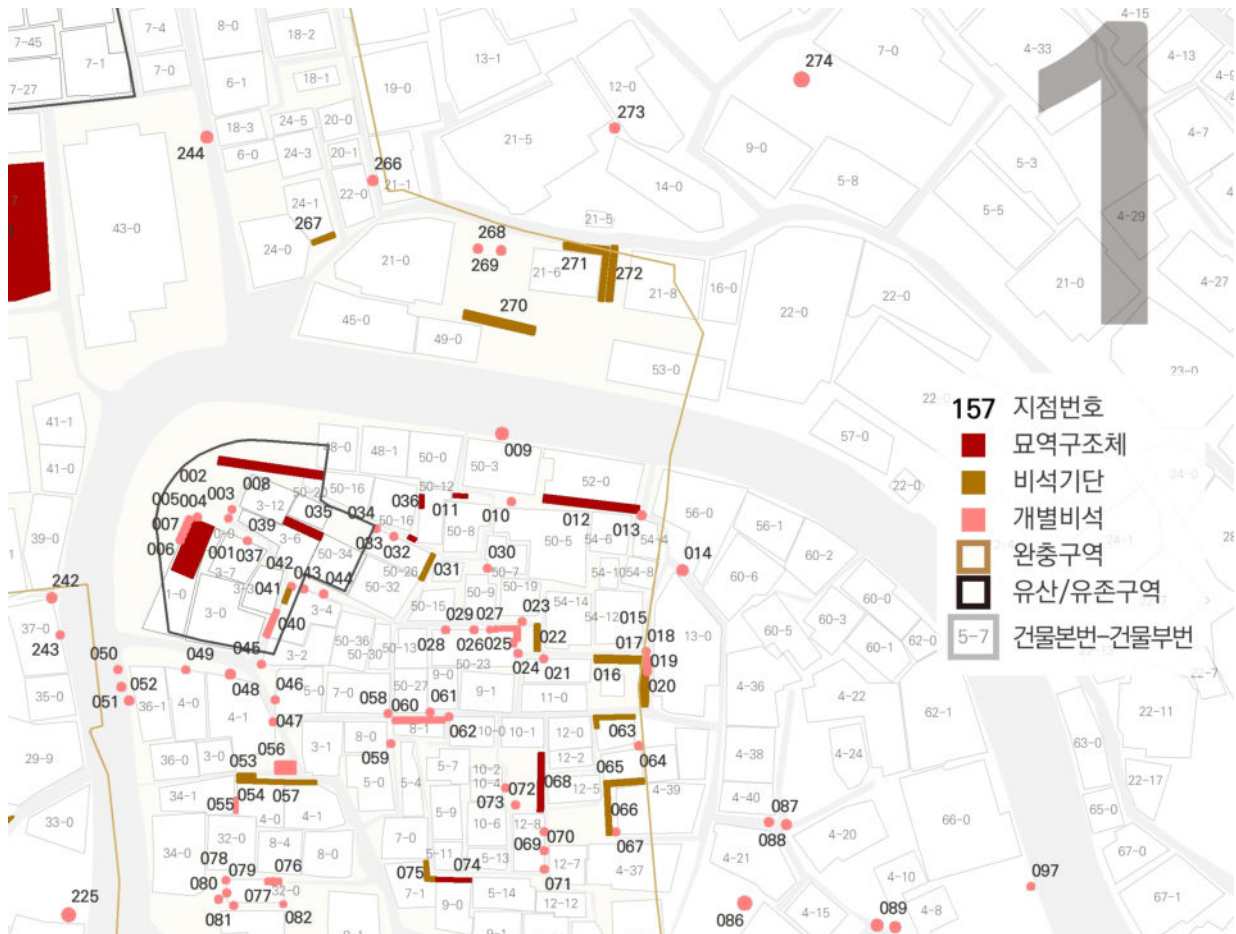


2015년 3월 비석주택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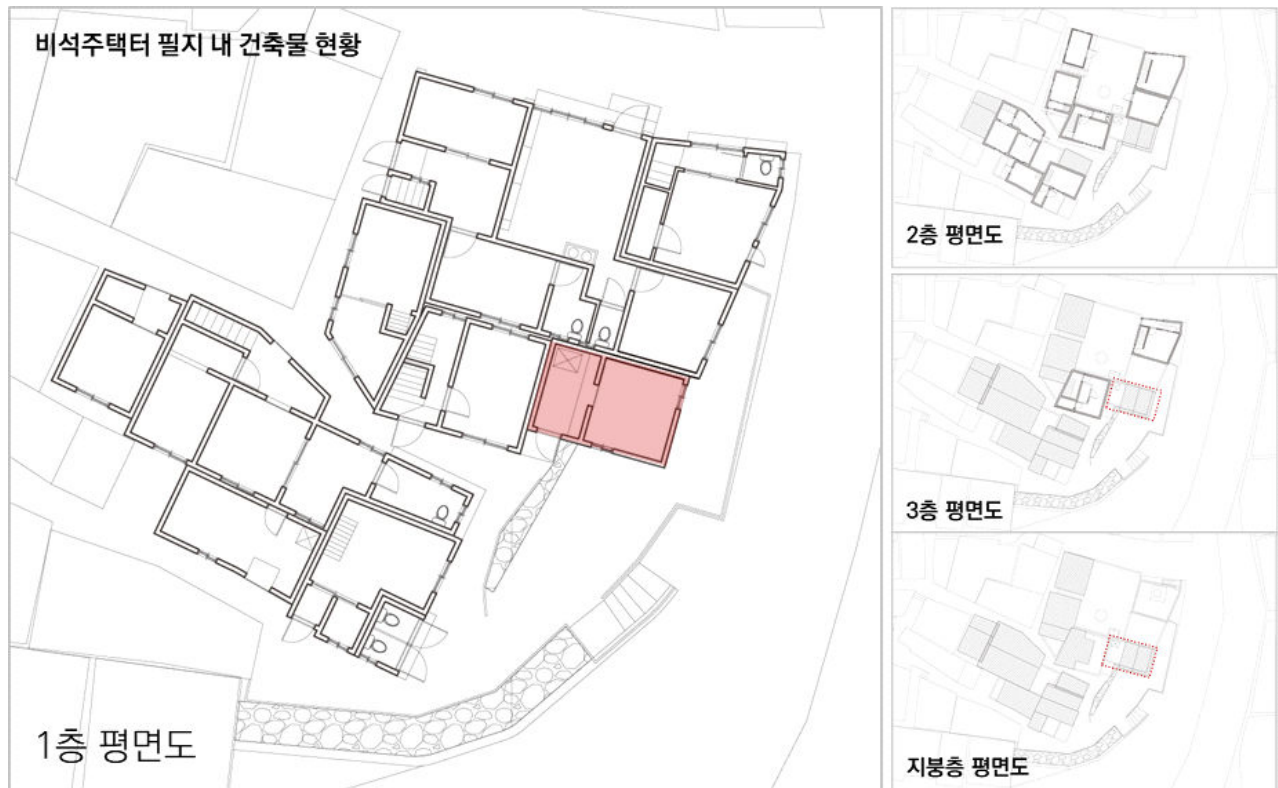


2020년 11월 비석주택터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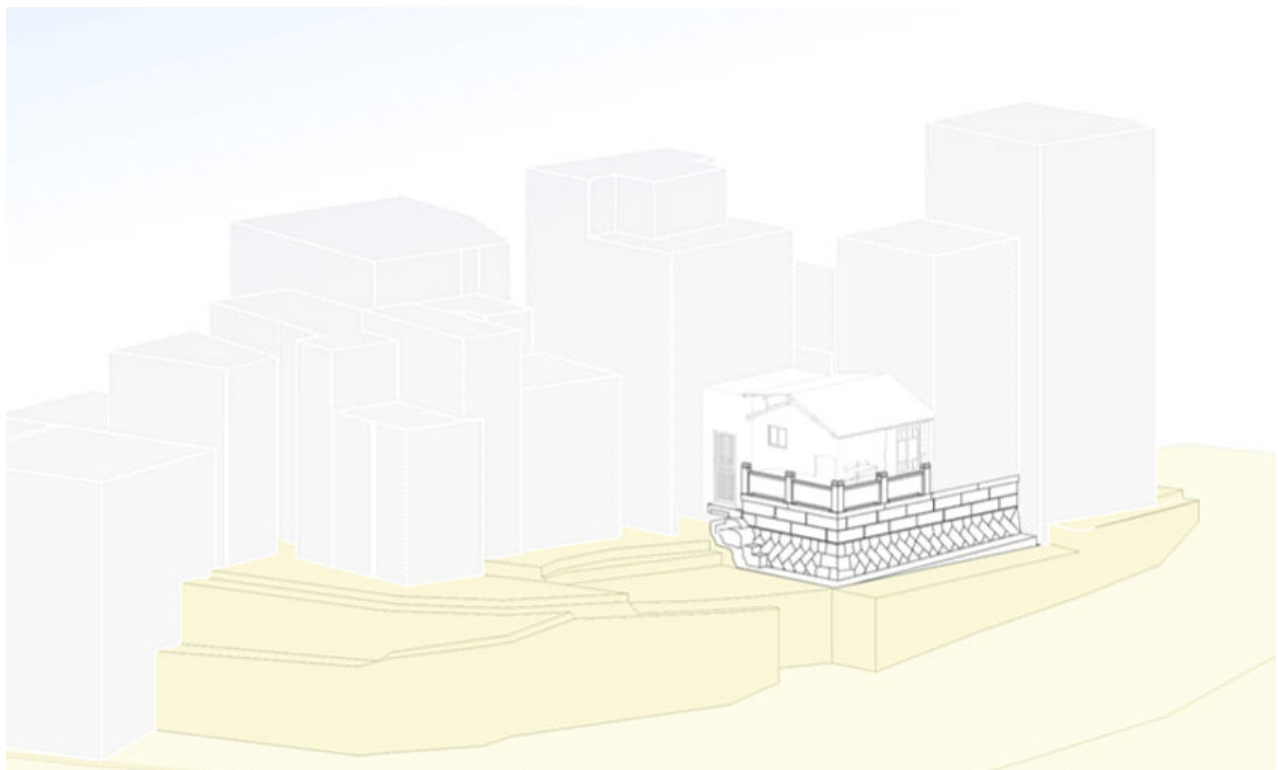
[그림-99] 비석주택 현황



[그림-100] '비석주택터' 주변 비석 현황 (비석조사2020)



[그림-101] 비석주택터 필지 내 건축물 현황 상세



[그림-102] '비석주택터' 실측 도면 3D 모델링

[참고] '부산 아미동 피란민 비석주택터' 문화재 신청 지원 내용

Ⅰ 연혁

- 2014.08.15. 아미로 곡각지도로 확폭공사중 '비석주택'발굴
- 2015.07.01. 비석주택 터 일원(229-2, 231-178)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19.09.19. 상부 건축물인 비석주택 벽체 내부마감에서 벽지로 사용된 '1953년 7월 18일자 국제신보' 신문발견
- 2019.09.25. 비석주택보존을 위한 임시지붕설치 (서구청, 창조도시과)
- 2019.10.08. 비석주택 측면부 목조창호제거, 잣은 태풍 등 붕괴 우려로 접근금지 시설물 배치

Ⅰ 관련 사업 추진내역

- 2019.05.30.~2019.08.14 피란생활박물관 및 역사광장조성사업 계획 및 중간설계용역
- 2019.06.04.~2019.08.30. 피란생활박물관 및 역사광장조성사업 구조안전진단
- 2019.09.04.~2019.12.05. 피란민 생활유산자료 DB 구축사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개월)
- 2020.05.04.~2021.04.28. 아미동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조사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2개월)을 통한 문화재 신청 지원

Ⅰ 문화재 신청 추진경위

- 2020.02.27.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심의, "아미동 비석주택"
- 2020.12.24.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심의, "부산 아미동피란민 비석주택터"
- 2021.01.10. 부산광역시 서구 심의 결과 수신 : "조건부 가결"
- 2021.01.22. '조건부 가결' 심의 결과에 따른 자문위원의 서면자문 수행
- 2021.02.01. 자문위원의 서면자문에 따른 심의 자료 수정 및 제출

Ⅰ 비석주택터의 가치

- 역사적 가치 : 두 필지로 구성된 본 터는 한국전쟁 시기 급박했던 상황에 처한 피란민들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판잣집 중 유일하게 주택 유구와 터가 온전하게 함께 남아 있는 사례이며, 원래는 동일한 판잣집이었으나 시대에 따라 단층에서 3층의 다양한 규모의 주거로 변용된 주변 가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란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적응적 생활사가 잘 보존된 장소로서 근현대사적 가치가 뛰어남
- 건축적 가치 : 한국전쟁 시기 아미동 일본인 공동묘지로 이주했던 피란민이 긴급임시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묘지의 석조구조물 위에 나무상자, 원소품 포장지, 신문지, 루핑지 등을 활용하여 지은 판잣집의 형태, 공간, 구조가 대부분 남아 있는 비석주택 유구, 그리고 판잣집으로 출발하여 이후 블록벽과 슬라브지붕 구조의 다양한 공간구성을 가진 주거들로 증개축되어온 주변 주거들은 한국전쟁 이후 우리나라 근현대 최저주거의 변화양상을 보여주는 귀중한 건축적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음
- 기술사적 가치 : 본 터에 남은 주거유구들의 평면구성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인 공동묘지의 개별묘지규모와 구성방식을 추정할 수 있고, 비석주택 유구의 기초 석조구조물을 통해 일본인 묘지에 사용된 구조기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석주택유구에서 발견된 목재, 신문지, 포장지, 루핑지 등으로 피란민 판잣집의 재료와 구조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등, 좁은 묘지부지 위에 필수적으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주거공간을 변용해온 자생적 민간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음

Ⅰ "부산 아미동피란민 비석주택터"의 유적 의미

- 일제강점기 조성된 일본인 공동묘지의 석축과석조묘책 구조물을 기반으로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이 긴급하게 임시 거주시설 조성
- 1953년 판잣집으로 조성된 임시 거주시설이 2014년 발견 때까지 거주처로 사용
- 1912년 작성된 토지대장을 통해 당해 필지(229번지)가 묘지 조성 이전부터 부산 일본인 거류민단이 소유한 공공용지로 확인
- 일제강점기 아미동주변 토지가 모두 지목 묘지(墓)인 반면에 유일하게 지목 대지이며 관리소 부지로 추정
- 초창기 조성 시기부터 현재까지 부산의 지역사의일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유일 유적으로 가치 보존

6.2.2. 축대1, 축대2

Ⅰ 개요



유산명	축대1	축대2
구역명	완충구역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31-171	아미동2가 213-26
도로명주소	(호박돌쌓기식 - 아미로 50-16) (정방형 - 아미로38번길 3-6)	(근접 : 아미로 52)
토지소유	군유지	군유지
주요특징	호박돌 쌓기식 축대 및 정방형 축대	축대 및 묘책 난간부
구조	석조	석조
규모	총 연장길이 : 11m (추정)	총 연장길이 : 9.8m (추정)
조성시기	일제강점기	일제강점기
역사적 근거	1936년 부산부 시가도에 아미로를 따라 표기된 석축(호박돌) 및 'ㄷ'자형 석축의 서측 위치와 현 위치 유사	1936년 부산부시가도에 표기된 'ㄷ'자형 석축의 동측 위치와 현 위치 유사



[그림-103] '축대1, 축대2'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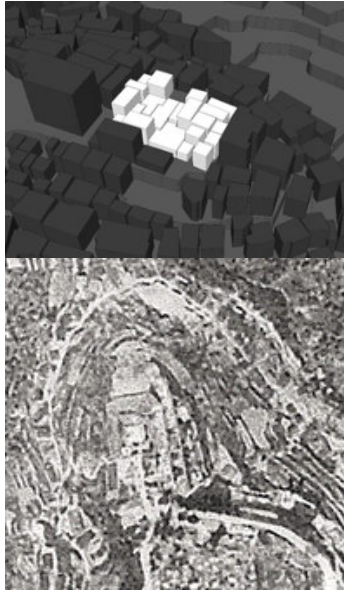
- 비석주택과 연관된 묘역의 하부구조물로서, '축대1'은 2014년 8월 비석주택 발굴 당시 호박돌 쌓기식 축대(비석조사2020, [지점번호 8]가 도로 전면부에서 발견되어 연장 길이는 총 약 11m로 예상됨
- 축대1의 정방형 축대는 호박돌 쌓기식의 축대에 인접하여 '아미로38번길 3-6' (비석조사 2020, [지점번호 35])건축물 벽면에 입지하고 있으며, 묘역 구조체의 원형으로 추정됨
- 축대2는 '아미로52'(비석조사 2020, [지점번호 12, 13])의 벽면에 위치하며, 묘지의 외책 형상의 난간 부가 남아있음
- 1936년 부산부시가지도 중, 아미로를 따라 원형의 선으로 표기된 부분이 축대1의 호박돌 쌓기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축대 1중 정방형 축대와 축대2는 1936년 부산부시가지도 중 'ㄷ'자로 표기된 부분으로 판단되며, 비석마을 일대가 묘역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서 유산의 가치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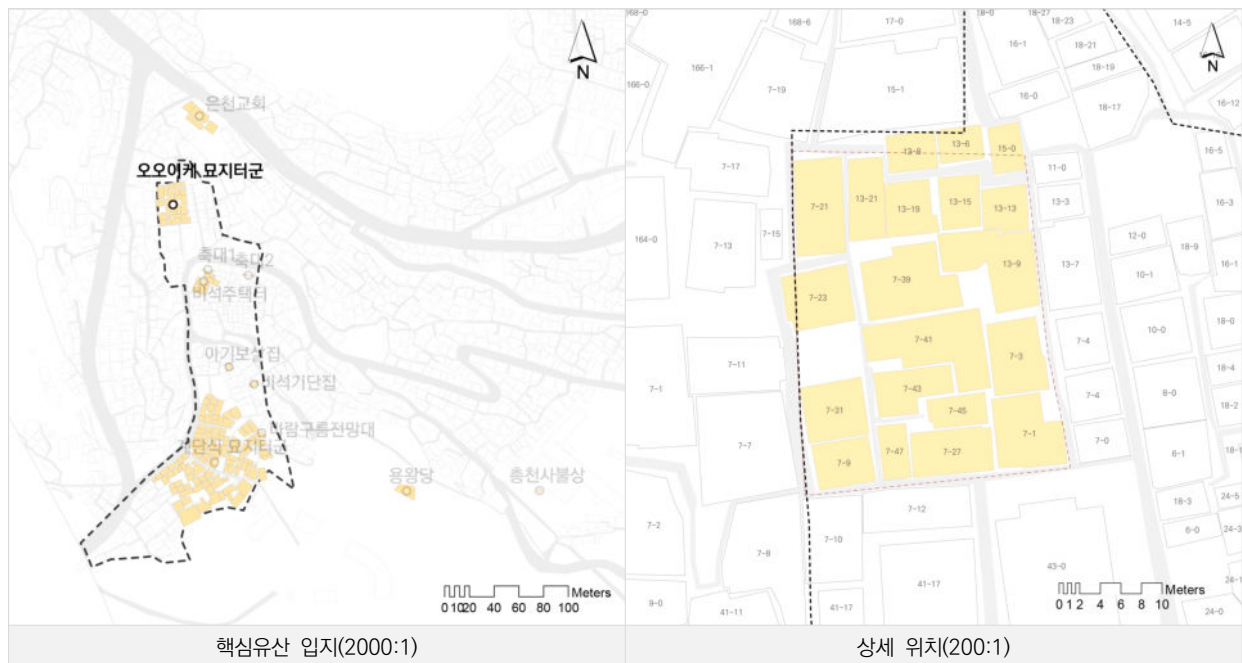
[그림-104] '축대1, 축대2'의 역사적 근거 및 현황

6.2.3. 오오이케 묘지터군

Ⅰ 개요



유산명	오오이케 묘지터군
구역명	제1유존지역 및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25-116/ 225-134/ 225-135
도로명주소	(중앙 : 옥천로164번길7-41)
토지소유	국유지 및 시/도유지
주요특징	각형 묘지터밀집추정
구조	하부 묘지 석조 추정 (일부 석축의 묘지구조물 잔존)
규모	총 대지면적 770.9㎡ 필지 3개, 건축물 20동
조성시기	묘역으로서 일제강점기 조성, 피란시기 이후 주거지로 변용
역사적 근거	1936년 부산부시가지도에 현 위치에 대규모 묘지터가 입지하고 있으며, 오오이케 가문의 묘지 부지로 추정
도면화 시기	2020.09.~2020.12. ※아래 기반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도면화 국가공간정보포털 - 수치지형도, GIS건물통합정보DB 행정안전부 - 도로주소 전자지도 GIS 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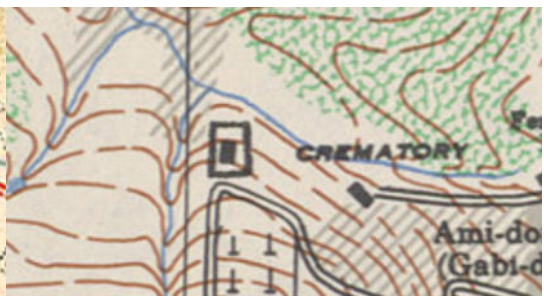
[그림-105] '오오이케 묘지터군'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 '오오이케 묘지터군'은 1936년 부산부시가도, 1946년 미군지도, 1945년 항공 사진에 남아있는 묘지터로, 각형 묘지 터를 바탕으로 전형적인 묘지 위 주택 군집의 형태적 특성을 가짐
- 구역 내의 주택은 피란시기의 주거와는 차이가 있으나, '비석조사 2020'의 [지점번호 235, 237, 238, 239, 240]의 비석과 같이 대규모의 묘지 경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하부에 대규모 묘지구조 물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소규모의 묘역 위에 주택이 조성되어 묘역의 구획에 따라 하나의 주택이 여러 차례 수평적, 수직적 증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피란과 산업화시기를 거치며 묘지터를 주택으로 변용하여 거주민이 정착하여 지속적인 정주환경으로 구축한 사례로서 핵심유산의 가치가 있음



1936년 부산시가도



1946년 미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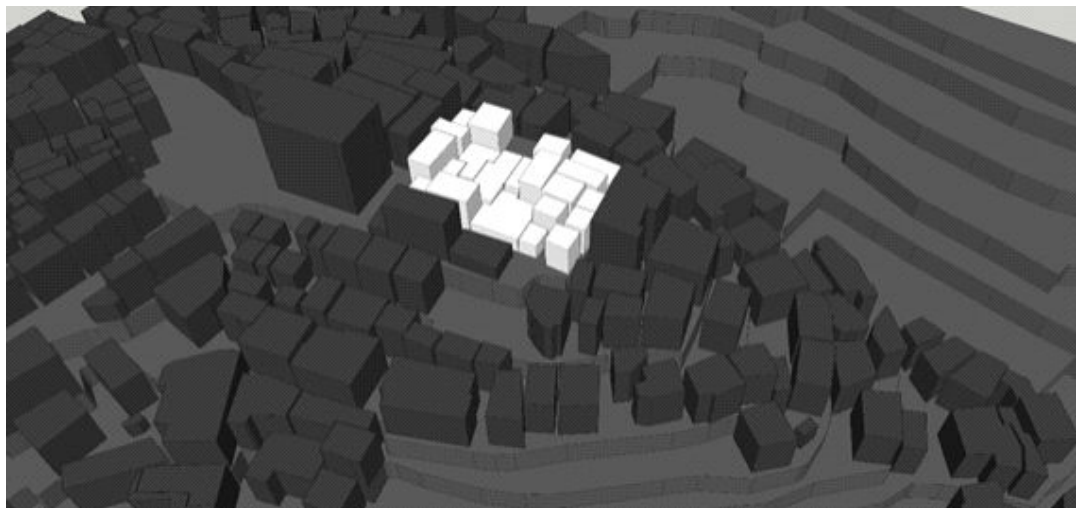


1945년 아미동 항공사진



2020년 아미동 항공사진

[그림-106] '오오이케 묘지터'의 역사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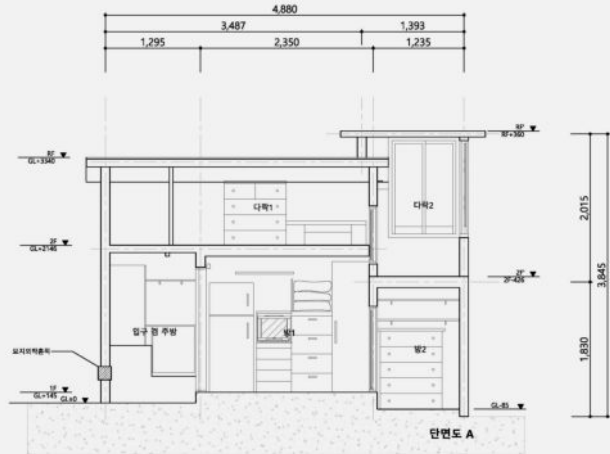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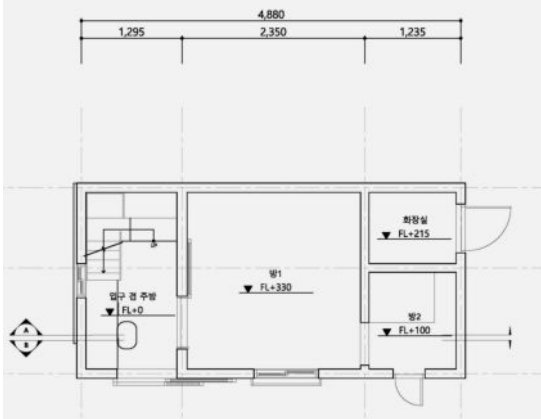
[그림-107] '오오이케 묘지터'의 현황

[참고] '오오이케 묘지터군'내 주택 실측

부산시 (2019). 「피란민 생활유산자료 DB구축사업」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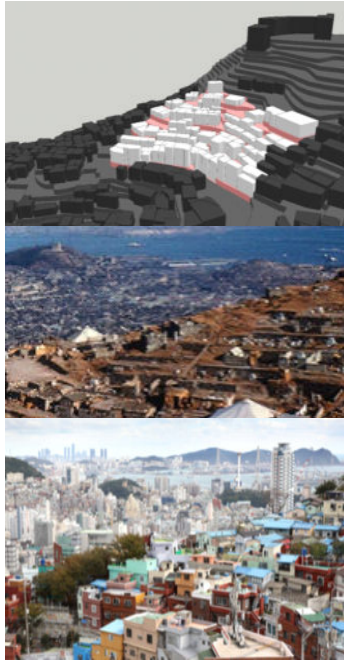
- 도로명주소 : 옥천로164번길 7-41
- 규모 : 건축면적11.7㎡, 연면적 22.4㎡, 지상 2층
(1층 11.7㎡ + 2층 다락방 10.7㎡)
- 실측일자 : 2019.11.05.
-

- 2019년 11월 거주민(곽OO, 75세)에 따르면, 1960년대에 해당 부지 내 주택을 조성할 때 묘지구조물 중요책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토끼장으로 사용 중이었으며 그 위에 블록조주택을 조성, 이후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하며 수직·수평적 공간 확장
- 현재 주택 외벽면기단부에 묘지의 외책으로 추정되는 구조체가 남아있으며, 좁은 실내공간으로 인해 거주민의 생활 속에 벽면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납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하는 생활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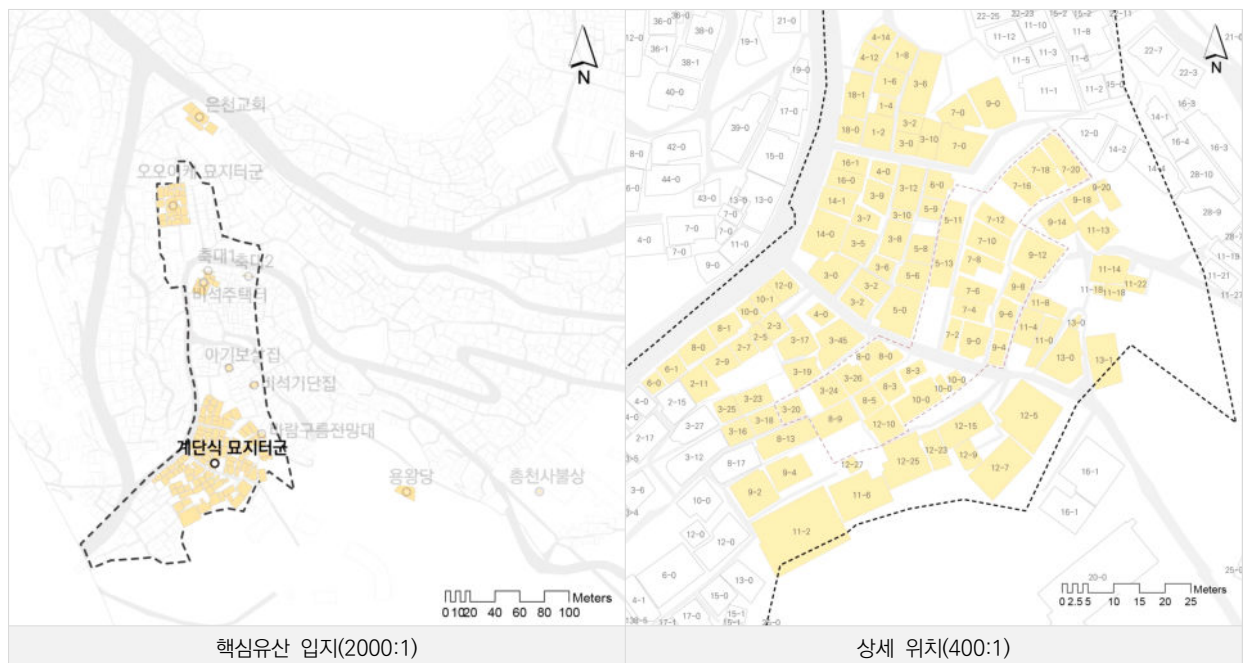


6.2.4. 계단식 묘지터군

Ⅰ 개요



유산명	계단식 묘지터군
구역명	제2유존지역 및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31-130
도로명주소	(중앙 : 아미로12번길 5)
토지소유	군유지
주요특징	계단식 묘지터 밀집 추정
구조	하부 계단식 석조 추정
규모	총 구역면적 788.4㎡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일부를 점유) 필지 1개. 주택 139동
조성시기	묘역으로서 일제강점기 조성, 피란시기 이후 주거지로 변용
역사적 근거	1953년 겨울 스벤손 사진 중 묘지 위 천막 주거 위치 추정
도면화 시기	2020.09.~2020.12. ※아래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 후 도면화 - 국가공간정보포털 : 수치지형도, GIS건물통합정보DB - 행정안전부 : 도로주소 전자지도 GIS DB



[그림-108] '계단식 묘지터군'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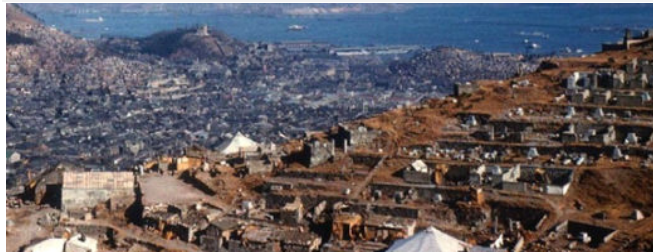
- 계단식 묘지터군으로 설정된 구역은 '아미동2가 231-130묘' 필지에 입지하며 해당 필지는 과거 '아미동 산19번지'로 불리는 구역으로서, 계단식 지형 위에 총 139동의 소규모 주택이 밀집하여 계단식 단차이를 그대로 유지하며 주택 형성
- 제3유존지역을 포함하며, 간이 목구조 지붕과 흙벽 등의 구조를 유지하여 피란주거로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역으로 판단되며, 1953년 스벤손의 아미동 전경 사진에서 보이는 천막 주거가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함
- 오오이케묘지터군과 달리, 수평 및 수직 확장이 적고 도로변을 제외하고 대다수 소규모 주택을 유지하고 있으며, 피란 시기와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묘지터를 주택으로 변용하여 조성하고 지속적인 정주환경으로 구축한 사례로서 핵심유산의 가치가 있음



일제강점기 아미동



1945년 아미동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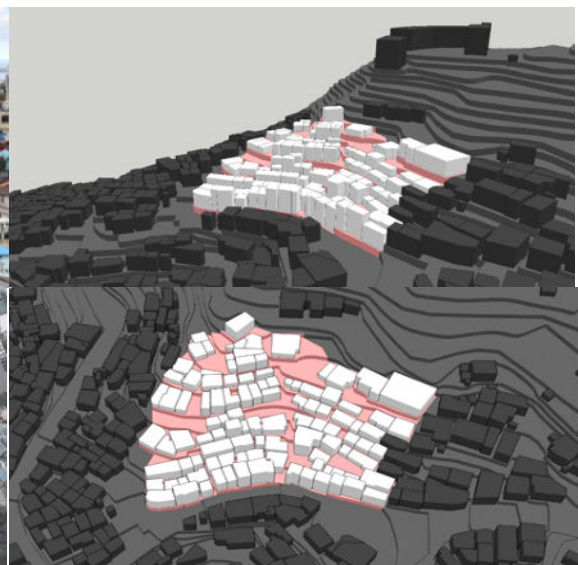


1953년 겨울경 아미동



2020년 아미동 항공사진

[그림-109] '계단식 묘지터군'의 역사적 근거



[그림-110] '계단식 묘지터군'의 현황

6.2.5. 아기보살집

Ⅰ 개요



[그림-111] 아기보살집 간판



[그림-112] 아기보살집 현관입구 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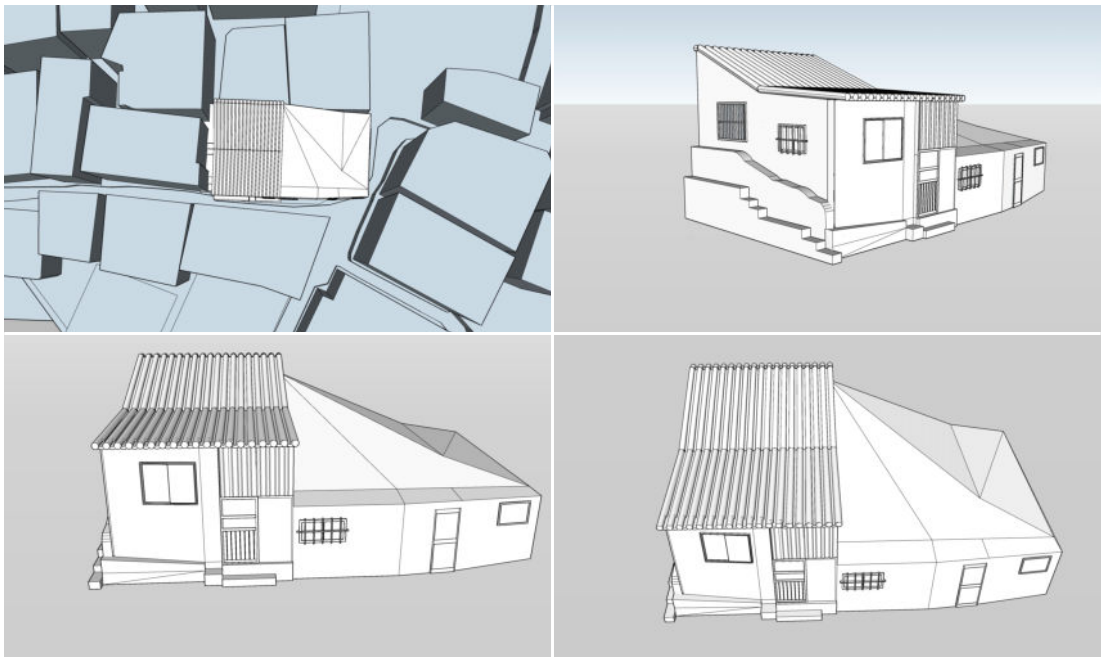
유산명	아기보살집
구역명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31-130
도로명주소	아미로24번길8
토지소유	군유지
주요특징	주택 내부에 단차형성, 하부 비석발굴 추정
구조	슬레이트, 블록조
규모	건축물 1동, 지상1층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일부를 점유) 건축면적 : 22.12㎡ (실측면적 기준)
조성시기	한국전쟁기 추정
역사적 근거	1953년 겨울 스벤슨 사진 중 묘지 위 천막주거 위치 추정
실측시기	2020.1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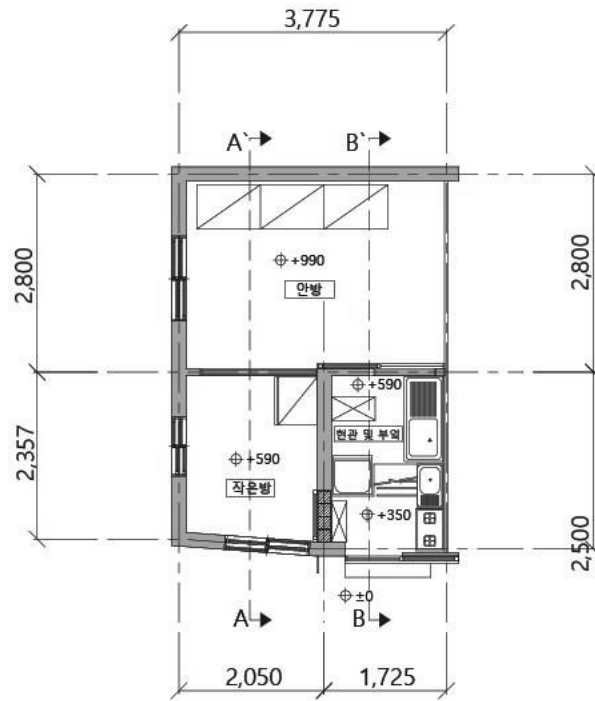
[그림-113] '아기보살집'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 아기보살집(아미로24번길 8)은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밀집된 소규모 주택 중의 하나로서, 유산구역과 제2유존지역의 사이에 입지, 지형적으로 계단식 묘지터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큰 특징으로 전면부 하부가 비석기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관 입구 바깥면에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있음
- '아기보살집'의 명칭은 입구 간판에 명시된 것으로, 지역 주민 등에게 불리는 별칭이며, 전체 평면은 3.85m*5.3m로 총 건축면적 22.12㎡으로 현관 및 부엌의 실1개와 내부의 안방과 작은방의 2개 실로 구분되어 있고, 서측면은 합벽으로 옆집과 벽면을 공유하고 있음
- 건물의 주요 실인 안방은 옥외 골목의 노면에서 최대 약 1m (990mm)의 단 차이가 발생하며, 내부공간간의 동선이 반시계방향으로 현관에서 +350mm, 실 입구에서 다시 +240mm, 가장 큰방의 내부 실 진입까지 +400mm이며, 다시 작은실까지 -400mm의 레벨 차이가 발생함
- 2020년 10월 15일 인터뷰 당시 거주민 (엄OO, 49세)에 따르면, 외조부가 아미동 산상교회 인근에서 터를 잡고 살다 현 자리로는 약 30년 전 이전해 옴
- 본 주택의 수리는 7-8년 전 지붕 수리를 마지막으로 정비하였으며 과거 연탄을 사용하다가 최근 10년 이내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으며, 교체 당시 바닥 난방패널을 깊게 파지 않았으나, 바닥면 하부에 묘지 관련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이웃하는 건물 여러 곳에서 과거 바닥 하부에서 유골함 단지를 발견했다고 전해지며, 이사 당시 내부공간 바닥에 40cm의 단차이가 있었고, 기단부 대부분은 비석이므로 본 건물 하부에도 유골함 단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 아기보살집은 1946년 항공지도를 참고하면 당시 '아미동2가 231-130묘'의 필지로 묘지구역으로 추정되는 필지에 해당하며, 이는 과거 묘지였던 부지가 주택부지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며, '비석주택터'의 유산구역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은 비석이 산재하고 있는 지역임



[그림-114] '아기보살집' 입지형상 및 3D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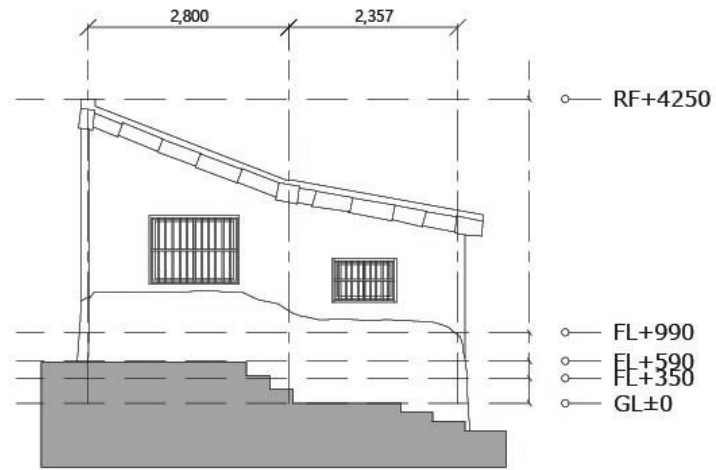
평면도



입면도1 : 북측

[그림-115] 아기보살집 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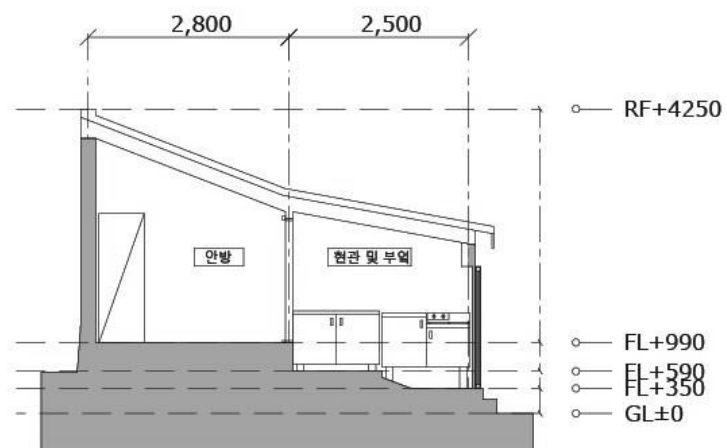
입면도2 : 동측



단면도1: A-A'



단면도1: B-B'



[그림-116] 아기보살집 실측도면2



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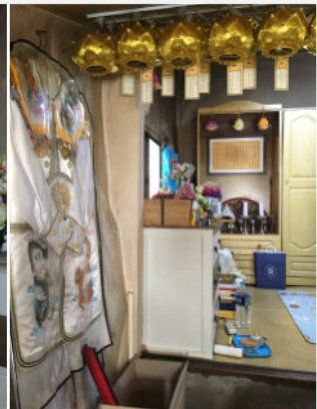
후면

전경



현관 입구 하부의 비석

안방 내부



현관 및 부엌

안방

안방-작은방

작은방-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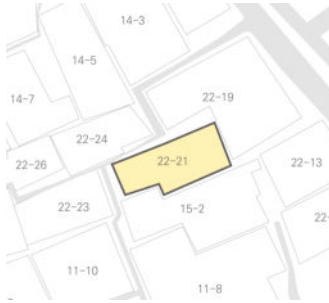
안방에서 바라본 바깥 방향

작은방에서 바라본 안방 입구

[그림-117] 아기보살집 현황사진

6.2.6. 비석기단집

Ⅰ 개요



[그림-118] 비석기단집 입지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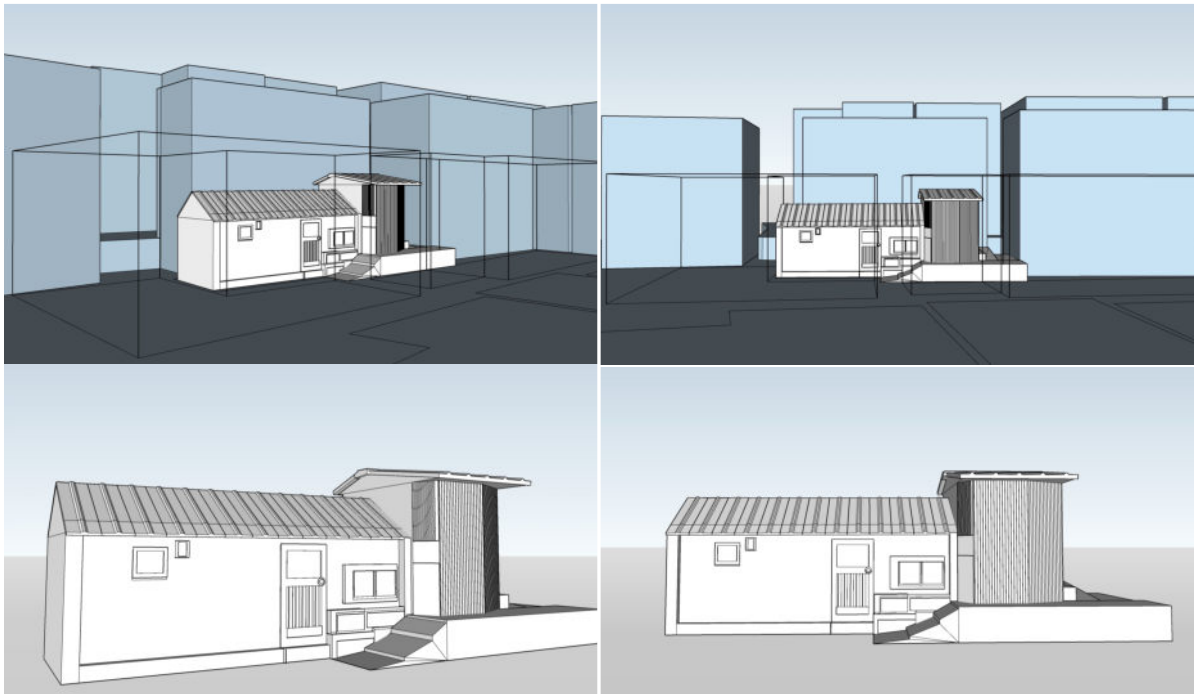
유산명	비석기단집
구역명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31-130
도로명주소	아미로30번길22-21
토지소유	군유지
주요특징	건물 전면에 비석, 내부 비석발굴 추정
구조	슬레이트, 블록조
규모	건축물 1동, 지상1층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일부를 점유) 건축면적 17.56㎡ (실측면적 기준)
조성시기	한국전쟁기 추정
역사적 근거	1953년 겨울 스벤슨 사진 중 묘지 위 천막주거 위치 추정
실측시기	2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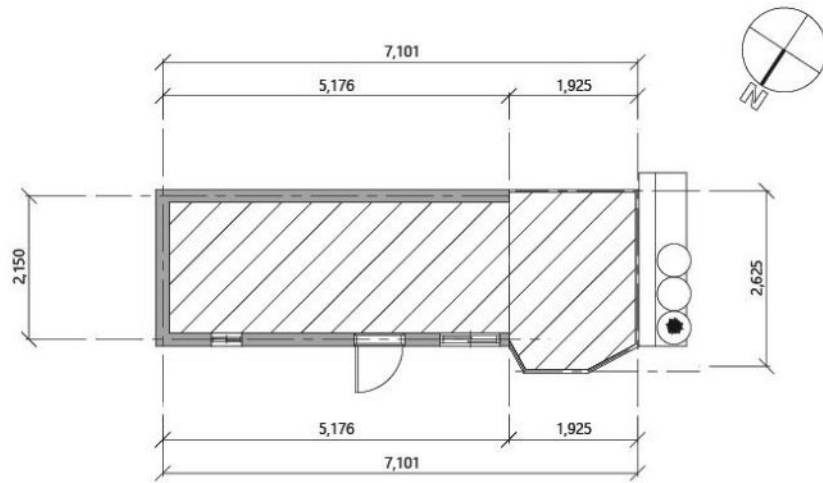
[그림-119] '비석기단집' 위치도

Ⅰ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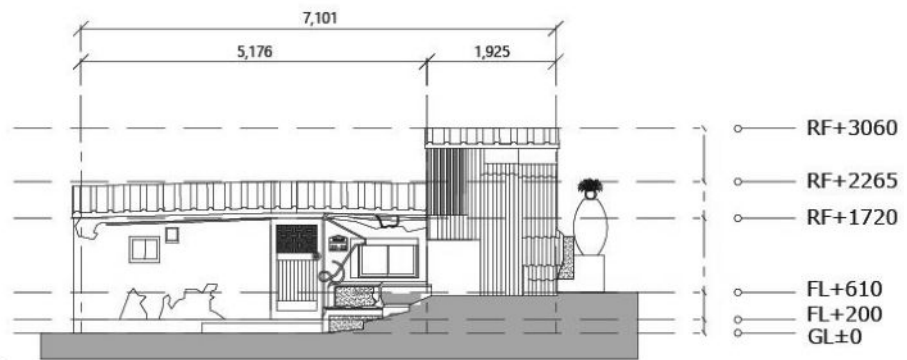
- 비석기단집은 '아기보살집'과 마찬가지로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밀집된 소규모 주택군 중의 하나로서, 좁은 골목 중간에 자리하여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인해 과밀했던 과거의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비석기단집은 전체 평면 7.03m*2.15m로 17.6㎡으로 가로로 긴 평면이나, 이는 서측면의 공간을 샌드위치 판넬 및 슬레이트 등으로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며, 확장된 공간은 주실이 아닌 창고 등의 부속 시설로 판단됨 (본 주택의 실측은 소유주 사망으로 내부 실측이 불가하였음)
- 비석기단집의 가장 큰 특징은 건물 전면기단에 글씨가 새겨진 비석이 벽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외부 바닥면에서 지붕 하부 높이까지 약 1.6m에 불과한 소규모 주택임
- 비석기단집은 최근 3년 이내 소유주가 사망하여 상속자(자녀)가 관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측 당시 내부 공간은 외부공간의 실측을 통해 추정되는 도면임
- 비석기단집의 입지는 1946년 항공지도를 참고하면 당시 '아미동2가 231-130묘'의 필지로 묘지구역으로 추정되는 필지에 해당하며, 이는 과거 묘지였던 부지가 주택부지로 변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 근거임
- 당시 급박했던 피란시기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비석을 주택재료로 사용했다는 점과 입지형상이 마치 주변 건물 틈 사이에 끼어있는 형상으로 낮은 건물높이가 피란시기의 주택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보여줌
- 또한, 산업화 시기와 현대에 들어 협소한 내부공간을 확장하여 서측면에 슬레이트 벽면으로 구축한 작은 실이 있으며 이는 점차 시설의 활용과 변용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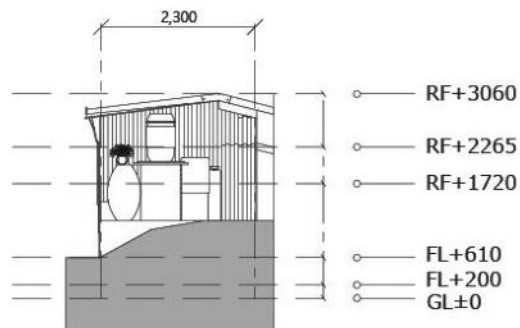
[그림-120] '비석기단집' 입지형상 및 3D 상세



평면도



입면도1: 남서측



입면도2: 동남측

[그림-121] 비석기단집 실측도면



건물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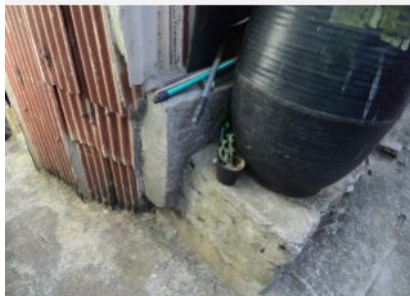
전면 비석



주 건물 동



창고 추정부



하부 비석



지붕



전면 비석과 골목



건물 전면 파노라마뷰

[그림-122] 비석기단집 현황사진

6.2.7. 바람구름전망대

Ⅰ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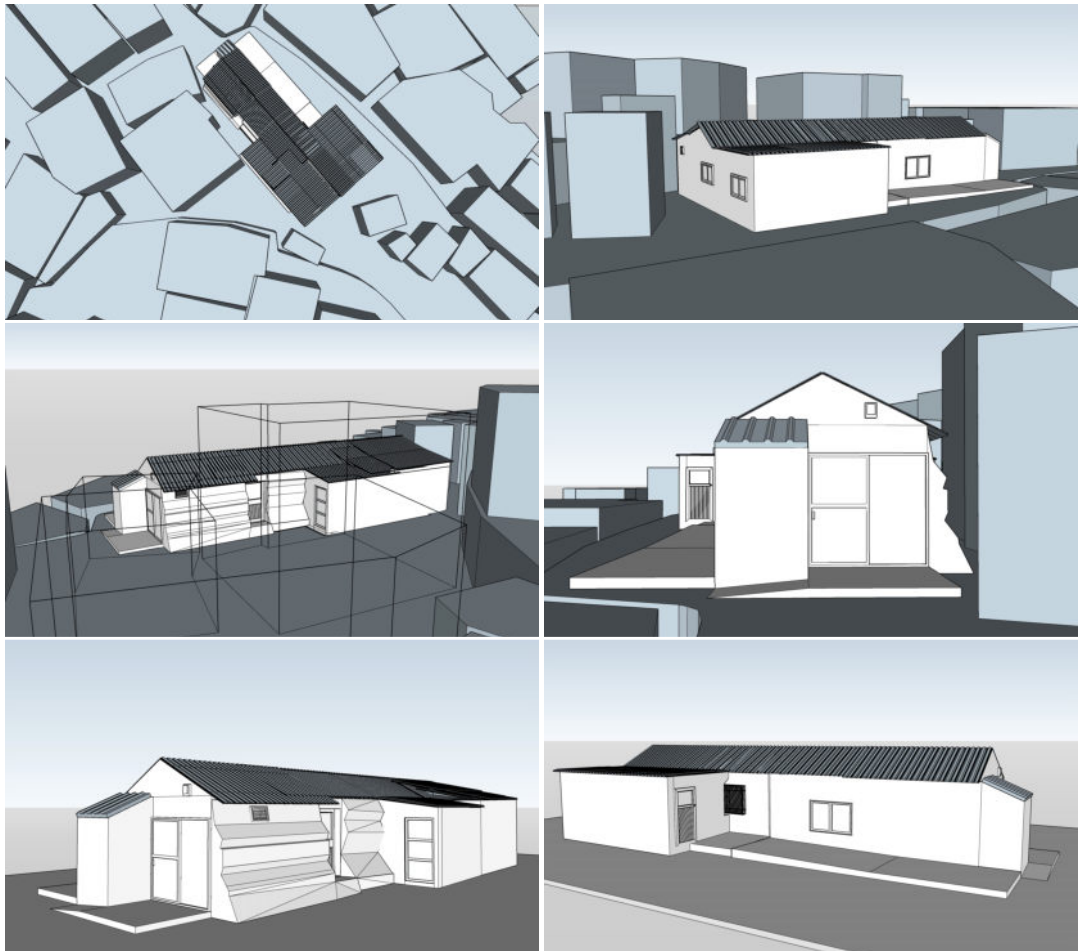
유산명	바람구름전망대
구역명	완충구역
지번주소	아미동2가 231-130
도로명주소	아미로12번길9-20
토지소유	군유지
주요특징	1960년대 이후 4-5차례 증축 추정
구조	슬레이트, 블록조
규모	건축물 1동, 지상1층 / 건축면적 : 49.46㎡ (아미동2가 231-130의 대규모 필지에 일부를 점유)
조성시기	1960년대 추정
실측시기	2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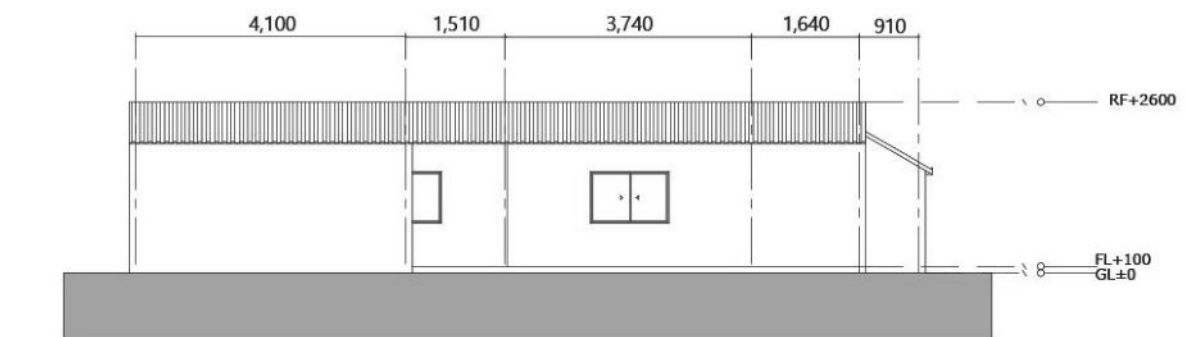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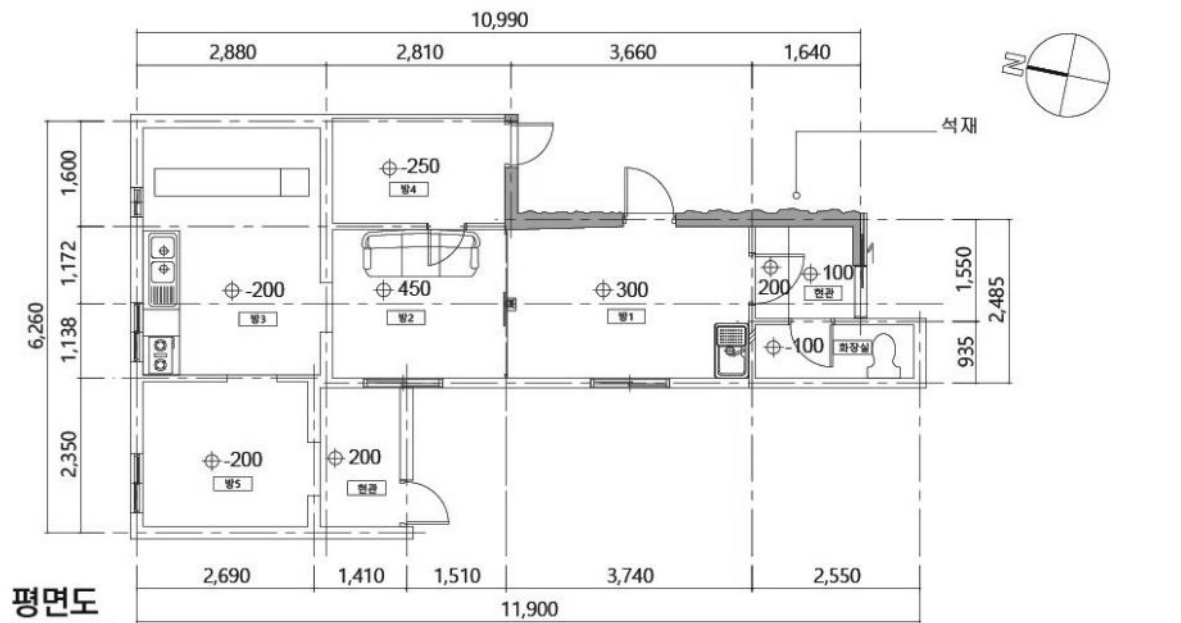
[그림-123] '바람구름전망대'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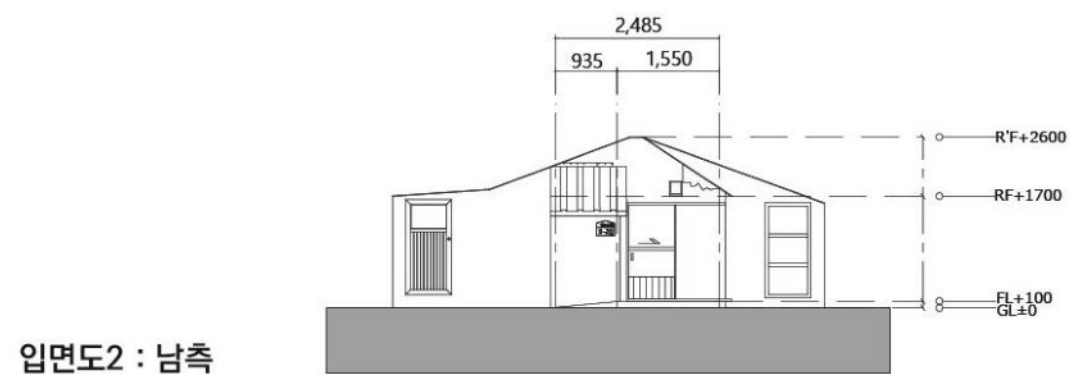
- 바람구름전망대(아미동2가 231-130)는 대규모 필지에 밀집된 소규모 주택 중의 하나이나, 경사지의 상부에 자리하여 옥외공간이 비교적 넓고, 원도심 일대의 전망을 볼 수 있는 입지에 있음
- 핵심유산의 건축물 중 가장 큰 면적으로 건축면적이 49.5㎡에 달하며, 건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남측면에서 북측면까지 총 11.9m의 긴 평면을 가지고 있음
- 바람구름전망대는 피란시기에 조성된 건축물은 아니지만, 비석마을의 산업화시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택확장이 나타난 유산으로서, 4-5번의 공간확장을 통해 총 8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음
- 여러 차례의 주택확장으로 인해 각 실을 구성하는 주택재료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먼저 조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남동측면의 벽면은 주변의 돌을 쌓아 만든 돌구조와 목조 트러스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천장면에는 물품 상자(1960년대 어시장용 나무상자)로 추정되는 합판용 목재가 구성되어 있고, 북측면과 서측면의 공간은 블록조로 이후 여러 번 벽면을 고쳐 목재구조부 사이의 벽면을 채운 것으로 판단됨
- 본 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원도심의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경관적 입지와 더불어, 여러 차례 확장하여 2-3평의 공간을 약 20평대로 확장시킨 특징, 그리고 남측면 실 내부에서 발견되는 1960년대 어시장용 나무상자가 천장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산업화시기 비석마을의 생활과 주거방식을 알 수 있는 건축물이라 볼 수 있음



[그림-124] '바람구름전망대' 입지형상 및 3D 상세



입면도1 : 서측



입면도2 : 남측

[그림-125] 바람구름전망대 실측도면



주출입구



외관 (부출입구)



외관



방1 내부



방2 내부



방1-방2



천장



전망

[그림-126] 바람구름전망대 현황사진

6.2.8. 은천교회

Ⅰ 개요



유산명	은천교회
구역명	완충구역 밖
지번주소	아미동2가 224-1 (86.1㎡), 아미동2가 224-10 (211.7㎡)
도로명주소	아미로 45번길32
토지소유	법인 (※ 과업 기간 중 소유주 '서구청'으로 변경되었으나 DB에 반영 안됨)
주요특징	한국전쟁기 석구조교회 건축물
구조	강당부 - 석조, 사무동 - 슬래브구조
규모	총대지면적 297.8㎡ / 건축면적: 161.56㎡ (실측) / 연면적: 219.96 ㎡
조성시기	1955년 11년 20월
역사적 근거	머릿돌 및 교회 소장 사진



[그림-127] '은천교회' 위치도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 은천교회는 1952년 한명리 부부가 천막교회 형태에서 출발하여 1955년 미군지원을 받아 석조건축물로 완공된 종교시설로서, “1955년 11월 20일” 준공 머릿돌이 있으며, 석조 건축물(교회 예배당)에 사무실동이 증축된 것으로 판단됨
- 교회 석조건물은 ‘아미동2가 224-10대’ 필지에 입지하고 있으며, 그 외 2개 건물동이 있으나, 교회 원형인 석조건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대장은 부재하고, 교회 석조건물이 입지하는 필지는 현재 행복주택 조성사업에 따른 진입로 확장공사가 추진 중임
-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 건축된 석조 교회당으로 입구는 아치 창호를 갖는 전형적인 의장에, 동서로 긴 장방형의 강당형 평면을 가지며, 본래의 진입로의 출입구인 강당부 지붕 위에는 첨탑을 두어 종교 시설임을 나타냄
- 화강석의 조적 구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1950년대 교회 건축물로 종교사적·건축사적 큰 가치를 가지며, 부산대학교 박물관(1956), 범일동 서광교회(1962)와 같이 부산시 내 1950-60년대 대표적인 석조건축물의 역사적 가치가 있음은천교회는 한국전쟁기 피란민과 빈민에게 구휼 및 교육 활동하던 종교기관이자, 지역 공동체의 거점이며, 1950년대 우리나라 석조 건축양식을 알 수 있는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아미동 은천교회

건축물대장 無



대지위치	아미동2가	지번	224-10
건축면적 (실측면적)	161.56㎡	연면적 (실측면적)	219.96㎡
주용도	교회	건축시기	1955.11.20

범일동 서광교회(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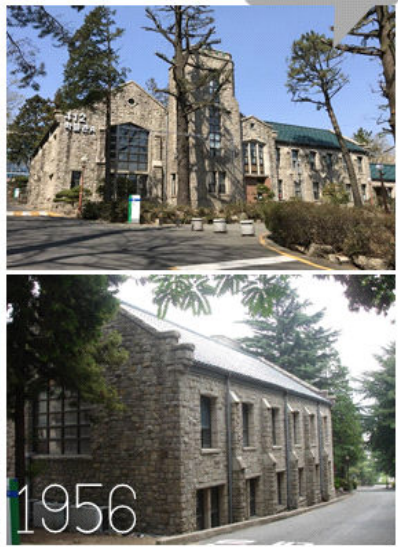
건축물대장 有



대지위치	동구 범일동	지번	1424-13
건축면적	155.97㎡	연면적	155.97㎡
주용도	교회	사용승인일자	1962-04-10

부산대 박물관(1956)

건축물대장 有



대지위치	금정구 장전동	지번	40
건축면적	366㎡	연면적	594㎡
주용도	교육연구시설	사용승인일자	1956-03-31

[그림-128] 부산의 1950년대 석조건축물 현황



1950년대 은천교회 일대
(현 까치고개로 일원, 당시 화장장 굴뚝이 남아있음)



1955년 은천교회 건축공사 과정



송진천(좌),한명리(우)부부



1952년 천막교회 은천웨슬레클럽 (야간학교)



1955년 교회건축기념



1958년 은천교회 임직감사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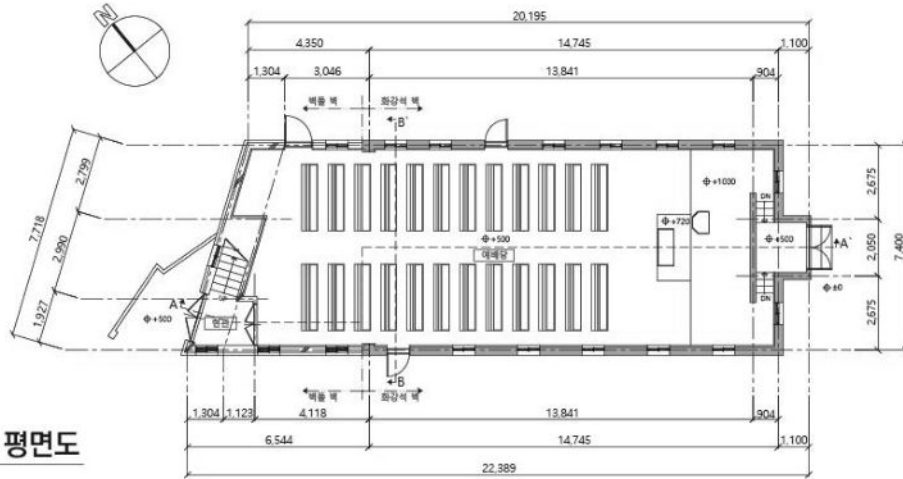


1997년 3월16일 권사취임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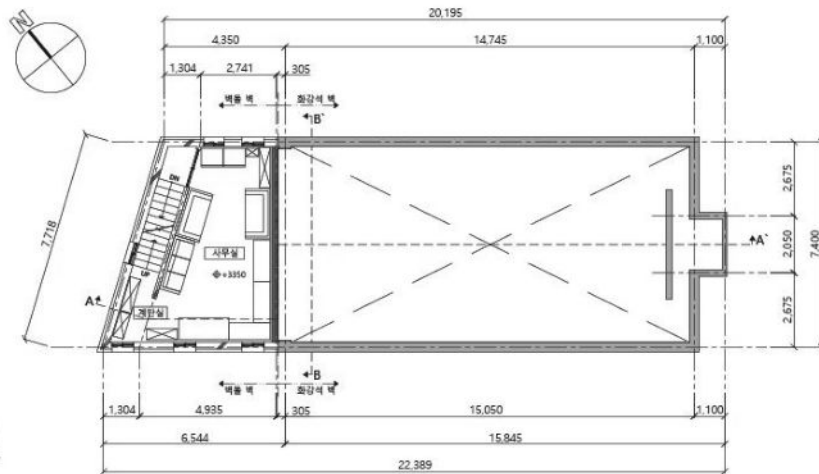


[그림-129] 은천교회 옛 사진(은천교회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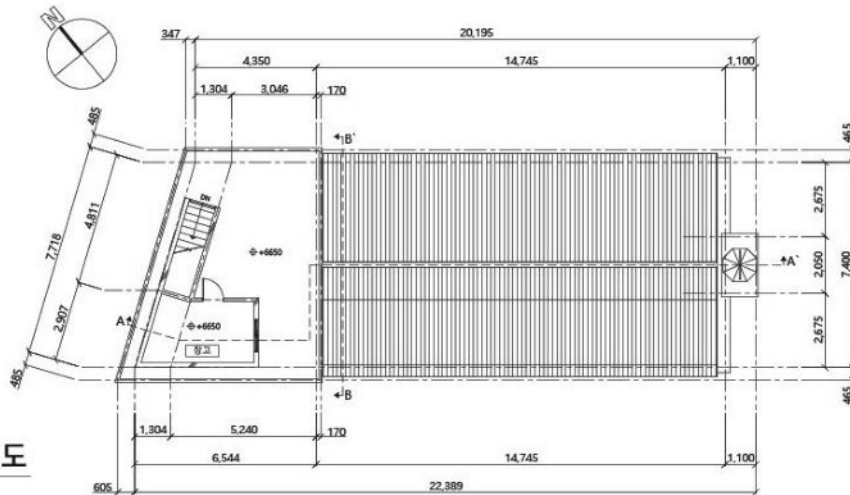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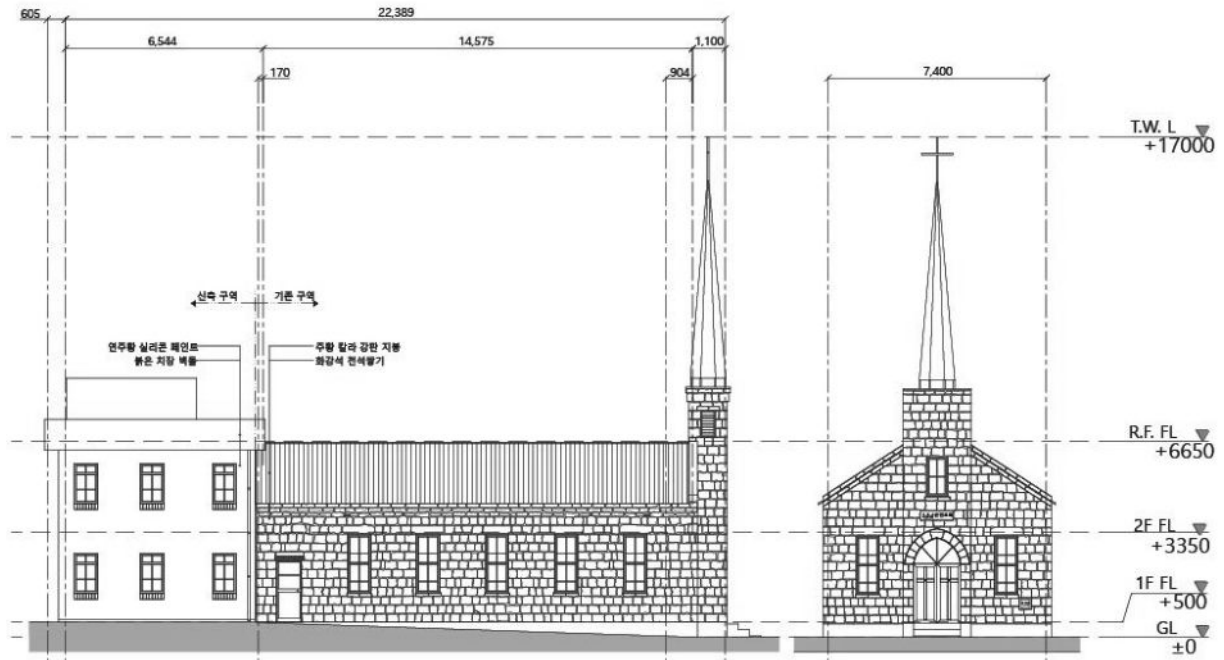
2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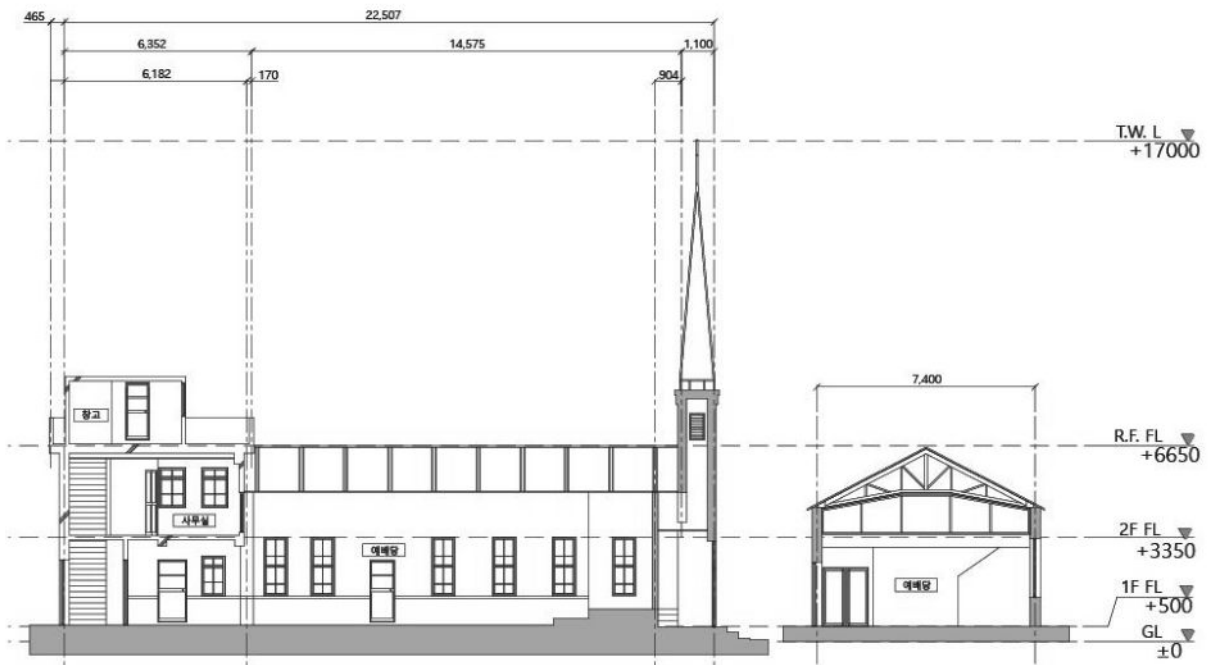


[그림-130] 은천교회 실측도면1



입면도1 : 남서측

입면도2 : 동남측



단면도1 : A-A'

단면도2 : B-B'

[그림-131] 은천교회 실측도면2



진입로



진입 입구 간판



도로부 측면부



까치고개로에서 바라본 전경



후면 상부에서 바라본 전경



현재 진입로



옛 진입로 출입구



옛 진입로 계단



강당부 전경



옛 출입구 첨탑 상부



옛 출입구



벽면 창호

[그림-132] 은천교회 현황사진1



현 진입로 및 전면부 전경



강당부 측면과 옛 진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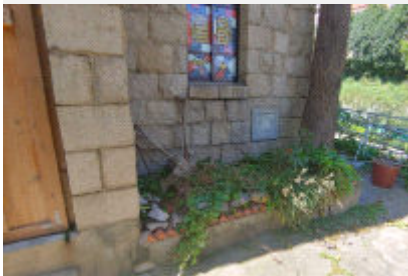
사무동 외벽면



강당부 외벽면



옛 출입구



머리돌 위치



머리돌 확대



첨탑 및 지붕 전경



1층 강당부



예배당



2층 사무실



옥상층 창고 내 기도실



옛 출입구 상부 벽면

[그림-133] 은천교회 현황사진2

6.2.9. 총천사 불상 및 용왕당

Ⅰ 개요



유산명	옛 총천사불상 (석조관음보살좌상)	용왕당
구역명	완충구역 밖	완충구역 밖
지번주소	아미동2가 89	아미동2가 89-34
도로명주소	아미로 132-1	-
토지소유	시도유지	군유지
주요특징	학교부지 일부에 입지	반동굴형태의 기도터와 일본 양식의 불상 및 조각
구조	(재료 : 석조 불상)	석조
규모	불상 1건	용왕당 구역 약 150㎡ (대규모 필지의 일부를 점유)
조성시기	일제강점기 추정	-
역사적 근거	일제강점기 총천사 부지	일제강점기 총천사 부지



[그림-134] '총천사, 용왕당' 위치도

Ⅰ 총천사 불상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 현 아미초교 건물 뒤편에 자리하고 있는 옛 총천사 불상의 정식 명칭은 “석조관음보살좌상”(최은령, 2018)이며, 총천사는 1907년 조성되어 일제강점기에 해당 부지 후면에 총천사가 직접 관리하는 묘역이 자리한 것으로 추정됨
- 주거지 형성기에 불상은 아미초교 교사 전면에 위치하였으나 2010년대에 교사 후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1970년대 아미초교 졸업식 기념 사진에서 촬영지점으로 빈번히 나타나며, 특히 2010년 두산백과의 총천사 불상을 참고하면 ‘수호신’의 명패를 담은 것과 같이 아미초등학교의 상징물로 자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총천사의 최근 활동과 관련하여 2013년 일본 조동종 사찰의 참회 비문이 초량 서중학교 후문 앞 및 아미초교 뒤편에 자리하는 등 과거 총천사가 부산의 포교소를 설립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음
- 옛 총천사지의 흔적으로서 용왕당 및 주변지역에 근대기 일본 양식으로 추정되는 불상이 산재하며, 일제강점기 아미동 내 일본인 묘지를 관리하는 사찰의 존재를 증명하며, 해당 불상을 ‘수호신’과 같은 명칭을 두며 학교의 상징물로 변용하여 활용했다는 점에서 독특한 아미동의 핵심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그림-135] 총천사 불상 현재 입지



1909년 아미동 총천사(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



1945년 아미동 항공사진

2020년 아미동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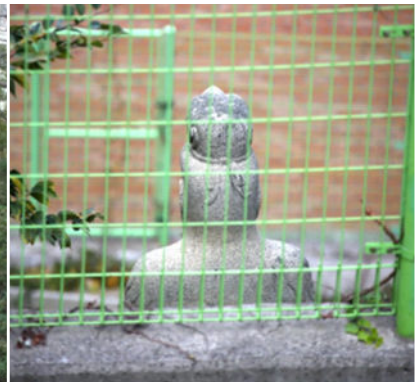
[그림-136] 총천사 부지 추정



총천사 불상 정면



총천사 불상 후면



놀이터 부지에서 바라본 후면

[그림-137] 총천사 불상 현황



1976년 총천사 불상 위치 (윤지선 소장)
(서구청. 2016. 아미동 옛 사진 공모전)



2010년 총천사 불상 위치
(두산백과 doopedia, '아미초등학교 수호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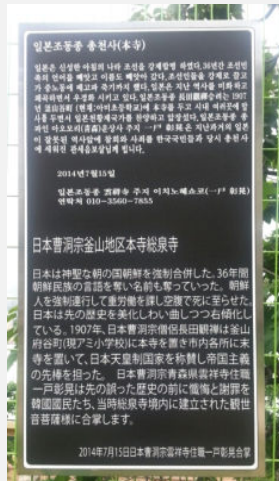


1954년 부산사범병설학교 졸업앨범 내 (조말자 소장) (서구청. 2016. 아미동 옛 사진 공모전)

[그림-138] 총천사 불상관련 옛 사진



2013.07.26. 총천사 비문
- 초량동 서중학교 후문앞



2014.07.15. 총천사 비문
- 아미초등학교 뒤편 (현재 풍우로 소실)



2017.07.20. 총천사 비문
-아미초등학교 뒤편 (다시 세움)

*비문 내용

일본 曹洞宗 부산포교소 總泉寺趾

이 곳은 1907년 長田觀禪 승려가 부지 2800평 구입(현, 서중학교) 일본 조동종 총천사를 건립, 일제통치기 황국신민화 운동에 앞장서 부산시민 등의 고역을 끼친 것을 통심하여 여기에 참회와 사죄를 하는 마음으로 비문을 건립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일본 조동종 雲祥寺 주지
一戸 彰晃(이지노헤 쇼코) 합장

*비문 내용

일본 조동종 총천사(本寺)

일본은 신성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강제합병 하였다. 36년간 조선 민족의 언어를 빼앗고 이름도 빼앗아 갔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중노동에 배고파 죽기까지 했다. 일본은 지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우경화 시키고 있다. 일본조동종 長田觀禪 승려는 1907년 釜山谷町 (현재: 아미초등학교)에 本寺를 두고 시내 여러곳에 말사를 두면서 일본천황제국가를 찬양하고 앞장섰다. 일본조동종 종파인 아오모리(靑森)운상사 주지 一戸 彰晃은 지난 과거의 일본이 잘못된 역사앞에 참회와 사죄를 한국국민들과 당시 총천사에 세워진 관세음보살님께 빕니다.

2014년 7월 15일

일본 조동종 雲祥寺 주지 이지노헤 쇼코(一戸 彰晃)

*비문 내용

일본 조동종 총천사(本寺)

일본은 신성한 아침의 나라 조선을 강제합병 하였다. 36년간 조선 민족의 언어를 빼앗고 이름도 빼앗아 갔다.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가 중노동에 배고파 죽기까지 했다. 일본은 지난 역사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우경화 시키고 있다. 일본조동종 長田觀禪 승려는 1907년 釜山谷町 (현재: 아미초등학교)에 本寺를 두고 시내 여러곳에 말사를 두면서 일본천황제국가를 찬양하고 앞장섰다. 일본조동종 종파인 아오모리(靑森)운상사 주지 一戸 彰晃은 지난 과거의 일본이 잘못된 역사앞에 참회와 사죄를 한국국민들과 당시 총천사에 세워진 관세음보살님께 빕니다.

2017년 7월 20일 다시 세움

일본 조동종 雲祥寺 주지 이지노헤 쇼코(一戸 彰晃)

[그림-139] 일본 조동종 총천사 비문



[그림-140] 용왕당 불상

Ⅰ 용왕당 : 핵심유산의 공간적 특성 및 가치와 의미

- 용왕당은 천마산 방향의 사진에 있는 반동굴 형태의 암벽 하부공간을 기도공간으로 사용 중인 곳으로서, 총천사 경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식 불상이 산재하고 있으며, '비석조사2020'의 [지점 295,296,297]에 해당됨
- 용왕당은 비석마을 완충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지만 용왕당 주변으로 각종 불상 및 조각상의 기단으로 추정되는 석조물이 산재하여 육안으로 확인되는 사찰 관련 조각상은 총 8개가 발견되어 총천사와 상당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산업화 시기를 거치며 마을의 민속 및 무속의 공간으로 확장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아미초교 후면에 자리하는 옛 총천사 불상과 연계하여 일제강점기 총천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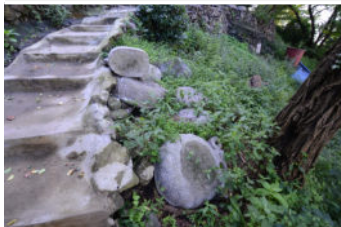
불상 전면



용왕당 내부 전경



불상 우측 지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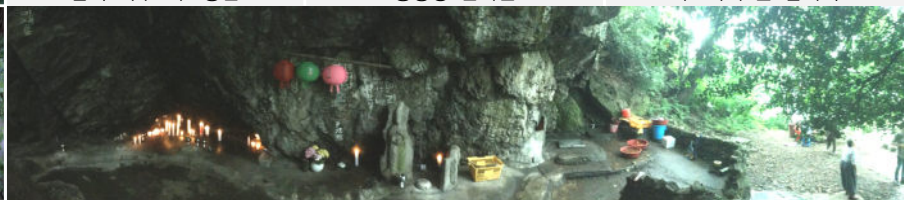
암벽 하부 기도공간



용왕당 관리인



기도하러 온 참배객



용왕당 내부에서 바깥으로 파노라마 뷰



용왕당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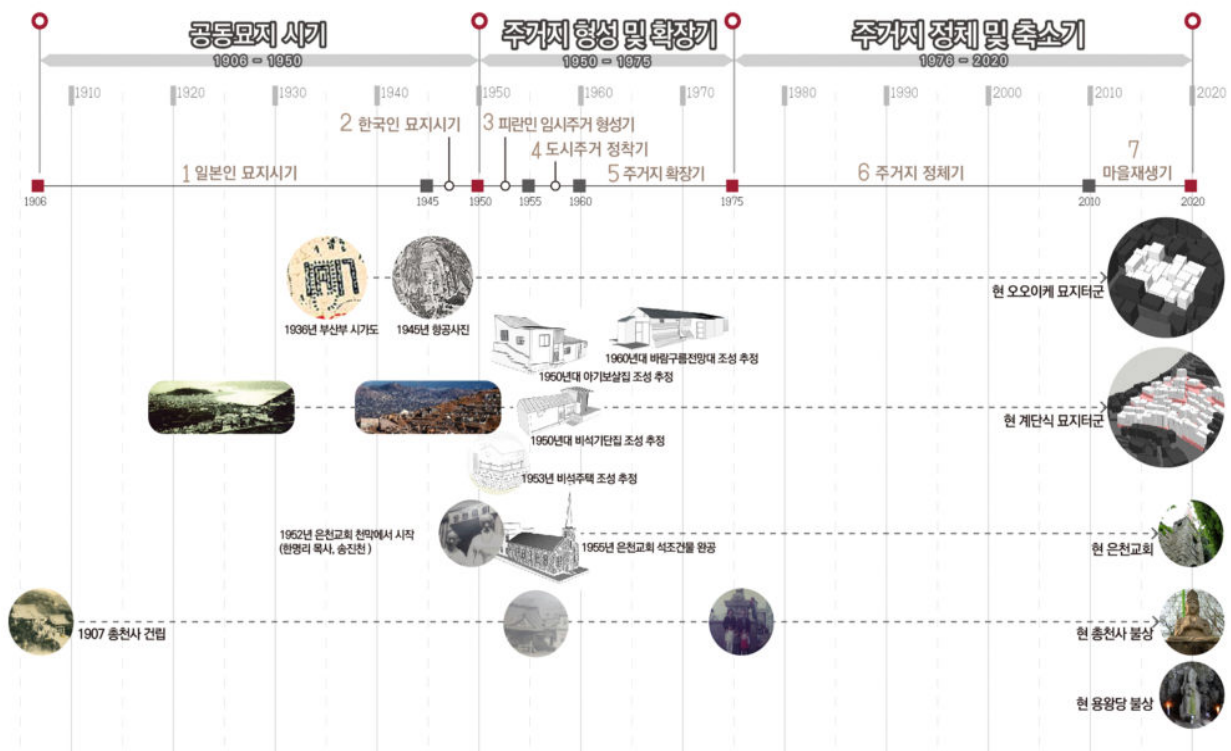
진입로 및 부지 주변 조각상



[그림-141] 용왕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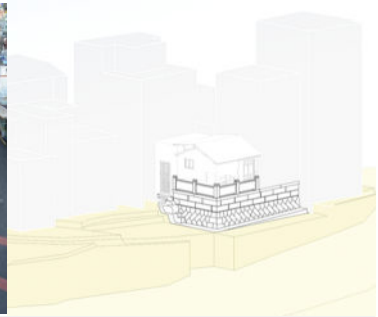
6.3. 핵심유산 발굴 종합

- 비석마을의 총 11개 핵심유산은 공동묘지 시기와 주거지 형성 및 확장기에 걸쳐 변용하여 오늘날 이르는 것으로서, '바람구름전망대'를 제외하고 10개 모두 한국전쟁기 이전에 존재하였던 유산으로 판단됨
- 2021년 4월 현재, 11개 핵심유산 중 '비석주택터'가 '부산 아미동 피란민 비석주택터'의 명칭으로 문화재 신청이 진행 중이며, 향후 부산의 1950년대 대표적인 석조건축물인 '은천교회' 등 추가적인 핵심유산의 문화재 신청 진행이 필요
- '오오이케묘지터군', '계단식 묘지터군', '아기보살집', '비석기단집'은 바닥 하부의 묘역 구조체가 발굴될 가능성이 큰 유산으로서, 피란주거지의 역사적 근거를 제공하는 잠재력이 있는 핵심유산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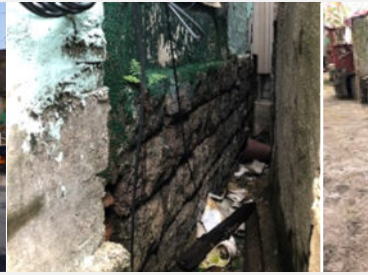


[그림-142] 핵심유산의 시기적 특성 종합

유형	no.	핵심유산명	형성시기	비고
터	1	비석주택터	묘지부 - 일제강점기, 주택부- 1953년	문화재 신청 중
(점-선)	2	축대1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지)	
	3	축대2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지)	
터 군집	4	오오이케묘지터군	일제강점기 추정 (1936년 부산부시가지)	
(면)	5	계단식 묘지터군	일제강점기 묘지조성 (주거지 조성 1953년 사진 근거)	
건축물	6	아기보살집	주택 조성 - 한국전쟁기 추정	
	7	비석기단집	주택 조성 - 한국전쟁기 추정	
	8	바람구름전망대	1960년대 추정	
	9	은천교회	1955.11.20	
	10	옛 충천사불상	일제강점기 추정	
기타	11	용왕당	일제강점기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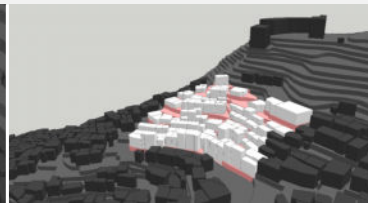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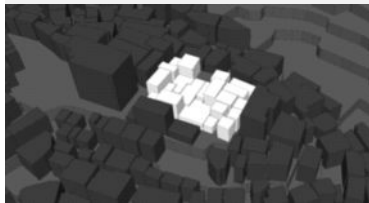


비석주택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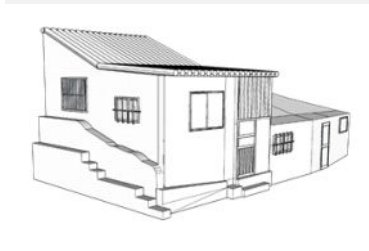
축대1

축대2



오오이케묘지터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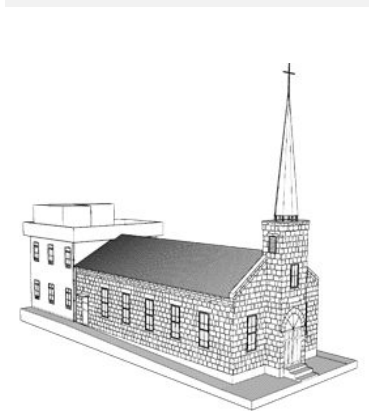
계단식 묘지터군



아기보살집

비석기단집

바람구름전망대



은천교회

총천사 불상

용왕당

[그림-143] 아미동 핵심유산 종합

03

아미동 비석마을의 생활과 문화

1. 구술조사 개요
2. 일본인 공동묘지의 주인공 교체
3. 불안정한 경계인의 정착
4. 마을 주민의 공동묘지 기억
5. 주거시설 만들기
6. 마을 공용시설 만들기
7. 생활문화

03 아미동 비석마을의 생활과 문화

1. 구술조사 개요

1.1. 구술자 인적사항

[표-19] 구술자 인적사항

구술자	나이	출신(부모 연고지)	구술일자	구술장소
허□□	91	경남 고성, 남편 귀환동포	2020.07.31.	자택
송□□	85	귀환동포(경남 의령, 외가)	2020.09.04.	아미동사랑방
박□□	85	귀환동포(경북 상주)	2020.09.08.	아미동사랑방
김□□	86	귀환동포(부산)	2020.10.10.	자택
최○○(※)	82	경남 하동	2020.11.20.	용왕당
김○○	75	경남 밀양	2020.09.26.	마을공용공간
조□□	80	귀환동포(전남 담양, 외가)	2020.12.06.	자택
신□□	92	피란민(전북 김제)	2009.10.26.	자택
문□□	86(사망)	귀환동포(전남 장흥)	2009.09.22.	자택
이□□	85(사망)	귀환동포(경북 포항)	2010.02.01.	자택
이○○	85(사망)	피란민(함남 흥남)	2010.02.25.	자택

※ 구술자 익명 요청으로 성만을 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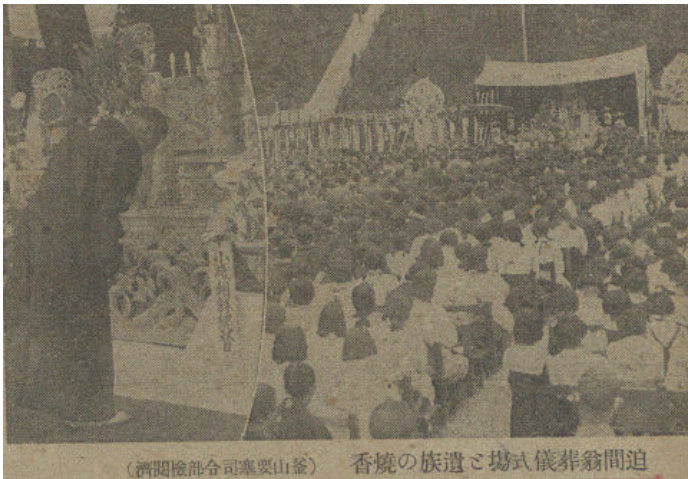
※ 신□□, 문□□, 이□□, 이○○ 구술자료는 2009-2010년 인문한국사업으로 수집한 구술자료를 본 사업에서 녹취록 작성함

1.2. 구술기록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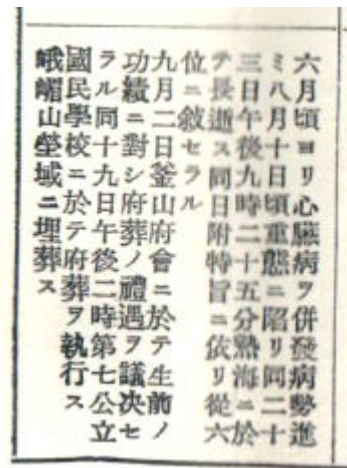
- 구술자가 인명, 지명 등을 잘못 구술한 경우 구술자의 표현을 그대로 살리고 []안에 정확한 인명, 지명 등을 표기함.
- 사투리나 옛 말투도 구술자의 표현 그대로 녹취하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에 표준어를 해설함.
- 외래어의 경우 구술자의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원어는 []안에 표기함.
- 용어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자가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표기하고 []안에 표준어 또는 원래 의미를 표기함.
- 구술자나 면담자가 면담 중 기억을 떠올리거나 적절한 표현을 위해 머뭇거리는 부분과 면담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술자의 감정표현은 []안에 표기함.
-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XXX)로 표기함.
- 작은따옴표 ‘ ’ : 구술자가 상황을 인용하면서 인용한 말이나 구술자 또는 면담자가 타인의 말을 옮긴 경우, 혹은 간접 인용한 말이나 생각
- 쉼표 , : 말이 잠시 쉬었다가 이어지는 경우
- 마침표 . : 말이 완결됨
- 말줄임표 … : 말끝이 흐려지거나 침묵함.
- << >> : 간행물 표기
- < > : 논문명 표기

2. 일본인 공동묘지의 주인공 교체

- ▶ 아미동 일본인 공동묘지는 부산이 일본인들의 오랜 정착지라는 의미를 만들어 내었다. 부산에서 성공한 자들의 무덤은 재부산 일본인들에게 식민지 조선과 부산이 미래에도 자신들의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게 하였다. 1942년 사망한 하자마 후사타로(迫間房太郎)는 1880년 부산에 정착한 이래 부산의 정치 경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그가 1942년 일본 시즈오카에서 요양 중 사망했으나, 부산으로 시신을 옮겨 와 부산부장(釜山府葬)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아미산 공동묘지에 묻혔다. 이런 사건은 재부산 일본인들의 부산에 대한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아미동 일본인 공동묘지는 재부산 일본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의 표상과 같은 것이었다. 당시 일본인들의 대표적인 무덤에 대한 현 생존자들의 구술이 남아있다.¹⁾



[그림-144] 하자마 장례식 광경(부산일보 1942.09.20.)



[그림-145] 하자마 연표에 기재된 무덤 위치

무덤 그대로 있었으예. 지금 산상교회 뒤에 보른 또 돼지되등 이라가 되등[묘]이 커다란기 뵈가 참 좋은게 있었어. 참 잘 해놔어...요 지금 성당 저거도 반달되 라고. 뵈가 반달이 딱 되갓고 이름, 성명 다 적어져가 있고. 그래 좋은 뵈를 저래 뿌아뿌서 그렇지 그 뵈가 좋은게 많았으예.(김□□)

그라고 감천골에 지금 성당 자리에 거를 가면은 쪼개 무덤이 쪼끔 있었으예. 거는 무덤도 아주 고급 무덤이, 좋은게 있었으예. 비석도 좋고 뽀쩍뽀쩍하고 반달마치 이래 해놓고. 높은 사람 죽었는가 어쨌는가. 그래 놓고 살았고.(송□□)

아유 그런 거는 여기서 보고 자랐으니까. 교회 지금 위치는 더 납골당이 컷고 위치가, 예 여기는 좀 소규모고. 그니까 소규모 중에서도 가정이 있는 사람은, 좀 풍부한 사람은 납골당을 크게 했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은 좀 적게 했고 구분이 되더라고.(조□□)

처음 딱. 저 위에는 반달비석이 있었어요. 옛날에 새마을 주차장이 없어졌지만은 저 넘어갔지만은 그 경로당[2.8경로당] 그 자리가 일반 놈들[일본놈들] 반달비석이 큰 게 한 개 있었어.(문□□)

1946년 7월 부산일본인세화회 직원은 각 사원에 흩어져있던 유골을 조사해 총 6,363개를 확인하고, 이 가운데 약 3,000여 개의 무연고자 유골을 모아 아미동 공동묘지에 매장하고 「無緣諸佛之墓」라는 묘석을 세워, 7월 28일 위령제를 지냈다. 나머지는 일본으로 가져가 하카다의 聖福寺에 안치했다.(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1964, 709-710쪽.)

1) 차철욱, 「아미동 비석마을 주민의 생활경험과 가치」 『로컬리티인문학』25, 2021.4, 83-84쪽.



[그림-146] 일본인 위령제(1)(『博多港引揚』, 2011, 46쪽)



[그림-147] 일본인 위령제(2)(『博多港引揚』, 2011, 47쪽)

- ▶ 일본인들이 떠난 뒤 아미동 공동묘지는 계속해서 죽은 자의 공간이었다. 한국전쟁 전 부산의 1일 평균 사망자는 24.5명이었다. 화장시설이나 공동묘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했고 부산에서 처리해야 할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 한국전쟁 중임에도 아미동 공동묘지는 계속 이용되었다.²⁾

이들(행려병자들)은 전부 친척도 연고도 없는 사람들인 관계로 초량 아미동 뒷산에 가매장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아미동 뒷산에 있는 가매장에는 매장장소가 협소해서 二(이)중으로 쌓여 매장되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사체와 뼈가 노출되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인근자 말에 의하면 심지어 개 짐승들이 얹게 매장된 사체를 파먹는 일이 많아서 집마다 養(양)견을 금하고 있다 한다 이 외에도 사체가 노출된 관계로 비가 내리면 사체를 씻은 빗물이 흘러내려 동민들의 식수로 되어 있는 우물까지 밀려와서 매장장 근처의 주민들의 위생을 위협하고 있다 한다(부산일보 1952.06.28.)

아미동 뒷산 인가에 인접한 공동묘지는 시민보건에 대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지금은 六,二五 동란으로 인하여 피난민들의 중요한 거주처가 되고 있을뿐더러 주택난으로 인한 세공민들의 주택들이 약 백여 호를 돌파하고 있으므로 협소한 매장장에 평균 하루 둘씩의 시체가 二중으로 매장되고 (부산일보 1952.07.06.)

2) 차철욱, 앞의 논문, 84쪽.

3. 불안정한 경계인의 정착

- ▶ 비석마을 정착민은 다양한 출신자들이었다. 부산 토박이보다 타지역에서 이동해 온 사례가 대부분이다. 전쟁으로 고향 탈출을 강제당한 피란민, 그 외 사회 경제적 사정으로 이동한 이주민 등이다. 어떤 경우이든지 자신의 삶터가 불안했고, 부산을 향해 이동하지 않을 수 없는 자들이었다. 비석마을의 초기 이주민들은 이들의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우연한 사례이지만 이번 아미동 비석마을 조사에서 귀환동포의 경험자를 많이 만날 수 있었다.³⁾

일본에서는 우리 잘 살았지예. 아버지하고. 잘 살았는데 피난 나와갖고 오다가 인제 글썽 그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섯 살 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큰집에서 상주에서 큰아버지 계시는데 거서 있다가...대전에 이모가 살아 계셨거든예. 이모 집에도 살다가. 얼마 있다가 6.25 나가지고 피난 갈 때 대구로 피난으로 와갖고 대구 다리 밑에서 쉬다가 난중에 또 잘 기억이 안나네예. 부산에 내려 와갖고. 10살 때 열로 올라 왔거든예.(박□□)

(한국에)나오니께, (의령 외가에 갔어)아들도 어땠고 동생이 남편도 죽고 외갓집을 들이닥치 놓으니까 예 (외삼촌이)'가라고' '가라고' 그렇게 과함(고함)을 지르고. 그래 우리는 들어가도 몬 하고 이래 있었으예. 그래 있응께 할매가 '가지마라, 가지마라' 캄서 데코 들어갔어. 그래 데코 들어가가지고 그 두달 인가 세달인가 사니께네 우리 할머니가 인자 김해에다가, 김해. ... 김해서 좀 살다가 아들도 데코 올엄마가 제일로 몬 사니께네 누가 요 부산에다 소개를 했어. 요 밑에 아미초등학교가 옛날에 고아원이었어예. 그래, 거기 밥 할 사람 필요있고 촌에 아들 데코 있어봤자 공부도 몬 시키고 때도 몬 끼리 먹으니까네 그냥 데코 그 가라. 아들 거서 나라에서 공부 시키라 하고 엄마는 거서 일하고. 그래가 그 몇 개월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요요, 여짜에 집 마련했지.(송□□)

그 양화점을 할라고 아버지가 기계를 많이 사가 왔지. 그라 인자 삼촌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잤는데...차를 대놓고 갖고 가는 것도 몰랐어. 다 도둑을 맞았거든. 아버지, 엄마는 제사 지내러 가고. 외할아버지 지내러 가고. 그랬는데...예. 그라고 뭐 아버지가 좀 타락이 돼갖고 조금 우리가 사는 게 욕을 좀 봤어예...그래 인자 좀 있다가 뭐 6.25나고. 6.25 나고 국제시장에서 엄마, 아버지 장사했지... 6.25 나고 나서는 인자 또 집안이 조금 안 돼갖고 우리가 여기 말고 저 밑에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 아미동이라 해야 되나 저 본동에 저 밑에. 그거 토성동 집을 팔고 그리 이사를 왔는데(김□□)

그 가서 적산가옥, 일본놈들 버리고 간 거 적산가옥 하나 얻어가지고 살다가, 살다가 이 저기 저기 그 아버지가 하던 사업들이 전부다 망해가지고 '어디가 젤로 참 인심 수월코 살기 좋겠느냐'이래니까 우리 숙부님이 '내 함 돌아보고 와야되겠다'고. 저 전라도로 어디로 막 사방 돌아댕기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김제군, 전라북도 정읍에서 김제군 그 일때[일대, 一帶]가 젤로 곡창지대고 인심이 후하다' 그래 거갔거든. 그래 가가지고 고생도 고생도 참 무지무지하게 했지. 그래가 뭐 오래 있을 수가 없어 거기도...신태인 새 신자 클 태자 신태인이라 했는데, 거기 내려가지고[생각 중] 거기서 한 사십리던데.. 촌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장군리라고 있어. 거기서 인제 좀 살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6.25를 만났지. 6.25를 만나가지고 저 나중에 또 1.4후퇴하고 쳐들어오고 하니까네 왔다갔다 이 저거 하니까네 그때 촌에 참말 어렵게 살았거든 논에 (XXX) 그 나물 풀 뿌린 그거 뿌려놓은 것도 그것도 서로 뜯어 먹을라고 서로. 그래가 이판인데 여도 못 살겠다 해서 그래 인자 안 된다 죽어도 경상도 쪽으로 가자 해서 겨우 오게 된 게 부산이라 이거.(이□□)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어머니 고향에, 전라도 광주. 제가 알기에는 거기에 광주에서도 좀 떨어진 지방에 담양군 고서면이라는 게 있습니다...제가 인자 막내한테 그거를 한번 호적

3) 차철욱, 앞의 논문, 86쪽.

등본을 한번 떼어 온나 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잠시 어 거기서 살다가, 계림초등학교 제가 4학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또 저 아버지가 ... 엄마가 도망다 났죠 노름꾼 남편을 만나놓으니까 가정을 모르고. 그래서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광주 계림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하고 전라도 여수로 또 갔습니다. 어머니가 도망을 갔죠 모친께서, 아버지를 버리고. 그러자 자식들을 데리고 갔었지예. 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데 여수 수산 대학교 저 신원리라는데, 그쪽으로 엄마가 방을 얻어가지고 가서 거기서 엄마가 생선 장사를 하시 면서 저희 자식들 그 당시 몇 남매인가, 삼남매인가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셨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고, 역시나 만나서 오래 살진 않았어요. 제 기억에 일년 남짓 살았는데 역시나 거기 오셔서도 노름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엄마가 또 시도를 했습니다, 부산으로 인 자 어머니가 또 오셔서 예, 그래 또 자식들 저하고 서울에 사는 제 누이동생하고 이렇게 데리고 그 냥 부산으로 또 엄마가 도망을 오신 겁니다.(조□□)

- ▶ 귀환동포는 연고지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어쩔수 없이 이동해야 했다. 귀환동포였기 때문에 지 연, 혈연에 얽매일 필요가 없었으나, 어디에도 뿌리내릴 수 없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었다는 것은 동시에 생활의 불안정을 의미했다.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던 이들에게 전쟁은 부산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아미동 공동묘지에 정착한 이주민들은 어디에서도 뿌리내리기 어려운 절 박한 상황이었다.⁴⁾



[그림-148] 이□□씨 자택 앞



[그림-149] 아미동 사랑방(우측 송□□, 좌측 박□□)



[그림-150] 2.8경로당 회원



[그림-151] 김○○씨 어린시절 자택 앞

4) 차철욱, 앞의 논문, 88~89쪽.

4. 마을 주민의 공동묘지 기억

옛날에 사람 죽으면은 보니까는 가마니 푹푹 말아 갖고 지게 지고 올라오대예. 난 그거 뭔지 몰랐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죽은 거다. 저 산에 가서 내뺄라고 가온다’는 기라. 그래도 내 빠르면 다행이지만, 다 구더이(구덩이)가, 옛날에 공동묘지니깐은 여기에 돌이 있잖아예. 그 안에 던지빠는기야. 그러고 기냥 내려가고. 그것도 많이 봤으예. 어린 시절이라서 어디 놀러 가갔고...그 때는 무서운 게 별로 없대예. 나이가 어려선가 몰라도. 가니까 꽃 단지가 너무 예쁘예. 한 날은 놀다 오니까 우리 집, 꽃 단지가 한 개 있는기라. ‘엄마 이 단지 어서 낫는데예’ 이러니까 ‘김치 담글라고 가왔다’ 이라는기야. 그래서 ‘엄마, 이거 송장 담는기다. 무섭다. 엄마 하지마라.’ 이래갖고 내가 갖고 가갔고 뒤편에 가갔고 망치가지고 깨 내뺄라 버렸으예. 단지도 얼마나 이쁘다고. 꽃단지가예. 그래 그 안에 들어가니까 진짜 잘해났으예. 계단 내려가니까 딱 선반 질러가 꽃 단지도 이름 써가지고 나래비 시아놓고 그래 이게 전부다 왜놈, 여기 다 있으예. 여기 집 질 때 보면은 송장도 나오고 이랬으예. 갓도 나오고. 집집마다 여기 단지 없는 집 없었을 거야 요게...던져놓고 가버리고 그래요. 그래는 우리가 친구들은 놀러 가보면은 ‘어매 저 사람 죽은거 푹푹 말아 저 밑에 있다, 야.’ 이려고. ‘우리 내려가 볼래? 우리 내려가 볼래?’ 이랬거든예.(박□□)

이래 되가 있어예. 비석이 우찌되어있노 하면은 이 집을 이리 지있다 아입니다. 이리 사가지고 돌문을 만들어 놔으예. 돌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쪽 골목맨키로 해갖고 사람들 저기 일본사람은 보니까네 자기 가졌던 폐물 뭐 그런거를 거기다 다 기냥 놔놔대예. 식구대로.(김□□)

무섭고 그러지는 않았대예. 그런데 인자 여기에는 전기불도 없고 호롱불 키고 처음에는 살아도 난 중에 전기가 들어오고 이래갖고 살았지만은 여기가 그라고 여기는 전신 딱딱딱딱 붙어갖고 이랬는데 여름되면은 여기가 마당(마을 공동공간)이라. 그런데 집 좁은 사람들이 여름되면 여기서 전부다 와서 누워 자고.(김○○)

- ▶ 어린시절 공동묘지에 올라왔던 구술자들은 공동묘지가 혐오스럽다거나 무서워 접근할 수 없었다기보다, 궁금증 많은 어린이다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무덤 내부 시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봐 무덤을 무섭다거나 공포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⁵⁾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인자 구슬 따먹기, 땅따먹기, 숨바꼭질 하면서 제가 무덤을 아는 거는 여기, 저기에 발견된 것도 전부 몰랐어, 그 당시 하꼬방... 그래 이쪽 뒤로는 저희 집 터 밑으로 이쪽으로는 무덤이 있었습시다 납골당이. 그래 들어가서 숨는다고 숨바꼭질 하니까 숨는다고 숨어보니까, 단지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어렸을 때 모르니까 단지를 깨면 물이 고여 가지고 쏟아지고, 이런 경험은 했어요 저가.(조□□)

뭐 그거 뭐 알아도 모르지. 지금 다 잊아뿌고. 거서 뭐 공튀기 하고 애릴 때 놀고하고.(김□□)

[웃음]. 그런 시절을 살았어예. 그러니 여 살아도 무서운 것도 없고. 인제는. 본투배기 되놓으니깐. 누구 집에는 어느 집에는 집 질라 하니까 방에 송장이 나왔드라 이러는데 이런 거 잘 물어주고. 또 어느 집은 파니깐 그게 나와가지고. 비석. 비석이 나왔는데 그거를 갖다가 잘 해줘야 될진데 까 꼴로 해갖고 어디다 버렸다는기야. 그래갖고 그 집 아저씨가 죽었어. 비석을 건들여 갖고. 그래 샅

5) 차철욱, 앞의 논문, 89쪽.

더라고고...그런 파니까 송장이나 그런거 잘 물어야지 그래야 지가 복받는다 아입니까. 산이다 던져
보소 잘 안되잖아요. 그런 일이 많았어예.(박□□)

일본사람들이 와갖고 읽어보고 이러면은 돈 놓고 옛날에 여도 돈도 놓고 그래 갖고 절하고 이래하
고 그라는 사람도 자기 아버지, 엄마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죽은 사람 그런 거를 인자 찾으러
오는 사람들 있거든예. 그래갖고 돈 찾고 이라면 울고 이라는기야. 그런 사람들 좀 많이 있었어예.
근데 요새는 많이 안 오더라.(김○○)

(일본인성묘단 방문에 즈음한 신문기사) 5백세대 1천5백명...무덤 앞에 세워졌던 비석을 깎아 판잣
집 기둥으로 이용하고, 무덤을 둘러쌌던 시멘트담은 바로 담벽이되었다....”성묘단요 차라리 오지 않
는 것이 좋을 겁니다. 부산만은 포기하라고 말해주세요요”(마을주민)...시장 모퉁이에는 비석을 파는
곳도 있다. 석공들이 비석을 사러 찾아오면 그 비석을 팔아 몇끼니를 이어가기도 한다고. 부산 시내
부잣집에 있는 다듬이 돌 중에는 이곳 묘지의 비석을 깎아 만들어진 것도 있다고 마을 사람들은
자랑?을 하면서...묘지마을 사람들은 다만 오늘도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할 뿐이다(국제신보
1964.3.23.)

- ▶ 정착지를 찾아 이동하던 이주민들에게 비석마을은 생존의 근거지였다. 그들의 눈에 공동묘지라는 안정된 시
대의 죽은 자 공간은 산 사람들에게 생존의 공간이 되었다. 무서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정착민들은 죽
은 자의 공간을 자신들의 생활에 맞는 공간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인 공동묘지에 대한 의식보
다 자신의 안녕을 해치지 않기를 희망했다.⁶⁾

5. 주거시설 만들기

- ▶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주거지는 대부분 판잣집 혹은 천막이었다. 경제적인 변화와 함
께 주거지는 크게 1970년대에는 슬레이트 블록집, 1980년대 말에는 슬래브 주택으로 변화했다. 임시적인
성격의 주거지가 뿌리내리는 용도의 주거지로 변한 것이다. 일본인 공동묘지에 정착했던 아미동 이주민들에
게 주거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공동묘지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산동네나 피란민수용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던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주민이 증가하고 주거공간이 부족해지자 헐값에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했던 사람들, 행정당국의 알선에 의
존하지 않을 수 없던 사람들, 생계수단과 가까운 거리에 살아야만 했던 절박한 사람들에게 공동묘지라는 특
수한 환경은 그다지 제약 요인이 되지 못했다.

Ⅰ 천막

그래 살았으니께네. 텐트 요래 쳤으면은, 저 뒤로 하나, 둘, 넷, 하나 둘 넷 이러니께네. 이 집에도
넘어 집(남의 집),이고 뒷집에도 넘어 집이고. 우리 집은 창문도 없고, 아무 집이라도 그래. 전기문
그게 바로 창문인기랴예. 그라고 이리 벽도 기대면예 뒤로 스욱 넘어가뿌예. 이래 보면은 일본 사
람들은 박스 그런 거 묶고 싸가지고 치놓고 각기목 세워갖고 치놓고, 그거를 이래 해가지고 사니

6) 차철욱, 앞의 논문, 93쪽.

께. 이러면 꿀렁이고, 저 방에서 꿀렁이고 이랬으예.(송□□)

천막이 되어있는데. 그니까네 칸, 칸, 칸 요래요래 났지. 문이 저 뒤로 있고. 요 앞으로는 요래요래 집이 있었으예. 그러니까 우리는 요 첫째 다음으로 살았으예. 살았는데, 방하고 부엌하고 다 해봐야 두 평, 세 평 밖에 안 됐어예. 요만한데 요마이는 방이고 여는 부엌이고 이랬어. 지금같이 세멘트(시멘트)가 있나. 돌로 이래놓고. 나무 주서서(주워서) 불 때고. 연기가 자는데 다 들어오고. 요 가림개도 없고. 여는 자리도 없어서 가마니 깔아놓고 흙바닥에 가마이 깔아놓고 살았어예.(송□□)

내 알기로는 텐트 여기[아미동 사랑방] 한 등 있었고, 저쪽에 놀이터 있지예. 거도 텐트였으예...거 텐트가 있으면서, 인자 그 누가 또 학교 안 댕기는 사람 글도 가르치고, 또 어디 또 미국사람 어디서 또 들어오면 강냉이 가루니 밀가루 같은 거 들어오면 죽을 멀겁게 가마솥에 끼리갓고 동네 아들 양당이(양동이) 들고 오라고 다 불렀어예. 그라문 때 되면 다 줄 서. 죽자(국자) 큰 거로 퍼가서 집에 와서 먹고 그랬으예.(송□□)

아 휴전 바로 다음 해야 다음 해. 그래 천막을 하나 얻어가지고 요 왔지. 올라오니 올라오니깐, 그러니까 거기서 내릴 때 여덟 세대가 이걸 받았거든 여덟 세대가 이걸 받고... 그게 여덟 세대가 아니고 열여섯 세대가 살았어. 그 여덟 세대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니깐 거기 가면 또 여덟 세대가 있을테니까 같이 천막을 치고 살아라꼬. 또 여덟 세대가 있었지...일본 놈들 묘지가 이리 있으니까 담을 쳐가지고 그 묘 위에도 텐트나 뭐 아무거나 쳐 버리면 그걸 그 누(누워) 잘수가 있으니까. 밥 끓여 먹는거는 그 뭐 가들 대리석 해 놓은데 그 얹어 놓으면 되고. 그래 이제 같이 합류를 했지 합류를 해가지고 그 천막을 치고 그랬는데 유월... 한 몇 일... 초지. 그때 그 천막을 쳤는데 일본 사람들 공동묘지가 여기서 이래 쪽 이렇게. 가면 이제 가보면? 우리 키로 한... 한 질 반쯤 될 거야. 왜 거 담장 있잖아, 묘지있었는데 묘지는 헐어버리고 이래 외곶백이 담장이 있을거야 이제 거 기다가 또 천막을 메려고, 몽둥이치고 위에도 메어야 하거든. 메고 하는데 6월 18일 날인가 어떻게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부는지, 이거 천막이 이래 딱 서 있으면 굴을 파고 이쪽 여덟 세대, 이쪽 여덟 세대 누워야하는데 요 인자 담장이 서 있는데 여기다 끈을 메서 이만큼 쳐가지고 이제 굴을 파고, 물내려가게 굴을 파고 이쪽에다 여덟 세대가 누웠더니. 누웠는데 이게 밤중이 되니깐 태풍이 들이불고 하면서 천막이 그걸 또 흔드니깐 이 높은 담장이 막 이래 넘어져버려. 넘어져 밑에 사람이 막 깔려가지고. 애들은... 어른들 어른들이 머리가 높으니깐 어른들이 죽고, 애들은 살았다 말이야 기가 차는 일이지.⁷⁾새벽에 그리 일어나면 어른들 찡겨 죽고 애들은 또 막 그러니까 이 얘기가 고아원으로 들어가 버리고 이런 현상이 있었대죠. 있었는데 그 누구 뭐 수용소라 해가지고 소위 미군부대에서 주는 옷 찢끄래기나 강냉이 가루나 이런 것도 주고 그래 했어요.(이□□)

7) 1952년 6월 폭우로 아미동 공동묘지에서 뒷담이 무너져 사망자와 중상자가 발생했다는 기사도 확인된다(「장승포에서 구멍이 압사, 때아닌 폭우로 도내 각처에 사고」『부산일보』 1953.6.7).

텐트였지 텐트인데, 거기 바로 시내하고 바로 부닥치니까 바람도 세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여 올라와서 우리 아버지가 여기 좀 있자고 하니깐 사람들이 딱‘올라온나 여 이사 올라온나. 여기 사람 좀 적으니까.’그러니까 여서 구석에 한 쪽 구석에 차지하고 앉았는데 그 자리가 아직도 이 자리란 말이야...북한 쪽에서 왔지 북한 쪽에서도 왔는데, 북한 쪽은 도착하니까 와가지고 자기들도 못 된 거지(긴 거지) 보통은 요래요래 해서 전부다 피난민들이 거의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 텐트하나 받아가지고 즈그끼리 또 그렇게... 인자 삶이 또 자연히 그래 돼요. 근데 그 뭐하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서로 막 생존경쟁이 되어 놓으니 어디가서 돈 벌어먹을 구멍이 있으면 즈그끼리 똑 떼다 딱 데리고 가서 벌어들이고 하지...제사 다 지내야지 그럼 그럼. 그 저 장에 이불, 옷 두덩이 이래있고, 이불 이불 같은 거 탁 재놔잖아. 요 재어놓은데 거 다 포장 딱 내려놓고 그 앞에다 판 요만한 거 채리가, 그 지방을 써가지고 붙이고...간소하게 했지...그러니까 거 그래 지내고 나면 그 또 유달리 일찍이 자는 사람이 있고 꼭 또 누구 제사 지내면 딱 자는 척하고 있고, 그러면 어짜 어짜 불러가지고, 한 술이라도 갈라묵자(나눠먹자)고 이라고(이□□)

이래 철거를 한다 해가지고 북개천에 전부 하꼬방에 짝 있고 그랬거든. 하꼬방이. 그래 있다가 여기 어 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텐트 밑엔데 가마니 깔아놓고 가마이 갖고 뭐 여기서 이력저력 살다 보니 그 때만 해도 언제 양놈들한테 툭바이 뿌리네 뭐이네 이래가지고 와가꾸 가면 다리끼 같은 거 가오면 그 안에다가 텐트 안에서 칸을 막아가지고 보르바꾸 안 있습니까. 지붕을 이고 그래 살았습니다. 사라호 태풍 때 그래가지고 갑바 떨어지고 안 날라가고 다행이네 이 이 이 자리입니다...피난 와가지고 (부인과) 한 텐트에 있었어요(문□□).. 묘지 있을 적에 온 왔어예...이게 천막이 거든요? 처음에 여기에...저 피난민들 옴로 가라고 했어. 구청에서 어떻게 해서 가라해서 옴로 나눠졌었어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다섯 개를 했어예. 다섯 개를 해가지고 이제 피난 오는 사람들 그 안에서 여기 한 한 같으면 칸 막아가지고... 칸도 막지도 않고 그 안에서 가마니 깔아서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근데 우리는 무슨 불씨가 되서 요게. 또 나갔다가 또 오고. 나갔다가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 15살에 왔나 여기? 15살에 왔는데 지금(문□□ 부인)

천막이 그 저저 오 천막 합치고 그랬는갑더예 팔 천막이 제일 끝인 가봐 그래 여가 팔 천막이라 팔 천막인데, 여 우리 여 살안 이제 내 여기 지금 방이 두갑니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방이 두 개 그러니까, 천막이 있다가 우리 원래 그해 그해 봄에 이제 천막생활 이렇게 막 한데서 그냥 ...우리 할배 할아버지가 좀 배운 양반인데그 옛날에 뱃날에 할복 빠진 거 알 버. 그 머 이따 얄록빠진 거 그걸 그걸 인제 칸을 지르고 우에는 머냐카모 그 저저저저 지금 루핑에 그때 머리 있어뿌다요 깡통 (돛파리라) 했어요. 깡통 그에 저저저저 유격대 나온 거 인자 고런거를 다 있어가지고 하는 거 인제 깡통 도따 고거 씌어가지고 그냥 칸만 이제 요 이게 우에 강 해가지고 그것만 올리고 그냥 마 한 요 냉장고쯤 되가 칸만 우에다 그냥 한통이고 그래가 이제 집 있습니다. 방에 하나 하나 속 이게 이제 천막을 같이 살다 너무 인제 막 너무 인제 머시가 그래가 그래가 칸을 질렀는 거라.. 없애고 인제 팔천막 지아가 그때 당시 난 천막 없었으예, 내가 안카등교 내가 다 얘기했던 거 같은데, 천막 없다고 그랬는데. 이제 칸 질러 가지고 살 때 그때 들어왔습니다. 그때 들어왔는데.(신□□)

- ▶ 천막은 공동묘지가 밀집된 공간에 설치되었다. 공동묘지의 흔적은 천막 내부에서 지워지기 시작했다. 이주민들은 세대 사이의 칸막이를 만들고, 각 세대는 부엌과 방을 배치하고, 부엌문을 만들고, 바닥에는 가마니를 깔았다. 그리고 한 천막에 다수의 사람들이 생활했기 때문에 무덤이 제공하는 공포가 최소화되었다. 공동묘

지는 점차 주민들의 생활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바뀌었다.

- ▶ 공동묘지 천막생활은 부산으로 이주해 온 절박한 이주민들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공동묘지, 내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만의 공간만들기가 가능하게 했다.⁸⁾



[그림-152] 잉바르 스벤손이 촬영한 한국전쟁 중의 아미동 모습



[그림-153] 한국전쟁 중 일본인 무덤에 지어진 주택

Ⅰ 판잣집

그렇지. 그 텐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 이거 이게 참 공동생활 지겹다 나가야 되겠다 했을 때 이 주위 돌아보고 공동 뭐 저, 공동묘지 저 다 비어있으니까... 비어있으니까 거 가서 홀러 가지고 이렇게 나무를 가지고 괵을 짜면, 괵을 짜고 요 흙 이개가[뭉개다] 부어가지고 짝어가 빼내고 이게 요새 말하자면 보로꼬(ブロック 블록) 응 보로꼬, 벽돌 비슷하게 형을 딱 해가 그래가 그걸 일본 공동묘지 옆에다 그걸 쪽 한 쪽에 쌓고. 그 저 일본 사람들이 그 반드시 비석을 요래 장지 한 복 판에 올려놓는데 반드시 지하가 있다 말이야 지하가 있는데 그 지하 콘크리트 때 가지고 비석 그걸 놀리고 비석 그걸 쳐댔지 뭐든간에 그걸 평평이 만들라꼬 그래서 거서 인자 ...돌은 천지니까 돌을 온돌 놔가지고 그냥 자고. 여여 세멘트로 바르는 것도 아니야 흙으로 갔다 딱 발라놓고 그게 또 몸에 좋다카던데 하하(이□□)

텐트는 그냥... 그래 마이 없고, 그래 판자로 좋은 판자로 지은 사람은 없고, 땀기면서 주워 와 얻어가지고 가마뚜기 덮고 비닐있음 비닐 덮고. 그래 살다가 또 루핑 덮고 이래 살았다이가. 다 그래 샀어. 우리도 루핑 집이었어.(송□□)

이 길가는 내가 시집와서 봤을 때 똑같이 판자촌이었어요! 어 시집와서 68년도에 여기 이리와 보니까, 똑같애 아주 뭐 부잣집인지 가난한 집인지 모를 정도로. 그때 고 몇 년 사이에 그 새마을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길가 집으로는 보로꼬[블럭, 벽돌] 집을 지어놨더라고.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응 4~5년 사이에. 그렇게 해서 길도 넓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그렇게 이 길가 쪽으로는 짓고 살고 그 뒷집으로는 판잣집들이 늘비한거야... 근게 거기에서도 이제 조금 돈을 빨리 모은, 자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빨리해서, 그 심복례 할머니도 아들만 넷인가 다섯인가 돼 그래서 그렇게 집을 좀 빨리 지었고. 또 자식이 많아도 너무 어려워서 못 지은, 저 저 박성구 아저

8) 차철욱, 앞의 논문, 97쪽.

씨 집은 그렇게 자식이 일고여덟명 되어도… 그냥 지금도 그 집이는 정말… 나 그 사람은 그때 이장까지 하고 그랬는데도 집이 사방으로 뽕뽕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집 하나, 방 한 칸도 못 갖나… 그렇게 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통장을 이렇게 하고 봐도, 그 양반은 정말 성깔은 별나고 동네에서 그랬는데 자기 욕심이 없었던거야. 어 집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욕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 그렇더라고.(조□□의 부인)

요 요 본가가 있습니다. 제, 제 누이동생 막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올라올때는 쉼엔[시멘트] 쪼가리도 못 봤고 벽돌 쪼가리도 못 봤습니다. 이 도로라는 것도 손수레 겨우 하나 다닐 정도. 감천 사람들이 전부 지게꾼하고 구두닦이하고 막 일을 다니면서 통로가 이리, 감천 사람들이 길을 내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아미동 주민보다 감천 사람이 많았거든요 인구가, 예…예 루뽕…예 루뽕 쳐가지고…그러니까 제가 와서 살은 방은 다다미 2장 반. 거기에서 오남매하고 엄마 아빠 일곱 식구 기거를 했지예. 그 본집에서, 지금 있습니다.…그 일곱 명이 다 산 게 아니고, 모이긴 집합은 그래 했지만은 요 막내 누이동생은 서울로 가서 또 식모살이를 갔됐고, 그리고 제 밑에 누이동생은 다 뿔뿔이 헤어졌었죠.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 막내, 그놈도 여기서 날… 그 집에서 출생을 했고. 그래서 엄마 아빠 막내, 막내 동생은 그놈도 하나 있는데 뭐 타지에 나가 있었고. 네 사람이 기거를 했었지예. 예 그 두 장 반 다다미 방에서…구조가 부엌, 부엌 반 평이나 될 거고 그 다음에 방이 있고 옷걸이, 옷장 없고(조□□)…내가 봤을 때는 반 평도 안 되어 그니까 이게 집이 이렇게 되어 있어. 내가 시집을 오니까 이게 지붕이라하면, 여기가 주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입구에 그냥 솔단지 하나 걸어놓고 이렇게, 실경[살강(선반)] 하나 짜놓고…거기가 그릇 씻어 얹는 데고, 솔 연탄 아궁이라는데 양은솔 하나 걸은 거, 고게 주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 방문이라고 열고 들어가면은 들어갈수록 인제 내 키에 서지는 거라.…이게 벽이야 여기는, 여기는 다른 집이야. 그렇게 되어있는 집이 요 천장에 집, 저 창문이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어른이, 시아버님이 나무 꼬챙이 가지고 이렇게 딱 밀면 열려, 그러고 인제 비가 오면 또 닫고.…(환기통이)없어 없어 다 집이야 사방이 다 집이야…그러니까 이게 신문지 발라 났더라고 내가 시집 왔는데. 그럼 뽕 뽕으면 저 집이 보여, 뽕리면…종이 바르고 이제 사각 격자 같은 걸로 했는데, 사각 격자도 이렇게 딱 맞춰서 붙이면 안 보이지… 그런데 이게 떨어진 데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뽕나면 저 집이 보이는 거고 저 집에서도 우리 집 보이는 거고, 그렇게 사셨더라고.…못 일어나 그렇더라고. 근데 방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된 데에 인제 실경[살강] 하나, 이제 이게 벽이라하면 여기다 실경[살강] 하나 짜 얹어. 그럼 거기다 이불도 다… 옷도 단벌신사들이야. 그럼 인자 한 벌씩이나 갈아입을게 있으면은 빨래할 때, 그 한 벌 있는 거 갈아입고 빨아 말려 입고… 그러니까 옷도 없더라고 옷도. 내가 그러니까 기가 차 죽을 노릇이지…잠도 다 못 자…내가 오니까, 시아버님은 나가 주무시더라고. 그래 어디 가서 주무시는가… 가마니떼기 갖대다 깔고 바깥에 골목에서들, 늘비해 자는 사람들. 하나 둘이면 흥인데 다 그러니까…(조□□ 부인)

- ▶ 판잣집은 무덤을 최대한 활용한 집만들기 과정이었다. 판잣집은 천막생활과 비교하면 독립된 주택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규모나 시설에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이웃집을 구입해 넓힐 수는 있었다.⁹⁾

9) 차철욱, 앞의 논문, 98쪽.



[그림-154] 슬레이트 블록집의 변형



[그림-155] 슬레이트 블록집



[그림-156] 천막을 씌운 슬레이트 블록집



[그림-157] 슬레이트 블록집

Ⅰ 슬레이트 블록집

제가 싸움을 하거나 태클을 거는 건 그 옆집이 넓어 저희 집 보다 터가. 그러니 우리... 저희 집 보다 여유 있게 사는 집이라. 그런데 옆에, 우리 봉창 문을 환기통을 막고 자기 집을 지었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툼 일은 있었고...그거 있고 그 옆집에서 또 그 당시는 제가 살 때는, 판자로 이렇게 경계를 뒀는데 그땐 벽돌이고 뭐고 이런 거를 우리는 없었어예. 전부 그냥 경계가 나무판... 이다[板(いた)] 그니까 판자 그걸로 경계를 해가지고 니집 내집. 새끼줄로 먼저... 쫘 힘 있는 사람이, 새끼줄 쳐놓으면 지 땅[자기 땅]이고 이랬어. 거 아버지가 너무 욕심이 없다보니까, 솔직한 말로 그 뒤에 집이 공터가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잡아먹기 전에 저희가 먼저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주워 먹어도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법 없이도 부친은 살 분이야. (조□□)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렇게 쌓으면 옆에 집이 좀, 같이 붙었는데 자기네들 집이, 지은다 해가지고 우리 방 구들장 밑에까지 파고들어 온 거라요. 그러니까 이 집을 새로 짓겠... 그 당시에는 뭐 판자가 경계니까, 집을 새로 짓게 되니까 이제 보로꼬[블록, 벽돌] 이거 뭐 6인치나 4인치 이런 거 묻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판자 기준에서 안쪽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판자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집까지 침범했더라 이겁니다. 그쵸 그래서 억배야덕배야([왕배야덕배야] 싸움도 했어요.(조□□)

방도 작고. 2층도 있으예. 2층은 작아예. 그래도 그 집에서. 지금도 그란다 계원 동생이. ‘언니 대단하다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림 다 어디다 놓고 살았노.’...비잡지예. 앉아서 텔레비도 볼라 해도 바태기제, 방도 그 좁은 방에 냉장고 놔 놓고 말도 못 합니다. 지금도 찾아 보면은 ‘내 어찌여서 살았노.’ 참 신기하대예....통장도 그런다. ‘언니야...하이고 언니야 여서 우찌 살았노.’ 그래도

거서 오래 살았으예 거서. 요 사는데 신봉례 집 이사 간 지 사년됐거든예.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스물 두 살에 내려와 거서 애도 놓고...결혼 다 시키고. 그래도 통장 거도 그런다. ‘언니도 대단하다, 그 집 가니 좋제?’ ‘좋다. 그래 좁은데 살다 사니 얼마나 대궐이고.[웃음]’...큰아들이 요기 아미국민학교 다녔거든예. 큰아들, 둘째아들 아미 국민학교 다니면서 내가 아침에 밥 해 놓고 밥상 딱 차려놓고 일하러 가거든예. 우리 집 저 밑에 살 때. 그럼 일하고 오면 즈그가 밥 묵고, 일어나갖고 그랬으예. 밥 묵고 학교 갔다 와갖고 밥상, 엄마 오면 피곤하다 저거 설거지 다 해 놓고 얹어놓고.(박□□)

그 집이 처음에는 하코방이었는데 인자 우리 아버지가 요쪽에 하고 저쪽에 하고 고대로 지은거지. 지갖고 인자 아들도 크고 이러니께네 다락을 이렇게 올리 냈고. 인자 제일 처음에는 다락을 올려 갖고 살다가 인자는 그래갖고는 좀 널카놓고[넙혀서] 2층으로 올린거다. 그래갖고 살고 있다가 또 인자 세월이 흐르니깐은 머느리 보고 이러니까는 수세식 화장실도 있어야된다 이래갖고 조금 밑에 짓고 쪼개난 거 사 넣어갖고. 그래갖고 밑에 화장실 넣고 널카갖고[넙혀서] 부엌도 맨들고 그래 살다가 나라에서 인자 이거 뜯는다(김말자)

- ▶ 판잣집에서 블록집으로 바뀔 무렵 마을은 판잣집이 가득했고, 외관상으로 공동묘지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골목길도 복잡하게 얹혀 있었다. 대부분 판잣집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블록과 슬레이트로 개조하였다. 이웃에서 바꾸면 경쟁적으로 새 집을 지었다. 스스로 환경을 바꾸려는 노력이었다. 비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보려는 쟁탈전도 종종 발생했다.¹⁰⁾

Ⅰ 슬래브집

우리가 내 이를 지을 때, 저어기 길가에 전부다 3층 높이로 올린 사람은 그때 다 지어 같이 올라가 지은거라...너가 지으니까 나도 짓는다 이래가 막 한 집 된 다음에 짹~ 모두 다 뜯어가 짓고 야 단법석이 났지...그 그 딱 내 자리만. 저 짹(쪽)을 달라하려면 또 돈 줘야 되잖아. 그리고 침범할 수도 없고...아니 근데 천막있던 자리인데 이게 이게. 이게 (XXX) 해놓고 보면 천막 한 절반? 삼분의 일 이상 부분 차지해... 했더라고... 여기에.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요만층은(이만층은) 홀이 작아도 요만층은 인자 천막이고 천막자리 맞고. 요 뒤에는 천막 뒤에 공지가 있었어. 공지, 공지 인자 물러가지고...그렇지 옆으로 요렇게...길은 지금 상당히 넓혀졌지. 리어카, 조그만한 리어카나 올라갈까 말까하고 그랬지...이게 크게 된 게 저... 박정희 정권잡고 새마을하고 되게 붐이 일어났잖아. 새마을 정신으로 하자 이래가 보상도 안 주고 집 전부다 양보도 좀 하고 이래가 길을 쪽 냈어, 이래 냈는데 또 길을 내 놓고 보니 좁다 말아야 구청에서 보니까. 좁으니까 좀 더 내자 이래가지고 더 넓혔잖아 지금 그래가 조금 조금 뜯어가 넓혔는데... 조금 넓어졌지. 근데 이것도 좁아요. 한 30미터로 딱 해가 팍 올려버렸어야 했는데(이□□)

면담자 : 그때 88년도 집을 짓기 전에는 그냥 벽돌로 된 집이었습니까? 아님 완전히 나무로 된 집이었습니까?

구술자 : 저기 부로꾸[블록]도 있었고. 흙담도 있었고. 방이 인자 여러개 있었거든예.

면담자 : 그 여러개는 한 집이었습니까? 아님 다른 집을...

10) 차철욱, 앞의 논문, 100쪽.

구술자 : 따로 따로 다 사는 걸 사 여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면담자 : 이 집은 방으로 치면 공간에 네 개인데. 이 무덤이 한 개씩 이라고 보면 됩니까? 무덤 한 개씩은 아니더라도...

구술자 : 그 정도 되지요.

면담자 : 그럼 어머니께서 사 넣은 집은 어느 쪽인데요?

구술자 : 요게 하고 저쪽 끈티(끝) 하고. 두 개 사 영고[넣고]

면담자 : 거실하고 이쪽하고.

(...)

면담자 : 그럼 여기 지을 때 비석 같은 거도 밑에서 나오고...

구술자 : 예,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와서 저쪽 방 밑에 인자 그 창고에 정화조를 묻을라고. 파다가 정화조가 안 들어가갔고. 집을 다 짓고 난 뒤에 해나놓으니까네 정화조가 안 들어가서는 그 비석을 그다가 다 물어뵈다 아입니까.

(김□□)

내가 저 집 지을라고 직장 땀기면서, 아들은 진짜 간장하고 밥 주고 5만원짜리 적금을 하나 들었는기라. 500만원짜리. 아들도 모르게 들어났어. 그래가지고 그 선거 때 500만원을 찾아가지고 집 질 때 평당에 25만원 했으. [웃음] 25만원 돈...래갖고 짓는데 내가 그래 그때 직장 땀기땀니다. 땀기 땀데 그래도 그 돈 가지고 안 되잖아. 래갖고 돈을 좀 빌렸어. 빌려가지고 어째어째 해가지고 그래 저 집을 아무 도움 안 받고 내 혼자 지었는기라. 그래도 지키고 있을 수가 없어. 직장이라는 거는 그때는 결근을 안 하면은 휴일 노는 걸로 치주는데. 결근을 하면 하나도 안 주는기라. 그거 받기 위해서로 래 영감은 그때 죽고 없었기 때문에 친구가 있었거든. 나 좀 도와주는 친구를 봤어. 내가 없어도 여 좀 관리 좀 해 달라...에. 좀 봐달라카니 일하러 가라카대. 넘 땀기 놓고 일하러 땀기. 래가지고 저 지었당케...래갖고 고거 집는게 평당이 얼마니께네 돈이 천만원도 안됐는데 거 같은데. 문짝 사고 화장실 넣고 뭐 문 달고 이래갖고 1,200들은 것 같애. [웃음] 래갖고 인제 아들이랑 살면서 직장에 땀기면서 내가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는지. 내 땀기는데가 보세공장인데 거기가 아들 뭐 주전부리 할 가게가 없어. 내가 그 틈을 타서 일 하러 갈 때 새벽에 밥 얹혀놓고 개다리거리 가서 뭐를 3만원 씩 5만원 씩 가방에 넣고 짊어지고 보따리 들고 집에 와서 아들 밥 챙겨주고. 출근할 때 그놈을 짊어지고 가는기라. 보따리가 커서 회사 들어가면 높은 사람이 서가 있으면 [웃음] “야 이거 좀 보따리 하나만 들고 들어가자.” 내 옆에 갖다놓고 전 같은 거를 아들한테 팔았어. 팔아 가지고 그 돈이 사실은 내 월급보다 많더라구. 남는 돈이. 그거를 저금을 했는거야. 내 직장 땀기는거는 아들 생활하고... [웃음] 래가지고 공장장하고 아줌마들하고 내 집 짓는다고 해놓고 오라켓거든. 그랬드만은 공장장님이 내보고 뭐 판다고 눈치를 마이했으. 아들 옷에 뭐 묻히고 기름 묻어 나온다고 래 했는데. 그랬기나 말았기나 공장장이 이래 보드만은 날보고 우리 아들 서가인데, 서 씨 아줌마 이랬어. “하이고, 서 씨 아줌마 참 대단합니다. 야들 데꼬. 하이고 대단합니다. 내 머라칸게 미안합니다.” [웃음] 그 뒤는 아무말도 안 했어.

(송□□)

- ▶ 비석마을 주민에게 자신이 마련한 조적조 건물은 자신의 환경을 극복한 표상이었다. 조적조 건물은 스스로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꾸는 결정체였다. 많은 식구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신축과정에서 지하의 일본인 무덤을 해체하고 공동묘지의 흔적을 없애면서, 자신의 공간을 완성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조적조 건물 짓는 과정에서 공동묘지의 흔적이 더 많이 사라졌다. 특히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변경할 때 정화조를 묻기 위해 땅을 파면 반드시 무덤과 마주하고, 그것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다른 비석들로 채워야 했다. 그동안 판잣집, 블록집에서 생활할 때 드러나지 않던 무덤의 흔적들이 발견되었으나, 신축 건물의 재료나 축대를 쌓는 용도로 활용되었다. 자연히 무덤 흔적은 사라졌다.¹¹⁾

6. 마을 공용시설 만들기

- ▶ 공동묘지의 흔적은 비좁은 주거공간, 골목길, 비탈진 계단과 축대 등 마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들 공동묘지라는 구조가 마을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
- ▶ 비석집이 위치한 구역에는 집의 크기도 적지만, 골목도 복잡하다. 공동묘지 무덤이 밀집된 구역에 천막을 치고 그 내부에서 생활하던 이주민들이 그 공간을 그대로 활용해 주거공간과 골목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골목이 좁아 겨우 한 명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다. 그러다 보니 이웃과의 거리도 좁았고, 서로 좋은 일 좋은 일이 많았다. 강패, 도둑놈이 많았고, 이것이 마을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다.¹²⁾



[그림-158] 테라스형 주거공간



[그림-159] 비좁은 골목길



[그림-160] 아미동 사랑방 부근 공용공간



[그림-161] 주택 철거 후 조성된 공용공간

어디 산다하면, 대신동 산다[웃음]. 그때는 아미동 사는 사람 다 속였으예. 왜 송장 나와서 그런게 아니고예. 강패가 많았거든예. 아미동이 유명했거든예. 강패도 많고 쓰리꾼(소매치기)도 많고. 아미동 산다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 ‘야 니 어디 사는데.’ 물으면 ‘난 대신동 삽니다.’ 이래. 그 사람들 다 속였어. 아미동 사는 사람은 없어.(박□□)

11) 차철욱, 앞의 논문, 101~102쪽.

12) 차철욱, 같은 논문, 111쪽.

19번지 유명했지예. 19번지 말은 안 해예. ‘지금 아미동 어디 사노.’하면 ‘나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모릅니다.’ 이려고 그랬습시다[웃음]. 전부 다 그랬어. 내만 그런게 아니고예. 아미동 산다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드라니까. 쓰리꾼도 많제. 깡패도 많제. 깡패 많았거든요. 그런데로 아미동이 유명했거든예. 난리 납니다. 그니까 아미동 산다카면은 아무도 사람취급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주소 똑바로 안 가리켜줘...호롱불 키놓고 살았지예. 호롱불 키놓고 살았는데 촛불 키는 사람만 해도 좋았어. 촛불 키는 사람은 ‘저 집은 좀 괜찮게 사는가보다. 촛불 키놓고 산다.’ 그랬거든예. 하이고 그 때 산 거 생각하면은. 그래갖고 일본서 괜히 나왔다 싶으고. 일본서 안 나왔으면 참 잘 살았을건데. 아버지 따라 일본서 나왔다가이가. 한국에 나가면 또 좋다 그래 나왔다. 여섯 살때 나왔다.(박□□)

그때는 여기는 험악한 사람이 살았어. 깡패같은 사람들 요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위 머리 있는 사람들이 이 동네 사람 별로 안 좋아했으예. 산에 19번지. 별명이 산에 19번지...“지랄한다. 산에 19번지가 언젠데 지금 산에 19번지를 들먹이노. 그 사람들 산할배 다 됐다.” 내가...런데 그런 깡패 그런것들도예. 즈그끼리 싸움 해가 다 디지고, 술 마이 묵고 디지고 마. 참 많이 죽었어. 젊은 사람도. 만날 술 쳐먹고하는 놈들은 다 죽었지...았지. 불량패가 좀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죽고 없고. 그 뭐 인자는 할매들, 어리숙한 할매들만 살고 있지.[웃음]...그렇게는 안 하는데 좀 알미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지만은 여 사는 사람은 “저 사람 산에 19번지 안 사나.” 그기 완전 찍힌 다칸다...사는 사람들이 그래. 딴 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지나가면 산에 19번지.(송□□)

제대할 때는 제가 좀 꺼렸어요. 택시 탁 잡아 가지고 아미동 산 19번지 가자 하니까 기사가 거부 하더라고, 승차 거부하더라고요...모친을 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 니 친구들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시내가서 시계를 도둑질해오고 도둑놈이 많았다.(조□□)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깐은 그거 뭐고 웃도 이렇게 인자 보따리 싸 갖고 이런데 었어 났다가 살고. 그때 당시 테레비도 없었고 뭐도 없었고 단스[簞笥] 고[그] 단스[簞笥] 쪼개마난거는 서랍장 그런 거 한 개 있고 테레비 있는 사람 드물고 그래 살은거지...그때 당시에는 웃도 걸어놓는 것도 없고 이불도 착착착 재 난 사람도 없고.. 뽀수[펜티]. 난닝구[러닝셔츠] 하여튼 마 좀 좋은 거는 요 딱 넣어놓으면 눈 깜짝 할 사이에 걸어가뽀다니깐은...(면담자:이 빨래 줄이 동네 빨래 줄입니까) 예, 요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많이 널었지. 요새는 집도 그렇고 이러니깐 짤 수도 있고 이라니깐 집 안에다가 많이 널고 이러지만은 세탁기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세탁기가 있었나 그냥 빨아갖고 너니깐 전부 다 널 다 아입니다. 니 집 내 집 없이 다 널어가 그래 입은거지.(김○○)

그 무덤자리가 있거든. 무덤 자리인데 그 안에 하코방 두 개 빈 거 있어도 파면 뭐 나와예. 그기 말하자면, 일본사람, 보니까 무덤 앞에 돌로 가지고 돌로 이래 납작한 걸 가지고 세숫대야 맨치로(쳐럼) 구녕(구멍)을 요래 파냈대. 둥그리하이(둥그랗게) 반달 맨키로 파놓고. 항상 거 물이 있어. 그런 게 거기 있었으예. 그게 있었는데 보리쌀로 덜 빵은 걸 사가오니께 요 사이에 끼시리 붙어 있는기야. 그니까 밥이 안 퍼지고 이라니까 밥 할 때 되면, 보리쌀에 물 좀 부어갖고 몽돌 하나 담가놓고. 좀 있다 쪼개 뿌르면(불면) 가는거라. 가면 동네사람들이 몇 집 줄 서가 있어. 그라문 부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쌀 맨치로 좀 하야이 까져. 그라몬 퍼가와서 집에 와서 밥하고 밥도 하얏고 잘 퍼졌어...그라고 짐치 담고 싶은 사람은 마늘하고 고추하고 거 들고가 찍어가 퍼가와서도 하고. 하도 사람들이 이래사니께네. 우째 밀구병이 갈라졌는가 언제 하도 밀으로 새뿌리는기라 물이. 그래니께 저래 덮어놔대예. 지금은 돌은 나와있대예...근데 오래 해먹으니께네. 내 혼자 같으면 무서워서 안 하는데. 니도나도 생각없이 하니까 그냥 했으예.(송□□)

여기는 빈 터 었습니다. 요와도 똑같애. 요래 내려갔었는데 요서. 살기 좋으라고 보리크로 돌아서...여서 전부 다 누워 잤으예...여기가 일본 정치 때 절구통이 한 개 있드만. 절구통. 요 옛날에 여서 뺏따구 뽐왔던데가 몰라도. 보리쌀 갈아묵고. 여름 되면은 또 가을되면 고추 갈아갓고 전부 쫓고추 갈아갓고 독에 갈아갓고 그래갓고 고추 김치 담아 묵고 이래갓고 살았는데 인제 오래오래 되다보 니깐 이 금이가서 못써...(김○○)

동네에서 결혼하는 건 저 우에 올라가면 요 우에서는 저 산 밑에 전부 다 공터였어예. 저거 뭐고 옛날에 저거 수용소 있는데 밑으로...예, 글로 다 학교에 있는데 전부 공터가 터가 빈 터라예. 그라는데 결혼식을 만일에 정식으로 결혼을 할 거 같으면 누구 집에 마당이 억수로 너르다 이 집겅이 여기겅이 너르면 여기다가 결혼식을 처녀 총각 모이갓고 결혼식을 하는데 전부 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갓고 구경하고 잔치하고 이라면 떡 묵고 뭐 부조는 안 해도 그때 당시에는 부조같은 거 이런 건 안 해도 모이 있으면은 떡도 주고 막걸리 같은 거도 묵으라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처녀니까 막걸리는 못 먹지만은 있으면은 막걸리 떡 국수 삶아갓고 그래 묵고. ...마당 넓은 집에는 구식으로 하는 사람들 하고 안 그라면은 세월이 흐르고 이러니깐은 결혼식장에 가서 하고 안 (김○○)

봤지요. 학교 마당 저서도 했고. 지금 놀이터. 족두리 쓰고. 거서 다 했어. ...예예, 그땐 그래 했으예. 집 마당 저 너르면, 족두리 빌려오고 옷을 빌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곤란한 게 예식장을 못 가자네. 그래서 집에서 족두리 하고 옷입고 한복입고 ‘구경하자. 누구누구 엄마 결혼한다더라.’ 살다 결혼 많이 했거든. 그래서 구경하고 이랬으예...떡같은 건 주지. 떡은 한 개씩 줘요. 구경왔다고. ‘누구 집 엄마 결혼한다더라. 우리 구경 갈래?’이라면 또 죽 구경하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박□□)

(면담자: 어떻게 결혼하시게 되었어요?) [웃음]그렇지. 그러갓고는 결혼식 그 당시만 해도 예식장도 누가 이 동네사람이 돈이 있어야 예식장을 가지. 그래갓고 내 사는 집이 요마한 마당이 있었어. 거서 책상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래 안 하고 저기 충무동 성당 있는 앞에 가면은 절이 하나 있었어. 무슨 절인지 하나있었어. 그 절간애가 가서 했어...그냥 집에 책상, 아들 책상 있는 집꺼 하나 빌려다 갓다놓고 나무 이파리 꺾아놓고. 촌사람 하는 거 안 있습니까?...예. 우리 마당에서 결혼 한 사람도 있어. 여 너르니까 빌려가 하자 해가...차린 거는 뭐 소주 한 잔 부어놓고 닭 묵아놓고...그래서 집에서 국수 삶고. 그때는 찌짐 좀 굵고 국수하고 떡하고 손님 대접하고 그랬지...예, 아는 사람들. 그때 되는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그때는 2천원, 3천원 부조하고[웃음](송□□)

- ▶ 비좁은 주거공간이나 골목은 근대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감소시켰다. 마을의 골목을 다녀보면 연료용 가스통이 주택 밖에 설치된 것은 예사고, 세탁기처럼 규모가 큰 전기제품은 집 안으로 들여 놓을 수

없다. 세탁기는 집 밖이나 골목이 좁은 구역에는 마을 공용공간에만 설치했다. 비좁은 골목은 제대로 된 빨래 건조시설을 갖추지 못하게 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빨랫줄이 없다. 주택으로 연결된 벽에 나무막대기로 공간을 만들어 빨래를 건조할 정도다. 더군다나 비좁은 골목길의 세탁물은 도난당하기도 일쑤였다.

- ▶ 불편한 골목은 구성원들의 아이디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바뀐다. 주거가 뻥뻥하여 비좁은 구역에는 마을 공용공간이 만들어졌다. 특히 비석집 뒤 아미동사랑방 부근에는 언제부터인지 확실하지 않으나 마을 공용공간이 있다. 여기에는 마을 절구통, 세탁기, 빨랫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들이 갖추어져 있다. 판잣집 시절에는 여름철이면 비좁고 더운 방보다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비좁은 골목길은 주거 공간 내 도구의 사용도 제한했다. 집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도구를 이동시키기 곤란하였다. 특히 품위있는 옷장은 들여놓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비좁은 주거공간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발견할 수 있다. 이웃집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그 집을 매입해 공간을 넓혔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공간을 넓혔다.
- ▶ 박□□의 구술은 주거시설 불편하고, 열악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식들을 잘 키웠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간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공장에 나가 늦게 돌아오면 엄마의 일거리를 줄이려고 설거지를 맡김이 해 두었다. 비좁은 공간에서 고생 많았다는 주변의 이야기보다, 자식들이 착하게 잘 자라줬다는 부듯함이 자리잡고 있다.
- ▶ 이처럼 공동묘지라는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 주민들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고생을 경험했지만, 그런 환경에 대한 굴복보다 극복했다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¹³⁾

7. 생활문화

- ▶ 비석마을 주민들의 생활문화는 대체로 고생담이다. 고생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먹고 살기 어려워 밥 빌어 먹은 이야기, 물이 부족해 감천으로 보수동으로 물 얻으러 다닌 이야기, 빨랫감을 머리에 이고 멀리 당리까지 다닌 이야기 등등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불편들을 들을 수 있다.¹⁴⁾

때거리가 없어 갖고예. 아버지도 직업도 없지. 요 와서 피난 와 갖고. 뭐 할 게 있어야야지. 아버지도 할 것도 없지. 엄마도 집에서 고대로 있지. 그때는 밥을 얻어먹다 싶이 했으예. 여기 강냉이(강냉이). 요 사무실 차려가지고 강냉이(강냉이) 죽을 끓였거든예. 천막 치 갖고. 그거 타 먹을라고 나리비 서 갖고. 때 되면 그거 타다 묵고. 그래 살았습니다. 말도 몬 합니다.(박□□)

와 가슴 아파요? 왜 한숨을 쉰[웃음]. 그런 세상 살은 거는 생각하면 가슴 아파요. 그래도 그때는 요 그래도 배가 부르게 밥이라도 보리밥이라도 배부르게 삼 세끼 묵으면 부자다...밥 얻으러 댕기는 사람들 천지지. 진짜. 4시만 되면 빠게츠(바게츠) 쪼개난 거 한 개 들고 삼배 수건에 물 적셔 갖고 딱 영고[넣고] 그래 갖고 요 수건 한 개 쓰고 그래 갖고 대신동으로 어데로...여 밥 얻어먹은 사람 억수로 많았어요. 저녁 되면 밥 먹으러 전부...그런데 지금은 다 죽었지. 옛날에는 예 해가 지면 전부 밥 얻으러 나갔어예 아들 놔놓고 그래 갖고 밥 얻어 와 갖고 그래 갖고 저녁에도 먹이고 아침도 먹이고 낮에도 먹이고. 그래 갖고 도시락 아들 학교 다니는 도시락 싸라면 연탄불에다 그 찬밥을 푹 찌. 찌 갖고 도시락 싸가 보내고. 요새는 학교도 도시락 안 싸지만은 그래 갖고 보내고 살았는데. 전부. 그런 할매는 다 죽고 없어예. 밥 얻어먹은 사람들. 불쌍하게 다 살았어. 진짜. 없으니깐 없으니깐은 생배는 못 골는다 이래 갖고 대신동으로 어데로 다니면서 전부 다 밥 얻어먹은 사람 진짜

13) 차철욱, 위의 논문, 103~104쪽.

14) 차철욱, 같은 논문, 106쪽.

많아예. 옛날에는 진짜 아들이 일곱, 여덟 어떤 사람은 아홉, 열도 되는 사람 많다아입니다. 며느리 아 많이 낳아갖고. 할매들이 밥을 며느리들이 아들 있는 돈 잘 못 벌이고 이러니깐은 할매들이 밥 얻으러 다니고.(김말숙)

과일도 떠다 팔고. 난중에 고기 장사도 해봤고...과일 장사할때는 요 동네 안 살았고 내가 젊을 때 아 업고 땡기면서 장사하고 이랬거든. 저 아랫동네 살았는데...과일 장사하는거는 아 업고 그 전에는 저기 도가(청과조합)가 어디 있었나하면 시청 앞에. 거기 큰 과일 도가도 있었고 개기(생선)도가도 크기 있었거든. 그거 지금 무슨 육군병원이고 거 뒤에. 거기 도가가 있었는데 거서 이고 전철타고 대학병원 앞에까지 오갔고 거서도 이고 여꺼정[여기까지] 올라오고 그랬어예. 여꺼정[여기까지]은 안 와도 저 밑에 동대 살 때 한 집에...이고 땡기면서 판게 아니고 집 앞에 놔놓고 팔았어예. 떠가 오기는 이고 와도 그래 마 되게 힘든거는 아를 맏기놓고 혼자 가서 이고 오고. 그 전에는 이 바지기(지게로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도구) 한 집 지을라하면 삼천원씩 삼천원이 큰 돈이거든 그거 벌일라고 이고 땡겼어예.(김□□)

그때는 내가 열여덟살 땡가, 열다섯살 땡가 그건 기억이 잘 안나는데. 그때는 밥도 얻어먹었어예... 시내 땡기면서 밥 얻어 묵었지. 생활비가 너무 짜달려가. 시내 땡기면서 밥도 얻어 먹어봤어예...돈 벌어도 안 되지 생활 안 되지 이러니깐은. 하이고, 말도 마.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납니다. 그때 살아왔어예...그때는 일 할 데도 없었어. 일 하려도 없고. 스물, 내가 서른 살 다 되갔고 일 하러, 스물여덟살 인가 일곱 살인가 누가 말해갖고 보세공장 있다면서. (박□□)

그래도 밥을 제대로 몬 묵어갖고. 깡통 들고 밥 얻으러 먹은 사람이 많어요. 그 당시에 밥 얻어 묵어서 땡기는 아줌마가예 살아있는 사람이 내 아는 사람이 두 사람이나 있어예. 아까 그 짝대기 진 사람도 밥 얻어갖고 갖다 먹이고...일 할 때가 없으니깐네 아줌마들도 아 업고 만날 국제시장으로 자갈치로 나가예. 나가면 집 뜯는데 가만 앉았다가 나무 뿌산 거 있으면, 사람들 안 보면 씨익 한 개 꺼고(끌고) 저리 갖다놓고 요마이 주스면(주우면) 이고 와요. 이고 와 빠개가지고 뭇카가지고(묵어서) 요 앞에 내놓고 팔아묵고. 찌끄러기 자기 떼가 밥 해먹고.(송□□)

내가 저 짝에 사는 아줌마 하나는 우리 엄마하고 같이 냉면장사 했는데 냉면장사 갔다 오면 아들 배가 고파 자기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쨌든 장사 못 돼고 이랄때는 이래 걸어 올라오면 이래 올라오면 어데 여 밑에 사람이 죽었는데 사자밥이라고 세 그릇 해봤대예. 이래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깐 짹짹 퍼왔다개예. 거따가 시레기랑 된장이랑 끼리갖고 아들 꼬리 먹었다카더라고. 아들한테 아무말도 안하고. 그래도 그 집 아들이 큰 아들이 공부를 잘 해갖고 선생님 되고[웃음]. 귀신은 없는 것 같애예 그래.(송□□)

아이고. 우리 신랑이 좀 벌었고. 우리 시동생은 묵고 놀고 애 맥이는 게 하나 있었어. 애 맥이는 게 하나 있고. 우리 밑에 시동생은 나이 어려서 지원해 군대 가뿌고, 젓먹는 막내 시동생이 하나있었어예 형수인지도 모르고 막 달라들어췄고. 그래갖고는 살고. 이런 말 하면 가한데, 우리 시어머니가 하도 식구는 많고 굶게 생겼으니깐 우리 시아버지하고 앉아서 회의를 했는 모양이야. “이래가 도저히 굶어죽어 못 산다.” 이러니깐. 딸은 그 해 되는 해에 우리 어머니가 대신동 어느 사람이 자기 집 와서 일로 좀 하라개. 월급 준다고. 옛날 말로 식모 아입니다. 그래 우리 시어머니가 그 가겠대 이라대.

나는 젓 먹이고 있으니 머느리를 천상 보낼 수는 없고. 우리 어머니는 아들 다 키웠으니께네 시동생 내한테 맡겨놓고 그래 가고. 우리 시아버지는 병이 들어가 집에 누워 계시고. 신랑이 별었고. 우리 시동생 중간 건 군대 가버리고. 우리 신랑 밑에 시동생도 여자 하나랑 어디 살림 사러 나가뿌고 그래 됐는데. 그래 생활이 안 되가지고 그 고생을 하는데 내가에 아 놓고 일주일만 되면 아 업고에 나도 돈 불러 나갔으예. 그러니 사람들이 “아이고 저 핏딩이(핏덩이)를 업고, 핏딩이를 업고” 이래 싸도(해도) 마 급해서 업고 돌아댕기면, 내 등어리에 오줌 다 싸고예. 그래가 저 그늘에 가면 아를 내려놓고 좀 기지개 피가 바람 좀 씌어가 업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올 때 뭐 좀 사가 저녁 끓여먹고 하니께네 우리 엄마가 만날 “그래도 우리 엄마집에는 밥이라도 안 굶었다고. 참 저 년이 가지말라캐도 갔다고.”[웃음]…내가에 장사 안 해 본 거 없습니다. 업고 댕기면서도 해봤고. 업고 댕기면서 하니 세상 몬 하겠대예. 아는 떨어지고 이래해쌌제. 갑갑해 내릴라카제, 점도록(종일) 념의 집에 댕기기도 안 되예…(무슨 장사를 하셨는지 이야기를 해 달라는 면담자의 말에)에이 그런 얘기 몬 하는데예.[웃음](송□□)

우리 아들 다섯 명을 하나도 결혼 안 하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직장 댕기면서 나도 고생 마이 했으예. 하늘만 쳐다보고 땅만 쳐다보고. 죽이라도 끼리 먹어야겠는데 우짜노 싶어가. 그래가지고 직장에 댕기면서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큰 딸, 둘째 딸은 초등학교 졸업하고. 내 따라 댕기면서 돈 벌었으예. 그러고 고 밑에 아들은 지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고등학교 나오고. 고 밑에 셋째 딸은 언니 오빠들이 좀 벌이니께네 고등학교 나오고. 우리 막내도 그래가 우리 막내니께 언니들이 버니께 그래 나오고. 그래 살았으예…그래도 내 혼자 결혼 다 시켰으예.(송□□)

특별히 그런 거는 없고 전부다 지게벌이 하러가고, 안 그러면 하루살이 노가다라도 그게 수입이 나오니까 그리 가고. 보통 보면 지게벌이가면 저기 옛날에 그 동명극장 앞에 보면 옛날 동명극장, 국제신문사가 거기 있었어요 요만한 하코방 비슷하게 해서. 그 앞에 가서 모두 지게벌이 하고. 왜 거기 갔냐하면 시외버스가 거기 대니까 김해, 진영 이런 버스…팻지 내 발로. 사람이 죽을 판인데, 해야되겠고. 제과점 한 두 군데 다닌 게 아니거든 여러 군데를 거쳐서 이제 가니깐 아 필요없어요 필요없어요 이라대, 근데 거 가니깐 사람을 이래 딱딱 훑어보더니만 ‘니가 그렇게 신바하겠나?’아 하기로요 뭐 이래가. ‘그럼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온나’그래 인자 새벽에 일찍이 갔지. 일찍이 가니깐 문을 안 열었어 문을 푹푹 두드리니까 ‘아따, 니 임마 이거 되게 일찍 왔네 부지런하네’이랬다고 (이□□)

농협 근처 그 당시 그 뒤로 가면 바닷가 옆에 미군부대가 있었습니다 예 미군부대…제가 기억나는 거는, 집이 그 옆에 있었으니까 미군들 보초 서면은 ‘할로 추잉껌 시가렛또 기브미[Hello, chewing gum cigarette give me]’마 이정도만 제가 인자…아니예, 저 이제 형뻘 저 위에, 저를 시키지요 형뻘들이…예 가서 초콜렛이나 껌이나 담배나… 구걸해온나…그 소굴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집단적으로 인자 뭐였냐면, 깡패조직이죠 지금말해서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들어간 거는 아니고 제가…예 어리니까, 저는 인자 주로 어머니 생선 좌판 파는데 그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그 제일극장 짓기 전에, 제일극장 아시지예? 부산극장 옆에, 거기 짓기 전에 그 옆에서 구두닦이를 했습니다. 구두 그 당시에는 친구들하고 요 감천 친구들하고는 모다… 그러니까 그 당시가 제가 군에 입대하기 전 이니까 스물두 살? 예, 그래 거기서 구두닦이를 하다가 그 옆에 또 우리, 저 영화배우들, 가수들 단체로 받는 여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XXX)을 정하고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관에 지금말해서 뭐랄까 조바? 그런 식으로 그 당시는…예,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인자 나이가 먹고 조금 성숙했으니까 아 내가 뭐 이런 거라도 해가지고… 그 당시는 뭐 해먹을게 없었거든요. 친구들은 아

이스케기 장사도 하고 이 뭐 지게지고 품팔이도 감친친구들 다 하다가, 지금은 죽고 그랬습니다만... 잠시 인자 제가 생각하건데는 아 이거라도 해서 내가 엄마한테 손 안 벌리고 내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되겠다는 그런 개념 하에서, 예 했습니다.(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그 영역에 대해서는, 생선좌판 그 생선 파시고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고기가 안 팔리면은 고등어나 갈치나, 그걸로 끼니를 때운 적은 기억이 납니다...예 고등어를 못 팔았다 그러면 집에 와서 삽니다. (XXX) 해서 삽아가지고 그거를, 밥을 못해먹고, 그걸로 해서 끼니를 때운 적이 기억에 납니다...아니 그냥 삽았습니다 그때는 저이 술에다. 제가 알기에는 어머니가 그냥 술에다, 양술 밥술 거기다가 그냥 물 넣고 삽았어예 제가 알기에는. 굶든지 이런 건...근데 양념도 없고 그 당시는. 다 너무 빈곤하니까, 겨우 소금 넣고 간 맞춰가지고 삽아가지고, 돼지고기 수육 삽아서 찌어먹듯이, 그런 식으로 제가 먹고 자란 기억이 나요.(조□□)

Ⅰ 용왕당과 주민

용암당 밑에 절 터가 있었는데...개인을 절로 지가 있었는데. 한참 절 처리낸다 할 적에 출리나갔어요. 절 그기 안되가지고. 쪼끼 나간택이지. 대성사 절 이거는 그대로 놔놓고 그 절은 없어지뻘지. 그 용왕당 만날 곳을 했거든. 지금도 굿 하는 사람 거가서 하는 사람 많이 있어...(이 동네 분들도 굿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먼데서로 오데예. 용왕당 지키는 사람이 있어예. 그 용왕당 지키는 아줌마 그 집에 아저씨가 요 대성사 절에 좀 있었거든. 스님으로.(김□□)



[그림-162] 용왕당



[그림-163] 용왕당 샘



[그림-164] 용왕당에서 산신에 제 올리는 모습



[그림-165] 용왕당 오르는 길

거서 법당 채려놓고 뭐 애들 거서 아프고 이러면 거서 빌고 이러면 낫는다더라고 우리 올케가. 우리 올케도 여기 살았거든. 우리 남동생 여서 살았거든. 그래 맨날 저기 용왕당 가서 물 떠놓고 이 런다대. 나는 그런 거는 안 하거든. 가보지는 않았는데 용왕당 거 컸으. 지금도 있는가 몰라 나는 이제...물 뜨려는 갔지, 그 전에는. 물은 참 좋아. 맛있고. 물 뜨러도 가고 구경도 하고 갔 지, 그때는. 사돈 간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그러고는 우리 올케 죽고 나서는.(박□□)

간이 하나 있었어. 절간 쪼그만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냥 동네 사람이 저만한 사람들이 뭔 가를 집에서 하다가 인자 그 가가지고 마지막에 채리 놓고 하는 덴데. 보통 민간인도 좀 있는 사 람은 뭐 자식들 어떻게 해준다고 거 가가지고 과일 깎아놓고. 마 이리하는 사람이 많이 왔으. 초 불 키놓고 하는 사람들이. 초가 많이 늘어져가 있었어. 그도 바우돌(바위돌)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 고 이라니까 이 동네 하수구 처리도 안 되가고 수도도 없고 물로 얻어다 먹을까니 물 맑은데 라카면 어디든지 우리가 이러 간다아입니다. 그래 그 가면 어떨 때 가면 물이 처렁처렁(출렁출렁) 있으. 요마한예(이만하다). 바우(바위)만키로 해냈기 때문에 이래 차래 놓고 그래는데. 가면 과일 도 있고 먼저 간 놈이 입자라. 나도 한 번 가니까 과일이 있대. 얼른 물 퍼담아 놓고 바가지에다 딱 담아 뛰아가 우리 아들(아이들) 줬어...지금 같으면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쳐다보도 묵도 안 해. 근데 그 때는 너무 그거하니까 거기 눈에 뵈 사람이 먼저 가져가고 없어(박□□)

우리 친구 있으니까. 그래가 밤이나 낮이나 글로 많이 갔다가 왔다가 그랬는데. 거마 만일에 굿을 한다 굿을 한다면은 용왕당인데 요로 올라가면은 가이당있는데 여게 거기다가 명태, 미역, 뭐 별거 별거 거 다 놔놔...놔 놓으면은 우리 여기 올라가면은 올라가 올라가면은 여서 주서갖고 다 갖고 갔어. 막 찢어가지고. 찢어갖고 그런 용왕당에다가 또 소주를 이렇게 놔 놓은 사람 있어 예. 그러는 그거 인자 묵고 싶으면 한개 가 와 갖고 그 집 우리 그 집에 오빠가 또 인자 내보다 두 살 더 많이 묵은 오빠가 하나 있었어. 그 올케도 있었고 아들도 있고 이라면 올케가 참 사람 좋아. 우리 가면 “고모, 고모.” 이래 사면서 굿하고 이라면 나물같은 거 남가 놓고 가면에 밥을 해가지고 비비 가지고 묵으라하고 또 막걸리 놔놓고 가면은 쪼끔 찌그러고 이라면은 막걸리도 “언 니야, 고모야, 막걸리 한 잔 무(먹어도)도 괜찮다.” 하면서 주고 그랬거든. 그러고 우리가 이래가 묵으면은 그 올케가 이는 깨끗한 거 주지. 추접은거 아니까 불도가 지키고 이러니까 좋은거다. 묵 어도 된다 이래갖고 그래 우리 많이 묵고 그랬습니더...어렸을 때 묵고 또 우리가 옛날에 여 물 이 없었다아입니다. 물이 없고 그랬는데 오늘 내가 이불 빨래를 빨아야 돼. 그러는 말란 거를 갖고 가 갖고 거기서 빨아갖고 또 인자 발로 막 밟아갖고 빨아갖고 세면물 퍼갖고 빨아갖고 말라갖고 그 줄에다 널어놔다가 그래 저녁답에 덜 말라도 걷어 갖고 오고 그랬거든.(김○○)

나가 한 40살 묵어서 부텸 나가 여기를 알았지. 그래 알아가고 와가고, 뭐시 안 되고 새끼들도 안 되고 안돼서 인자, 여그 뭐 저런 사람들만기로 공들이고 기도하고 또 마 새벽에 내려가서 저그 자갈치로 가고. 집에 가서 인자 아들 도시락, 옛날의 그 양철 도시락,...그예, 여그 그때는 가정집 사람이 그땐 많이 왔지. 와 그냐는 우리 또래는 그때 아들(아이들)다 마 얼마나 공들이고 촛불 쓰고 안 했습니까? 이리 빌고. 요새는 왜 그러냐하든 전치 다 예수 믿으러 가고 인자 전치 다 뭐 이런디 현제 젊은 사람들이. 전에 손님 반도 없지. 반도 없고 요새는 또 인자 코로나 이것 때문이 로 더 없고 그래요...아이고 더 없어요 더 없어. 그러고 인자 요새는 엔간하든 옛날 우리 또래에 마 절에도 이고 가고 지고 가고 공들이는 잘 된다고 했는디, 요새 젊은 사람들 아 한 개 아니면 두 개 놓고 안 놓는다 아입니다. 그렇게 요새는 도통 손님이 없네 예 없어...와예, 여 경로당 있지에 경로당 할머니들이 지금 나이 저리 많아도 왜 저리 건강하니 오래 삽니까? 전치 각시시절 에고 중간에도 여그 다 올라와 가고 작년 제자년만 해도 사월 초파일날 경로당 할머니들 여그 등

네 마을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 내나 요리 자갈치로 충무동 저리 서구로, 마 저 영도 사람들이고 뭐이고 마 옛날에는 얼마나 왔습니까, 옛날에는. 그랬는디 지금은 예 반도 없지 뭐...저녁으로는 안 오고, 낮으로. 인자 좋은 날, 초하리 인자, 동지, 초하리[루], 사월초파일날, 칠월 백중, 마 칠월백중에 여 크게 허네요, 밑에 절에서. 백중제를 여 크게 합니다...(비석마을 주민들 왕래에 질문) 여 많이 왔습니다. 응 여 우에 올라가든 저 돼지 껍디기 그 꾸가꼬 팔고, 그 압니꺼?(용왕당 최가)

- ▶ 먹고 살기 힘들어 남의 밥을 빌어먹던 기억, 산신과 용신을 모시는 신성구역인 용왕당에서의 비도덕적인 행동도 현재의 자신을 만들어 낸 가치있는 요소로 기억하고 있다.
- ▶ 용왕당은 기도하는 공간이었을뿐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와 빨래하는데 필요한 물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제사용 음식들은 주민들의 허기를 달래는 먹거리 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용왕당을 자신들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재활용
- ▶ 아미동 비석마을을 일본인 공동묘지, 피란민, 고생담으로만 연결시키기 보다, 주민들이 주어진 환경을 극복한 의미있고 가치있는 현장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부각시키는 노력 필요¹⁵⁾

15) 차철욱, 앞의 논문, 111쪽.

04

아미동 비석마을의 가치와 보존방안

1. 일본인 공동묘지의 주인공 교체
2. 불안정한 경계인의 정착
3. 마을 주민의 공동묘지 기억
4. 주거시설 만들기
5. 마을 공용시설 만들기
6. 생활문화

04 아미동 비석마을의 가치와 보존방안

1. 비석마을 가치발굴의 기본방향

1.1. “피란수도 부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본방향

Ⅰ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등재기준

-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가진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 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 가능
-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문화유산으로서 등재기준 Ⅲ, Ⅵ에 해당

[표-20] 세계유산의 OUV

구분	기준	사례
문화유산	Ⅰ 인간의 창의성으로 빚어진 걸작을 대표할 것	호주 오페라 하우스
	Ⅱ 오랜 세월에 걸쳐 또는 세계의 일정 문화권 내에서 건축이나 기술 발전, 기념물 제작, 도시 계획이나 조경 디자인에 있어 인간 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	러시아 콜로멘스코이 성당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태국 아유타야 유적
	Ⅳ 인류 역사에 있어 중요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경관 유형의 대표적 사례일 것	종묘
	Ⅴ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리비아 가다메스 옛도시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다른 기준과 함께 적용 권장)	일본 히로시마 원폭돔
* 모든 문화유산은 진정성(authenticity; 재질, 기법 등에서 원래 가치 보유) 필요		

Ⅰ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OUV의 속성

- 피란수도의 기능은 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으로 구성되며 전쟁의 위기 속에서 지속적인 국가운영을 가능하게 했고 긴급 활용방식으로 기존의 공간, 건축물, 시설 등이 불가피하게 긴급 활용하였으며 폭격이 없었던 안전한 도시로서 유엔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피란민 보호에 헌신한 인류애의 상징
- 등재기준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에 대해,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급박한 전쟁 시기 긴급 활용되어 1,023일 동안 유지되었던 피란수도의 기능과 생활상을 보여주며 지금도 살아있는 특출한 증거물
- 등재기준 ‘(Ⅵ)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에 대해, 냉전 시대 최초의 전쟁이자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 속에서 피란수도의 기능과 생활상을 제시하며 지금도 피란 관련 도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도시유산이며 또한 안전지대로서 피란민들의 생계와 구호를 책임진 유엔기구의 피란민 구호활동이 이뤄진 공간
- 용도변경에 따른 형상의 변형은 있지만 대부분 원형 보존 유지 중이며, 건립 시의 재료와 구성 물질로 이뤄져 있으나 도심에 위치함에 따라 대부분 급격한 개발로 인해 강도 높은 보존은 불가한 상태

1.2. 비석마을의 가치와 의미

1.2.1. 냉전 시대 최초 전쟁의 피란주거지 생활상을 유지하고 있는 도시유산

1) 한국전쟁 피란민의 전쟁유산

Ⅰ 전쟁의 비극이 포용 속에 유지되는 피란유산

- 피난민의 임시 주거지에서 긴급히 개척
- 끝나지 않은 전쟁의 비극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도시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유산

2) 전쟁 피란민 생활상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독보적이고 특출한 증거

Ⅰ 전쟁 속에서 피어난 인류애의 현장

- 피란수도로서 물려든 피란민을 포용한 생활공간
- 전쟁의 아픔을 함께 극복하려는 인류애가 남겨진 공간
- 한국전쟁의 고통 속에서 공동체의 기억과 지역정체성이 형성된 생활유산

1.2.2. 극한 상황 속에서 포용의 가치와 보편적 인류애를 간직한 생활유산

1) 시련 속에서 조성된 주거지

Ⅰ 방치된 묘지 공간을 임시 주거지로 긴급 활용

- 많은 전쟁 피란민을 긴급히 포용한 생활공간
- 기존의 묘지나 구조물을 크게 변형시키지 않고 그대로 공간 활용
- 현재까지 과거 피란생활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공간

2) 전쟁을 겪은 역사를 투영 가능한 살아있는 주거 공간

Ⅰ 전쟁의 상처와 고통을 간직한 불편문화유산

-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
- 기억 속에서 남은 전쟁에 대한 역사와 파생된 독보적인 사회상을 보여주는 주거 공간

[표-21] 비석마을의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등재기준

등재기준	Ⅲ)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독보적 또는 적어도 특출한 증거일 것					Ⅶ) 사건이나 실존하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보편적 중요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될 것		
	피란수도 기능			긴급활용방식		피란민 보호방식		
아미동 비석마을	정부유지	피란생활	국제협력	원형활용	조성활용	국제구호	정부지원	민관협력
	○	●	○	-	●	◎	◎	●

● : 직접 연관, ◎ : 연관, ○ : 간접 연관

[참고] 등재기준 (V) 적용 의견에 대한 고찰

※ 해당 내용은 학술세미나(2021.02.25.)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내용임

Ⅰ 등재기준 (V)는 특히 반복할 수 없는 변화의 영향으로 취약해졌을 때 환경이나 인간의 상호 작용이나 문화를 대변하는 전통적 정주지나 육지·바다의 사용을 예증하는 대표 사례

홍허하니족(紅河哈尼族)의 다랑논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 of Honghe Hani Rice Terraces]

- 중국 문화유산 사례, 2013년 (Ⅲ), (V) 를 기준으로 등재
- 홍허하니족의 다랑논은 윈난 성 남부의 산악지대에 있는 홍허(紅河)의 남쪽 강둑 위에 우뚝 솟은 아이라오(哀牢) 산에서 경사면을 따라 캐스케이드 식으로 층층이 이어져 내려온 공간
- 북서부 지방에서 지금의 이곳으로 이주해 온 하니 족은 지난 1,300년에 걸쳐서 숲이 우거진 산비탈 위에서부터 좁은 계곡이 있는 관개(灌溉)가 가능한 계단식 논을 조성
- 유산이 빚어내는 풍경은 숲과 관개, 다랑논과 가옥이라는 통합된 4중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 국가위원회에서 지정한 '국가 우선 보호구역'의 하나로서 법에 의거해 보호

바사리 지역 :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Bassari Country : Bassari, Fula and Bedik Cultural Landscapes]

- 세네갈 문화유산 사례, 2012년 (Ⅲ), (V), (VI) 를 기준으로 등재
- 바사리의 문화경관은 말리와 기니의 국경 가까이, 세네갈 남동부 푸타 잘롱 단층지괴 의 북쪽 기슭 구릉 지역
- 이곳은 두 가지의 뚜렷이 다른 지리 환경적 특징을 보이는데, 북쪽으로 충적토의 평원과 준평원이, 남쪽으로는 산악지역이 존재
- 유산은 세 곳의 지리 문화적 지역인 바사리-살레마타, 베디크-반다파시, 풀라-딘데펠로 문화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이들 문화지역은 각각 독특한 형태와 문화적 특징을 지님
- 바사리 문화경관은 윤작·시비법(施肥法)·공동 파종·제초·수확 등의 독특한 토지 이용 방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경관은 전통적 농업체계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에 대해 어떻게 대체해 왔는가를 보여 주는 증거이자 인간이 취약한 환경과 상호작용한 모습을 보여 주는 탁월한 사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Rice Terraces of the Philippine Cordilleras]

- 필리핀 문화유산 사례, 1995년(2001년 위험에 처한 세계문화유산 등재) (Ⅲ), (IV), (V)를 기준
- 코르딜레라스 지역의 계단식 논은 필리핀이 식민지가 되기 전인 2,000년 전부터 발전한 생활문화경관을 훌륭하게 보여 주며, 필리핀 제도 북쪽에 있는 루손 섬의 코르딜레라스 산맥 깊은 곳에 위치
- 역사적으로 계단식 논은 광대한 지역에 분포하지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은 4개 지방에 있는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5개 지역으로, 이들 모두 수천 년간 코르딜레라스 산맥에서 살아온 소수공동체 이푸가오족이 만든 것
- 예로부터 계단식 논은 사람과 자연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서 발달한 토지 사용의 우수한 예이며, 현재 논은 이푸가오 지방청과 필리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서 관리
- 인류에 있어 뛰어난 미학적 가치를 지닌 이 가파른 계단식 경관은 오늘날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취약한 상태로 서 위험에 처한 유산으로 등재

- ▶ 결과적으로, (v)로 지정된 지역은 불리한 환경을 인간이 극복하여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킨 특징을 가지며, 아미동 비석마을에 해당되나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전체적 측면에서는 적용이 어려움



홍허하니족의 다랑논 문화경관



바사리, 풀라, 베디크 문화경관



코르딜레라스의 계단식 논

[그림-166] 등재기준 (V) 를 가진 세계유산 사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 비석마을의 보존방안

2.1. 비석마을의 구역설정

2.1.1. 구역설정의 근거

Ⅰ 당초 설정된 구역계 기준

- 아미동 비석마을의 명확한 구역 경계는 현재까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아미동2가 231-171번지와 231-130번지 일원으로 추정되고 있음
- 묘지 위에 조성된 비석마을의 피란생활유산을 발굴하고 그 공간적 특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구역의 경계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완충구역”과 “유산구역”, “유존지역”으로 구분
- “완충구역”은 옛 지도와 항공사진 그리고 문헌자료를 참조하여 일본인 공동묘지 구역으로 추정되는 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유산구역” 및 “유존지역”은 일본인 묘지 위에 지은 주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석주택이 존재하거나 장래에 비석주택이 발굴될 가능성이 높은 구역을 설정함

[표-22] 공간적 범위의 구역별 개요

구역명	면적 (㎡)	비고
제1유존지역	770.9	오오이케 가문 추정 묘지군
유산구역	340.3	비석주택 문화재 구역
제2유존지역	1,279.4	1953년 사진추정 피란민 주거밀집 지역
완충구역	21,366.4	일제강점기 일본인 묘지 추정구역의 필지



2.1.2. 구역별 특징

■ 유산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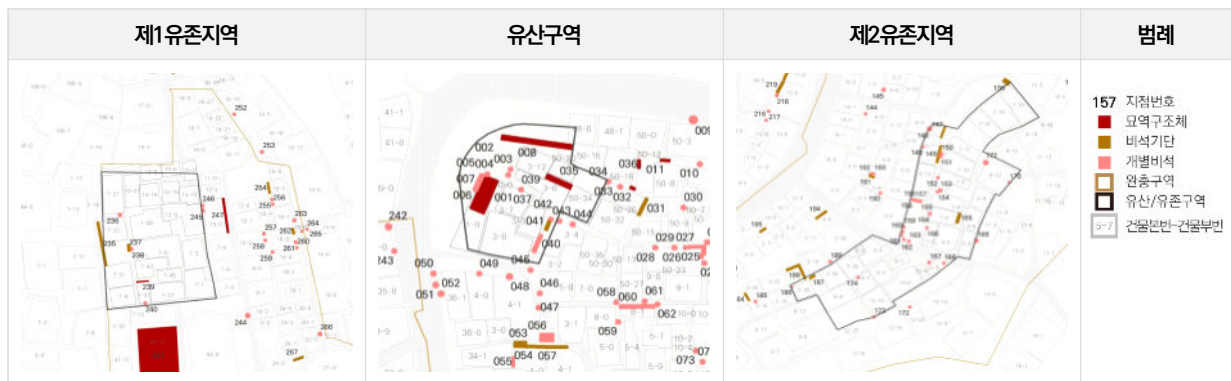
- 유산구역은 2014년 8월 발견된 비석주택이 입지하는 곳으로서, 총 9동의 건축물이 2개의 필지 (231-178묘, 229-2대)에 걸쳐 입지, 비석마을 보존관리계획에서 최우선대상의 유산군으로, 2015년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지정된 구역임
- 제2유존지역의 비석주택은 기단부에 묘지의 석축과 묘책이 남아있으며, 상부에 남아 있는 간이목구조 주택은 피란민의 생활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판잣집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국적으로 유일한 사례라는 측면에서 유존지역으로 설정

■ 제1유존지역

- 제2유존지역은 현 산상교회 후면에 위치하며, 옛 일본인 오오이케 가문의 묘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며, 총 20동의 건축물이 3개의 필지 (아미동2가 225-116임, 225-135임, 225-134임)에 걸쳐 입지
- 이 지역의 주거들의 구조는 피란시절의 주거들과는 많이 다르지만, 대규모 묘지의 경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에 대규모 묘지의 구조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측면에서 유존지역으로 설정함

■ 제2유존지역

- 제2유존지역은 묘지의 지목을 가지는 대단위의 필지 (231-130묘)에 총 8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규모건축물이 밀집하여 공간적 형태의 비교적 균일한 공간적 형태를 이룸
- 제2유존지역은 과거 테라스 형태로 규칙적으로 조성된 구역의 기단 위에 조성된 단층의 주거군이며, 간이목구조 지붕과 흙벽 등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란주거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유존지역으로 설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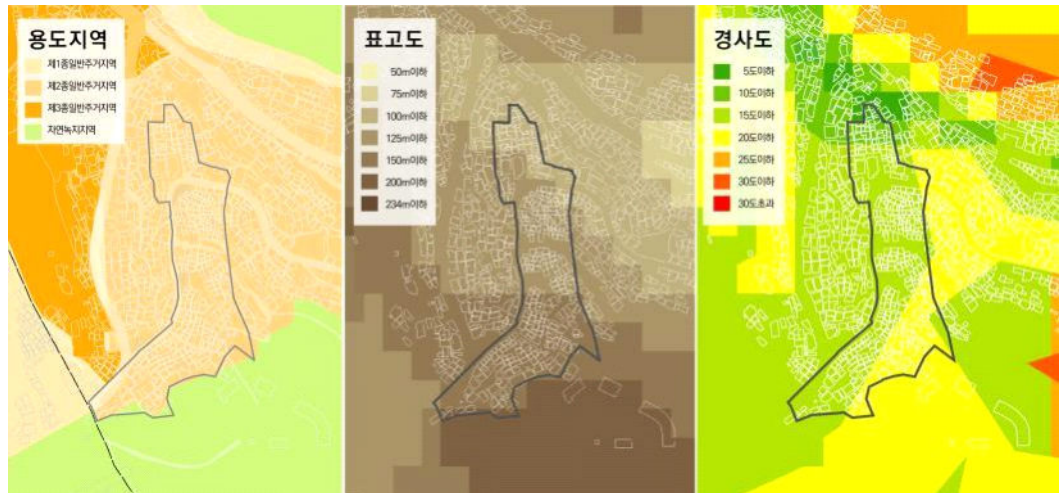
[그림-167] 구역별 비석 현황

2.2.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향

2.2.1. 기초현황1. 기존 구역계

1) 지리적 현황

- 비석마을의 완충구역은 사하구 감천동과 서구 아미동을 잇는 '아미로'에 걸쳐, 배후에 천마산이 입지하고 있는 노후 경사주거지의 특성을 가짐
- 완충구역은 용도지역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표고도 75m~150m범위에 입지하는 고지대 경사지로써, 대부분 10도~20도의 경사도를 가짐



[그림-168] 지리적 현황



[그림-169] 아미산에서 천마산방향으로 바라본 비석마을 항공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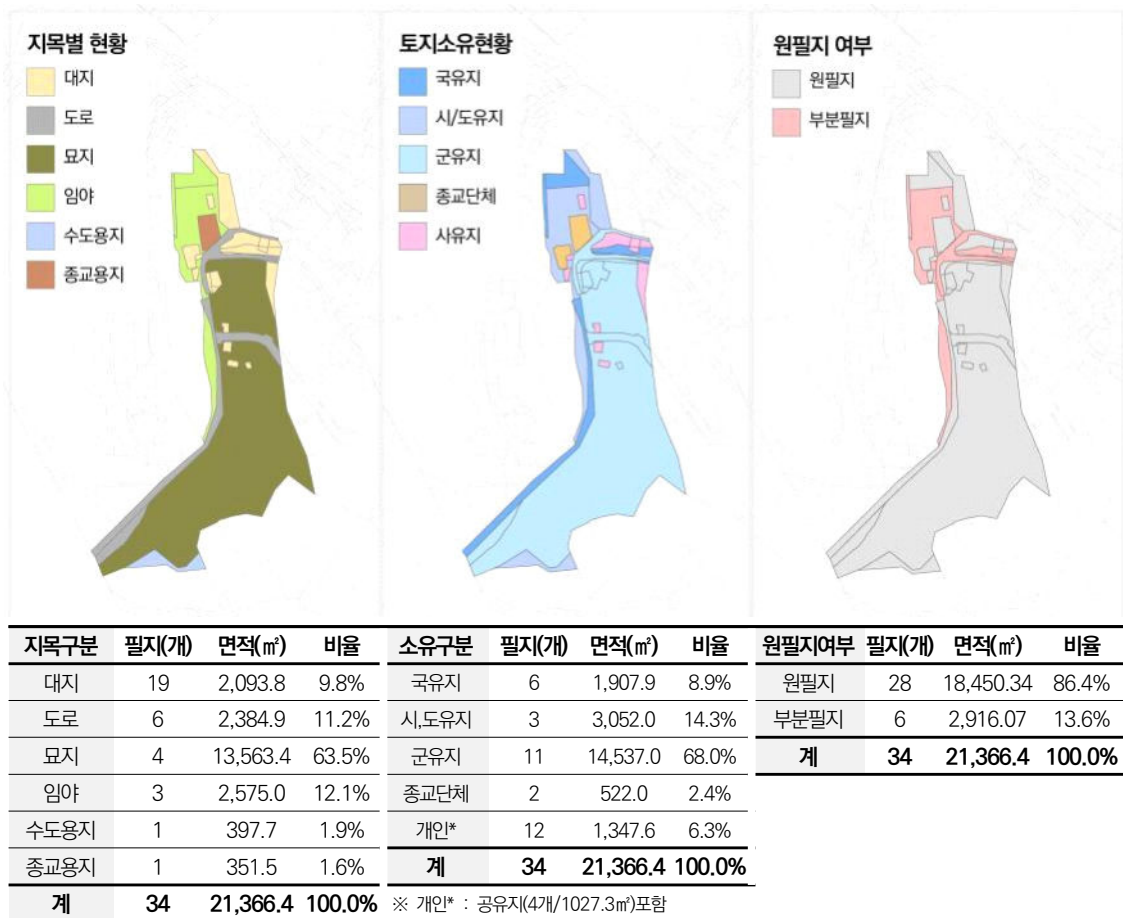


[그림-170] 비석마을 전경

2) 토지 및 건축물 현황

Ⅰ 토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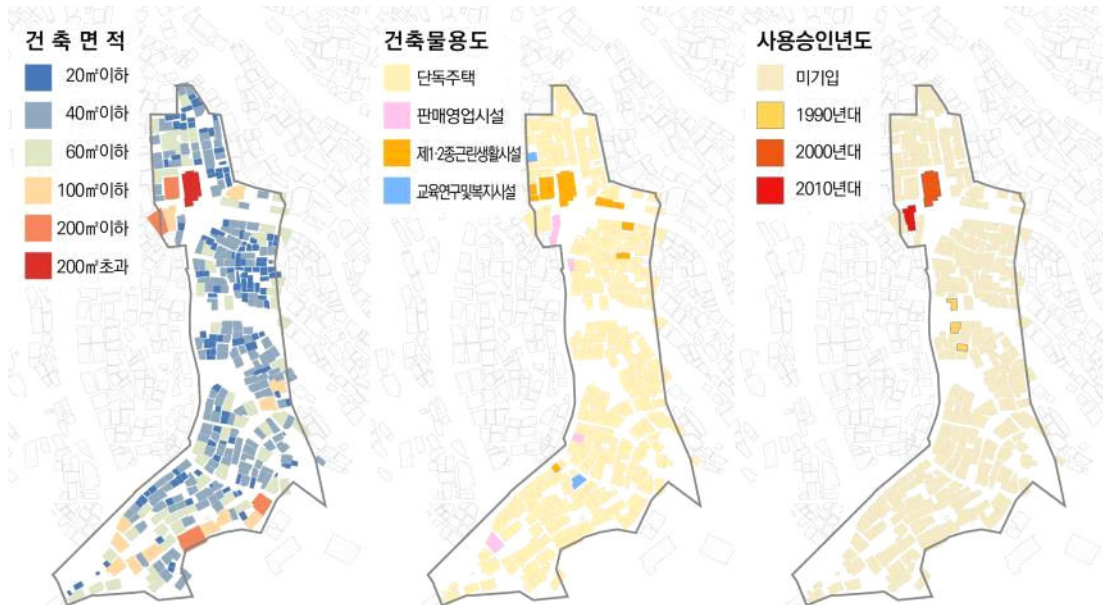
- 완충구역은 총 34개의 필지로 구성되며, 필지의 지목, 토지소유현황 등을 살펴보면 과거 공공이 관리하는 일본인 묘지가 입지했던 흔적이 남아있음
- 완충구역 내 토지의 지목현황은 '묘지(63.5%) > 임야(12.1%) > 도로(11.2%) > 대지 (9.8%) > 수도용지(1.9%) > 종교용지 (1.6%)' 순으로 나타난다. 구역의 상당영역을 차지하는 '묘지'는 총 4개의 필지이며, 그 중 '아미동2가 231-130번지'와 '아미동2가 231-171번지'의 2개 필지는 현재 지상에 많은 주거가 있지만 각각 10,993.4㎡, 2,136.1㎡로 대규모 필지로 남아있음
- 완충구역 내 토지의 소유현황을 보면, 국유지, 시·도유지, 군유지 등 국공유지가 전체 34개 필지 중 20개 필지이며, 완충구역 전체 면적(21,366.42㎡)의 91.3%(19,496.9㎡)를 차지
- 반면, 사유지로 볼 수 있는 종교단체 소유필지와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는 총 14개 필지로 전체의 약 8.7%(1,869.6㎡)를 차지
- 완충구역의 경계설정으로 인해 34개의 필지 중 6개의 필지의 일부가 구역 내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전체면적의 13.6%(2,916.1㎡)를 차지



[그림-171] 완충구역 내 토지현황

Ⅰ 건축물 현황

- 완충구역 내 전체 376개 건축물 중 건축면적 40㎡이하의 건축물이 전체의 80.9%(304개)를 차지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높음
- 특히 소규모 건축물 중 20㎡이하의 건축물(전체 36.2%)은 주로 비석주택 주변에 밀집하는 특징이 있음
- 완충구역 내 건축물 용도는 95.5%(359개)가 단독주택이며, 나머지 4.5%(17개)는 영세한 상점 또는 폐점포와 교회, 경로당으로 나타남
- 사용승인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건축물 중 98.7%(971개)가 미기입 대장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지역 전반에 산재하고 있음



건축면적	건축물(개)	비율	건축물용도	건축물(개)	비율	사용승인년도	건축물(개)	비율
20㎡이하	136	36.2%	단독주택	359	95.5%	미기입	371	98.7%
40㎡이하	168	44.7%	제1·2종근린생활시설	9	2.4%	1990년대	3	0.8%
60㎡이하	55	14.6%	판매및영업시설	6	1.6%	2000년대	1	0.3%
100㎡이하	12	3.2%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	0.5%	2010년대	1	0.3%
200㎡이하	4	1.1%	계	376	100.0%	계	376	100.0%
200㎡초과	1	0.3%						
계	376	100.0%						

[그림-172] 완충구역 내 건축물 현황

3) 관련 사업 추진현황

■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사업

- 서구청 공약사업인 <천마산 복합 전망대 및 모노레일사업>의 하부주차장 조성사업 (건축면적 1,616㎡/연면적7,742㎡)은 아미로 감천방향 부분에 포함되며 '아미동2가 231-130' 필지와 관련이 있으며, 2020년 12월 최근 '아미동31-181'번지로 분필하여 사업을 추진중 (2022년 12월 완공 예정)
- 관광모노레일은 아미동 인근에서 천마바위까지 2.57km 구간(폭 3m)에 설치되며, 천마산 편백숲을 경유하는 생태탐방코스와 부산항·남항 일대를 볼 수 있는 경관조망코스로 운영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사업〉
조감도



〈행복주택 진입로 확장사업〉
공사 진행중



〈아미동행복주택 사업〉
조감도

[그림-173] 관련 계획 및 진행중인 사업

■ 아미동 행복주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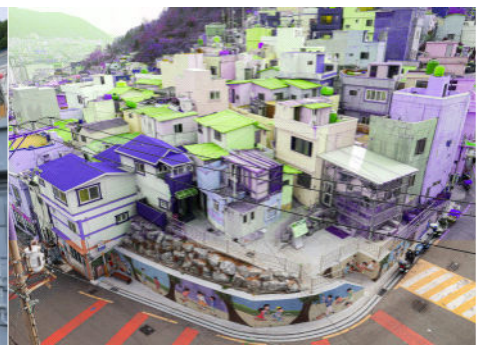
- <아미동 행복주택 사업>은 4개동 767세대 규모로 2022년 10월 준공 예정
 - 위 치 : 서구 아미동2가 237-237번지 일원
 - 면 적 : 4개동 767세대, 지하7층~지상20층 (전용 29~59㎡)
 - 사업비: 1,144억원 / 사업기간 2014년 ~ 2022년
- 행복주택 진입로 확장사업은 행복주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진입도로 확충 및 정비를 위해 까치고 개로 일부구간의 철거가 진행중임

■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 아미·초장도시재생 프로젝트(2016~2020)의 단위 사업 중 “피란생활박물관 조성사업”을 통해 비석주택터의 인포센터, 아미로 일대 소규모 거점공간(돌집, 근린상점1·2호) 조성 및 운영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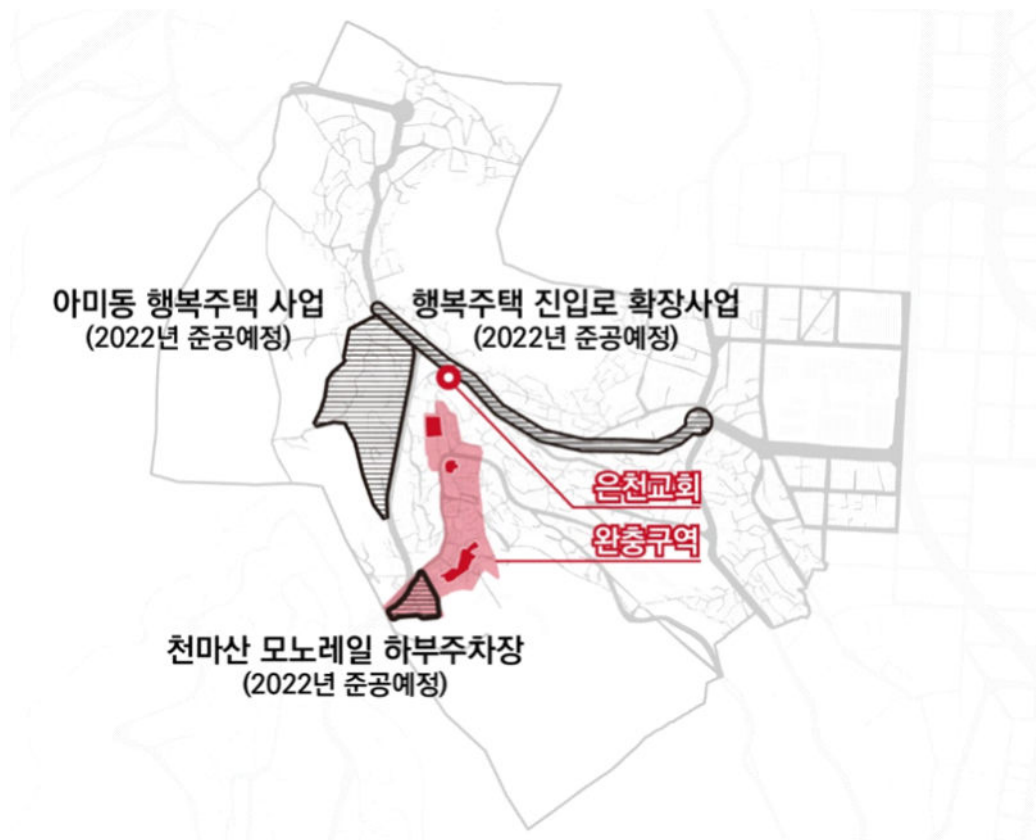


아미동 돌집



피란생활박물관

[그림-174] 아미·초장 도시재생 프로젝트 관련사업 조성건물



[그림-175] 관련 사업 추진현황

4) 구역계 변경의 필요성

- 본 과업은 기존 완충구역의 설정을 1945년 항공사진과 근대지도를 바탕으로 묘지터에 해당하는 필지를 근거로 도출하였으며, 이는 부산시,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마스터플랜에서 설정된 비석마을의 구역계와 동일함
- 그러나 최근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의 하부주차장 조성부지가 완충구역 중 일부에 포함되고, 은천교회의 피란유산으로서의 가치발굴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 완충구역의 설정을 변경하여 향후 보존구역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대한 [대안1]은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구역을 제외한 32개 필지 17,573.8㎡에 해당하며, 기존 완충구역 대비 필지 수는 2개 감소, 면적은 3792.6㎡의 감소로 나타남
- [대안2]는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구역을 제외 은천교회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총 39개 필지, 19,930㎡에 해당하며, 기존 완충구역 대비 필지 수는 7개 감소, [대안1]에 비해 2,357.1㎡의 면적 증가로 나타남
- [대안2]와 같이 은천교회의 구역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은천교회의 추가적인 조사와 석조건축물 보존 및 문화재 등재가 필요하므로, 현재 대부분 국유지로 구성된 [대안1]의 구역계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됨

[기존] 완충구역

1945년 항공사진 및 근대지도를 바탕으로 묘지터에 해당하는 필지를 근거로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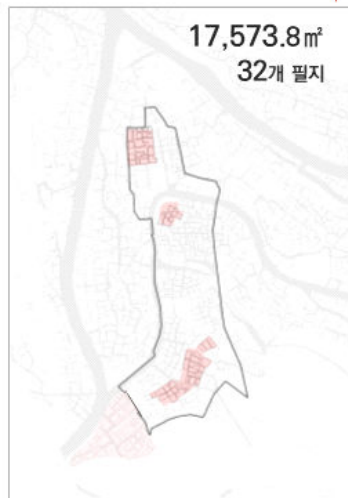


(2019.09.23. 결정, 현재 구역계)

[대안1]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구역 제외

현실적 대안



필지 수는 2개 감소
[기존] 대비 3,792.6㎡ 면적 감소

[대안2]

천마산 모노레일 사업구역 제외 및 은천교회 구역 추가



필지 수는 7개 증가,
[대안1]에 비해 2,357.1㎡의 면적 증가

[그림-176] 구역계 변경의 대안

2.2.2. 기초현황2. [대안1]의 구역계 기준

Ⅰ 토지현황

- 완충구역은 총 32 의 필지로 구성되며, 필지의 지목, 토지소유현황 등을 살펴보면 과거 공공이 관리하는 일본인 묘지가 입지했던 흔적이 남아있음
- 완충구역 내 토지의 지목현황은 '묘지(62.4%) 임야(14.6%) > 도로(9.1%) > 대지 (11.9%) > 종교용지 (2.0%)' 순으로 나타나며, 구역의 상당영역을 차지하는 '묘지'는 총 4개의 필지이며, 그 중 '아미동2가 231-130번지'와 '아미동2가 231-171번지'의 2개 필지는 대규모 필지로 남아있음
- 완충구역 내 토지의 소유현황을 보면, 국유지, 시·도유지, 군유지 등 국공유지가 전체 32개 필지 중 18개 필지이며, 완충구역 전체 면적(17,573.8㎡)의 89.4%(15,705.7㎡)를 차지
- 반면, 사유지로 볼 수 있는 종교단체 소유필지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지는 총 14개 필지로 전체의 약 7.7%(1,868.1㎡)를 차지
- 완충구역의 경계설정으로 인해 34개의 필지 중 7개의 필지의 일부가 구역 내로 편입되었으며, 이는 전체면적의 20.2%(3,546.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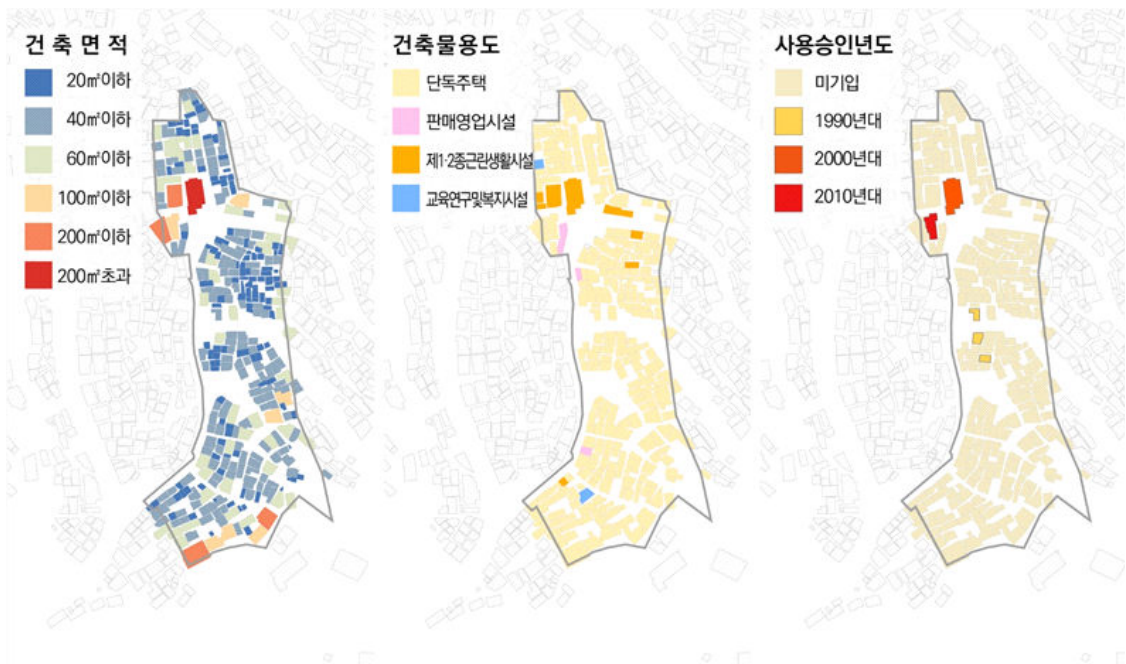
지목구분	필지(개)	면적(㎡)	비율	소유구분	필지(개)	면적(㎡)	비율	원필지여부	필지(개)	면적(㎡)	비율
대지	19	2,093.9	11.9%	국유지	6	1,501.2	8.5%	부분필지	7	3,546.0	20.2%
도로	5	1,593.8	9.1%	시/도유지	2	2,651.8	15.1%	원필지	25	14,027.9	79.8%
묘지	4	10,963.7	62.4%	군유지	10	11,552.7	65.7%	계	32	17,573.8	100.0%
임야	3	2,572.6	14.6%	종교단체	2	522.0	3.0%				
종교용지	1	349.9	2.0%	개인	12	1,346.1	7.7%				
계	32	17,573.8	100.0%	계	32	17,573.8	100.0%				

※ 개인* : 공유지(4개/1027.3㎡)포함

[그림-177] [대안1] 완충구역 내 토지현황

Ⅰ 건축물 현황

- 완충구역 내 전체 343개 건축물 중 건축면적 40㎡이하의 건축물이 전체의 83.4%(286개)를 차지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비율이 매우 높음
- 특히 소규모 건축물 중 20㎡이하의 건축물(전체 37.6%)은 주로, 비석주택 주변에 밀집하는 특징이 있음
- 완충구역 내 건축물 용도는 95.3%(327개)가 단독주택이며, 나머지 4.7%(16개)는 영세한 상점 또는 폐점포와 교회, 경로당으로 나타남
- 사용승인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건축물 중 98.5%(338개)가 미기입 대장으로 무허가 건축물이 지역 전반에 산재하고 있음



건축면적	건축물(개)	비율	건축물용도	건축물(개)	비율	사용승인년도	건축물(개)	비율
20㎡이하	129	37.6%	단독주택	327	95.3%	미기입	338	98.5%
40㎡이하	157	45.8%	판매영업시설	5	1.5%	1990년대	3	0.9%
60㎡이하	45	13.1%	제1·2종근린생활시설	9	2.6%	2000년대	1	0.3%
100㎡이하	7	2.0%	교육연구및복지시설	2	0.6%	2010년대	1	0.3%
200㎡이하	4	1.2%	계	343	100.0%	계	343	100.0%
200㎡초과	1	0.3%						
계	343	100.0%						

[그림-178] 완충구역 내 건축물 현황

2.3. 관련 법규 및 사례검토

2.3.1. 관련 법규 검토

- 오늘날 신도시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극복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리·환경적으로뿐만 아니라 산업·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도시를 다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선행됨
- 현재 아미동 비석마을 또한 도심 속 공동화로 인해 발생한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킬 수단으로, 재생사업과 더불어 '옛 공간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
- 한정된 토지 이용의 합리화와 경관의 보존과 개선 그리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이나 유산을 중심으로 주변 관리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선면단위등록문화재 설정 등의 방법이 강구
- 여러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다양한 개발과 보존 방법이 강구되고 있으나, 현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합리적인 법규 적용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선면단위등록문화재 설정 등이 대안으로 검토됨

[표-23] 관련 법규 검토

no.	구역 명칭	관련 법규	비고
1	지구단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성북동 장수마을, 은평 한옥마을, 인천 중구 개항장 •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지역을 체계적 · 계획적으로 관리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주, 부여, 공주, 익산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3	등록문화재 (선·면 단위)	문화재보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포, 군산, 영주, 통영 • 개별 단위 근대건축물에서 그 주변의 관리를 통한 지역활성화 및 활용방안 모색
4	건축자산진흥구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촌과 인사동 등 종로구 7차·선잠단지와 앵두마을 등 성북구 2차의 한옥 밀집지역 •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 · 경제적 · 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의 진흥
5	문화지구	지역문화진흥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대학로문화지구, 서울 인사동문화지구, 인천 중구 개항장 •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문화공간을 확충
6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 한옥마을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건설 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 도모

2.3.2. 관련 사례 검토

1) 사례1.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 감천문화마을

- 감천문화마을의 독특한 경관을 보전하고 상업시설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현상의 방지를 위해, 2015년 6월 지구 단위계획 수립에 착수, 2017년 10월 보전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 총 면적 188,177㎡으로, '중점관리구역, 일반관리구역1·2, 감내1·2로 구역, 옥천로구역, 옥천로75번길구역'의 총 7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높이, 형태, 용도를 규제
- 마을 내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3m가 넘는 1층 초과건물도 규제 대상이며, 경관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은 점포당 1곳에만 설치할 수 있고, 마을 경관을 위해 감내2로 구역에는 곳당 18~614㎡ 공공공지 10개소(총 1,830㎡)를 지정해 신축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함



[그림-179] 보전형 지구단위계획 사례 : 감천문화마을

2) 사례2. 지구단위계획 + 문화지구관리계획 :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 인천 중구일대는 일제강점기 부산, 원산과 함께 개항된 곳으로서, 일본, 청국 및 서구 각국의 집단 거류지가 형성된 지역으로 면단위로 근대건축물이 밀집
- 2000년대 들어 지역의 독특한 도시경관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도시조직과 건축물들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해 현재까지 문화지구지정, 관광특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근대건축물 보존 및 가로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계획 및 사업이 추진
- 문화재 추천 건축물 중 미지정된건축물 또는 예비문화재 지정건축물 등을 보전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여 보전계획을 수립, 형태, 색채, 높이등외관에 관해 근대건축물의 훼손을 방지
- 보전대상을 건축물 뿐만 아니라 계단, 석축등 역사적·지형적 특성을 반영하는 구조물까지 포함, 과거 최초로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 지역의 특징인 가구 및 획지, 골목길 등도 보전계획의 대상으로 지정
- 가구 및 도로는 현상을 유지, 획지의 경우 보존획지선을지정하여 획지의 크기를 보전하거나 또는 건축물을 건설할 경우 분절하여 외관에 보존획지선을 반영하도록 계획
- 지역 활성화를 위해 가로박물관, 역사·문화의 거리와 같은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

-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과 ‘근대건축물 주변관리 구역’에는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과 함께 예촌및 차이나타운 등의 전략지구도 함께 설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



[그림-180] 지구단위계획 및 문화지구관리계획 사례 : 인천

[표-24]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대 관리계획 현황

계획명	지정년도	관련 법제도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2003)	2002 (471,4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월미관광특구및 진흥계획 (2005)	2001	관광특구진흥계획
차이나타운 지역특화 발전특구계획(2007)	200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규제특별법
인천개항장 문화지구관리계획(2011)	2010 (537,114㎡)	지역문화진흥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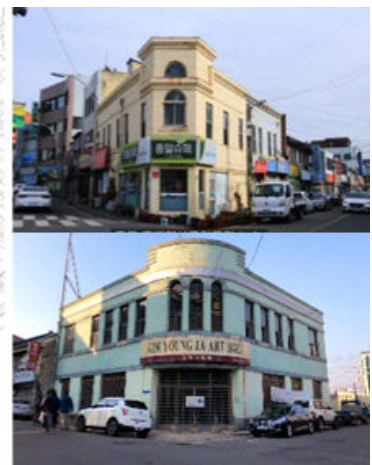
3) 사례3. 문화재청 선(線)·면(面) 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만호동·유달동일원 114,038㎡ / 2018년 지정)

- 대상지는 1897년 개항 이후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으로,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목포지점' 등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다양한 근대건축 유산 등이 입지
- '구 목포화신연쇄점',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구 목포부립병원관사' 등 근대도시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



[그림-181]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목포



Ⅰ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장미동 일원, 152,476㎡/ 2018년 지정)

- 1899년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 역사, 근대 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설과 흔적이 잘 남아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
- 뜯다리부두, 호안, 철도,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



[그림-182]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군산

Ⅱ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두서갈· 광복로일원, 26,377㎡/ 2018년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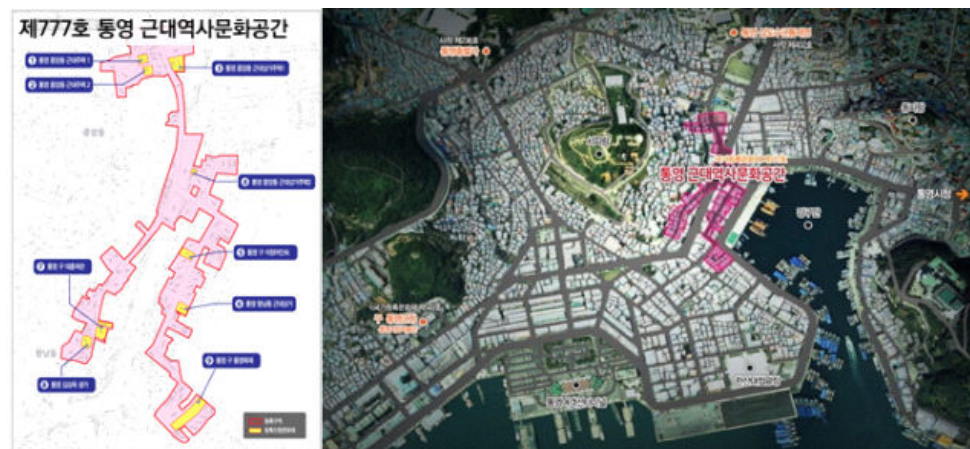
- 근대 시기 경북 영주의 구도심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서, 영주역의 생성과 그 배후의 철도관사,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 생활사를 보여주는 역사문화공간



[그림-183]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영주

Ⅲ 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중앙동·향남동 일원, 14,444㎡/2020년지정)

- 2020년 3월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됨에 따라, 문화재청의 공모사업인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확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 향후 5년간 500억 원(국비 250억)이 투입될 예정
- 통영 중앙동및 향남동일대는 조선시대 성 밖 거리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대한제국기부터 지속적으로 조성된 매립지와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까지 변화하였던 구시가지의 근대 도시 경관 및 건축유산이 집중적으로 입지하여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됨



[그림-184] 선면단위 등록문화재 사례 : 통영

2.4. 문화재 신청 및 지원방안

2.4.1. 문화재 신청 절차

■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 국가등록문화재는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현재까지 남아있는 건축물, 교량, 물품, 시설, 기록, 장비 등을 보존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문화재
- 문화재보호법 제53조(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에 의거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가능



[그림-185]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절차

2.4.2. 문화재 지원 방안

■ 보존관리 관련 지원 사업

- 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청 보존관리 관련 사업에 따라 문화재청 예산 및 문화재보호기금을 통해 국비 보조 및 부산광역시비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이용하여 향후 보존관리 시행

[표-25] 보존관리 관련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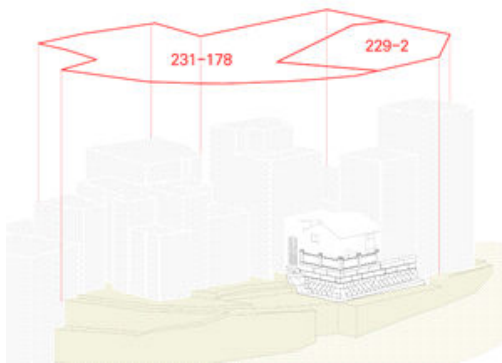
예산 출처		사업 명칭	사업 내용
문화재청 예산	국비 및 지방비	문화재보수정비	지정문화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 및 조경의 보수 복원 및 정비
		보존관리 국고보조사업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모니터링, 정비, 토지 매입, 홍보관 건립 등
	국비	근대문화재 관리	민간위탁을 통한 근대문화재 관리
문화재보호기금	국비	문화재긴급보수사업	문화재 긴급보수 지원
	국비 및 지방비	문화재 돌봄 사업	문화재 사전 훼손 예방과 관람환경 개선,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제반 사업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재난방지시설 유지 보수,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LOT(Internet of Things) 시스템 지원

참고 : 문화재청, 2020 문화재관리 재정현황

2.4.3. 핵심유산의 등록문화재 신청 지원사항

1) 피란민 비석주택 터

- 1953년 한국전쟁 당시 긴박한 상황에서 기존 일본인 묘지 외책을 기반으로 임시주거를 조성한 이른바 판자집 구조물
- 현재 아미동2가 229-2번지에 위치하며, 전쟁에서 기인한 임시주거가 발전한 인접 건물과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보존 및 유지에 있어서 인근 231-178번지 필지와 함께 보존의 필요성 제기
- 현재 ‘부산 아미동 피란민 비석주택터’ 명칭으로 문화재청에 등록문화재로 신청



- 소재지 :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29-2, 231-178번지
- 현 용도 : 묘지 구조물 및 대지
- 구조 : 주택부지, 석축(묘지 구조물), 목조주택유구
- 규모 : 총 대지면적 : 340.3㎡
- 건축연도 : 1953년 추정
- 추진내역 :

2020.01.16. “등록문화재 검토대상 추천서 : 비석주택 ”
 2020.09.29. “비석주택터”로 변경, 신청서 재작성
 2020.12.24.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기념물분과 심의
 2021.01.10. 부산광역시 서구 심의 결과 수신 : “조건부 가결”
 2021.01.25. 심의서 수정본 송부
 2021.03.04.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변경 신청(시→문화재청)

[그림-186] 비석주택터 문화재 신청지원 추진내역

2) 은천교회

- 한국전쟁 시기인 1952년 아미동 피란민 및 빈민들의 구호 및 구휼, 교육 등을 집행했던 감리교회로 시작
- 1955년 재미교포 한명리, 송진천 부부의 후원으로 천막 교회에서 석조 건조물을 준공하여 현재에 이름
- 1950년대 석조 건조물의 형태와 양식을 간직한 건축자산으로 가치를 지님



- 소재지 : 부산 서구 아미동2가 224-10(아미로45번길32)
- 현 용도 : 종교시설(교회)
- 구조 : 구관 - 석조, 신관 - 슬래브/블록조
- 규모 : 대지221.1㎡ / 건축면적 161.56㎡ (실측면적)
- 건축연도 : 1955년
- 추진내역 : 2020.10.16. 부산시 근대건조물 지정 심의신청서 작성 지원

2020년 11월 도로 노선 선형 변경
 2021년 3월 현재 은천교회 3차 토지수용보상(중앙부처)협의중
 2021년 5월경 철거진행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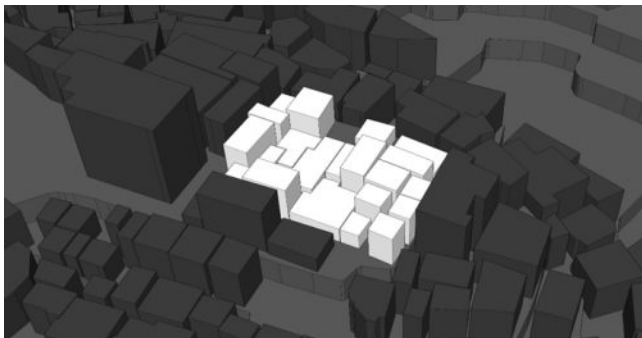
[그림-187] 은천교회 문화재 신청지원 추진내역

3) 오오이케 묘지 터

- 오오이케 묘지는 구한말~일제강점기 부산항을 중심으로 상업 활동에 부(富)를 축적하여 이른바 '부산부 3대 부자' 중 한 명인 오이케 츠스케(大池忠助)의 무덤
- 오늘날 아미동2가 225번지(옥천로164번길) 일대로 추정되며 문헌기록에 무덤의 위치가 기재되어 있어 알려져 있으나 현재 한국전쟁 이후 조성된 임시가옥들이 여러 해를 거쳐 유지되고 육안으로 확인은 불가
- 일제강점기 일본인공동묘지의 성격을 대표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규모가 가장 큰 개인묘지였고 위치 또한 알려져 있으므로 고증의 가치를 가지며, 부산지역 근대사에 있어 시대를 반영하는 가치를 지님

4) 총천사 석조관음보살좌상

- 1907년 아미동 일대 자리 잡은 총천사 내 봉안되어 있던 석조관음보살좌상을 이리며 현재 아미초등학교 내 관리
- 불상과 대좌는 화강암 재질이며 아미타불의 협시(脇侍)로서 구원을 요청하는 중생의 근기에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 대자비심을 베푼다는 관세음보살의 형상이며, 화미타화불의 보관을 쓰고 대좌 위에 결가부좌
- 과거 부산항이 일본인거류지가 됨에 따라 일본 조동종(曹洞宗)이 들어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포교하였고, 일본양식이 반영된 석조관음보살좌상이 옛 총천사 일대에서 발견됨에 따라 부산 지역사에 있어 근대사 일면을 반영하는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님



[그림-188] 오오이케 묘지 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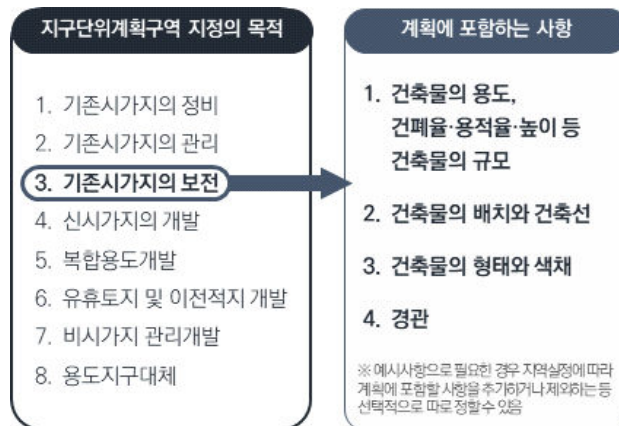
[그림-189] 총천사 석조관음보살좌상

3.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방향

3.1. 기본방향

Ⅰ [법적 기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및 계획 포함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난개발을 방지하여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입체적인 도시관리계획임
- 비석마을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중 "기존시가지의 보전"에 해당하며, '도시형태와 기능을 현재의 상태로 유지·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곳으로 개발보다는 유지관리에 초점'을 두고자 함



[그림-190]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목적 및 계획 포함 사항

Ⅱ 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적 방향

‘역사보존형’지구단위계획의 기본방향

- 기존 시가지를 보전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방향성을 가지되, 비석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역사적 보전대상의 확장

- 건축물 뿐만 아니라, 향후 발굴되는 비석 및 묘지 구조물, 하부 석축등의 지역적 특성을 나타내는 유산들을 포함하여, 근대 이후 피란시기와 산업화시기를 거쳐 변용되어 온 비석마을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산에 대한 보전계획 대상 지정

※ 비석마을 유산의 형태별 예시

- 점 : 건축물, 비석, 불상 등 조각상
- 선 : 역사가로 (백년옛길, 야미로), 골목길, 축대 구조물
- 면 : 비석군집, 유산구역, 유존지역, 완충구역, 건축물 입면, 지형

유산의 형태적 특성을 반영한 보존방안 모색

- 비석마을은 점·선·면의 다양한 형태의 유산이 산재하고 있으며, 향후 선·면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유산의 형태별 관리방안 설정 필요

연접구역을 통한 관리방안 모색

- 비석마을은 지역특성상 경사지에 과밀하게 형성되어 건축물 상호간의 거리가 좁거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 실정을 반영하여, 비석마을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존한계선또는 유산의 완충경계 등의 개념을 활용하여 연접구역을 통한 유산의 보존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

3.2. 계획수립의 방향

Ⅰ 개요

- 아미동 비석마을의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향은 ‘역사문화환경’, ‘생활문화경관’, ‘정주환경개선’, ‘생활환경보호’의 총 4개 부문으로 설정
- ‘역사문화환경’ 부문은 피란주거지 비석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보존을 목표로 하며, 보존구역이나 필지와 같은 역사적인 도시조직 보호와 마을의 주요 구역의 형태를 이루는 건축물의 외곽 형태등의 도시형태의 골격유지, 건축물뿐만아니라 구조물, 경관자원 등 아미동피란유산의 보존계획비석마을의 근거가 되는 묘지의 축대 등 향후 발굴가능성을 고려한 피란유산의 발굴과 보호를 전략으로 함
- ‘생활문화경관’ 부문은 경사지 저층주거지 생활문화경관보존을 목표로 하며, 계단식 저층주거지의 경관을 보호하고, 역사가로 인접구역 (100년 역사가로)의 원도심과 남향을 향한 조망경관확보를 전략으로 함
- ‘정주환경개선’ 부문은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거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며, 무허가주택 거주민의 거주 지속성을 보호하고, 골목길 및 도로의 교통처리를 통해 안전한 옥외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확보, 유흥지를 활용한 공공사업(공원, 주민공동시설)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를 전략으로 함
- ‘생활환경보호’ 부문은 지역정체성 보호를 위한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근린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업종 제한 등 주거지 상업화 방지 및 주거생활 안정화, 주거지의 생활경관을 보호하는 주야간 옥외광고물 및 조명관리 계획 등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 확보를 전략으로 함

부 문	역사문화환경	생활문화경관	정주환경개선	생활환경보호
목 표	피란주거지 비석마을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	경사지 저층주거지 생활문화경관 보존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정체성 보호를 위한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
전 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적인 도시조직의 보호 ▪ 도시형태의 골격유지 ▪ 피란유산 발굴과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식 저층주거지의 경관 보호 ▪ 원도심과 남향을 향한 조망경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허가주택 거주민의 거주지속성 보호 ▪ 안전한 옥외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확보 ▪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업화 방지 및 주거생활 안정화 ▪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 확보
계획요소	보존구역, 필지 건축물 형태, 주요 가로 (도로) 건축물, 축대, 비석, 기타 피란유산 역사가로 인접구역(아미로)	건축물 높이/ 지형 역사가로 인접구역(아미로)	건축물 골목길, 도로 (교통처리) 공공사업 (공원, 주민공동시설)	건축물 용도/규모 (상업건축물) 옥외광고물/조명

[그림-191] 비석마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방향

Ⅰ 부문별 계획 수립방향

부문1 역사문화환경

목표	전략	계획요소	계획수립의 방향
피란주거지 비석마을의 역사문화적가치보전	역사적인 도시조직 보호	보존구역, 필지	유산구역, 제1·2 유존구역, 완충구역의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보존계획 수립피란유산을 보호하는 연접구역 설정 및 관리 계획비석마을의 원천이 된 "산19번지"에 해당하는 필지의보존계획 수립
	도시형태의 골격유지	건축물 형태, 주요 가로 (도로)	마을의 주요 구역의 형태를 이루는 건축물의 외곽 형태 관리계획 마을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역사가로(아미로, 까치고개로)관리계획
	피란유산의 발굴과 보호	건축물, 축대, 비석, 기타 피란유산	건축물뿐만아니라 구조물, 경관자원 등 아미동피란유산의 보존계획 비석마을의 근거가 되는 묘지의 축대 등 향후 발굴가능성을 고려한 보존관리계획

부문2 생활문화경관

목표	전략	계획요소	계획수립의 방향
경사지 저층주거지 생활문화경관보전	계단식 저층주거지의 경관보호	건축물 높이, 지형	단독주택 저층주거지의 생활경관보호를 위한 구역별 높이제한 계획 수립 주요 가로 및 경관자원(랜드마크, 포컬포인트)이 되는 경관보호 (ex. 비석주택, 아미로)
	원도심과 남향을 향한 조망경관확보	역사가로 인접구역 (100년 역사가로)	비석마을에 인접하는 건축물 경관관리로 아미로역사가로의 연속성 확보 원도심이 내려다보이는 비석마을의 경사지 경관관리

부문3 정주환경개선

목표	전략	계획요소	계획수립의 방향
주거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거환경개선	무허가주택 거주민의 거주지속성보호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의 필지 및 지적재정리계획 수립 건축물 규모를 유지하며 추진가능한 주택 집수리 공공지원 방안
	안전한 옥외활동을 위한 기반시설의 연계성 확보	골목길/도로 (교통처리)	안전한 정주환경을 위한 도로와 주요 골목의 설정 및 통행의 연계성 확보주요 골목길 방재계획(소화전, 제설함, 소방호스 진입로 확보 등) 유흥지를 활용한 막힌 골목의 개선 및 통행성확보 계획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공시설 확보	공공사업 (공원, 주민공동시설)	유흥지를 활용한 경사주거지와 산지(천마산)의 녹지네트워크 확보방안 주민 커뮤니티 보호를 위한 거점공간 확보 방안

부문4 생활환경보호

목표	전략	계획요소	계획수립의 방향
지역정체성 보호를 위한 주거지 생활환경 보호	상업화 방지 및 주거생활 안정화	건축물 용도/규모 (상업건축물)	근린생활과 관련성이 없는 업종 제한 등 주거지 상업화 방지계획 단, 주민협의체가 인정하는 마을기업 및 마을상점의 용도 허용 고려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정체성 확보	옥외광고물/조명	주거지의 생활경관을 보호하는 주야간 옥외광고물 및 조명관리 계획 원도심에서 바라다보이는 비석마을에 대한 경사지 야간경관의 관리계획

4. 비석마을의 활용방안

4.1.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활용방안

■ 사례. 장수마을

- 위치 : 서울 성북구 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 (18,414㎡)
 - 토 지 : 156필지 (국공유지 106필지 / 75%)
 - 건축물 수/가구 : 건물 167동, 299세대 (65세 이상 세대주 103세대/ 34.5%)
- 장수마을은 한양도성에 인접하여 구릉지형의 근·현대 주거지 모습을 가지는 지역으로 2012년 5월부터 주민과 마을활동가·전문가들이 함께 장수마을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
 - 성곽마을의 역사성을 유지하며 낙후환경 개선, 지역특성을 보존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2013년 12월 완료
 - 주민공동이용 시설의 경우 마을박물관, 주민사랑방, 도성마당 등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가스 공급, 하수관거 정비, 가로환경정비, 안전 및 방재환경 조성과 같은 기반 시설도 정비
 - 물리적인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주민협의회 및 마을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해 마을약속을 체결하고, 새롭게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관리함에 따라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자립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유도
 - 주민이 중심이 되어 성곽마을로서의 지역특색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장수마을 사례는 한양도성 인접지역이나 다른 정비예정구역의 새로운 대안방향을 제시



[그림-192] 장수마을 사례

Ⅰ 비석마을에 대한 지역 활성화 방안 제안

- 현재 아미동 비석마을은 산지지형 위에 국공유지를 점거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한말~일제강점기 공동 묘지 공간이었다가 1945년 이래 임시 주거지역으로 시작되어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란민 임시 주거지 그리고 1960~70년대 산업개발시기 도시로 몰려든 저소득층의 주거지로 성장하여 오늘에 이름
- 비석마을이 속한 부산광역시 서구는 2020년 현재 52,786세대 110,350명의 인구로 세대당 2.1명 그리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6,069명으로 23.6%를 차지해 도심 내 고령화가 매우 진전된 상태이며, 아미동의 경우에 4,156세대 7,566명의 인구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462명으로 32.5%에 달함
- 아미동의 면적은 718,994.8㎡로 이중 토지 지목에 있어 대지 413,906.5㎡이고 묘지가 17,408.9㎡로 전체 토지의 2.42%를 차지하며, 지목 묘지 대부분은 국공유지이지만 1945년 이래 임시주거로부터 시작된 무허가건축물이 현재까지 점거중인 상태
- 비석마을의 기원이 일본인공동묘지 공간에서 비롯한 지목 묘지로부터 시작된 임시주거에서 찾을 수 있어 현재까지 대표적 지적 불부합 지역으로, 향후 주거공간의 개선에 앞서 지적 및 지목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 제기
-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는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지만, 토지와 주택 소유권의 불일치와 소방도로와 같은 도시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해 지역 활성화에는 한계가 명백히 설정
- 비석마을의 경우에 도시형태의 변화를 통해 기존 주택의 철거나 골목길 확장과 같은 공간 변화보다는, 저층 밀집지역이고 고령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거복지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며 우선적으로 현대적이고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이 요망
-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로 적용되는 주거복지차원에서 접근하여 환경개선을 위해 가로등 정비, 공용 쓰레기보관소와 휴게 데크, 텃밭과 소공원, 체육시설, CCTV 확충, 무인 택배함, 소규모 편의시설의 확충 등으로 재해, 위생, 안전 등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안됨
- 전국 각 지역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업이 공모 혹은 채용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이 주를 이루므로, 마을 공동체 내 활성화 지원이 전반적 대세를 이룸



경기도 공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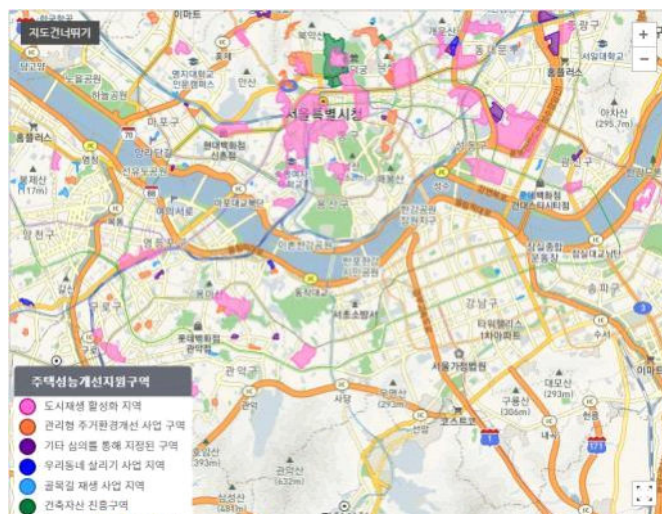
충북 괴산군 사례



전남 나주시 사례

[그림-193] 전국 각 지역별 활성화 방안 제안을 위한 공모

- 일반적으로 거주지와 골목 상권은 일반 근린형 사업을 통해 노년층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서비스 공간이 설치되어 공간적 다양성을 추구하지만, 비석마을의 경우에 토지 소유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낙후된 부분만 개선하여 지속적인 외부인의 유입을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주거복지지원 이외에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도 지역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강구되며, 이는 취약지역의 지속가능한 활력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
- 현재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집수리 저리용자사업(0.7%)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시행되는 제도의 하나로 현재 서울에는 서울역, 장안평, 마장동 등 총 161개 구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 시행에 있어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기타 심의를 통해 지정된 구역,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지역, 골목길 재생 사업 지역,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 다양한 지역 활성화 사업 대상지에 적용
- 이 제도의 특징으로 지역별로 집수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며 집수리 지원사업 운영 지원, 집수리지원 콘텐츠 홍보, 집수리이력관리 업무 체계화 및 업무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역집수리지원센터 거버넌스 및 모니터링, 교육 집수리시공업체 등록제 운영 및 관리, 교육 등 분야별로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서울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업체교육	미아동	수유1동	인수동	419.우이동

차수	시간
1차	오전 10:00-10:40
2차	오전 11:00-11:40
3차	오후 14:00-14:40
4차	오후 15:00-15:40

□ 상 담 : 사전 예약제, 1일 40분 이내(그림상담)
 □ 장 소 : 인수도시재생지원센터
 □ 예약전화 : 강북집수리지원센터 02-945-3573
 ※ 코로나19 감염위기에 의해 시간예약 후 그림상담을 시행합니다. 상담 시 안전거리(2m)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강북집수리지원센터

[그림-194] 서울시 시행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와 집수리센터 안내

4.2. 역사문화자원 활용 지역활성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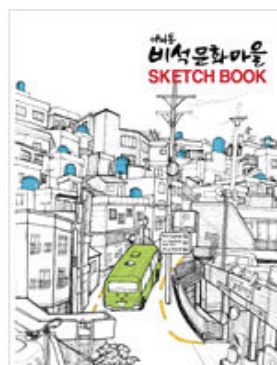
- 2020년 11월 비석주택터 "피란생활박물관" 조성완료하였으며, <아미초장도시재생 프로젝트>세부사업으로 비석마을 인포메이션 센터가 건립예정 중임
- 아미동비석마을을 주제로 한 그림책, 도서, 아카이빙구축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역의 생활문화유산을 대중에 공개
- 2016년부터 매년 진행 중인 "피란수도 부산 야행"프로그램과 마을 해설사와 연계,아미동피란생활유산의 지역사회 공유 및 활용가능
- 그 외 2016·2018년 <아미· 초장 아카이빙구축사업>의 구술자료집, 지역주민의 옛 사진 등과 본 과업의 조사자료 등 스토리텔링 자료로 활용 가능



2013
아미동 아이들 /
박현숙 글 / 마수민 그림 / 국민서관



2017
할아버지 집에는 귀신이 산다
/ 이영아 / 꿈교출판사



2016
비석문화마을 스케치북
도시나눔 / 부산서구청



2020년 11월 비석주택터 "피란생활박물관" 조성 중 전경
주택 9개 동의 최소한의 리모델링으로 외부관람으로 비석주택을 조망
[그림-195] 스토리텔링 활용방안



05

아미동 비석마을의 기록 및 보존

1. 개요
2. 문헌자료
3. 구술기록
4. 비석타본
5. 공간실측

05 아미동 비석마을의 기록 및 보존

1. 개요

- 본 과업의 진행기간 동안 아미동 생활문화자료를 수집 및 기록한 결과 크게 문헌자료, 구술자료, 비석 탁본 및 해제자료, 현장실측의 자료 총 825건을 수집
- 본 장은 기록 및 수집 자료물에 대한 자료목록으로 구성되며, 각 자료의 원데이터는 본 보고서의 부록 자료와 디지털파일에 수록되어 있음

[표-26] 기록 및 보존자료 개요

자료명	자료유형	내용	파일유형	파일 수(개)
문헌자료	1 공문서 및 서적	국가기록원 소장	총천사설립인가신청서 (1907년, 관리번호 CJA0004732) 아미동 묘적계 (1914년, 관리번호 CJA0024683)	jpg 3 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釜山港勢一斑(相澤仁助 編, 1905년) 釜山要覽 (森田福太郎 編, 釜山商業會議所, 1912년) 釜山府勢要覽(釜山府 編, 1932년)	12 14 10
		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아시아역사자료센터 소장)	海軍軍人軍屬墓地改修方に關する件 (1889년, 海軍省, B12082594000) 釜山居留地伏兵山墓地ノ区域画定並ニ管理法設定ノ件 (1890년, 外務省, B12082594100) 在釜山陸軍墓地の移轉の件 (1906년, 陸軍省, C04014165100) 釜山海軍墓地に關する件 (1928년, 海軍省, C04016444400)	4 5 9 8
	2 근현대지도	근현대지도 중 아미동 관련 지도	jpg	16
	3 근현대사진	근현대사진 중 아미동 관련 사진	jpg, jfif, png	30
	4 신문자료	조선시보	장례식, 재부 주요인물 장의절차, 화장장 부영 논란, 해군 묘지, 화장장 발생 범죄	hwp 64
		부산일보	화장장 활용, 공동묘지 상황, 고아원, 식수문제, 부산사범 학교, 난민수용소, 상수도 건설, 산복도로 개설	hwp 125
		국제신문	화장장이전, 아미2,3동 폐합, 상수도, 산복도로	hwp 15
	구술자료	녹음자료	구술대상자 총 11명의 음성자료	mp3 11
		녹취록	구술대상자 총 11명의 음성자료 문서화	hwp 10
		동영상	구술대상자 총 4명의 동영상 자료	mp4 6
비석탁본	원본	15개 처의 비석 탁본 원본 (※ 원본 20매 제출)	-	-
	스캔본	15개 처의 비석 탁본 스캔본 (자료집 수록)	jpg	20
현장실측	실측도면자료	비석주택터, 오오이케묘지터군, 계단식묘지터군, 야기보살 집, 비석기단집, 바람구름전망대, 은천교회의 2D, 3D자료	dwg, pdf, jpg, ai, skip	40
	현장기록사진	핵심유산 6개 대상지 현장을 기록한 사진자료	jpg	377
	현장기록영상	오오이케 무덤터, 테라스형 주택군, 은천교회의 3개 핵심 유산을 기록한 영상자료	mp4	40
계				825

2. 문헌자료

2.1. 공문서 및 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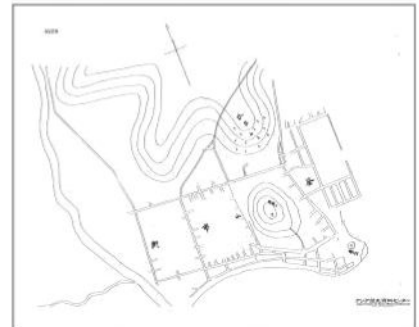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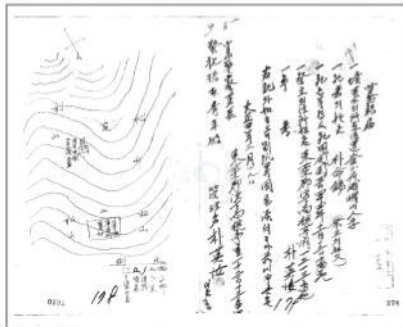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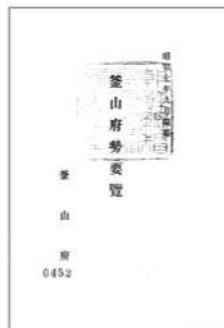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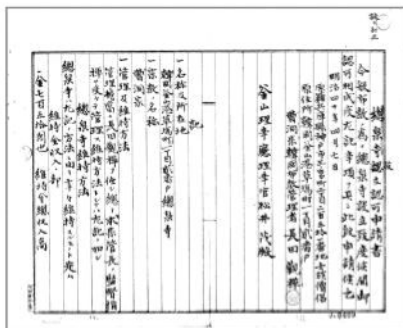
Ⅰ 개요

- 아미동 비석마을과 관련한 공문서 및 서적 자료의 총 10개 자료에서 총 71건의 파일을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본문 내용은 [조사자료집]을 참고

Ⅱ 공문서 및 서적 수집자료 목록

[표-27] 공문서 및 서적 목록

번호	자료명	생산년월일	발행처	비고
1	총천사설립인가신청서	1907		국가기록원
2	아미동 묘적계	1914		국가기록원
3	釜山港勢一斑	1905	相澤仁助	국립중앙도서관
4	釜山要覽	1912	釜山商工會議所	국립중앙도서관
5	釜山府衛生施設概要	1928	釜山府	국립중앙도서관
6	釜山府勢要覽	1932	釜山府	국립중앙도서관
7	海軍軍人軍屬墓地改修方に関する件	1889		일본국립공문서관
8	釜山居留地伏兵山墓地ノ区域画定並ニ管理法設定ノ件	1890		일본국립공문서관
9	在釜山陸軍墓地の移転の件	1906		일본국립공문서관
10	釜山海軍墓地に関する件	1928		일본국립공문서관



2.2. 근현대지도 및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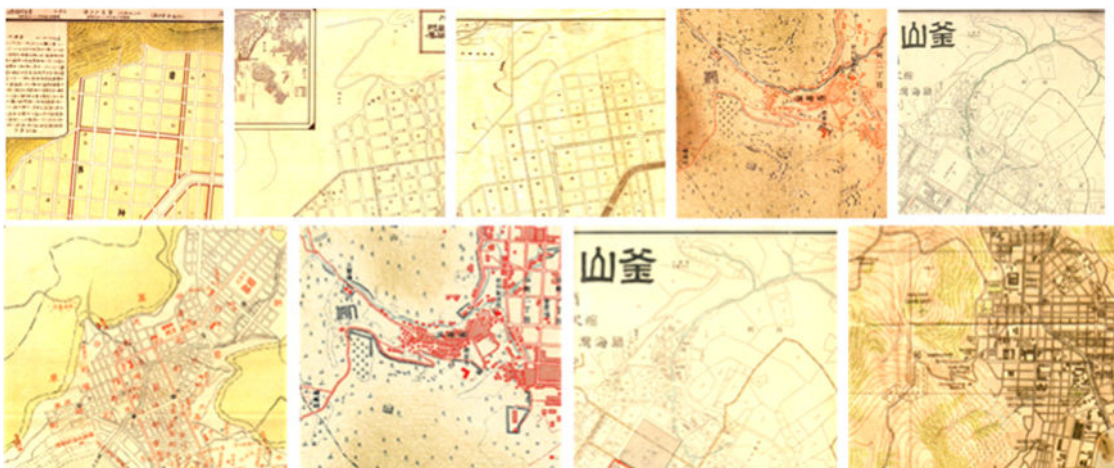
Ⅰ 개요

- 아미동 비석마을과 관련한 근현대지도 자료 총 16건과 옛 사진 30건을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본문 내용은 [조사자료집]을 참고

Ⅱ 근현대지도자료 목록

[표-28] 근현대지도자료 목록

번호	년도	지도명	발행처	비고	파일형식
1	1907	한국부산항시가명세도	유전석판인쇄소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2	1911	부산시가전도	지질조사국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3	1916	개정정명강계입 부산시가전도	대판십자옥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4	1924	부산지형도	조선총독부육지측량부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5	1929	부산부명소교통그림지도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6	1933	부산부시가도 중 아미동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7	1934	부산부전도	신부산대관수록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8	1934	부산지도	무전광문당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9	1936	부산부시가도 중 아미동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10	1936	부산시가도	무전광문당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11	1945	해방직후 항공사진		국토지리정보원	jpg
12	1946	부산(PUSAN)	미육군지도창	부산근대지도모음집(2012)	jpg
13	1950	항공사진_195012001900060004	국토지리정보원	(B040)항공사진	tif
14	1969	항공사진_198206000100430026	국토지리정보원	(B040)항공사진	tif
15	1982	항공사진_196902061900010023	국토지리정보원	(B040)항공사진	tif
16	1982	항공사진_198206000100440025	국토지리정보원	(B040)항공사진	tif



I 근현대사진 목록

[표-29] 근현대사진자료 목록

번호	연도	파일명_출처	파일유형
1	1903	1903년 북병산 북쪽 자락의 일본인 묘지와 용두산_부경근대사료연구소	jfif
2	1903	1903년 부산전경_북병산일대_명치36년	jpg
3	1909	1909년경 아미동 총천사_부경근대사료연구소	jpg
4	1910	1910년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용두산_한국저작권위원회	jpg
5	1910	1910년경 부산 중구 부산상품진열관에서 바라 본 아미동 방향_한국저작권위원회	jpg
6	1910	1910년대 토성동에서 바라본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jpg
7	1911	1911년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바라본 서구_1_한국저작권위원회	jpg
8	1911	1911년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서 바라본 서구_2_한국저작권위원회	jpg
9	1934	1934년 아미동 화장장	jpg
10	1936	1936년 서구 아미동 부산부립병원_한국저작권위원회	jpg
11	1950	1950년대 비석주택 옆 이용원 짓기전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송유순 소장	png
12	1950	1950년대 초반 추정_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1)	jpg
13	1950	1950년대 초반 추정_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2)	jpg
14	1950	1950년대 초반 추정_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3)	jpg
15	1950	1950년대 초반 추정_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4)	jpg
16	1950	1950년대 초반 추정_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5)	jpg
17	1952	1952년, 1955년_은천교회 웨슬레(1952), 기념사진(1955)_은천교회소장	jpg
18	1953	1953년경 겨울 아미동 (스웨덴 적십자병원 잉바르 스벤손 촬영)	jpg
19	1954	1954년 부산병설사범학교 졸업앨범 내 총천사 가교사_조말자 소장	jpg
20	1954	1954년 부산사범병설학교 졸업앨범내_총천사가교사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조말자 소장	png
21	1954	1954년 부산사범병설학교 졸업앨범내_총천사가교사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조말자 소장2	png
22	1958	1958년 은천교회_임직예배감사기도_은천교회 소장	jpg
23	1960	1960년대 현재 송이덕이 경로당 맞은 편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조묘이 소장	png
24	1960	1960년대 후반_아미로 산상교회가가는길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김미진소장	png
25	1968	1968년 아미초교 입학식(68.03.05)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김무선 소장	png
26	1973	1973년 아미동 현 산상교회 앞 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윤지선 소장	png
27	1976	1976년 아미초등학교 교내 모습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윤지선 소장	png
28	1976	1976년 아미초등학교 교내 모습_2016아미동옛사진공모전_윤지선 소장2	png
29	1997	1997년 은천교회_소장_옛사진 (10)	jpg
30	19??	19□□_일제강점기 아미동 전경_부경근대사료연구소	png

2.3. 신문자료

Ⅰ 개요

- 아미동 비석마을과 관련하여, 국제신보, 부산일보, 조선시보의 총 196건의 신문 기사를 수집하였으며, 해당 자료의 본문 내용은 [조사자료집]을 참고

Ⅱ 신문자료의 목록

[표-30] 신문자료 목록(1)

번호	신문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면
1	조선시보	1916.08.12.	고도 가쓰스케씨 장례식	91(9)
2	조선시보	1916.08.13.	희유의 성대한 장례식	91(7)
3	조선시보	1917.08.16.	야마모토 카메코의 장례	(92)7
4	조선시보	1917.08.19.	이누쓰카 부인의 장례	(91)7
5	조선시보	1918.03.23.	후쿠다 유조 씨 장례식	(92)8
6	조선시보	1918.04.19.	이다 부인의 장례	(92)7
7	조선시보	1921.03.15.	시장과 화장장	(2)2
8	조선시보	1921.07.01.	다니마치 주민 300백 여명 연서해서 화장장 이전 운동	(2)1
9	조선시보	1921.09.27.	화장장위원회	(2)3
10	조선시보	1922.11.04.	장례식의 중에 돈 5원을 사취	(3)8
11	조선시보	1923.10.12.	해군묘지에 잠든 영령	(3)1
12	조선시보	1923.10.21.	〈외로운 집인 화장장의 삽화〉	(3)5
13	조선시보	1924.10.03.	화장장의 부영은 올해나 내년 사이에 실현	(3)6
14	조선시보	1925.05.24.	재건축하는 동래 화장장	(3)4
15	조선시보	1925.09.07.	마쓰다 요시코 장례식	(1)10
16	조선시보	1926.02.16.	다년의 현안인 화장장 부영문제	(3)5
17	조선시보	1926.03.01.	화장장을 부영	(1)7
18	조선시보	1926.03.14.	고별식도 할 수있는 훌륭한 화장장	(2)6
19	조선시보	1926.04.23.	유지비 염출로 곤란을 겪는 시설 화장장	(2)3
20	조선시보	1926.04.23.	훌륭한 齋場에서 장엄한 고별식	(2)3
21	조선시보	1926.09.03.	반대자 속출로 당국 부지선정에 어려움을 겪다	(2)2
22	조선시보	1926.09.10.	국유 공동묘지 문제로 사이토 총독에게 탄원서	(3)4
23	조선시보	1926.09.29.	무연무취를 구실로 화장장을 시가접근지에 이전하는 것은 도시행정의 반대 아니냐 무엇인가?	(2)7
24	조선시보	1926.09.30.	무연무취를 구실로 화장장을 시가접근지에 이전하는 것은 도시행정에 역행이 아니냐 무엇인가?	(2)3
25	조선시보	1926.10.01.	무연무취를 구실로 화장장을 시가 접근지에 이전은 도시 행정의 역전이 아니냐 무엇인가?	(3)7
26	조선시보	1926.10.02.	무연무취를 구실로 화장장을 시가 접근지에 이전은 도시 행정의 역전이 아니냐 무엇인가?	(2)7
27	조선시보	1926.10.03.	무연무취를 구실로 화장장을 시가 접근지에 이전은 도시 행정의 역전이 아니냐 무엇인가?	(2)5
28	조선시보	1927.01.29.	무난하게 화장장 문제를 해결	(3)3
29	조선시보	1928.01.08.	아쿠타가와 부산일보사장 죽다	(3)9
30	조선시보	1928.01.16.	화장장 위치에 대해 먼저 상업회의소로부터 반대 간담회 중론을 하나로 모아	(3)1
31	조선시보	1928.01.17.	지역주민의 요망에 귀를 기울여라 당국은 끝까지 단행	(3)1
32	조선시보	1928.01.20.	시세에 역행 화장장 이전	(2)6
33	조선시보	1928.01.21.	화장장 이전반대 진정	(3)8
34	조선시보	1928.01.22.	지역주민의 격앙을 이렇듯 하지도 화장장이 이전 안가되다 서부민 머지않아 본부에 진정	(3)1
35	조선시보	1928.01.27.	화살이 다해 쓰러질 때까지 분투를 계속해 좌절하지 않는다	(2)4
36	조선시보	1928.01.30.	화장장 이전 문제 진정은 때 늦음	(2)7
37	조선시보	1928.02.15.	다니마치에 신설 허가를 마친 화장장 취소 청원	(3)2
38	조선시보	1928.02.16.	다니마치에 신설 허가를 마친 화장장 취소 청원(2)	(3)4
39	조선시보	1928.02.16.	화장장 취소문제로 지사에게 진정	(2)2
40	조선시보	1928.02.17.	화장장 문제로 재진정	(2)8

[표-31] 신문자료 목록(2)

번호	신문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면
41	조선시보	1928.02.18.	다니마치에 신설 허가를 마친 화장장 취소 청원(2)	(1)4
42	조선시보	1928.02.20.	화장장 위원회	(3)8
43	조선시보	1928.03.02.	화장장 설치 교육상 지장 없는지	(2)5
44	조선시보	1928.03.05.	무연무취와는 전혀 사실이 다르다	(3)3
45	조선시보	1928.03.07.	유연유취등 무조건은 믿을 수 없다	(3)2
46	조선시보	1928.03.13.	끝까지 체면론으로 일관하는 강경일파	(3)1
47	조선시보	1928.03.14.	부윤의 손 안에 있는 화장장 이전의 시행권	(3)4
48	조선시보	1928.03.18.	면목도 서고 요망도 포함해 화장장 이전 드디어 해결	(3)1
49	조선시보	1928.03.24.	이즈미사키 부윤 도청 방문	(2)4
50	조선시보	1928.04.24.	화장장 문제의 재연 신 부윤에게 진정 의견	(3)3
51	조선시보	1928.07.23.	아직 처치할수 없는 화장장 이전문제	(2)4
52	조선시보	1928.08.14.	3년 걸린 화장장 문제 현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드디어 원만히 해결하고 원안기결	(3)1
53	조선시보	1928.08.23.	화장장 공사 변경인가	(2)7
54	조선시보	1928.08.29.	화장장 화재 사체7구를 태우다	(3)4
55	조선시보	1929.01.22.	시험성적도 좋아 드디어 신청을 받는 부산 다니마치 화장장	(3)7
56	조선시보	1929.08.04.	부영 화장장	(3)4
57	조선시보	1929.10.22.	장례에 차를 부딪쳐 대난투가 벌어지다	(3)5
58	조선시보	1929.12.07.	조기와 화환에 묻힌 고귀한 두 명의 희생자 눈물도 생생한 유가족들	(3)3
59	조선시보	1929.12.12.	순직 소방수의 조 장례비 문제에서 부경찰서 소방조 의견 상위	(3)4
60	조선시보	1929.12.14.	화장장의 매수에2중 요건을 제출	(3)1
61	조선시보	1930.09.14.	부영 화장장 취급 변경	(3)9
62	조선시보	1932.03.21.	슈자쿠 경찰의(警察)장례의식 집행	(3)9
63	조선시보	1933.04.19.	화장장 인부가 사체의 금니와 뇌장	(3)4
64	조선시보	1933.07.22.	화장장 직원이 고압연소기 발명	(3)9
65	부산일보	1949.07.21.	火葬場(화장장)増設(증설)計劃(계획)	2
66	부산일보	1949.08.15.	거리의精神病(정신병)患者(환자)不日間(부일간)收容(수용)	2
67	부산일보	1950.01.24.	市民(시민)食水(식수)에危機(위기)!	2
68	부산일보	1950.05.03.	一齊(일제)照明(조명)協力(협력)을	2
69	부산일보	1950.06.15.	火葬(화장)?修理(수리)	2
70	부산일보	1951.02.14.	林野(임야)不法(부법)伐採(벌채)	2
71	부산일보	1951.04.03.	釜山市(부산시)綠花(녹화)산오리等(등)植樹(식수)에着手(착수)	2
72	부산일보	1951.06.24.	김상용씨永眠(영면)	2
73	부산일보	1951.08.15.	李(이)大統領(대통령)孤兒院(고아원)視察(시찰)	2
74	부산일보	1951.11.10.	꽃다발	2
75	부산일보	1952.02.13.	幸福山保育院(행복산보육원)美國救濟(미국구자)被露會(피로회)	2
76	부산일보	1952.06.28.	市民保健(시민보건)에도威脅(위협)	2
77	부산일보	1952.07.06.	娥媚洞(아미동)의墓地(묘지)槐亭(괴정)에移轉(이전)	2
78	부산일보	1952.08.06.	市民(시민)食水(식수)解決(해결)된다	2
79	부산일보	1952.12.12.	商品化(상품화)하는救濟品(구제품)	2
80	부산일보	1952.12.13.	金定守氏(금정수씨)喪配(상배)	2

[표-32] 신문자료 목록(3)

번호	신문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면
81	부산일보	1952.12.18.	存廢岐路(존폐기로)에 市立病院(시립병원)	2
82	부산일보	1953.05.20.	趙光植氏 遭外難	2
83	부산일보	1953.06.07.	長承浦에선九名이壓死	2
84	부산일보	1953.08.21.	市內 送水時間	2
85	부산일보	1953.08.26.	本社 裴記者 大夫人 老患 別世	2
86	부산일보	1953.09.26.	中央地區 一帶 給水事情 惡化	2
87	부산일보	1953.11.21.	食水事情 惡化	2
88	부산일보	1954.04.06.	慘死者 合同 葬儀式 嚴修	2
89	부산일보	1954.07.14.	南釜山,影島一帶에斷	2
90	부산일보	1954.09.25.	姜得榮氏 急逝	2
91	부산일보	1954.10.15.	釜山에師大垵地도 마련	2
92	부산일보	1955.01.09.	民願書類11件 議會서市에傳達	3
93	부산일보	1955.04.02.	釜山市內 一帶 十四萬本 植樹	2
94	부산일보	1955.04.21.	火葬場 四日間 休業	2
95	부산일보	1955.04.23.	釜山市內 家庭燈 隔日制	2
96	부산일보	1955.06.06.	隔離病舍 完全히有名無實	2
97	부산일보	1955.07.20.	동成分까지 섞인飲水	2
98	부산일보	1955.08.04.	阿片中毒者 退治에 큰曙光	3
99	부산일보	1956.02.27.	李德述 記者 遭內難	2
100	부산일보	1956.04.04.	計劃대로 된難民이 들住宅	3
101	부산일보	1956.04.26.	隔離病舍를新設	2
102	부산일보	1956.06.08.	억울한 매 맞고發狂한女人	3
103	부산일보	1956.06.26.	金錫寬氏의永訣式	2
104	부산일보	1956.09.22.	七名이自進治療를希望	2
105	부산일보	1956.11.28.	昨年度와 거의 같은12億線	3
106	부산일보	1956.11.30.	釜山市의共同施設 構想 典當舖·託兒園 各各 二個 増設	3
107	부산일보	1956.12.15.	이렇게는 될 수 없는가?	2
108	부산일보	1956.12.18.	北釜山 火葬場 開場	3
109	부산일보	1957.04.26.	廿八日 火葬場 休業	3
110	부산일보	1957.06.21.	峨嵋洞에도新設	3
111	부산일보	1957.11.11.	火葬幕에 비친 슬픈社會相	3
112	부산일보	1957.11.21.	隔離病舍 新築	3
113	부산일보	1957.12.01.	市有財産 大量 賣却	3
114	부산일보	1957.12.11.	堂甘洞 火葬場 十日에開場式	3
115	부산일보	1957.12.31.	저해로 넘어가는宿題들	3
116	부산일보	1958.01.04.	解壽院大淵에移轉	3
117	부산일보	1958.04.22.	비만 오면釜山市는如前물바다	3
118	부산일보	1958.08.13.	「죽음의 집」隔離病舍	3
119	부산일보	1958.08.25.	讀者차지	2
120	부산일보	1958.11.15.	백밀러	4

[표-33] 신문자료 목록(4)

번호	신문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면
121	부산일보	1958.12.06.	緊急動議!	4
122	부산일보	1958.12.24.	五六島	3
123	부산일보	1959.02.14.	不要된34個 洞舍는賣却	7
124	부산일보	1959.06.05.	市營의靈柩車	3
125	부산일보	1959.09.11.	西部救護病院 患者들이騷動	3
126	부산일보	1960.08.22.	[오륙도] 保健課의思考	3
127	부산일보	1960.08.24.	警備소홀한腦患收容所 防疫對策에異狀	7
128	부산일보	1960.08.28.	[五六島] 소독에도差別?	7
129	부산일보	1960.09.26.	[오륙도] 가짜공사?	3
130	부산일보	1960.10.13.	撤去는生計威脅	3
131	부산일보	1960.11.06.	五六島	7
132	부산일보	1960.11.10.	[오륙도]	3
133	부산일보	1960.12.09.	渴症 惡化一路의水道	7
134	부산일보	1960.12.10.	五六島	7
135	부산일보	1961.06.13.	水道물 날마다	2
136	부산일보	1961.06.16.	주택지의 양돈장 등月末까지撤去延期	2
137	부산일보	1961.07.23.	給水	3
138	부산일보	1961.09.17.	沙下는發展될 수 있다	3
139	부산일보	1968.03.19.	아미동 구사로 옮겨	7
140	부산일보	1969.02.08.	아미동~감천 도로확장 착수	8
141	부산일보	1970.09.09.	[사진]도로계획이 확정되지않은 아미동 산복도로	8
142	부산일보	1972.11.20.	[사진]◇주민의 숙원인 감천2동과 아미동간의 확장된 도로◇	8
143	부산일보	1974.02.12.	괴정·아미동 공동묘지 택지·녹지대 조성	8
144	부산일보	1974.04.22.	아미동고지대 급수공사	8
145	부산일보	1974.07.12.	아미동 고지대 급수공사 완공	7
146	부산일보	1975.07.19.	목타는 아미동 고지대	8
147	부산일보	1977.02.05.	대터터널~아미동 고지대	8
148	부산일보	1986.04.15.	"大新산복로 개설을"	8
149	부산일보	1986.05.13.	釜山醫大·부속병원 토곡에移轉	11
150	부산일보	1986.05.13.	釜山の료계 새跳躍臺	10
151	부산일보	1986.08.05.	[水災위험지 장마철 맞아 살펴본 실태]⑦石築붕괴 잣아도對策감감	8
152	부산일보	1987.01.15.	[새살림새설계(5)]각區의 올해 역점사업	10
153	부산일보	1987.09.02.	無許可건물 너무 는다	10
154	부산일보	1987.12.18.	[太平洋시대釜山の 좌표]〈12〉赤字벗어날 건전財源확립대책 마련을	12
155	부산일보	1988.01.26.	울事業 百8件확정千9百58億들여對民사업 우선-부산시	14
156	부산일보	1988.03.16.	九德山기슭 계단식耕作地9萬5千㎡택지로 만들어주오	8
157	부산일보	1988.09.13.	주택境界모호...「이웃是非」찾아	14
158	부산일보	1988.12.24.	[深層취재]豊饒속 빈곤지대...따뜻한人心서서히「증발」	5
159	부산일보	1989.11.06.	釜山시영賃貸아파트	7
160	부산일보	1989.11.29.	주거환경 개선지역 내년분13곳 곧 선정	7

[표-34] 신문자료 목록(5)

번호	신문명	발행일자	기사제목	면
161	부산일보	1990.05.04.	달동네360세대「50년동지」잃을판	15
162	부산일보	1990.11.13.	아미국교~감천고개도로	13
163	부산일보	1991.01.08.	산복도로7곳 개설	17
164	부산일보	1991.05.14.	再開發정책混線...서러운「달동네」	9
165	부산일보	1991.06.03.	빌라신축공사 인한 주민 재해대책 호소	16
166	부산일보	1991.07.30.	시영 영구아파트 미분양·전매·轉貸	18
167	부산일보	1992.04.14.	담장붕괴...주민 대피 소동	-
168	부산일보	1992.06.23.	교통사고·체증 부채질 아미파출소앞 사거리 신호등 없어	-
169	부산일보	1994.07.05.	富民山시민공원 개발된다	20
170	부산일보	1994.07.06.	高지대食水전쟁	22
171	부산일보	1994.10.03.	민간주도 재개발 첫 추진	26
172	부산일보	1995.08.10.	시내버스13개 노선 조정	29
173	부산일보	1995.10.18.	峨嵋도서관 세운다	27
174	부산일보	1996.02.28.	四구청 야간駐車공간 확충	27
175	부산일보	1996.07.11.	주거환경개선지구 부산시9곳 추가지정	13
176	부산일보	1996.09.17.	〈독자광장〉도로는 시민공유재산,마구잡이 주차 삼가야	25
177	부산일보	1997.03.05.	사하구청,혼용했던 지명 하나로 통일	27
178	부산일보	1997.08.09.	부산시,주거환경개선지구10곳46만평방미터 지정	13
179	부산일보	1998.10.29.	시,노숙자 쉼터 입퇴소 자유허용 복지시설 집단수용	21
180	부산일보	1999.04.12.	건립 마찰 중증노숙자 수용시설 삼복의 집 신축'허공속으로'	24
181	국제신보	1955.01.26.	火葬場을移轉?	-
182	국제신보	1957.09.16.	住民들이反對	-
183	국제신보	1958.12.30.	드디어改編斷行	-
184	국제신보	1959.01.19.	움직일兒童 三千名	-
185	국제신보	1963.03.20.	高地에給水施設	-
186	국제신보	1966.05.04.	行旅病患者收容所 建立	-
187	국제신보	1967.09.01.	社會福祉館을建立	-
188	국제신보	1969.01.25.	사회복지관年內에 완공	-
189	국제신보	1970.05.05.	어린이도서관5월5일 개막	-
190	국제신보	1971.02.22.	아동복지시설 교사22명 모집	-
191	국제신보	1971.05.07.	집나간어린이 상담토록	-
192	국제신보	1975.08.26.	年中행사 고지대食水難	-
193	국제신보	1975.08.26.	食水難 宿願이 풀린다	-
194	국제신문	1975.08.29.	1시간 가라앉혀 쓰도록	-
195	국제신문	1978.09.12.	情神요양원 증축	-
196	국제신문	1992.05.20.	住居개선지구 추가 지정	-

3. 구술기록

Ⅰ 개요

- ‘송□□, 박□□, 김□□, 최**, 김○○, 조□□, 신□□, 문□□, 이○○, 이□□’
구술대상자 총11명의 구술 음성자료(11), 녹취록(11), 동영상(6)로 총 28개 자료 수집

Ⅰ 구술자료의 목록

[표-35] 구술자료 목록

번호	유형	파일명	생산자	생산년월일	비고
1	녹음자료	2021-busan-1-김○○	차철욱	2020.09.26.	
2	녹음자료	2021-busan-1-김□□	차철욱	2020.10.10.	
3	녹음자료	2021-busan-1-박□□	차철욱	2020.09.08.	
4	녹음자료	2021-busan-1-송□□	차철욱	2020.09.04.	
5	녹음자료	2021-busan-1-최○○	차철욱	2020.11.20.	
6	녹음자료	2021-busan-1-조□□	차철욱	2020.12.06.	
7	녹음자료	2021-busan-1-허분희	차철욱	2020.07.31.	
8	녹음자료	2021-busan-1-문□□	차철욱	2009.09.22.	기존자료 수집
9	녹음자료	2021-busan-1-신□□	차철욱	2009.10.26.	기존자료 수집
10	녹음자료	2021-busan-1-이□□	차철욱	2010.02.01.	기존자료 수집
11	녹음자료	2021-busan-1-이○○	차철욱	2010.02.25.	기존자료 수집
12	녹취록	2021-busan-2-김○○	김민화	2021.02.03.	
13	녹취록	2021-busan-2-김□□	신정윤	2021.02.03.	
14	녹취록	2021-busan-2-박□□	김민화	2021.02.04.	
15	녹취록	2021-busan-2-송□□	신정윤	2021.02.04.	
16	녹취록	2021-busan-2-최○○	김민화	2021.02.05.	
17	녹취록	2021-busan-2-조□□	신정윤	2021.02.04.	
18	녹취록	2021-busan-2-허분희	김민화	2021.02.13.	
19	녹취록	2021-busan-2-문□□	김민화	2021.03.25.	
20	녹취록	2021-busan-2-신□□	김민화	2021.04.06.	
21	녹취록	2021-busan-2-이□□	김민화	2021.02.04.	
22	녹취록	2021-busan-2-이○○	김민화	2021.01.27.	
23	동영상	2021-busan-3-김□□	차철욱	2020.10.10.	
24	동영상	2021-busan-3-박□□	차철욱	2020.09.08.	
25	동영상	2021-busan-3-송□□	차철욱	2020.09.04.	
26	동영상	2021-busan-3-조□□	차철욱	2020.12.06.	
27	동영상	2021-busan-3-허분희	차철욱	2020.07.31.	
28	동영상	2021-busan-3-이○○	차철욱	2010.02.25.	기존자료 수집

4. 비석탁본

4.1. 사전 작업 및 대상 선정

- 작업 인력은 탁본 기술을 가진 부산대학교 사학과 출신의 4명을 전문가활용 형태로 섭외하였고, 이들은 강사급 작업담당자 2명과 학부생보조원 2명으로 구성
- 비석의 탁본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므로 지나치게 덥거나 춥지 않은 10월을 본격적인 작업 기간으로 설정하였고, 그에 앞서 9월 19일에 참여연구원 송혜영 및 작업담당자 2인(사학과 정영현, 한성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사전답사를 실시
- 사전답사를 통해 전체적인 위치를 확인 후 작업 대상을 정하였으며 대상 선정 과정에서 비석마을탁본 집(부산창조재단, 2015), 아미비석문화마을 비석현황조사 용역 보고서(부산광역시 서구·한국문화연구원, 2019),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 플랜 수립[아미동 비석마을 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 2020) 등 기존의 보고서가 활용
- 작업 대상은 1차적으로 20건 정도를 선정하고 대략적인 우선순위를 매겼으며, 현장답사를 통해 작업이 힘들거나 마모가 심한 비석은 제외하였고 선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비석면이 비교적 깨끗하여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 ② 문자가 많이 적혀 판독할 만한 것
 - ③ 시기가 앞서거나 확인 가능한 인명 등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
 - ④ 대성사에 위치한 제목탑(題目塔)

4.2. 탁본 작업

Ⅰ 작업진행

- 작업인력 중 작업자 1명과 보조원 1명이 1개의 조를 이루어 총 2개 조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고, 한편으로 참여연구원은 현장에서 작업 지휘를 하는 동시에 현지 주민에게 작업 내용을 고지하는 역할을 수행
- 탁본 작업은 매일 오전 10시 경부터 일광이 남아 있는 오후 4~5시경까지 진행되었고, 대상 지역은 대체로 능선의 북쪽 사면에 위치하므로 별이 잘 드는 시간은 비교적 짧은 편

[표-36] 탁본 작업일정

일자(요일)	작업 내용
10월 11일(일)	아미로 42-1(3면), 아미로 42-2(3면)
10월 17일(토)	아미로 54-12(3건), 아미로24번길 8, 아미로24번길 6, 아미로16번길 11~12, 아미로30번길 6~7, 아미로30번길 14~11
10월 24일(토)	아미로34번길 11-1, 아미로34번길 11-2, 까치고개로152번길 16~15, 아미로12번길 2~15, 옥천로 141-22(대성사, 2면)
계	총 비석 15개, 탁본 20면

■ 작업방식

- 탁본의 일반적인 방식을 따랐으며 우선 비면을 정돈하고, 종이를 고정한 후, 물을 부려 종이를 접착시키고, 솔로 두드려 요철을 만들고, 어느 정도 건조가 되었을 때 좁쌀주머니로 먹을 입혔으며, 건조 후 비면에서 떼어낸 작품은 넘버링을 하고 신문지에 싸서 말아서 지통에 넣어 이동함
- 비석들이 주거지 구조물의 일부를 이루거나 주거지 주변에 위치하므로 최대한 거주민에게 양해를 얻은 후에 작업을 진행함

[표-37] 비석탁본자료 목록

번호	지점번호	위치	비명	면수
1	002	아미로 42	法輪院轉譽智見正道居士 碑	3
2	004	아미로 42	遍照院大定郎得居士	3
3	017	아미로 54-12	金滿家靈標	1
4	018	아미로 54-12	모과(木瓜) 문양 부조 석물	1
5	019	아미로 54-12	明治四十二年 碑	1
6	084	아미로34번길 11	安川 碑	1
7	085	아미로34번길 11-1	明治二十三年八月 碑	1
8	107	아미로30번길 6-7	岡庸一 建立 석물	1
9	110	아미로24번길 8	嘉永四辛亥年 碑	1
10	120	아미로24번길 6	釋正量 高知縣森岡狼馬 碑	1
11	123	아미로30번길 14-11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 碑	1
12	141	아미로16번길 11-12	妙法賢○ 碑	1
13	198	아미로12번길 2-15	宝歷十年庚辰二月二十一日 碑	1
14	213	옥천로 141-22	아미산 대성사 소장 제목탑(題目塔)	2
15	252	까치고개로152번길 16-15	十二月十五日歿 碑	1

4.3. 작업 내역 및 해제

- 대부분의 비석은 기본적으로 일본 에도시대 묘제를 따르고 있으며, 이른바 묘석(墓石)이라고 불림
- 글씨가 새겨지는 부분은 탁석(棹石)이라 하며, 탁석이 3층의 대석(台石) 위에 올라간 형태를 가짐
- 묘석 전면에는 공양물을 놓는 대(物置台), 향로대(香立て), 물을 담을 수 있는 수발(水鉢)과 꽃을 꽂을 수 있는 꽃꽂이대(花立て) 등의 석물이 두어지곤 하며, 그 외에 불탑이나 석등 등이 놓이고 주변에 담장을 두르는 경우가 다수
- 이상에서 글씨가 새겨지는 부재는 탁석이며, 대개 사각기둥 형태를 하고 있으며, 전면 뿐 아니라 좌·우면을 합쳐 3면, 혹은 4면 모두에 글씨가 새겨지기도 하나 현재는 주거지의 부재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3면 모두 탁본작업이 가능한 비석은 매우 적은 편이며 이번 작업 중 1건은 수발의 글씨를 탁본한 것도 있음
- 다음은 탁본 작업을 한 15개의 비석에 대한 해설로서,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 등재 마스터 플랜 수립[아미동 비석마을 조사보고서](부산광역시, 2020)에서 제안된 비석조사 지도자료를 토대로 지점번호를 부여하였음

① 法輪院轉譽智見正居士 碑

주소: 아미로 42

비문:

- 정면: 法輪院轉譽智見正居士 西光院寶譽蓮池妙薰善女
- 향좌측면: 明治二十四年九月二十六日 俗名古谷〇〇
- 향우측면: 明治二十三年一月十一日 俗名古谷茂左衛門

해설: 明治(1867~1912) 시기 사망한 부부의 묘비이다. 남편은 나고야 모자에몬(名古屋茂左衛門)이며 부인은 이름은 ‘ムメ’ 혹은 ‘ムン’, ‘ムシ’ 등으로 보이거나 명확하지 않다. 남편은 1890년(명치 23) 1월 11일, 부인은 이듬해인 1891년(명치 24)년 9월 26일에 사망하였다. ‘法輪院 轉譽智見正居士’, ‘西光院 寶譽蓮池妙薰善女’은 부부의 법명이다.

② 遍照院大定郎得居士 碑

주소: 아미로 42

비문: 遍照院大定郎得居士碑

- 정면: 遍照院大定郎得居士
- 향좌측면: 遍大正二年八月十二日 俗名 山中利次 行年廿八才
- 향우측면: 大正四年八月建立

해설: 1913년(대정 2) 8월 12일에 야마나카 도시쓰구(山中利次)의 묘비이다. ‘遍照院 大定郎得居士’는 그의 법명이다. ‘행년(行年) 28세’라고 되어 있는데, 행년은 불문에 들어 수행한 기간을 뜻하는 말로, 향년(享年)과는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사후 화장되었다가 2년 후인 1915년 8월에 묘에 묻힌 것으로 보인다.

③ 金満家靈標

주소: 아미로 54-12

비문: 金満家靈標

- 釋德善信士 俗名 金満菊次郎 昭和六年十月八日 行年七十四
- 釋道満信女 全妻 セキ 明治廿六年八月廿三日 全 三十二才
- 釋圓成位 全〇 〇太郎 大正四年八月一日 全 十九才
- 釋義章信士 全久吉次男 義夫 昭和十五年八月十三日 全 二十一才
- 釋久遠信士 全 久吉 昭和十七年六月十八日 全 五十三才

해설: 가네미쓰(金満) 집안 5명의 가족 묘비이다. 각자의 법명 아래에 아버지 기쿠지로(菊次郎), 어머니 세키(セキ), 아들(추정) ○타로(〇太郎), 손자 요시오(義夫), 아들 히사요시(久吉)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 아래 각자의 몰년과 행년이 적혀 있다. 부모 이하는 부자 순서가 역전되더라도 몰년 순에 따라 기재되어 있다. 모친이 먼저 사망하고 30여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하면서 부모를 합장하고, 이후 그 자손들은 죽은 순서로 매장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타로는 성년이 되기 전에 죽어 ‘信士’의 칭호를 얻지 못했으며, 반면 손자 요시오는 21세에 죽어 ‘信士’의 칭호를 얻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가족 구성원의 행년과 향년이 같다는 가정 하에 각자의 생년을 계산한 것이다. 이 계산법으로는 3번째 인물인 ○타로가 이름은 장남 같지만 형제로 보이는 히사요시보다 생년이 느리다. 이것은 행년과 향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거나 혹은 형제 서열과 상관없이 ‘太郎’이라는 이름을 쓴 경우 둘 중 하나로 보인다.

	관계	몰년	행년	생년(추정)
기쿠지로	부	1931	74	1857
세키	모	1893	32	1861
○타로	아들(추정)	1915	19	1896
요시오	손자	1940	21	1919
히사요시	아들	1942	53	1889

④ 모과문양 부조 석물

주소: 아미로 54-12

해설: 모과문양(木瓜紋)의 부조가 새겨진 석물이다. 기존의 자료에서는 꽃문양(연화문)으로 인식하였으나, ‘동그라미 속에 모과(丸に木瓜)’ 문양에 가깝다. 모과문양은 비교적 흔한 일본의 가문(家紋)이다. 모과문 아래에는 안상(眼象)과 비슷한 형태의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형태로 보아 석물인 수발(水鉢)로 추정된다.

⑤ 明治四十二年 碑

주소: 아미로 54-12

비문: 明治四十二年 五月二十七日沒

해설: 드러난 부분은 비석의 후면이나 측면으로 보이며, 1909년(명치 42) 5월 27일에 죽었다는 무덤 주인의 이름은 전면이 매몰되어 알 수 없다. 전면에 시멘트가 발라져 글씨가 약간 훼손되어 있다.

⑥ 安川 碑

주소: 아미로34번길 11

비문:

安川 新〇

ツ〇

해설: 야스카와(安川) 가문의 부부묘의 비석으로 보인다. 남편의 이름은 '新〇', 부인의 이름은 'ツ〇'인데 'ツキ'일 확률이 높다.

⑦ 明治二十三年八月 碑

주소: 아미로34번길 11

비문: 明治二十三年八月

해설: 1890년(명치 23) 8월에 사망한 자의 비석 혹은 그 시기에 세워진 비석으로 보인다.

⑧ 岡庸一 建立 석물

주소: 아미로30번길 6~7

비문: 岡庸一 建立

해설: 가스통 아래에 있는 석물이다. 비석의 주인은 알 수 없지만 오카 요이치(岡庸一)가 건립한 무덤이며, 구조물에 흠이 패인 것으로 보아 무덤 앞에 두는 수발(水鉢)이라는 석물이다. 오카 요이치는 마산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관료 출신의 실업가이다. 그는 와카야마현(和歌山縣) 평민 출신이며 센슈 대학(專修大學)과 와세다 대학(早稻田大學)에서 수학하였다. 1902년 부산상업회의소 서무조사와 주임으로 조선으로 건너왔고, 1903년에 『최신한국사정(最新韓國事情)』을 작성하였다. 1905년 원산상업회의소 서기장으로 전임되었다가 이후 《원산일보(元山日報)》 사장에 취임했다. 1912년부터 3년에 걸쳐 마산반창회 대표로서 인근학교에 비품을 기부하여 총독부로부터 목배(木杯) 포상을 받았다. 1917년 마산 지역 신문인 《南鮮日報(경성일보)》의 사주를 맡기도 하였다.¹⁶⁾ 『재조선내지인 신사명감』 131권에 이름이 올라 있다. 그러므로 무덤의 주인은 오카 요이치와 관련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민가의 LP가스통 받침으로 사용되고 있다.

⑨ 嘉永四辛亥年 碑

주소: 아미로24번길 8

비문: 嘉永四辛亥年 七月 十七日

해설: 1851년(가영 4년, 신해)년 7월 17일에 사망한, 혹은 그 때에 건립된 묘비이다. 1876년 개항으로 전관거류지(조계지)가 설정되기 이전 초량왜관 옆 북병산에 있었다가 1905년 무렵 아미동으로 옮겨진 묘비일 가능성이 있다. '아기보살'이라는 명칭의 점집 앞 계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비문 중 '七月 十七日' 부분은 드러난 면이 좁아 탁본을 뜨지 못하였다.

⑩ 釋正量 高知縣森岡狼馬 碑

주소: 아미로24번길 6

비문:

釋正量 高知縣森岡狼馬

江傳助

〇武助

徳次郎

嘉市

次郎

○郎

해설: 놀이터에 올라가는 계단을 이루는 비석이다. 비면이 많은 글자가 노출되어 있거나 가려진 부분이 많아서 판독된 글자만으로는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다. 판독된 내용은 모두 인명이므로 보인다. 첫 줄은 육안으로는 판별이 가능하지만, 드러난 면이 좁은 관계로 '釋正量 高知縣森' 부분의 탁본은 따지 못했다. 유일하게 온전히 판독되는 인물은 법명이 정량(正量)이고 고치현(高知縣) 출신이며 모리오카 로마(森岡狼馬)라는 희귀한 이름을 가진 인물이다. '고치현'이라는 행정구역 명칭으로 보아 1871년 폐번치현(廢藩置縣) 이후에 만들어진 비석임을 알 수 있다.

⑪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 碑

주소: 아미로30번길 14~11

비문: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贈○

明治四十二年十月二十日歸幽 敬○○

해설: 1909년(명치 42)에 죽은[歸幽] 사람의 비석으로 보인다. 현재 비석은 주거지 진입로 바닥에 매립되어 있으며 파란색 페인트로 덮여 탁본 작업에 적합한 편은 아니다.

⑫ 妙法賢○ 碑

주소: 아미로16번길 11~12

비문: 妙法 賢○

해설: '妙法 賢○'이라는 법명을 가진 이의 비석으로 보인다. 4번째 글자는 '光' 혹은 '尙', '常' 등으로 추정된다.

⑬ 宝歷十年庚辰二月二十一日 碑

주소: 아미로12번길 2-15

비문: 宝歷十年庚辰二月二十一日

해설: 1760년(보력10, 경진) 2월 21일이라고 적힌 비석이다. 1760년은 영조 36년에 해당하며, 비석마을에서 현재까지 발견된 비석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의 초량왜관에서 죽은 사람의 묘로 복병산 묘지에 있다가 1905년에 이전된 것으로 보인다. 표면에 잔 요철이 많기 때문에 탁본보다는 사진을 찍는 편이 판독하기 편하다.

⑭ 아미산 대성사 소장 제목탑

주소: 옥천로 141-22

비문:

- 정면: 南無妙法蓮華經

- 향우측면: 本山院 妙田太福日功 居士

- 향좌측면: 事寂院 妙光日常 大師

- 음기: 大正八年 七月 三十日 山田七太

해설: '本山院 妙田太福日功'과 '事寂院 妙光日常'을 법명으로 가진 부부를 기리는 제목탑(題目塔)이다. 제목탑은 일본의 묘제에서 진혼을 위해 세우는 공양탑(供養塔)의 일종이다. 1919년(대정8) 7월 30일에 야마다 시치타(山田七太)에 의해 건립되었다. 야마다는 1916년1월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합자회사 부산음료사(釜山飲料社)의 지분 전부를 기리오카 긴조(桐岡金三)에게 양도하고 퇴사한 기록이 남아 있으므로¹⁶⁾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실업가로 보인다. 이 공양탑은 현재 아미산 대성사에 소장 중이다. 대좌까지 2미터를 훨씬 넘는, 아미동 비석마을 일대에서 크기가 가장 큰 비석이며 보존상태도 양호한 편이다.

⑮ 十二月十五日歿 碑

주소: 까치고개로152번길 16~15

비문:

十二月十五日歿

○○十年十一月十五日 瀧尻儀作 建之

해설: 연도는 미상이나 12월 15일에 죽은 자를 위해 ○○(연호 미상) 10년 11월 15일에 다키지리 기사쿠(瀧尻儀作)가 세운 비석이다. 연호 부분은 인위적으로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1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DB 『한국근대인물자료』 해당 항목 및 『조선총독부 관보』 제172, 578, 748호 참조.

1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DB 『조선총독부 관보』 제1045호 상엽등기.

5. 현장실측

5.1. 실측도면자료

[표-38] 실측도면자료 목록(1)

번호	핵심유산명	도면 파일명	파일유형	2D/3D
1	비석집터	01_비석집터_20210113_스케치업	skp	3D
2	비석주택터	01_비석집터_20210113_스케치업_캡처_01	jpg	3D
3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	skp	2D
4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_캡처_01	jpg	2D
5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_캡처_02	jpg	2D
6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_캡처_03	jpg	3D
7	계단식 묘지터군	05_계단식 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	skp	2D
8	계단식 묘지터군	05_계단식 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_캡처_01	jpg	2D
9	계단식 묘지터군	05_계단식 묘지터군_20210221_스케치업_캡처_02	jpg	2D
10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00표지	jpg	2D
11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01배치도	jpg	2D
12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02평면도_1층_03입면도_동측	jpg	2D
13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03입면도_남측	jpg	2D
14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04단면도_AA`_BB`	jpg	2D
15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	pdf	2D
16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실측도면_전체	dwg	2D
17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00표지	jpg	2D
18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01배치도	jpg	2D
19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02평면도_1층	jpg	2D
20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02평면도_지붕	jpg	2D
21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03입면도	jpg	2D
22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	pdf	2D
23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실측도면_전체	dwg	2D
24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0표지	jpg	2D
25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1배치도	jpg	2D
26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2평면도_1층	jpg	2D
27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2평면도_옥상	jpg	2D
28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3입면도_01정면	jpg	2D
29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03입면도_02좌측	jpg	2D
30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	pdf	2D
31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실측도면_전체	dwg	2D

[표-39] 실측도면자료 목록(2)

번호	핵심유산명	도면 파일명	파일유형	2D/3D
3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0표지	jpg	2D
3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1배치도	jpg	2D
3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2평면도_1층	jpg	2D
35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2평면도_2층.jpg	jpg	2D
36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2평면도_옥상층	jpg	2D
37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3입면도_01남측면도	jpg	2D
38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3입면도_02동측면도	jpg	2D
39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_04단면도_AA'단면도	pdf	2D
4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3_실측도면	dwg	2D

5.2. 현장기록사진

[표-40] 현장기록사진(1)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내부_001	20190919	jpg
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1	20190919	jpg
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2	20190919	jpg
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3	20190919	jpg
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4	20190919	jpg
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5	20190919	jpg
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6	20190919	jpg
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7	20190919	jpg
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디테일_008	20190919	jpg
1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외부_001	20190919	jpg
1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외부_002	20190919	jpg
1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외부_003	20190919	jpg
1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0919_외부_004	20190919	jpg
1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부엌_001	20191004	jpg
1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부엌_002	20191004	jpg
1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1	20191004	jpg
1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2	20191004	jpg
1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3	20191004	jpg
1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4	20191004	jpg
2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5	20191004	jpg
2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6	20191004	jpg
2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내부공간_지붕현황_007	20191004	jpg
2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1	20191004	jpg
2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2	20191004	jpg
2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3	20191004	jpg
2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4	20191004	jpg
2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5	20191004	jpg
2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6	20191004	jpg
2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재료상세_007	20191004	jpg
3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정면_001	20191004	jpg
3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1	20191004	jpg
3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2	20191004	jpg
3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3	20191004	jpg
3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4	20191004	jpg
3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5	20191004	jpg
3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6	20191004	jpg
3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7	20191004	jpg
3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4_지붕현황_008	20191004	jpg
3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08_외부_001	20191008	jpg
4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1	20191012	jpg
4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2	20191012	jpg
4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3	20191012	jpg
4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4	20191012	jpg
4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5	20191012	jpg
4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6	20191012	jpg

[표-41] 현장기록사진(2)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4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7	20191012	jpg
4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8	20191012	jpg
4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부엌_009	20191012	jpg
4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안방_001	20191012	jpg
5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내부공간_안방_002	20191012	jpg
5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1	20191012	jpg
5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2	20191012	jpg
5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3	20191012	jpg
5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4	20191012	jpg
5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5	20191012	jpg
5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6	20191012	jpg
5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7	20191012	jpg
5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재료상세_008	20191012	jpg
5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정면_001	20191012	jpg
6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정면_002	20191012	jpg
6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정면_003	20191012	jpg
6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1	20191012	jpg
63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2	20191012	jpg
64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3	20191012	jpg
65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4	20191012	jpg
66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5	20191012	jpg
67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6	20191012	jpg
68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7	20191012	jpg
69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12_지붕현황_008	20191012	jpg
70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28_디테일_001	20191028	jpg
71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28_디테일_002	20191028	jpg
72	비석주택	01_비석주택_20191028_디테일_003	20191028	jpg
73	축대1	02_축대1(호박돌)		jpg
74	축대2	02_축대2(정방형)		jpg
75	축대2	03_축대2		jpg
76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04	20210208	jpg
77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05	20210208	jpg
78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06	20210208	jpg
79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1	20210208	jpg
80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2	20210208	jpg
81	축대2	03_축대2_20210208_외부_03	20210208	jpg
82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1	20210208	jpg
83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2	20210208	jpg
84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3	20210208	jpg
85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4	20210208	jpg
86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5	20210208	jpg
87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6	20210208	jpg
88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7	20210208	jpg
89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8	20210208	jpg
90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09	20210208	jpg

[표-45] 현장기록사진(6)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22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2	20210218	jpg
227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3	20210218	jpg
228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4	20210218	jpg
229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5	20210218	jpg
230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6	20210218	jpg
231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7	20210218	jpg
232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8	20210218	jpg
233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19	20210218	jpg
234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0	20210218	jpg
235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1	20210218	jpg
23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2	20210218	jpg
237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3	20210218	jpg
238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4	20210218	jpg
239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5	20210218	jpg
240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6	20210218	jpg
241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7	20210218	jpg
242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8	20210218	jpg
243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29	20210218	jpg
244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30	20210218	jpg
245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31	20210218	jpg
24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132	20210218	jpg
247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1	20201015	jpg
248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2	20201015	jpg
249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3	20201015	jpg
250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4	20201015	jpg
251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5	20201015	jpg
252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6	20201015	jpg
253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7	20201015	jpg
254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8	20201015	jpg
255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09	20201015	jpg
256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0	20201015	jpg
257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1	20201015	jpg
258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2	20201015	jpg
259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3	20201015	jpg
260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4	20201015	jpg
261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5	20201015	jpg
262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내부_016	20201015	jpg
263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디테일_001	20201015	jpg
264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디테일_002	20201015	jpg
265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디테일_003	20201015	jpg
266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디테일_004	20201015	jpg
267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외부_001	20201015	jpg
268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외부_002	20201015	jpg
269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외부_003	20201015	jpg
270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외부_004	20201015	jpg

[표-46] 현장기록사진(7)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271	아기보살집	06_아기보살집_20201015_외부_005	20201015	jpg
272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08_디테일_001	20201008	jpg
273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08_디테일_002	20201008	jpg
274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08_디테일_003	20201008	jpg
275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08_외부_001	20201008	jpg
276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08_외부_002	20201008	jpg
277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2_디테_001	20201012	jpg
278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디테일_002	20201015	jpg
279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디테일_003	20201015	jpg
280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디테일_004	20201015	jpg
281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디테일_005	20201015	jpg
282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1	20201015	jpg
283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2	20201015	jpg
284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3	20201015	jpg
285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4	20201015	jpg
286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5	20201015	jpg
287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외부_006	20201015	jpg
288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전경_001	20201015	jpg
289	비석기단집	07_비석기단집_20201015_전경_002	20201015	jpg
290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1	20201106	jpg
291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2	20201106	jpg
292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3	20201106	jpg
293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4	20201106	jpg
294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5	20201106	jpg
295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6	20201106	jpg
296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7	20201106	jpg
297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8	20201106	jpg
298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내부_009	20201106	jpg
299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디테일_001	20201106	jpg
300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디테일_002	20201106	jpg
301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디테일_003	20201106	jpg
302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디테일_004	20201106	jpg
303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1	20201106	jpg
304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2	20201106	jpg
305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3	20201106	jpg
306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4	20201106	jpg
307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5	20201106	jpg
308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6	20201106	jpg
309	바람구름전망대	08_바람구름전망대_20201106_외부_007	20201106	jpg
31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1	20200720	jpg
311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2	20200720	jpg
31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3	20200720	jpg
31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4	20200720	jpg
31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5	20200720	jpg
315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내부_06	20200720	jpg

[표-47] 현장기록사진(8)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316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1	20200720	jpg
317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2	20200720	jpg
318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3	20200720	jpg
319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4	20200720	jpg
32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5	20200720	jpg
321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6	20200720	jpg
32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7	20200720	jpg
32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디테일_08	20200720	jpg
32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1	20200720	jpg
325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2	20200720	jpg
326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3	20200720	jpg
327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4	20200720	jpg
328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5	20200720	jpg
329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6	20200720	jpg
33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7	20200720	jpg
331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8	20200720	jpg
33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720_외부_09	20200720	jpg
33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13_외부_10	20200813	jpg
33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1016_디테일_01	20201016	jpg
335	충천사	10_충천사_19040000_전경	1904	jpg
336	충천사불상	10_충천사불상_20100000_전경_날짜미상	2010	jpg
337	충천사불상	10_충천사불상_20150218_뒷면	20150218	jpg
338	충천사불상	10_충천사불상_20150218_전면	20150218	jpg
339	충천사불상	10_충천사불상_20201015_전경	20201015	jpg
340	충천사참회비	10_충천사참회비_20140715_아미동_최초	20140715	jpg
341	충천사참회비	10_충천사참회비_20150617_초량서중학교후문앞	20150617	jpg
342	충천사참회비	10_충천사참회비_20170720_아미동_다시세움.jfif	20170720	jpg
343	최은령	10_최은령_2018_ 옛 부산 충천사지(總泉寺址)에 남겨진 불상.pdf	2018	.pdf
344	용왕당	11_용왕당_20160616_디테일_001	20160616	jpg
345	용왕당	11_용왕당_20160616_디테일_002	20160616	jpg
346	용왕당	11_용왕당_20160616_전경_001	20160616	jpg
347	용왕당	11_용왕당_20160616_전경_002	20160616	jpg
348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1	20180830	jpg
349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2	20180830	jpg
350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3	20180830	jpg
351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4	20180830	jpg
352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5	20180830	jpg
353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6	20180830	jpg
354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7	20180830	jpg
355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디테일_008	20180830	jpg
356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전경_001	20180830	jpg
357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전경_002	20180830	jpg
358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전경_003	20180830	jpg
359	용왕당	11_용왕당_20180830_전경_004	20180830	jpg
360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1	20200813	jpg

[표-48] 현장기록사진(9)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361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2	20200813	jpg
362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3	20200813	jpg
363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4	20200813	jpg
364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5	20200813	jpg
365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6	20200813	jpg
366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7	20200813	jpg
367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8	20200813	jpg
368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09	20200813	jpg
369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0	20200813	jpg
370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1	20200813	jpg
371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2	20200813	jpg
372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3	20200813	jpg
373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4	20200813	jpg
374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5	20200813	jpg
375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6	20200813	jpg
376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7	20200813	jpg
377	용왕당	11_용왕당_20200813_디테일_018	20200813	jpg
378	용왕당	11_용왕당_20201015_전경_001	20201015	jpg

5.3. 현장기록영상

[표-49] 현장기록영상 목록

번호	핵심유산명	파일명	생산년월일	파일유형
1	오오이케묘지터군	04_오오이케묘지터군_20210208_외부_01	20210208	mp4
2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1	20210218	mp4
3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2	20210218	mp4
4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3	20210218	mp4
5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4	20210218	mp4
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5	20210218	mp4
7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6	20210218	mp4
8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7	20210218	mp4
9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8	20210218	mp4
10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09	20210218	mp4
11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0	20210218	mp4
12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1	20210218	mp4
13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2	20210218	mp4
14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3	20210218	mp4
15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4	20210218	mp4
1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5	20210218	mp4
17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6	20210218	mp4
18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7	20210218	mp4
19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8	20210218	.MOV
20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19	20210218	.MOV
21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0	20210218	.MOV
22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1	20210218	.MOV
23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2	20210218	.MOV
24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3	20210218	.MOV
25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4	20210218	.MOV
26	계단식묘지터군	05_계단식묘지터군_20210218_외부_025	20210218	.MOV
27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1	20200804	mp4
28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2	20200804	mp4
29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3	20200804	mp4
3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4	20200804	mp4
31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5	20200804	mp4
3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6	20200804	mp4
3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7	20200804	mp4
3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8	20200804	mp4
3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내부_009	20200804	mp4
36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1	20200804	mp4
37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2	20200804	mp4
38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3	20200804	mp4
39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4	20200804	mp4
40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5	20200804	mp4
41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6	20200804	mp4
42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7	20200804	mp4
43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8	20200804	mp4
44	은천교회	09_은천교회_20200804_외부_009	20200804	mp4